

八灌法

팔관법 진리공과

태을핵랑군

소개글

증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여덟 갈래 길!

목차

| | | |
|----|----------------|-----|
| 1 | 팔관법 개요 | 5 |
| 2 | 팔관법 진리공과 상제관1 | 55 |
| 3 | 팔관법 진리공과 상제관2 | 68 |
| 4 | 팔관법 진리공과 상제관3 | 81 |
| 5 | 팔관법 진리공과 우주관1 | 84 |
| 6 | 팔관법 진리공과 우주관2 | 98 |
| 7 | 팔관법 진리공과 우주관3 | 113 |
| 8 | 팔관법 진리공과 인간관1 | 116 |
| 9 | 팔관법 진리공과 인간관2 | 129 |
| 10 | 팔관법 진리공과 인간관3 | 142 |
| 11 | 팔관법 진리공과 신관1 | 145 |
| 12 | 팔관법 진리공과 신관2 | 158 |
| 13 | 팔관법 진리공과 신관3 | 174 |
| 14 | 팔관법 진리공과 천지공사1 | 177 |
| 15 | 팔관법 진리공과 천지공사2 | 191 |
| 16 | 팔관법 진리공과 천지공사3 | 214 |
| 17 | 팔관법 진리공과 종통관1 | 217 |

| | | |
|----|---------------|-----|
| 18 | 팔관법 진리공과 종통관2 | 231 |
| 19 | 팔관법 진리공과 종통관3 | 246 |
| 20 | 팔관법 진리공과 구원관1 | 249 |
| 21 | 팔관법 진리공과 구원관2 | 261 |
| 22 | 팔관법 진리공과 구원관3 | 276 |
| 23 | 팔관법 진리공과 일꾼관1 | 279 |
| 24 | 팔관법 진리공과 일꾼관2 | 291 |
| 25 | 팔관법 진리공과 일꾼관3 | 307 |

01

팔관법 개요

팔관법 八觀法

증산도의 진리를 보는
여덟 가지 큰 틀!

팔관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상제관 우주관
인간관 신관
천지공사 구원관
수부관 일꾼관

팔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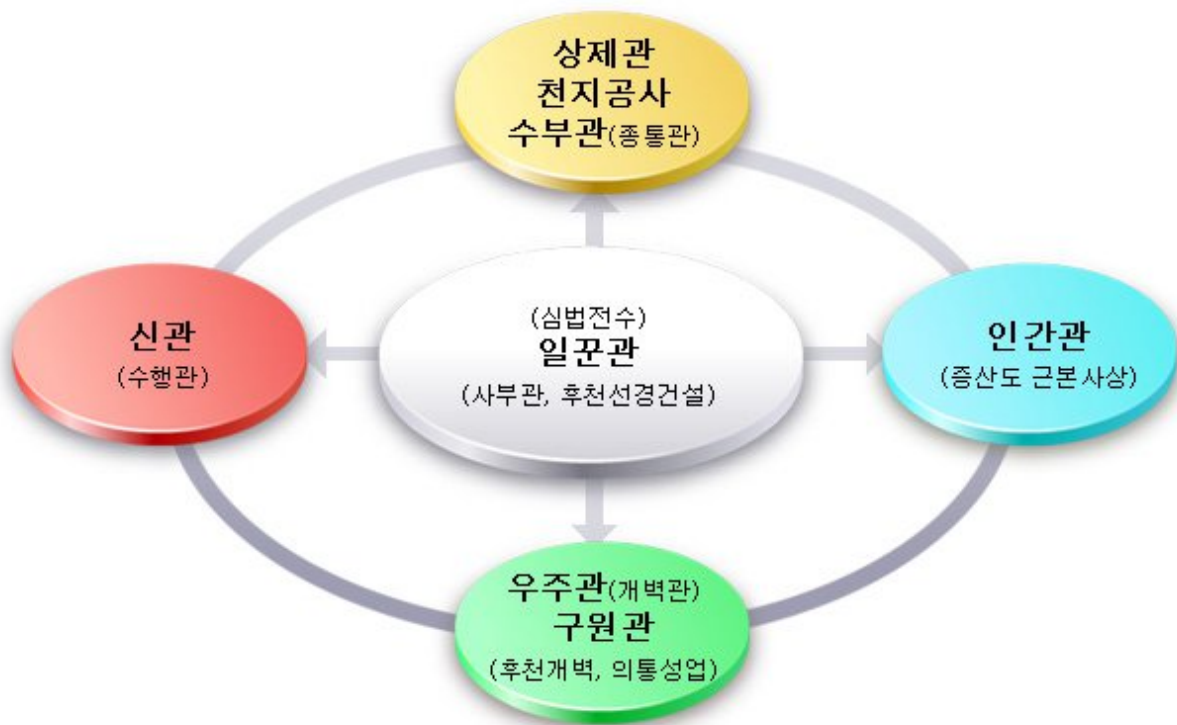
증산도를 공부하는 큰 틀, 팔관법(八觀法)

안경전 종도사님은 증산도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진리를 공부하는 팔관법을 구성하셨습니다.

팔관법은 ‘증산도 진리를 보는 여덟 가지 큰 틀’ 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럿으로 나뉘어진 이들 내용이 하나로 맞물려 증산도 진리를 구성합니다.
 증산도 신앙을 하려는 사람은 이들 내용을 깊이 공부하고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참다운 진리의 깨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팔관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
 『월간개벽』을 비롯한 증산도 진리서적과 인터넷 증산도 문답사이트, 지역도장 방문 등을 통해 언제나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종도사님 말씀

증산도 진리의 틀을 잡는 데는 팔관법이 가장 체계가 서 있고, 그 논리 전개도 앞뒤가 정연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달음의 안목을 보다 밝게 열어준다.

팔관법을 기본으로 증산도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며, 진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 제1법 상제관

팔관법, 즉 증산도의 진리를 여덟 개의 범주,
여덟 개의 진리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때 제1법이 상제관이다.

상제관에서는 ‘상제(上帝)’란 무슨 뜻이며, ‘상제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왜 꼭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상제님과 서양의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 부르는 천주(天主)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동방의 하나님 ‘상제’와 서양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신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룬다.

‘상제(上帝)’, ‘상제님’

진리의 근원은 상제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불교의 근본도, 기독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로부터 동방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했다.

상제님이 누구이신가?

‘상제’는 우리말로 풀면 ‘천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천상옥좌의 하나님, 천국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세상에서는 ‘제(帝)’자를 임금님 제 자로만 알고 있는데, ‘제’는 본래 예로부터 하나님 ‘제’자다,
하나님 ‘제’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제지자(天帝之子)’, 줄여서 ‘천자(天子)’라고 불러왔다.

‘상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주(天主)다.
위 상(上)은 천상을 말하므로 하늘 천(天)자로, 제(帝)자는 하느님을 뜻하므로

주인 주(主) 자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상제는 곧 천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상제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하느님과 하나님, 이 두 말을 동일하게 써도 좋다.

그러나 상제님은 다신 문화권의 ‘하느님’ 이지만 천지 대권을 쓰시는 ‘유일하신 분’ 이기 때문에 ‘상제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제님의 위격을 가장 바르게 나타내는 적절한 표현이다.

왜 꼭 상제님이라 불러야 하는가?

증산도에서는 이 우주의 주관자, 주권자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 것일까?

그 핵심의 하나는, ‘상제’ 는 본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언어였으며, 적어도 약 5천 년 전후부터 동양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조화주 하나님을 불러 온 호칭으로서, 시원문화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제님이라고 하는 데 대해 “아, 그건 유교, 도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냐?

왜 기성종교에서 부르는 호칭을 가져다 붙이느냐?” 고 반문하는 것이다.

또 하나,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꼭 상제님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상제’ 는 서양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뜻보다는 통치자이신 천상옥좌의 하나님의 이미지, 즉 이 우주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도전』 1편 1장 5절을 보면 상제님에 대한 정의가 가장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다.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道典 1:1:5)

상제님은 대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요, 이 우주의 이법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주 질서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때,

왜 우주에는 상제님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 상제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깨칠 수 있다.

천주’ , ‘하나님’ , ‘상제님’

그러면 ‘천주(天主)’ 나 ‘하나님’ 이라는 호칭, 또 상제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선 천주라는 말을 보자. 동양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인물이 강태공이다.

그는 3천 년 전에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연 문왕과 그 아들 무왕을 보필했던 인물로서 후일에 산동성의 왕으로 봉작 받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천제(天祭) 문화를 뿌리 내렸다.

그 때 이 우주의 주신(主神)들을 천주(天主), 지주(地主), 병주(兵主), 양주(陽主), 음주(陰主), 월주(月主), 일주(日主),

사시주(四時主) 등 여덟 개의 범주로 나누어[팔신제(八神祭)] 모셨는데,

천주는 하늘의 주신(主神)인 하나님을 의미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동양 전도를 위해 중국에 온 가톨릭 예수회 소속 마테오리치 신부님이 천주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천주실의(天主實義 : 천주님의 참뜻)』 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17세기 초 청나라를 다녀온 외교 사절단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18세기 중엽부터 이익, 홍대용 등 실학자에 의해 학문적으로 탐구되었다.

그 후 1784년(정조8) 3월에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의 천주교 북당(北堂)에서 ‘베드로’ 라는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톨릭이 ‘천주교(天主教)’ 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한편 천주 문화가 우리나라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 동학의 창도자인 최수운 대신사는 이 천주님이 머지않아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는 것을 선포, 시천주(侍天主) 신앙을 뿌리 내렸으며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새 우주의 조화를 정하는 역사를 맞이한다.

인류가 개벽기를 맞이했다.’ 고 개벽을 선언한 것이다.

그 다음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은 문자 그대로 ‘이 우주의 신은 한 분’ 이라는 의미의 하나님이 다.

개신교의 하나님 신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기독교 본래의 신관,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관을 이해해야 한다.

사실 지금 서교에서 쓰고 있는 천주와 하나님은 같은 뜻이다.

이 하나님이 우주의 현실 역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주관자이신 상제님이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미 구약 때, 아버지 하나님을 천상옥좌에 계시는 우주의 대권자로서, 인격신으로서, 우주의 통치자 주신으로 인식했던 믿음의 전통과 기도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우주의 초월적 하나님[元神]으로 대단히 강력하다. 반면에 동양 문화의 하나님은, 그보다 수천 년 전부터 섬겨 온 이 우주의 진정한 하나님인 우주의 통치자[主神]로서 상제님이며, 무엇보다 상제님은 음양적으로 천지 질서를 바탕으로 깔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동서양 신관의 다른 점이다.

동방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늘을 자연의 하늘과 상제님의 하늘, 즉 자연천(自然天)과 상제천(上帝天)으로, 음양적으로 인식했다. 그리하여 ‘이 대우주는 상제님의 천명(天命)과 의지에 의해 둥글어 간다. 이 우주의 중심에는 상제님이 계신다.

만물은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 태어나고, 그 천명을 받들고 참되게 깨쳐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지고한 덕목으로 삼는다.’는 천명의식을 바탕으로 역사를 운영해 왔던 것이다.

그 한 예로 유교의 뿌리는 공자가 가장 이상으로 삼았던 주나라의 문화 제도이다. 주나라는 상제님의 명을 받아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천자국이 되었는데, 이 상제님 신앙이 바로 유교의 뿌리가 된 것이다.

유교 문화의 핵심은 상제님의 천명을 받드는 것이요, 그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고 상제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 목적이었다.

상제님과 서양의 창조주 신과의 관계

그러면 과연 상제님은 서양 기독교에서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궁극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한마디로 상제님(하나님)을 ‘창조주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창조주 신과 동양의 상제에 대한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느님관의 차이는 사실상 ‘인간은 무엇이나?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우주는 어떻게 운행되고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 총체적인 인식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답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이다.

서양의 창조주 신과 상제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의 손길로 작용하는 얼굴이 없는 원신(Primordial God)이며 동시에 실제로 우주를 다스리는 인격신, 천상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신(主神), 통치자(Governing God)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의 신교(神敎)문화에서는 이것을 구분한다.

『도전』 1편 1장의 “삼신께서 천지만물을 낳으시니라.” 는 말씀처럼

우주를 낳은 본래의 신은 형상이 없는, 얼굴이 없는 원신으로서 삼신(三神)이다.

그리고 실제로 삼신의 신권을 쓰시며 우주의 역사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상제님이라고 한다(삼신의 조화권을 직접 쓰시기 때문에 상제님을 삼신 상제님이라고 한다).

이처럼 신의 음양적인 두 얼굴,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구분해서 볼 줄 알면 동서양의 창조주 신관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면 동방의 신교문화, 삼신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서양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양의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법 신관과 수행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제1법 상제관을 통해 동양의 하나님 ‘상제’와 서양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공통점과 차이점, 즉 동서의 신관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 동서 신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앞으로 동서 문화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문화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동서의 하나님관

동양

제 : 帝(조화신) : 상제님

호천금궐의 보좌, 주재신(主神)

개벽장 하나님

서양

엘 : 神(창조신) : 야훼신(구약)

백보좌하나님, 유일신(主神)(신약)

창조주 하나님

동서양 신관의 최종 결론

호천금궐의 백보좌에 앉아 신천신지 가을우주의
지상천국 문명을 여는 하나님, 즉 개벽장 하나님으로 인식

서양의 성부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인격신으로 볼 때는 신교문화에서 말하는 우주의 조화성신이신 삼신에 해당한다. 삼신은 대자연을 움직이는 얼굴 없는 원신이다. 이 삼신과 하나되어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구체적인 주재신이신 상제님은 천상 궁궐에 임어해 계신 실재적 하나님이다. 서양은 원신적인 성부 하나님을, 동양은 천지간의 만신萬神의 주신이신 상제님을 더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구·신약에서 기독교의 천상 궁전에 계신 백보좌 하나님은 분명히 주재신인 아버지이다. 인류의 동서 문화에는 공통적으로 보편적인 아버지 신관이 있다.

■ 제2법 우주관

시간이란 무엇인가?

둘째, 우주관에서는 앞서 말한 ‘상제님이 우주를 다스리신다, 우주를 주재하신다, 통치하신다’ 고 할 때 ‘이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의 본성은 무엇인가? 우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근본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우주란 무엇인가?(What is the universe?)’ 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말 자체도 좀 딱딱하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란 무엇인가?(What is time?),

과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인식 차원으로 접근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시간관이 나오는데, 시간관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시간관과 물리적인 시간관이 있다.

또 거대 우주의 물리적인 시간과는 그 성격이나 존재 양식이 다른 미시 세계, 극소 세계(micro cosmic), 소립자 또는 원자 단위, 양자 단위의 시간이 있다. 시간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성, 이미 지나간 과거와 계속 흘러가고 있는 현재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르다. 개인마다 느끼는 현재 속에서의 시간관도 다르다. 각 생물계에 흐르고 있는 시간의 밀도가 다르다.

시간이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신비로운 자연 현상이 없다.

시간이야말로 영원히 풀기 어려운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한 분야다.

그러나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이 우주의 신비, 수수께끼를 풀려면 시간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주의 창조 법칙, 생장염장(生長斂藏)



그렇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편시간, 객관시간이란 없는 것일까?

그런 시간이 있다. 하늘에 있는 신들도 영향을 받고, 땅의 인간들도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도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이 우주 역사의 근본 틀을 구성하는,
인간 생명의 출현과 지속적인 성장, 진화의 전 과정사를 규정짓는 시간의 법칙이 있다.

그것이 바로 증산도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우주 1년(cosmic year) 사계절
인간 농사 이야기다.

우주론은 시간관이고 시간론은 곧 우주론의 핵심이다.

인간의 탄생과 삶,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우주의 1년 사시 변화의
기본 틀,
이것이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 우주 사계절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이 우주의 창조 목적과, 인간 문명과 역사의 진화 목적을 이해하
는 유일한 해답이며,

깨달음을 얻는 최상의 길이다.

자, 이것을 우주의 주재자,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가르침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대우주를 살아 있게 하는 법칙, 그 창조의 법칙을 상제님은 생장염장(生長斂藏) 네 글자로 말씀하셨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 하느니라.
(道典 4:58:4)

생장염장, 낳아서 길러서 거두고 휴식한다. 그런데 세 번째의 ‘거둔다!’ 고 하는 염(斂),
여기서 모든 종교와 인간 역사의 총 결론이 나온다. 이 우주에서 인간의 생명을 거둔다, 인간의 역사를 거
둔다!

이것이 우주의 가을 소식, 후천개벽 소식이다.

이 우주 1년 선후천 소식, 후천 가을 문화의 한소식을 들어보면 진리의 전체 틀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이 우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2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숏한 별들이 우주 속에서 순간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 변화의 진정한 목적
은 무엇인가?

이 우주의 현란한 움직임의 목적은 사람을 낳아서 길러내는 데 있다. 즉 우주에는 봄여름을 넘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우주는 인간을 낳아 길러서 가을에 성숙시킴으로써 하늘 우주의 목적을 실현한다.

인간을 통해, 인간의 손을 빌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다.

이 선후천 우주 1년을 과학용어로 말하면 ‘시간의 법칙’ 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 1년 12만9천6백년을 한 주기로 볼 때, 봄여름 선헌 오만 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가을이 온다.

태상종도사님께서 “우주 1년은 필연적인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되는 우주의 시간 법칙이다. 하루, 지구 1년, 우주 1년 사계절의 창조 법칙, 그것이 바로 생장염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참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다.

이 우주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 가을 우주가 열릴 때는 석가 예수 공자가 외친 구원론의 결론, 그들 진리의 총 결론으로서 미래의 부처 미륵님,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 오신다.

■ 제3법 인간관

제1법에서 하나님관, 그리고 제2법에서 시간관, 즉 우주의 신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제 제3법에서는 우주의 열매인 인간문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동안 인류가 가슴에 품고 고민해 온, 아직까지도 그 근본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인생의 숭한 의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인간 삶의 목적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상제님이 처음으로 드러내주신, 총체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즉, 우주는 인간을 낳아 길러서, 인간을 통해 우주의 목적을 실현한다.

인간의 삶에는 신의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3법에서는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것은 ‘생명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 라는 질문과도 통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독일의 철학자 카시러(Cassirer, E.)가 쓴 책 가운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20세기의 명작이 있다.

그 책에서 카시러는 인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즉 신화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인류 사회에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진리란 무엇이나, 깨달음이란 무엇이나, 마음이란 무엇이나’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덧붙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 창조의 뜻, 인간이 이 우주 속에서 무엇을 위해 태어나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목적만 깨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의문이 다 풀리는 게 아니다.

증산도의 제3법 인간론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그것이 바로 상제님이 전해주신 원시반본의 도이다.

상제님께서 “이 때는 원시반본(原始返本)하는 때다.” (道典 2:26:1)라고 하셨다.

‘지금은 원시반본의 도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깨쳐서 그것을 실천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가을개벽기다, 이제 가을우주가 열린다’ 는 말씀이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우주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원시반본이다.

원시반본, 가을철의 변화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열매를 맺는다.

한 그루의 나무도 가을이 되면 봄여름철에 길러냈던 모든 이파리와 꽃을 다 떨구고 나무의 생명이 전부 자기의 근원, 뿌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요컨대 증산도에서 처음으로 ‘이 우주 창조의 근원이 되는 제1법칙인 생장염장, 우주 1년, 선천과 후천, 선천개벽과 후천개벽이 있으며, 지금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여름에서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대전환기다, 천지가 가을개벽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천지의 가을 정신을 알아야 인간으로 태어난 삶의 궁극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고 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근원적인 깨달음의 말씀을 전한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나름대로 뜻을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 많다. 한 나라의 제왕으로서, 정치가로서, 예술가로서, 과학자로서, 각 분야의 지도자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꽤 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는 성공을 했을지언정 진정으로 우주의 목적을 성취한, 우주의 꿈과 이상을 역사 속에 실현한 완성된 인간은 없었다.

왜 그런가? 인간을 낳아 기른 천지 자체가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우주는 영원히 진화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추수를 하는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우주의 가을철이다. 다른 말로 후천(後天)이라고 한다.

지금 천지는 봄여름철 성장과정,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가을철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가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온 하늘땅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천지의 계절이다.

따라서 가을이 되면 나도 인간으로서 완성이 돼야 한다.

처음 인간으로 태어나 윤회를 하면서 성장해 온 지난 봄여름 선천과는 달리,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인간으로 성숙돼야 한다.

이 우주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가을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 역할을 하는 때다.

인간이 본래 하늘로부터 받아 나온 영적 능력을 온전히 발현하는 때다. 또 발현을 해야 되는 때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을철은 인간인 내가 내 속에 있는 신의 무궁한 영성, 조화성, 창조의 역량(potentiality)을 완전히 발현해야 되는 때다.

그 길이 바로 가을의 정신이자 가을철 창조의 뜻인 '근본으로 돌아가야 생명이 완성된다' 는

상제님의 원시반본의 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변화의 도, 그 변화의 정신을 바르게 알 때, 인간 생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정리하여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 나아가 하추교역의 가을 개벽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처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가르침과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원시반본의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원시’와 ‘반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네 글자를 둘씩 나누어 보면 ‘원시’란 근원 원 자에 시초, 시조라는 시 자다.

원을 동사로 해석하면 ‘원시’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의 처음, 시작, 시원을 헤아리다’라는 뜻이고 ‘반본’은 ‘돌아가다(return)’라는 뜻이다.

따라서 ‘원시반본’은 인류의 뿌리역사, 시원문화를 바르게 헤아려서, 그 근원을 바르게 알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

특히 ‘시’와 ‘본’, 즉 시작과 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전개하고, 묻고 답할 줄 알아야 된다.

시작을 들여다 볼 줄 알고 근본을 바로 잡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일 수도 있다.

또한 가족사가 됐든, 한 민족사가 됐든, 한 부족사가 됐든, 인류사가 됐든, 그 지역이 동북아든 중동이든 중남미든,

북아메리카가 됐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태고의 어떤 대사건이 있다.

예를 들면 상제님께서

‘오늘날 모든 인간의 고통과 역사 질서의 비극은 4,300년 전 요임금의 아들 단주로부터 비롯되었다’ 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단주의 사건이 인류 역사에 그토록 큰 파급을 일으켰단 말인가!’ 하는 깨달음이 즉각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시원역사에 대해,

‘잊혀진 4,300년 전 요임금, 순임금 때의 9년 홍수 대사건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단주의 죽음 사건, 그 역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선천의 자연과 인간 삶의 장구한 세월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시작을 들여다 볼 줄 알고 근본을 바로잡는 원시반본! 이것이 가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삶의 길에서 가장 대경대법한 첫 번째 가르침,
인간 삶의 문제에서 근원이 되는 대도(大道) 말씀이 바로 원시반본의 도다.
시작을 바르게 알아서, 헤아려서, 깨달아서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

그렇다면 근본이란 무엇일까?

자연의 근본, 천지

상제님은 “천지를 너희 부모 알 듯 하라.”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연의 근본, 만물의 근본은 삶의 큰 집인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천지부모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 천지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근본은 영원히 하늘과 땅인 것이다.

『도전』 1편 1장의 첫 구절이 ‘태시에 문득 하늘과 땅이 열리니라.’ 는 말씀이다.

『도전』의 첫 출발이 하늘과 땅에서 시작된다.

하늘과 땅에서 자연의 역사가 시작됐고 생명의 역사가 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은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 듯 하라.” 고 하신 것이다.

하늘과 땅을 너희 생명의 부모로, 생명의 근원으로 섬기지 않으면 진리 바탕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다.

역사의 근본, 인간

역사의 근본은 인간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천지 부모가 낳아서 기르는 대상이요, 하늘과 땅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천지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다.

동방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천일(天一), 땅은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일(地一), 하늘땅 부모님을 섬기는 인간은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일(太一)이라고 했다.

물론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역사를 뜻하는 ‘history’ 가 본래 ‘He’ s story’ , ‘그분의 이야기’ 또는 ‘High story’ , ‘고담스러운 이야기’ 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 역사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인간에 의해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제님이 “모사재천은 내가 하리니 성사재인은 너희들이 하라.” (道典 8:1:6)고, 성사재인을 강조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일을 꾸미지만 그것을 인사로 성사시키는 것은 너희 일꾼들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이다.

인간의 근본, 일심

신앙의 근본은 정성이다! 인생의 근본 또한 정성이다! 정성은 다른 말로 일심이다. 마음이 발라야 한다. 또한 진리의 근본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리고 천지인 삼재의 틀을 알 수 있는 진리의 근본, 그것이 인간농사 짓는 우주 1년 사계절의 이치다.

그럼 사람의 근본, 인간의 바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타 종교에서는 ‘내 몸과 정신을 움직이는 마음’ 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근본 본 자를 잘 봐야 한다.

상제님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이 시어일심(始於一心)하고 종어일심(終於一心)하니라.’ (道典 2:91:2) 천지만물이 일심에서 비롯하고 일심에서 마친다고 하셨다.

일심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따라서 우주의 기원도 알 수 없고, 종말도 알 수 없다.

우주는 일심에 의해 영원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 제4법 신관과 수행

넷째, 제4법은 인간의 사후 세계와 수행법에 관한 가르침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인간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

숨이 멈추는 순간, 인간 생명은 완전히 정지되고 해체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인가,

인간 속에 어떤 영적인 무엇이 있는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인간 속에 있는 영성(spirituality), 그 실체는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제4법의 주제는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 of humanity?)
인간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신도를 다룬 제1법 상제관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4법은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What is death?)
수행이란 무엇인가?(What is meditation?)

왜 태을주 수행을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바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사람에게는 혼(魂)과 넋(魄)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神)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靈)도 되고 혹 선(仙)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鬼)가 된다.”
(道典 2:118:2~4)

인간은 죽으면 작은 성령(holy ghost)으로 산다.

인간 속에 있는 하늘 요소인 신(神)과 땅의 영적 요소인 귀(鬼)가 하나가 되어 말 그대로 귀신(鬼神)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 인 자, 사이 간 자를 써서 ‘인간(人
間)’ 이라 하고 신은
그 본질이 광명(光明)이기 때문에 ‘신명(神明, spirit, brilliance)’ 이라고 한다.

이 신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서양에서 주장하는 신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신관은 유일신관과 다신관이 있는데, 유일신도 다시 음양 법칙으로 원신(元神)과 주신(主神)이 있다.

서양은 원신적인 신앙 감성이 발달돼 있으면서 그 궁극은 아버지 신, 주신(God)을 지향한다.
반면에 동양은 주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원신적인 신의 세계를 강조한다.

즉, 주신에게 천제를 지내는 의례가 한 5천 년 이상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서도 만물의 본성,
만물 생명의 실재 근거로 작용하는 원신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 원신이 바로 삼신(三神)이다.
동서 신관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

그 다음, 선천 각 종교에도 수행법이 많은데, 왜 가을 개벽기에는 그것을 넘어, 수행의 열매를 맺는 태을주 수행을 해야 하는가? 태을주란 무엇인가?

태을주는 천지의 조화성령을 받아 내리는 주문이다. 여기서 성령론이 나온다.

먼저 성령이란 무엇인가?

가을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하나님을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언어가 ‘조화주(造化主) 하나님’이다. 천지의 인간과 만물의 변화를 끝매듭 지으시는 분, 그 변화의 목적과 꿈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조화주 하나님이라고 한다.

선천 종교에서도 성령을 받아 내린다고 했다.

그러나 가을 문화에서 말하는 성령은 선천 봄여름, 달힌 우주의 성령이 아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와 우주 자연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조화성신(造化聖神)을 말한다. 가을우주로 들어갈 때는 조화성령을 받아 인간의 영적 차원이 선천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조화성신의 출원이 바로 동방의 삼신(三神) 문화다.

『도전』 1편 1장 3절에 있는,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삼신은 조물주 하나님이다.

이 삼신 하나님 속에 진리의 뿌리를 찾는, 진리의 근본 틀을 보는 모든 문제가 들어 있다.

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삼신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창조 작용을 할 때는 조화(造化), 교화(敎化), 치화(治化)의 세 가지 신성을 그 본성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조화로써 만물을 빚어내 생명을 주시고(造化神), 그 생명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 우주 만유가 생명 자체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하시며(教化神),
만물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스리신다(治化神).

이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 가지 참된 것(三眞), 성명정(性命精)이 된다.
우주를 빚어낸 조화신(造化神)은 내 생명의 근원, 내 마음의 뿌리 자리, 성(性)이 되어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생명을 열어 주는,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나를 양육하는 깨달음의 신, 교화신(教化神)은 나의 명(命)이 된다.
순수한 우리말로 목숨이 열리는 것이다.

그 다음 생명 질서를 바로잡아 나의 몸을 삼신 하나님과 같게 해주는 동력원인 치화신(治化神)은 정(精)이 된다. 그리하여 내가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 삼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내 몸 속에 우주의 신성이 그대로 다 들어 있다!
이것이 삼신 문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깨달음의 한소식이다.

그렇다면 내 몸 속의 삼신을 되찾고, 다스리고, 나아가 현실 인간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 몸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주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태을주의 도다.

누구도 정성만 있으면, 인간 농사짓는 우주 1년의 근본 틀만 깨치면, 상제님의 진리,
그 순수 믿음 속에서 조화성령을 받아 내릴 수 있다. 참회와 의식의 정화를 통해 가을의 천지 조화성령을 받아 내릴 수 있다.

■ 제5법 천지공사

그 다음 제5법이 천지공사다.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후천 5만년 역사의 새 이정표인 천지공사의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상제님 진리의 구성 틀, 이신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증산도 진리의 삼박자, 이신사(理神事)

상제님 진리의 근본 틀을 가장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이신사(理神事), 세 글자다.

이 세상 문명의 내용, 진리의 핵이 이 세 글자로 정리된다.

이신사는 증산도에서 처음으로 밝혀주는 철학과 과학과 인생의 모든 문제, 선천 종교의 구원론에 대한 불
만족,

또는 진리에 대한 갈급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 인류의 보편 진리, 우주적인 진리의 틀이다.

구체적으로 이신사란 무엇인가?

1) 우주의 창조 법칙, 리(理)

이신사에서 첫째 리(理)는 이법, 섭리, 우주의 창조 법칙이다.

곧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고 살다 죽는 대자연의 이법을 말한다.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인류의 기원과 인
간 삶의 목적,

인류의 미래 등 모든 것이 이 리(理) 자 속에 들어 있다.

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우주에는 인간 농사짓는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다.

즉 우주가 인간을 낳아 길러서 그 뜻을 이루는 우주 1년 사계절의 순환 법칙이 그것이다.

우주 1년은 129,600년이며, 이 중에서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선천 5만 년, 후천 5만 년, 도합 10만 년이다.

그리고 나머지 29,600년은 우주의 겨울로서 과학에서 말하는 빙하기다.

우리는 우주 1년의 봄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대개벽기에 와 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교역의 문제이다.

둘째, 이번 우주 1년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천지의 이법이 상극이라는 것이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道義)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치매 마침내 살기(殺氣)가 터져 나와 세상에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켜...(道典 4:16:2~3)

상제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환경의 문제라고 하셨다.

상극의 이치로 인해 조화와 균형이 깨져 있는 선천의 자연 환경 자체가 인간의 비극의 원인임을 밝혀 주신 것이다.

상제님의 말씀처럼 선천개벽으로 봄여름이 열려서 인간이 태어나 자라는 과정에서는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들의 세계조차 상극의 지배를 받는다.

우주의 생명 질서가 음과 양이 만물을 낳아서 길러 분열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천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상극이 경쟁원리가 되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를 계발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깨꾸러뜨려야만 했다. 이것이 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종교전쟁의 역사를 보라. 얼마나 참혹한가. 거기에 무슨 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의가 있는가. 오직 독단과 죽음밖에 없다.

그리하여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졌다.

올바르게, 정의를 위해, 진리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죽었다. 여기서 세세연년 원과 한이 맺히고 쌓여온 것이다.

이 상극 질서를 극복하고 균형과 조화를 되찾는 길이 인간의 삶에서 자기 수양, 자기 계발이요, 도를 닦고 진리를 체험하여 도심주를 잡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에는 큰 깨달음을 얻어 성공한 자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지성인 캔 윌버가 한 불교 승려에게 물었다. “중국의 불교 역사에서 깨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에 대해 승려가 “크게 잡아도 천만 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캔 윌버가 다시 “그럼 일본 역사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하자

“낫 모어 덴 어 더즌(Not more than a dozen).”

기껏해야 한 여남은 명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선천종교의 깨달음의 역사의 현주소다.

지금은 인간이 처음 태어난 봄을 거쳐 성장기인 여름철을 지나 가을로 들어서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다.

지난 봄여름의 탄생과 성장의 한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새 역사를 향해 출발해야 한다.

이 우주의 가을 문화, 가을철 세상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천지 질서를 바꿔야 한다.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말이다.

궁극으로 새 우주 질서를 열어야 한다. 그 새 우주 질서가 바로 상생(相生)이다.

가을은 자연의 질서도 상생이요, 인간 역사의 질서도 상생이 바탕이 된다.

상생이란 무엇인가? 상생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의 도수다.

하늘땅을 중심으로 말하든, 남녀의 인권문제를 얘기하든, 아니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가 됐든,

모든 음양의 부조화가 상제님이 열어주시는 정도수로 바로잡히는 것이다.

셋째, 우주 섭리의 결론으로

우주의 여름철 말에는 가을개벽의 섭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우주의 질서를 바꿔주신다.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道典 2:17:5)

선천 상극의 원한의 살기가 천지에 충만하여 이제 그것이 터져 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에 가속도를 붙여

더욱 폭발적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九天)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

(道典 2:17:6~7)

이것이 참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친히 밝혀 주신 당신님의 강세 과정이다.

2) 신(神)의 세계[神道]

이제 진리의 삼박자에서 둘째, 신(神)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자.

신은 신도(神道)를 말한다. 이것은 유일신과 다신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신도는 신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요, 창조주의 세계다.

리와 신은 진리의 두 얼굴이다. 이치가 진리의 양적인 면이라면 신도는 음적인 면이다.

리는 하늘과 땅, 인간과 만물이 태어나고 변화해가는 길로서 인간이 이성적, 합리적,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적인 면이다. 이것은 공부를 해서 이치로써 깨달으면 된다.

그러나 인간이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이 최상의 경계에 같지라도 결코 알 수 없는 신적인 부분이 있다. 물론 신도도 이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공부만으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아는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도는 오직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수행과 기도다.

이 신도 세계를 모르면 인생은 한 마디로 까막눈이다.

절대로 인간이 원지, 진리가 원지 알 수 없고 자연의 섭리조차도 제대로 깨칠 수가 없다.

그 신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상제님이며, 여름철 말에 인간으로 오신다.

서신사명으로 오신 상제님

상제님은 서신사명(西神司命)으로 오셨다.

가을이 되면, 이 천지 이법의 명령이 ‘인간의 정신과 생명, 역사, 문화, 언어 등을 다 통일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상제님께서 서신으로 오셨다.

가을철에 오시는 하나님은 서방(西方) 기운을 먼저 수렴하여 동쪽으로 오신다. 그래서 서녘 서 자를 붙인 것이다.

“내가 서양 대법국 천개탑에 내려와 이마두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며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道典 2:30:12)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다.

상제님을 만나게 해 주는 선령신들

그런데 상제님은 당신만을 모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름철 말에 오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에서처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니라.” 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전혀 다르다.

기독교는 중동의 유목 문화에서 싹텄다.

이동하면서 천막 치고 2대 3대가 함께 살아서 강력한 율법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십계가 나오고,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조상신에게도 적용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고 했다.

제물을 차리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런데 상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이 너희 선령신’ 이라고 하셨다.

“너희에게는 선령(先靈)이 하느님이니라.” (道典 7:19:1~2)고 하시며

선령신의 음덕과 선령신의 인도로 상제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先靈神)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 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道典 2:119:1~3)

너희 조상이 60년 동안 천상에서 공력을 들여도 쓸 자손 하나를 타내지 못하는 신명들도

꼭 들어차 있으니, 이로 볼진대 어찌 너희들이 인생을 그렇게 한가롭게 문제의식 없이 보낼 수 있느냐는 말씀이다.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육급선령(辱及先靈)이 되느니라.” (道典 7:19:2)

또 ‘모든 인간은 선령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선령보다 나를 먼저 섬긴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너희 선령이 네 하나님이니 너희 선령을 먼저 모시고 나를 섬기라’ 고 하셨다. 이야말로 참 가르침이 아닌가.

특히 이 가을철은 원시반본에 따라 만생명이 뿌리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때다.

초목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다 똑같다. 뿌리로부터 기운을 받아 줄기로부터 이파리, 꽃이 피어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이다.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도 그렇다. 뿌리가 튼튼하면 인간농사도 제대로 잘 지어진다.

생명의 뿌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지적 체계가 서 있고, 역사도 잘 알고, 사리분별도 잘 하고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애들 교육을 잘 시킨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상의 창조주인 것이다.

지구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심덕이 좋든, 학덕이 좋든,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외교를 잘 하든, 그 뿌리기운으로 자녀가 감화되어 잘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명의 뿌리인 선령의 음덕으로, 가을철에 열매 맺는 천지 기운이 내려오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 내 선령이 천상의 큰 수도원에서 청수 모시고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자손들은 코를 골고 자지만, 선령들은 수백 명이 단체로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법을 다스리는 주체, 신도(神道)를 보려면

천지의 이법에는 시비, 가치, 선악이 붙질 않는다. 허공에다 대고 한번 외쳐보라.

거기 어디에 착하고 악하고가 있는가. 모르면 죽는 것이다.

이것이 가을 개벽기 인류의 현실에서 절감하게 되는 진리의 한 단면이다.

가을천지가 열리는 이 진리를 체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현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신도(spiritual world)에서 행한다.

이법을 다스리는 주체인 이 가드(God), 하나님의 세계, 신도를 제대로 알아야 진리의 원 중심, 눈동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진리가 보인다. 그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도를 아는 길은 오직 기도와 수행을 통해 체험하는 것밖에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영성이 맑아야 신도가 보인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진심으로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거듭나 사상적으로 깨지고, 날마다 수도하고, 천지와 함께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 결코 신도를 깊이 체험할 수 없다.

상제님이 밝혀주신 천지 안의 신들

이 대우주 진리의 중심에는 상제님이 계신다. 그리고 천지신명들이 있고 각 개인의 조상신들이 있다.

이 우주를 통치하는 신들의 정부를 조화정부(造化政府)라고 한다.

이 신들은 상제님의 명을 받아 조화법, 조화권을 집행한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God)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spirit), 영(靈), 그리고 이 우주에 살아 있는, 인간이 죽어서 된 모든 신명도 포함한다.

증산 상제님은 성자들의 신명을 비롯한 천지 안의 모든 신들의 존재를 밝혀주시고 다 인정해 주셨다. 따라서 증산도의 신관은 다신관이다.

다신관이면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최상의 조화주 하나님으로 섬긴다.

한마디로 유일신 문화와 다신 문화가 통합돼 있는 것이다.

바로 조화신관이며, 다른 말로 일원적 다신관(一元的 多神觀)이라고 한다.

3) 인사(人事)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끝으로, 진리의 3박자에서 셋째, 사(事)는 무엇인가?

사(事)는 인사, 사건(event)을 말한다. 인간의 총체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역사(history)를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우주 이법, 자연 이법만을 바탕으로 역사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만물은 무형과 유형, 즉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음양일체가 되어 한 생명체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 역사는 천지 이법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신도가 개입해야’ 현실로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이 신도 우주의 생성원리, 자연의 이법을 완전 초월해서 독존(獨存)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으로 들어가 보면 신들도 천지 이법의 영향을 받는다.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인과적으로 터지는 건가요?’

역사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하고.

그 대답이 무엇인가?

역사의 대세는 천지 이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필연이다.

인간 역사는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역사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이미 대세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해가 뜨면 학교로, 직장으로 각자 정해진 곳으로 불일을 보러 간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대세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낮에는 동(動)하고 밤에는 정(靜)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다.

이것을 어기면 병들어 죽는다.

음양 동정의 법칙! 이 음양의 동정 원리는 지구 1년이나 우주 1년이나 똑같다.

그런데 선천 여름철의 분열 말기인 지금의 역사 사건은 너무도 복잡하다.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道典 4:7:6)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은 세상사가 불교의 마음 닦는 것, 기독교의 성령 문화, 유가의 인륜 도덕, 현대 과학문명의 컴퓨터,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주의 모든 법을 통합해서 써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상제님께서 모든 법을 합해 신도와 더불어 짜 놓으신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

후천 5만년 역사의 새 이정표,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다.

천지공사는 오직 증산도에서 처음 만나는 새로운 진리세계요, 새로운 진리의 한소식이다.

‘하늘과 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풀러 한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우주적인 이상 낙원, 후천 조화선경을 내가 처음 건설한다.’ 하신 상제님의 천지공사의 대국적인 틀을 깨면, 지금 ‘내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를 깊이 깨닫게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역사의 목적은 오직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도를 받아 하나님의 도업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성사재인(成事在人)의 논리다.

‘천지공사’ 에서 천(天)은 하늘이요 지(地)는 땅이란 뜻이며 공(公)은 공적이라는 뜻이다.

사(私)적인 것이 전혀 티끌만치도 없는 공적인 것을 말한다.

그 공은 하늘과 땅의 이법, 하늘과 땅의 뜻에 맞춘다는 의미의 공변될 공 자다.

그리고 사(事)는 하늘과 땅과 함께 하는 인간의 일, 인간의 삶,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를 말한다.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 인간 삶의 현장인 지구의 역사!

천지공사 세계는 바로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열매 맺는 진리의 바다다.
여기서 증산도의 역사관이 나온다.

증산도의 역사관

그러면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류의 역사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태고의 시원사에서 창조의 첫 발자국으로부터 수천, 수만 년의 인류사의 거대한 여정이 어떤 시간을 거쳐 왔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역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과거란 무엇이요 현재는 무엇인가? 또 역사의 미래란 과연 무엇인가?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현재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현재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화 되는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시간은 실체가 없지만 한순간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은 영원히 현재화 되어 가는 과정이다.

역사란 끊임없이 현재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과 신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다!
이것이 바로 증산도의 신인합발(神人合發)의 역사관이다.

이 세상 역사는 인간과 신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선천에는 인간보다 신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가을철은 인간이 우주의 이상을 하늘이 아닌 땅 위에 완성하는 때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신보다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역사의 참여자가 되어선 안 된다.

역사의 대세, 역사의 변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구성하고 건설하는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좀 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의 이상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며, 이 세계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나가는 새 역사의 건설자로 살아야 한다.

만일 가을철 지상낙원, 인류가 추구해온 이상적인 신문명을 건설하는데 게으르고 관심이 없다면, 또 그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그릇된 언사를 하며 참여를 안 한다면 그보다 더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천지생인天地生人하여 용인用人하나니

불참어천지용인지시不參於天地用人之時면 하가왈인생호何可曰人生乎아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 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道典 2:23:3)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정말로 크게 쓰려고 하는 이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를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이미 인간의 삶을 완전 벗어났다,

너는 인간 삶의 뜻을 성취하는 정도(正道)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말씀이다.

인간의 새 역사가 전개되는 출발점은?

상제님은 천지공사로써 천지의 주재자, 통치자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펼치신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의 새 역사가 전개되는 출발점은 언제인가?

이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선천 상극의 질서를 인간 역사 속에서 바로 잡아 나가시는 통치 역사,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시는
새 역사의 출발점이 언제인가?

도기 31년, 서기 1901년, 신축(辛丑)년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제님께서 천지 도통문을 활짝 여신 1901년 음력 7월 7일,
그때부터 신천지의 역사의 운이 열려서 새 역사를 기획하셨다.

그리고 다음해, 하루 시간으로 말하면 사람이 재충전하고 벌떡 일어나는 인시(寅時)에 해당하는
임인(壬寅)년, 서기 1902년 음력 4월 13일 김형렬 성도의 집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조화로써 천지운로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연다.” (道典 2:15:5)고 하셨다.

바로 그날로부터 상제님은 천지 역사를 직접 기획하시고 짜신다.
상제님께서 짜 놓으신 인류의 새 역사 이정표, 그것을 도수(度數)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천지 이법에 맞추어 도수를 짜셨기 때문에 천지도수라고 한다.

이 도수를 알아야 앞으로 오는 가을을 안다.
가을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앞으로 5만년 신문명의 꿈이 이뤄지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천지공사의 두 질서, 세운(世運)과 도운(道運)

그럼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새 역사,
통일 역사를 어떻게 구성하셨을까?

상제님은 선천 세상의 상극의 원을 끄르기 위해 신명 조화정부(造化政府)를 구성하셨다.

인간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원을 품고 죽은 역사의 실존 인간들, 그 신명들을 통일하여 이 우주를 개벽하고 새 세상을 여는 통치 사령탑으로 이화(理化)시키신 것이다.

그 조화정부의 신도(神道)를, 상제님께서는 원신(冤神), 역신(逆神), 문명신(文明神), 지방신(地方神), 선령신(先靈神) 그리고 자연신(自然神)으로 구분하시고, 거기에서 세계 역사의 새 질서를 짜셨다.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의 두 질서, 세운공사(世運公事)와 도운공사(道運公事)다.

세운은 세계 역사의 운명을, 도운은 상제님 도의 오만 년 조화선경 건설의 운로를 심판한 공사다.

세상 역사의 운로인 세운과 상제님 도의 역사가 전개되는 운로인 도운, 그것은 각기 삼변성도(三變成道)로 이루어진다.

크게 세 번의 변화과정을 거쳐 개벽을 맞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상제님은 인간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의 열쇠를, 인간 역사상 최초로 가장 큰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가 바로 요임금의 아들 단주(丹朱)다.

단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 인물로,

아버지인 요임금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지 못하고 한평생 바둑을 두며 살다가 죽었다.

그래 상제님께서 이 단주의 원한을 풀어 주시기 위해, 순창 회문산에 있는 오선위기(五仙圍碁) 혈을 발음시켜 세계 역사를 다섯 신선이 바둑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셨다.

단주 해원 도수로서 세운 공사를 집행하신 것이다.

세운은 이 세계 역사의 운명이 결정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도수다. 다시 말해서 세계사의 발전과정이다.

세운공사는 그 판도가, 지구의 중심이자 혈 자리인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삼아 주변 4대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오선위기판이 애기판 1차 세계대전,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끼리의 한판 승부인 상씨름으로 매듭지어진다.

바로 이것이 이번에 남북 상씨름이 결판나는, 실제적인 개벽상황으로 들어서는 남북대결의 종결사건이다.

도운은 문자 그대로 상제님의 새 진리, 상제님의 도가 인간 역사 속에 선포되어 자리 잡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상제님과 직접 인연 있는 일꾼들이 도문에 들어와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 공부를 통해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영대가 열리고, 가을의 천지성령을 받아 내리는 태을주 공부를 통해 가을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

그 일꾼들을 길러내는 상제님의 대행자, 지도자의 개척사 전 과정이 도운이다.

한마디로 상제님 도의 발전사!

여기서는 상제님 도의 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종통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도운공사는 상제님이 당신의 아내이신 수부님에게 도통을 전수하시고, 당신의 도맥이 뻗어나가는 판을 짜놓으신 것이다.

그럼 상제님은 왜 수부님에게 도를 전수하셨는가? 수부님은 어머니이시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주는 분이다.

천하 만백성에게 당신의 진법(眞法)을 낳아주시는 뿌리이자 어머니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

상제님은 남자가 아닌 여자, 당신의 아내에게 도통을 전수하신 것이다.

이것이 진법 태동의 문제이며, 뒤에 나오는 제7법 종통관의 주제이다.

■ 제6법 구원관

가을개벽이란?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가을개벽기 구원관이다.

가을개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주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그 시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고 봤더니 우주에서 인간을 낳아 기르는 사계절의 시간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우주는 앞서 말한 네 개의 시간대, 즉 봄의 시간대, 여름의 시간대, 가을의 시간대, 겨울의 시간대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꼭 봄의 시간대에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제2법 우주론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주의 봄여름철을 지나서 이제 가을이 온다.

머지않아 우리의 삶 속에, 인류의 삶의 중심에 놀라운 격변이 일어나는 가을개벽이 온다.

그 가을개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하루 낮과 밤의 교체나 지구 1년에서 봄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오는 것과는 달리

우주 1년에서 천지 질서의 틀이 바뀌는, 큰 여름과 큰 가을이 바뀌는 하추교역, 가을 우주개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가을개벽은 모든 종교에서 말한 바, 종말과 심판이 성립되는 실제 상황이다.

상제님은 이 개벽상황이 3년 동안 하늘과 땅의 변화 질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지구촌에 전개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증산도의 종말론은 기존의 심판론의 성격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넘어선다.

사실은 선천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구체적이다.

불가에서는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도솔천의 하나님,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기후가 지금은 땅마다 다 다른데 앞으로 새 부처님이 오실 때는 똑같이 온화해진다.
사계절이 고르게 된다.
사람 마음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웃고 사는 낙원이 펼쳐진다.’ 고 했다.

예전의 부처와 앞으로 오시는 새 부처, 선천의 부처와 후천의 새 진리의 부처 세상은 전혀 다르다.
자연의 질서가 다르고, 문명의 틀이 완전히 다르다.

가을개벽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면 가을개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가?

바로 선천 억음존양(抑陰尊陽)에서 후천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천지일월의 틀이 바뀌는 대변혁이 온다. 남북극이 이동한다. 그것이 세속에서 말해온 극이동의 문제와도 직접 연관이 있다.

그 다음 가을의 추살(秋殺) 기운, 서릿발 기운이 내려온다.

선천은 상극(相克)의 운(運)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戰亂)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가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禍厄)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道典 2:17:1~5)

가을개벽으로 선천 세상의 상극의 부조화, 경쟁과 대립, 투쟁, 전쟁, 그리고 원한에 대한 끊임없는
처절한 복수, 그 속에서 발생한 인간의 고통과 재앙을 완전히 대청소한다.
그리하여 불균형의 비극시대를 막 내리고 완전한 조화의 새 질서로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선천 하늘과 땅에 가득 찬 모든 원한이 일시에 폭발한다.

그와 동시에 인간 역사에 축적된 원한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가을의 추살기운,
우주의 가을철 서릿발 기운이 들어온다.

상제님은 그것이 괴병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다.

이름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 어떤 의학자도, 과학자도 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병이 들어온다.

그 병이 이 세계를 3년 동안 강타한다.

이것을 천리로써 깨달아야 한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구 1년도 가을이 되면 서릿발 기운이 들어와 여름 내 무성했던 이파리들이 주락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 우주 1년 사계절에서도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는 언제나 우주의 서릿발 기운이 온다. 왜 그런가? 봄여름의 분열을 끝맺고 가을의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 하늘의 질서가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는 천리에 의해 인간 생명이 단절된다.

선천 봄여름철에 우리는 천지부모로부터 명줄(life span)을 받아서 태어났다.

선천 5만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 죽으면 천상에서 영적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죽어서 천상으로 올라가 영적인 진화를 하여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줄이 멈춘다. 가을이 되면서 스스로 정지된다.

오직 가을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제님께서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 있느니라.”(道典 5:263:12)고 말씀하신 태을주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왜 염념불망으로 태을주를 읽어야 하는가? 왜 한 생각마다 태을주를 읽고,
낮이나 밤이나 태을주를 읽으며 생활하고,
꿈속에서조차 태을주를 읽는 태을주 수행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태을주가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건져내는 구원의 안내자인가?

태을주는 추살기운인 괴병을 극복하는 의통성업(醫統聖業)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의통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근원적인 인류 구원의 큰 은혜이다. 의통은 무형과 유형으로 구성되어,
태을주를 읽어서 조화성령을 받아 내리는 한편 실물인 의통을 전수받아 개별 실제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6법에서는 ‘치유란 무엇인가?(What is healing?)’, ‘구원이란 무엇인가?(What is salvation?)’ 라는 주제를 다룬다.

증산도의 의통은 바로 치유 문화(healing culture)다.

치유란 무엇인가?

큐어(cure)는 물리적으로 약을 써서 낫게 하는 것이고 힐링(healing)은 근본을 고치는 것이다.

의통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 내 몸의 건강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사회와 역사의 병을 바로잡고
자연의 병까지 뜯어 고친다. 그리하여 분열된 모든 것을 통일한다.

내 마음도 통일하고, 가정도 통일하고, 사회도 통일하고, 민족도, 동서 문화의 장벽도 무너뜨려서
인류가 한마음으로 사는, 한 형제로 사는 통일 문화를 연다.
이것이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의 세계일가 통일정권 문화다.

■ 제7법 종통관

제7법은 종통관이다.

아까 제5법 천지공사를 얘기할 때, 상제님 도의 개척사인 도운에서는 상제님 도의 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종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7법에서는 하나님의 도맥, 그 종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

바로 여기서 여자 하나님관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제1법을 묻는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물론 이 문제는 제5법 천지공사에서 이미 제기가 되었다.

천지공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의 공적인 일’이란 뜻이 아니다.

천지공사는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 천지 부모님의 새 역사 창조 이야기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는 것이다!

선천은 양의 시대, 남성 중심 문화였기 때문에 아버지만 얘기했다. 어머니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를 강조하지 않았다.

어머니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는 줄 알거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지까지 갔다.

그러나 인류의 태고 문화는 전부 모성 문화이며, 동서의 인류 시원문화의 신화에서 말해주듯이 태초에는 하나님을 전부 여성으로 그렸다. 이것을 종합 정리한 서양의 유명한 학자가 있다.

멀린 스톤은 『하느님이 여자였던 시절(When God Was A Woman)』이라는 책에서,

‘태초 인류 문화의 황금시절에 인류는 하나님을 전부 여성으로, 어머니로 그렸다.

어머니 하나님을 신앙했다.

즉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 시대에 여성 신이 최고의 창조주였던 종교들이 있

었으며,

기원전 7000년경부터 가부장제의 인도유럽인족들이 중 근동 지역의 북쪽에서 대대적으로 남하해 오던 기원전 4000년경까지가 여성 신의 황금기였다' 고 했다.

여자 하나님, 수부(首婦)님

제7법 종통관에서는 상제님의 도통맥을 처음 전수받은 수부(首婦)님에 대해 공부를 한다.

상제님 진리의 여덟 개 분야 팔관법 가운데 무엇보다 이 7법은 지구촌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정으로 성숙한 가을 여성이 되려면 이 수부론에 대해, 여자 하나님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깨져야 한다.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 천지부모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질 때 인간의 문제, 즉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역할, 생명의 본성, 인권에 대하여 바르게 깨칠 수 있다.

진정한 상생의 문화인 정음정양의 조화 문화를 열 수 있다.

수부(首婦)란 문자 그대로 머리 수 자, 지어미 부 자, 모든 인간과 신들의 머리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지어미, 어머니다.

인간과 신들의 머리 되시는 여성, 여자 하나님이다.

그 수부님께서 당신이 상제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밝혀 주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오려고 모악산 산신으로 내려와 있던 중에, 상제님께서 오시기에 금산 미륵불로 인도하고 시종하다가

상제님께서 개 구(狗) 자 아홉 드는 구구지(九狗地)의 중앙인 시루산 아래 객망리 강씨 문중에 태어나시기로

나는 9년 만에 담양땅 고씨문(高氏門)에 태어났다.” (道典 11:20:1~9)

담양은 대죽으로 유명한 곳이다. 산에 가 보면 시원스럽게 쪽쪽 뺀 푸른 대죽이 숲을 이루고 있다. 그 담양 땅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하여 어머니로서 아버지처럼 천지공사를 보셨다. 인류의 새 역사를 여는 10년 천지공사를 보신 것이다. 그것이 도전 11편, 태모 고수부님편의 내용이다.

■ 제8법 일꾼관

끝으로 이 모든 문제를 우리들의 현실 속에 성사시키는 주인공, 즉 상제님 일꾼들에 대한 일꾼론이다.

일꾼이란 무엇인가? 상제님의 일꾼은 누구를 말하는가? 일꾼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일꾼이 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란 무엇인가? 일꾼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일꾼이란?

인생,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가을철에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일꾼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다. 일꾼의 역할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꾼의 자질을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방법론으로 말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일꾼은 천지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요, 천지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다.

때문에 일꾼은 천지 부모의 뜻을 알아야 한다. 천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속에 있는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쳐야 된다.

새 역사를 여는 일꾼의 마음

진리 구성의 삼박자에서 첫 박자가 무엇인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리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 틀, 시원적인 틀이 바로 천지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변화해가는가,
천지가 어떻게 만물을 낳아서 기르느냐 하는 우주의 기본 이법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 이법을 다스리는 신도, 신의 세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리는 음양적인 두 얼굴, 이성적이고 수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법과, 정반대의 얼굴을 한 순수 감성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러면서 이법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내면적인 신도 세계가 있다.

합리적이고 초월적이며 무형적인 이법과 이에 비해 유형적인 신명 세계, 이 양자가 합일(合一)하여 인간 역사가 전개되어 간다.

자연의 이법 속에서 신도의 손길에 의해 인간이 전개해 나가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진리의 기본 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바로 마음이다.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의 천지 이법을 체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내 마음속의 신도 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마음이 원지를 안다.

또 인간 역사를 바르게 깨쳐야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이 이법과 신도와 인사를 구성하고, 영원히 현재화 되는 시간의 파도 위에 인간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누가 진정한 천지일꾼인가?

우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루하루의 사건이 인류의 역사 과정이며, 그것을 계획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일꾼이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일꾼이요, 하늘에 살고 있는 모든 신명이 다 천지의 일꾼이다.

불교를 믿는다거나, 이슬람교 신앙을 한다거나, 힌두교 신앙을 한다거나, 아프리카의 원시종교를 믿는다거나,

또는 순수한 학문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다 천지에서 낳아준 천지의 자손이요 천지의 일꾼인 것이다.

그러나 일꾼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을 하늘의 꿈을 성취하는 일꾼이 누구냐는 것이다.

가을 개벽기에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선천 달린 세상의 상극 문화를 문 닫고 상생의 조화 문화를 열어주신

천지의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의 진리를 전수받아, 그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구원의 안내자,

그가 바로 진정한 천지일꾼이다.

천지부모의 심법 통하기

그 일꾼들이 팔관법 기본 틀을 통해 상제님의 기초 진리를 공부한다. 상제님의 새 진리 언어, 가을 새 문화의 깨달음의 진귀한 언어들을 공부한다. 그 진리의 바다, 진리의 눈이 천지공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새 진리 세계, 천지부모 하나님이신 상제님 태모님의 심법을 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지일심 공부로서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아혁신, 자기계발, 자기성숙의 공부다.
상제님 태모님의 마음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다.

상제님은, “너희들은 매사에 일심을 가져라. 일심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
일심만 가지면 천하를 돌리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냐.” (道典 8:57, 81)고 하셨다.

또 태모님은 “믿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마음 그대로 믿는 원심자(原心者)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善心者),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決心者)가 있으며,
또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血心者)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一心者)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추리고 또 추려 내면 마침내 마음 심(心) 자 하나가 남나니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하느니라.” (道典 11:160:1~5)고 하시며 일꾼들의 마음공부를 강조하셨다.

군사부 문화

끝으로 일꾼관에는 대두목관, 즉 사부관이 포함된다. 이것은 제7법 종통관에서 다 정리가 된다.

또 여기에는 후천 조화선경, 즉 증산도의 미래관이 들어있다. 후천선경과 일꾼관은 같은 주제이다.
앞으로 인류가 맞이하는 새 세계, 후천선경은 어떻게 건설되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구촌이 완전히 한 집안이 된다. 그렇다면 가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상제님의 군사부(君師父) 문화가 이뤄진다.

이 군사부 문화는 선천의 군사부 문화보다 더 엄정하다.
지구를 하나로 통치하는 대도문화이기 때문이다.
후천 군사부 문화에서는 천지의 참 주인이 나와서 지구를 통치한다.

■ 총정리

말씀을 정리해 보자.

팔관법에서 제1법이 상제관,

제2법이 우주관 시간론,

제3법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4법은 신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제5법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펼쳐주신 새 역사 이야기 천지공사란 무엇인가이다.

이 5법에서 인류의 새 역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배우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동서의 어떤 철학자나 역사학자가 얘기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관이다.

증산도를 통해 인간의 삶, 인간 역사의 전 과정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 제6법이 가을개벽의 실제상황이다.

여기서는 ‘새 역사가 완성되는 가을은 어떻게 오는가?

가을이 올 때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가?

왜 우리는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가?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에 대해 깨닫게 된다.

앞으로 오는 인류의 꿈의 신문명, 각 종교에서 말한 천국, 부처의 나라, 미륵님의 용화낙원,

하나님의 조화 세계, 영원의 세계가 하늘이 아닌 땅에서 완성된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며, 인류가 품고 살아온 가장 오래고 간절한 꿈이다.

제7법은 하나님의 조화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는 주인공들, 하나님의 사역자인 일꾼의 도통맥은 어떻게 전수되고

일꾼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일꾼을 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8법은 상제님 도업을 완성하는 일꾼들의 성숙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상제님의 도를 받은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선천의 삶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 상제님 일꾼의 사명은 무엇인가, 증산도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 팔관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그 기본 핵심을 잘 뚫어췌어 쉽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그 근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증산도는 우주의 진리 열쇠를 모두 틀켜주고 있다.

일꾼들 모두 이것을 제대로 공부해서 지구촌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가을 새 세상으로 인도하는 도꾼이 되기를 바란다.

도기136년 5월 조례 도훈

02

팔관법 진리공과상제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상제관 진리맥전하기

이번 호부터는 팔관법 진리 공과를 연재합니다.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이나 어느 정도 익숙한 분들이라도 단지 진리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공과를 마련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상제님 신앙의 출발

주제 생각해 보기

인간의 삶과 존재의 근원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 존재의 근원과 성공적인 삶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고, 이 우주에서 어떤 위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도전道典에서는 사람(人)의 문제를 하늘(天) 및 땅(地)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늘과 땅은 무심의 자연일 뿐인가...?

하늘과 땅이 생명의 질서에서 중요하다면, 무심해 보이는 천지 자연 그 자체가 만물을 낳는 근원이라 단정할 수 있나요? 만물을 낳은 주체는 형상과 실체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늘 땅을 다스리는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그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바른 것일까요? 각 종교에서 각기 달리 부르는 절대자는 하느님과 다른가요? 또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제 확인해 보기

인간의 삶과 존재의 근원

-만물의 근원은 ‘삼신三神’입니다. 삼신은 ①인간 등 천지만물 생명의 발원처이고, ②일신一神이며 우주의 조화성신造化聖神입니다. 삼신은 천지 대자연과 함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조화로써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위격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인간은 ①삼신의 화현체, ②천지의 열매(자녀), ③우주의 결론, ④만물 중 가장 귀한 존재(천지의 주인; 만물의 영장)입니다. 도전道典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생명의 근원

[도전] 1:1:3

[도전] 1편 후주(원전 111쪽)

[환단고기] 태백일사

●인간의 존재 위상

[도전] 2:23:2

[도전] 11:118:1~10

[이것이 개벽이다(上)] 개정신판 311쪽

▶[핵심술어] 조화 [도전] 2:19:1 측주

▶[핵심술어] 조화성신 [도전] 1:1:2 측주

하늘과 땅은 무심의 자연일 뿐인가...?

-하늘과 땅(천지)은 무형의 삼신 조화기운(비인격적 원신元神 하느님)을 가진 영적 생명 자체이며, 그 삼신이 유형화되어 드러난 분신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삼신과 더불어 천지를 조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주의 주재신(인격적 주신主神 하느님)이 음양구조로 함께 존재하며, 예로부터 이를 ①삼신하느님, ②삼신상제, ③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삼신과 삼신상제님의 차이점, 그리고 상제님과 천지 자연의 상호 관계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삼신과 삼신상제

[도전] 1:1:3(비인격적 원신인 삼신)

[도전] 1:1:4~5(인격적 주신인 삼신하느님)

●상제님의 분신 천지일월

[도전] 4:111:14~15

[도전] 6:7:5

▶[핵심술어] 원신/주신

[도전] 1:1:2 측주

[도전] 1편 후주(원전 114쪽)

[도전] 4편 후주(원전 523쪽)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느님의 공식호칭: ‘(옥황玉皇)상제上帝’, ‘증산상제龜山上帝’ (:인존상제님 호칭)

-한 분 하느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미륵부처님’ (불교), ‘상제님’ (유교와 도교) 등은 각기 다른 호칭이지만 동일한 한 분의 절대자 하느님, 미래의 구원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상제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종도사님 말씀): “오직 상제님의 진리만이 인간이 모든 진리적 의문을 다 풀고 성숙한 가을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느님의 공식호칭 [도전] 2:11 및 측주, 2:16:3

▶[핵심술어] 상제 [도전] 1:1:4 측주, 2:11:12 측주



2 상제님의 위격과 강세

주제 생각해 보기

상제님의 위격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상제上帝님은 우주를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고신至高神, 주신主神이신 하느님입니다. 도전道典에서는 상제님의 위격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제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역사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상제문화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4,300년 이전부터 우리 한민족은 천제天祭 문화를 통해 삼신상제님을 섬겨 왔습니다. 역사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상제문화의 전통으로는 어떤 사례들을 들수 있을까요?

상제님의 지상 강세는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이처럼 인류가 오랫동안 받들어 온 상제님이 이 지상에 직접 강세하신다는 소식이 여러 성자와 종교들을 통해 예고가 되었고, 마침내 역사로 실현되었습니다.

성자와 철인들이 행한 그 예언들은 어떤 내용이며,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상제님이 왜 천상 보좌에서 굳이 지상에 강세하셔야만 했을까요?

상제님의 위격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 삼신상제 [도전] 1:1:4
- 우주의 주재(통치)자 [도전] 1:1:5
- 삼계대권의 주재자 [도전] 2:16:2
- 옥황상제 [도전] 2:16:3
- 중통인의 도통주체 [도전] 2:22:4
- 공자, 석가, 예수를 보내신 분 [도전] 2:40:6
- 천지의 원주인 [도전] 5:18:5
- 미륵부처님 [도전] 6:7:2
- 천지공사의 도수 주체(나는예언자가 아니로다)[도전] 3:227:7

- ▶[핵심술어] 중통인의 [도전] 2:22:3 촉구
- ▶[핵심술어] 도수 [도전] 2:74:2 촉구
- ▶[핵심술어] 삼계대권 [도전] 2:11:4촉구

역사속에서 찾을 수 있는 상제문화는?

-상제문화의 전통은 신교의 종주국인 우리 나라의 천제天祭문화 의식과 문헌 등에서 살펴볼 수 있고, 중국의 유적과 문헌에도 상제문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신교의 종주국 조선

[도전] 1:1:6, 1편 후주(원전 111쪽)

■우리나라의 상제문화

①강화도 마리산(마니산) ‘ 참성단’ (사적 제46호)에서의 천제 봉행 / ②고구려, 백제, 신라 국왕들의 천제 기록(삼국사기) / ③ ‘원구단’ 천제 기록(고종 황제) / ④ ‘대한제국 애국가’ 원본 초기 가사에서의 상제 언급 / ⑤ ‘심청전’ 에 나오는 상제님의 심청이 구원 어명 / ⑥ 최제우의 ‘ 동경대전’ 과 ‘ 용담유사’ 에서의 상제님 언급 등

■중국의 상제문화

①천단(천자가 상제께 제사) / ②영화 <마지막 황제>의 즉위시 천제 장면(昊天上帝之位) / ③하늘에는 상띠(上帝) 땅에는 황띠(皇帝) / ④제출호진帝出乎震 「(주역」 설패전 중 문왕팔괘 설명 부분)}}

상제님의 지상 강세는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상제님의 강세 예언: 각 종교와 성자, 예언가들이 말한 하느님 강세 메시지의 핵심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교의 미륵불 강세 [도전] 1:2
-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 강세 [도전] 1:3
- 최수운의 상제님 강세 선포 [도전] 1:8
- 김일부의 상제님 강세 예고 [도전] 1:9
- 남사고의 예언(격암유록) [이것이 개벽이다(上)] 개정신판 83쪽
- 노스 트라다무스의 예언 [이것이 개벽이다(上)] 개정신판 58쪽

-상제님 강세의 이유(배경): 상제님의 강세는 신도와 이법, 지리 및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 신도적 차원의 탄원 [도전] 2:30(이마두 대성사의 집단적인 신명계 탄원)
- 지리적 강세의 이치 [도전] 1:5(주역 간艮방의 이치), 1:10(진인도통연계의 지맥 원리) / 지구의 혈穴 한 반도의 지리(태상종도사님)
- 인간계와의 인연 [도전] 1:7(진표율사의 구도), 2:36(조선의 신명 대접 전통 보답)
- 한민족 존망 위기 구제 [도전] 1:1:7~8(한민족 역사왜곡 바로잡고 인간과 신명 구원)
- 개벽 추살에서 인류 구원(우주이법적 강세 이유) [도전] 2:17(하추개벽기 상극의 화액을 다스려 인간을 구원)



3 인존상제님의 신원

주제 생각해 보기

지존하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상제님의 신성하심과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지존하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상제’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이해와 사실 인식의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에 대해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증산상제龜山上帝님은 인간으로 강세하셨으므로 탄강하신 때와 장소, 성명 등 신원身元에 관한 사실들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우리가 인존상제님의 강세에 주목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제님의 강세에 대해 도전道典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지존하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①누군가 “ 인존상제님의 강세를 이해하기 어렵다” 고 말한다면, ☞ 대부분의 경우 이는 부지불식간에 세뇌된 서양 유목문화식 ‘ 유일절대신관’ 의 기성 관념에 영향을 받은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고 열등하며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존엄한 하느님이 될 수 있는가...?”

② ‘상제’ 라는 호칭 또한 오랫동안 동양 문화권에서 하느님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 20세기 초엽 개신교 부흥과 일제 식민통치를 거치면서 낮설고 이질적이며 무속적인 용어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최수운에 의해 선포된 상제님 강세의 메시지가 동학에 의해 변질 · 왜곡된 점도 상제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③이러한 현상들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철학적, 진리적 관점이 협소한 때문입니다. 천지 대자연의 보편적 이법을 바탕으로 한 ‘조화주재적 신관’ 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증산상제님께서 몸소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감명과 은혜를 주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삼신상제님께서 몸소 인간으로 강세하신 것은 우주의 열매인 인간이 다가올 대개벽을 극복하고 완성된

4 상제님의 서신사명

▶주제 생각해 보기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후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이법理法과 신도神道와 인사人事적인 여러 이유들을 배경으로 강세하신 증산상제님께서 몸소 인간의 성장 과정을 겪으시면서 세상을 널리 구할 큰 뜻을 품으시고 인류를 위해 역사의 큰 이정표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궁극적인 목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이를 ‘서신사명西神司命’ 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일러주신 ‘서신사명’ 이 뜻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상제님의 서신사명과 천지공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9년 동안 다가오는 앞세상 인류 역사의 기틀을 정하는 천지공사天地公事を 보셨습니다. 이는 전대미문의 실로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제님이 보신 천지공사와 서신사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존귀한 사명도 알고 있는가?

상제님께서 서신사명을 집행하신 것은 상극의 원한과 살기로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는 인류를 건져내 살리기 위한 지고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제님의 진리로 생명의 참된 길을 만난 인간이 그 은덕에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상제님 진리에 보은하기 위해 인간이 행해야 할 존귀한 ‘사명’ 을 알고 있나요?

▶ 주제 확인해 보기

상제님께서 강세하신 후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정의할 수 있는가?

-인존하느님이신 증산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서신사명西神司命’이라는 강세 목적을 집행하셨습니다. 서쪽 방향을 의미하는 ‘서西’에는 결실·통일을 뜻하는 ‘가을’의 의미도 있으므로, 서신西神은 곧 가을의 신, 가을에 오시는 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신사명’은 가을우주를 여는 하느님의 결실 추수사명을 말합니다.

가을철에 농부가 결실할 열매를 가려내서 직접 추수를 하듯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극적인 대개벽의 시간대에는 우주의 주재자께서 직접 오셔서 우주의 결실인 인간 열매의 씨종자를 가려내어 추수하는 일을 맡아 행하시게 됩니다. 우주 가을철의 인존시대에는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게 되므로, 상제님께서 이 지상에 강세하여 인류구원의 서신사명을 맡아 집행하신 것입니다.

- 상제님의 서신사명 [도전] 4:21:2(서신이 명을 맡아), 4:152:2(서신사명), 5:291:12(병겁과 서신사명)
- 우주사의 인존시대 선언 [도전] 2:22:1~2(이제는 인존시대)

상제님의 서신사명과 천지공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9년간 집행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는 교화를 외친 선천 성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주주재자의 인류구원 법방으로, 대개벽기를 맞아 인간을 널리 건져 구원하려는 상제님의 강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역사 전개 시간표, 이정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류구원이라는 서신사명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이 곧 천지공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오직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짓는 일입니다.

-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전] 5:1, 5:435(천지공사의 대의)
- 천지공사의 도수를 정하심 [도전] 3:227:7(오직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존귀한 사명도 알고 있는가?

-상제님께서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서신사명의 집행이라는 더할 나위없이 존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무한한 진리와 생명의 은혜에 대해 보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의 서신사명에 보응하는 인간의 존귀한 사명은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 때에 천지 도수, 즉 천하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나 천지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당당히 참여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아 사는 길이고,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하는 일이며, 상제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 인간의 천하사 참여 사명 [도전] 2:23(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 때에)
-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도전] 2:119:3(어렵게 받아 난 몸으로)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03

팔관법 진리공과상제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상제관 공과 학습 자료

종도사님이 일러주신 상제관 말씀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참 뜻

상제님은 우주의 이법이 현실 역사에 그렇게 이뤄지도록 세상만사를 맡아서 다스리시는 주재자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우주의 질서가 인간의 삶 속에, 역사 속에서 이화되도록 해주시기 위해 이 우주 역사를 경영하고 통치하시는 상제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상제님께서 우주 속에 존재하시는 참된 뜻이다.

하느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

증산도에서는 이 우주의 주관자, 주권자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 것일까? 그 핵심의 하나는, ‘상제’는 본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언어였으며, 적어도 약 5천 년 전후부터 동양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조화주 하나님을 불러 온 호칭으로서, 시원문화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꼭 상제님이라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상제’는 서양에서 말하는 창조주의 뜻보다는 통치자이신 천상옥좌의 하나님의 이미지, 즉 이 우주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동서양 신관의 다른 점

그러면 과연 상제님은 서양 기독교에서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정말로 동일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궁극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서양의 창조주 하나님과 동양

의 상제님에 대한 인식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의 손길로 작용하는 얼굴이 없는 원신(元神, Primordial God)으로 말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우주를 실제로 다스리는 인격신, 천상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자 하나님인 주신主神으로 말하고 있다. 원신과 주신의 개념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신교神敎문화에서는 이것을 구분한다. 『도전』 1편 1장의 “삼신께서 천지만물을 낳으시니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우주를 낳은 본래의 신을 삼신三神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신은 형상이 없는 원신이다. 그리고 실제로 삼신의 신권을 쓰시며 인간의 현실 삶 속에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즉 주신은 삼신상제님이라고 달리 부른다. 동양에서는 삼신과 삼신상제님으로써 원신과 주신을 구분 짓는다.

이것이 절대자 하느님에 대한 동서양 신관의 다른 점이다. 이 동서 신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앞으로 동서 문화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문화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상제님 강세의 필연성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건너뛰는 하추교역기다. 여름문화에서 가을문화로 뛰어 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명의 속성은 아직 여름문화 이지만, 이 속에서 가을문화의 틀이 영글어 가고 있는 것이다. 왜 이 때 증산 상제님이 오셨는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곧 선천에서 후천으로 들어갈 땐 이 우주가 질적으로 도약을 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전 인간성자들의 가르침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그건 이미 2천 년 3천 년 동안의 역사 과정에서 실험해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늘·땅·인간 삼계를 다스리는 천지 대권으로 우주 질서를 뜯어고치는, 대우주의 주인이며 개벽장 하나님이신 상제님만이 끌려주실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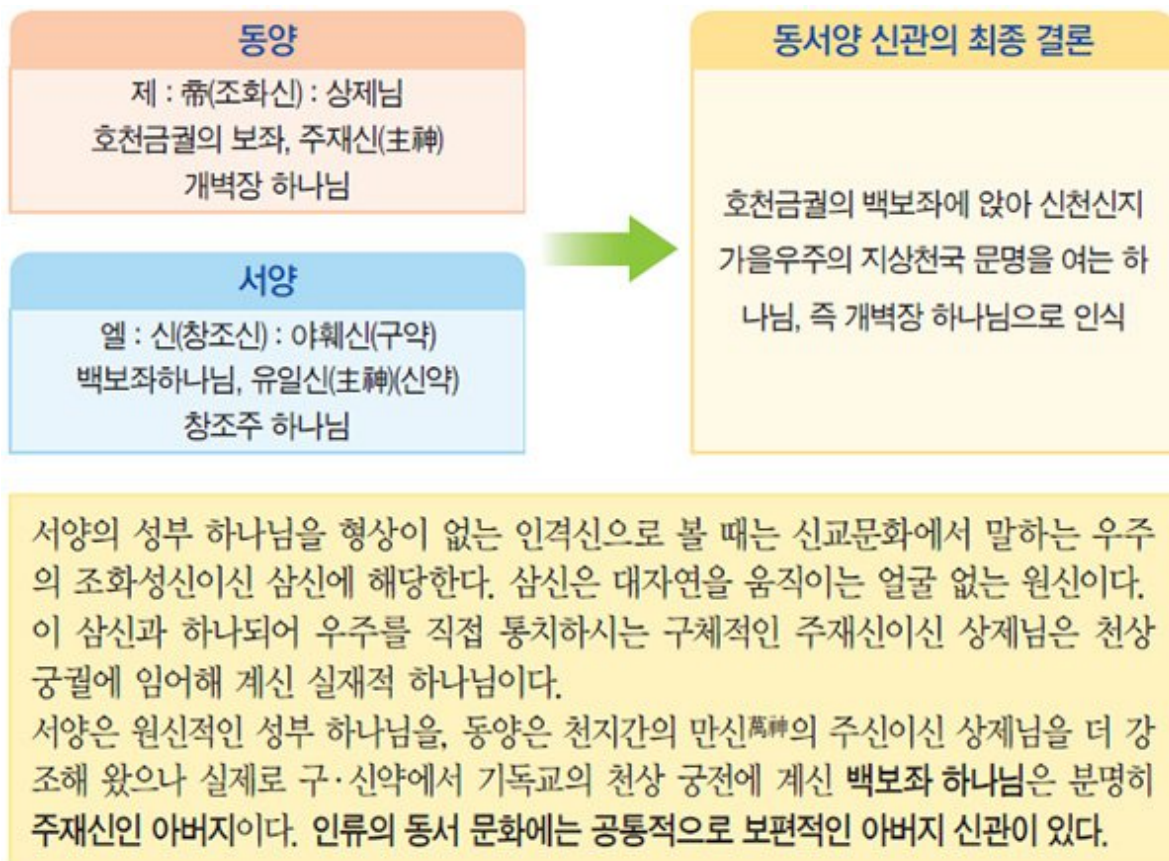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로되 천지신명天地神明이 모여들어 ‘상제님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는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하시니라.(道典 4:155)

천상세계에서 공자 석가 예수 이전의 우주의 신성과 부처 보살들이 다 회동하여, 우주의 참하나님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이 아니면 이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므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노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것이 증산도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우주사적 배경이다.

상제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 이유- 하나님의 이상을 땅에서 이루기 위함

원시개벽原始開闢으로 하늘땅이 처음 열린 이후, 여러 차례 우주일년 사계절이 돌다가 이번 선후천의 봄철에 현금의 인류가 태어났다. 그리고 여름철 문명을 거쳐서 이제 선천의 막바지 순간에 이르렀다.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대개벽의 때를 맞았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만 오신다. 왜냐면 가을은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역사의 이상을 하늘이 아닌 땅에서 건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을철을 앞두고 가을개벽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하느님관



선천종교의 핵심 내용

| | 유儒 | 불佛 | 선仙 | |
|---------------------|--|--------------|--------------|----------|
| | | | 동선東仙 | 서선西仙 |
| 도의 전공분야 | 유지범절 儒之凡節 | 불지형체 佛之形體 | 선지조화 仙之造化 | |
| 우주 주재자 및 구세주의 출현 | 상제 | 미륵불 | 옥황 | 백보좌하나님 |
| | 대우주통치자하나님 | 도솔천천주님 | 천지조화의주재신 | 개벽기우주심판자 |
| 진리의 목적 | 대동大同 | 용화龍華 | 삼청三清 | 천국天國 |
| 공통된 가르침 | ① 대변국이 닥친다: 가을개벽 때 일어나는 지축정립 전쟁 병겁 등의 대충격) ② 메시아가 지상에 오신다: 서신사명으로 오시는 증산상제님의 강세 예고) ③ 새 세상이 펼쳐진다: 가을개벽 후에 펼쳐지는 후천 선경을 의미) | | | |
| 본질과 사명 | 선천종교의 본질은 도시교민화민都是敎民化民하는, 즉 백성들을 가르쳐 새 사람 으로 변화시키는 교화敎化의 사명을 받고 나온 우주 여름철의 진리이다.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이 인간을 교화하여 인류 역사에 지대한 공덕을 끼친 면도 있 지만, 그들의 깨달음의 한계 때문에 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 | | |
| 가르침의 총 결론 | 선천종교 가르침(구원론)의 총 결론은 바로 우주의 가을개벽기에 친히 강세하 시어 선천 우주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인류를 건져 신천지를 열어 주시 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상제님을 만나라는 것'이다. (『개벽실제상황』 94쪽) | | | |
| 상제님과 선천 성자의 차이 | -상제님은 선천종교의 성자들을 내려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이시며 진리의 원주인 으로서 성자들에게 천명天命을 내리시는 우주의 절대자이시고, -선천종교의 성자들은 아버지 상제님으로부터 문명 교화의 천명을 받고 이 세상 에 내보내어진 진리의 사역꾼들이라 할 수 있다. *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 신도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 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2:40) ☞ 증산상제님은 모든 인류가 기다려온 '한 분의 구원 스승'임을 알 수 있다! | | | |

유교 경전에 나오는 신교 상제문화의 흔적

| 경 전 | 내 용 |
|------|---|
| 서경書經 | <p>“정월 초하루에 요임금이 제위의 일을 마치고 요임금 시조의 사당(文祖)에서 순이 제위를받았다 … 드디어 상제님께 類類 제사를 지내시며… 여러 신에게 두루 제사 하셨다.”</p> <p>正月初日, 受終于文祖, … 肆類于上帝… 徧于群神.(「우서, 순전」)</p> |
| 시경詩經 | <p>“상제께서 문왕에게 이르시되, 나는 명덕明德을 드러내는 소리와 색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며, 잘난 체하고 변혁함을 훌륭하게 여기지 않고 사사로운 지식을 쓰지 아니하여 ‘상제의 법’ 에 순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시다.”</p> <p>帝謂文王, 予懷明德, 不大聲以色, 不長夏以革, 不識不知, 順帝之則.(「대아, 황의」)</p> |
| 예기禮記 | <p>“남쪽 교외郊外에서 상제님께 제사지내는 것은 하늘의 자리를 정하는 것이요, 국 중國中에서 사社에게 제사지내는 것은 땅의 이로움을 진설하는 것이요, 조상 종묘에 제사지내는 것은 인仁에 근본한 것이요, 산천에 제사지내는 것은 귀신을 대접하는 것이요, 오사五祀에 제사지내는 것은 일에 근본하는 것이다.”</p> <p>祭帝於郊, 所以定天位也. 祀社於國, 所以列地利也. 祖廟, 所以本仁也. 山川 所以饗鬼神也. 五祀, 所以本事也.(「예운」)</p> |
| 주역周易 | <p>“상제님께서 진방(동방)에서 출세하시느니라.”</p> <p>帝出乎震(「설괘전」)</p> <p>“나무로 불을 때워 삶고 익힌다. 성인은 삶고 익혀서 상제님께 제향祭享하고, 크게 삶고 익혀서 성현을 기른다.”</p> <p>以木巽火, 亨飪也. 聖人亨以享上帝, 而大亨以養聖賢.(「단전」 정괘)</p> |
| 심경心經 | <p>“생각컨대 밝으신 상제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리심에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의義와 인仁이다. 오직 의와 인은 상제님의 법칙이다.”</p> <p>惟皇上帝, 降此下民, 何以予之. 曰義與仁, 維義與仁, 維帝之則.(「존덕성재명」)</p> |

초창기 기독교 신약성서에 나오는 상제上帝



우리 나라에서 신약성서가 처음 국한문본으로 번역되어 나온 것이 1903년이다. 거기에 보면 ‘상제의 자子 예수그리스도’ 라고 나온다. 그 주석에 ‘상제’ 를 ‘천주’ 라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동양 문화권에서 하느님과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던 ‘상제’ 는 후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란 말로 공식화되면서 낯설고 이질적이고 무속적인 용어로 격하되었다. (☞ 그림: 개벽실제상황 94쪽)

천주실의天主實義에 등장하는 상제上帝

解釋世人錯認天主

103 吾天主，即華言上帝；與道家所塑玄帝玉皇之像不同，彼不過一人，修居於武當山，俱亦人類耳，惡得為天帝皇耶？

102 西士曰：雖然，天地為尊之說，未易解也。夫至尊無兩，惟一焉耳；曰天、曰地，是二之也。

101 中士曰：吾國吾臣，自古迄今，惟知以天地為尊，敬之如父母，故郊社之禮以祭之。如太極為天地所出，是世之宗考妣也，古先聖帝王臣祀典宜首及焉；而今不然，此知必太極之解非也。先生辯之最詳，于古聖賢無二意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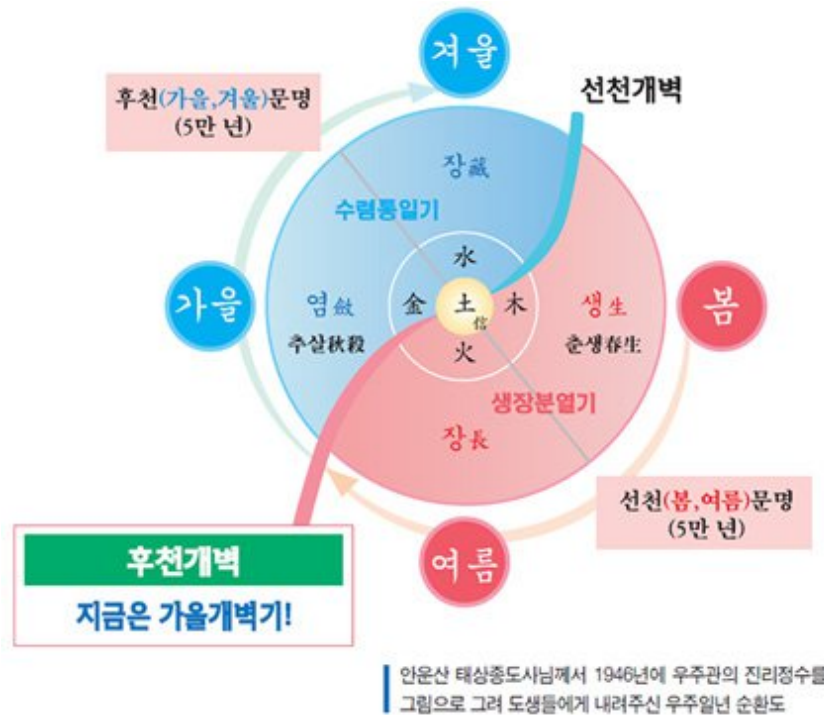
100 西士曰：造物之功盛也，其中固有樞紐矣；然此為天主所立者。物之無原之原者，不可以理，以太極為當之。夫太極之理，本有精論，吾雖曾閱之，不敢離陳其辯，或容以他書傳其要也。

38 Unfortunately it seems Ricci never wrote such a book. If he had had occasion to re-examine these themes, perhaps he would have had a more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m.

39 Ricci's Chinese scholar gives up too easily. In reality, both in Ricci's time and since, up to the present day, other Chinese scholars have defended their positions more vigorously.

40 For information on popular Taoist deities and other aspects of Chinese religious life the reader should consult such works as the following: J.J.M. De Groot, *The Religion of the Chinese* (New York, 1910); Henri Doré, *Researches into Chinese Superstitions* (Shanghai, 1914-1938); Lewis Hodous, *Folkways in China* (London, 1929); C.K. Yang, *Religion in Chinese Society* (Berkeley, 1961); Michael Saso, *Taoism and the Rite of Cosmic Renewal* (Pullman, 1972) and *The Teachings of Taoist Master Chuang* (New Haven, 1978).

“吾天主，乃古經書所稱上帝也(우리의 천주는 옛 경전에서 말하는 상제이다).” 이는 중국 선비(中士)와 서양 선비(西士) 사이의 대화체로 이루어진 『천주실의』 제 2편에 등장하는 명제로서 이 책의 절정을 이루는 대목이다. 서양의 최고신인 천주가 동양의 고대 경전에서 일컫는 하느님 상제와 다르지 않다는, 비교종교론적 명제이다.



우주의 여름(오행의 뜨거운 화火기운)과 가을(오행의 차가운 금金기운)이 바뀌는 때에는 화극금火克金 하는 상극원리(쇠 덩어리를 불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는 이치)에 의해 대변국이 발생하여 전인류가 추살秋殺로 멸망당하게 된다. 이 화극금火克金の 상쟁相爭을 중재하는 것은 중앙의 토土라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화생토(火生土) → 토생금(土生金)의 원리로 토土가 구원의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조화를 이루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주의 가을세상을 열기 위해 작용하는 이 토土가 10미토未土이며, 신미辛未생으로 오신 상제님인 것이다.

* 상제님께서 왜 신미辛未生으로 오셨느냐? 진술축미辰戌丑未가 토土인데 진술축辰戌丑은 5土다. 미토未土만이 완성된 10土다. 신미이라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신辛 자다. 가을철 결실 문화, 알갱이 문화라 하는 것은 반드시 신미토辛未土의 조화라야 된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미辛未生으로 인간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다. (태상종도사님 말씀)

상제님 한반도 강세의 지리적 이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 밝혀주신 한반도의 지리



“지정학상으로 우리 나라가 지구의 혈穴이다. 학술 용어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면 아주 틀림이 없다. 여기 한반도가 그런 곳이다. 지구의 속알갱이 고갱이 진짜 배기 땅이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주었다.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靑龍이라고 한다. 집으로 얘기하면 담이라고 할까, 초가집의 울타리라고 할까. 저 부산 태종대에 가서 보면 날씨 좋은 날에는 구주九州가 건너다 보인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그렇게 바싹 감아주었다.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白虎라고 한다. 중국 대륙 저 싱가포르까지가 내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험 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도 한 6억 이상이 사는 굉장히 큰 대륙 아닌가. 그 아프리카가 외백호다. 호주 저쪽은 안산案山이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 새는 것을 막아주는 한문□門이다. 가만히 보라. 꼭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축’ 이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말씀)

서신西神의 유형과 서신사명西神司命

| | |
|--------------|--|
| 서신의 유형 | <p>서신^{西神}은 인간 생명을 추수하는 가을의 신으로 크게 세 유형이 있다.</p> <p>① 자연서신 - 여름철 생장의 질서를 종결하는 가을천지의 숙살 기운 자체.</p> <p>② 중천^{中天}서신 - 자손을 두지 못한 신명으로 인간의 복록과 수명, 자손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p> <p>③ 주재서신 - 자연서신과 중천서신을 주재하는 인격서신으로, 신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우주의 주재자가 직접 인간 역사에 서신으로 강세하여 선천역사를 총체적으로 심판하고 인간씨종자를 추려 가을철의 통일문화를 열어 주신다. 이를 주재서신이라고 하며, 그 분이 맡은 시명^{時命}을 ‘서신사명^{西神司命}’이라 한다.</p> |
| 이치적 측면의 주재서신 | <p>음양오행의 이치로 살펴볼 때, 우주의 봄철에 목신^{木神} 생명에 의해 태어난 인간은 여름철에는 화신^{火神}의 기운을 받아 성장을 한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천지의 추살기운인 금신^{金神}이 들어와 자연의 성장과정을 끝내고 가을의 인간 추수 수렴을 위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의 명줄을 다 거둔다. 이 금신을 공간원리로 ‘서넉 서^ㅅ’자를 써서 서신, 자연서신이라 한다.</p> <p>여름의 화기운과 가을의 금기운이 만나는 가을 개벽 때는 금화상쟁^{金火相爭}이 일어난다. 때문에 반드시 ‘화생토→토생금’으로 조화되어 가을철을 맞이하도록 토가 매개를 해주어야 한다. 바로 10미토의 조화기운을 열고 오셔서 여름철 문명을 수렴·통일하여 금기운의 가을신천지를 열어주시는 조화옹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서신 주재서신이라 하며, 그 분을 상징하는 것이 기독교의 ‘백보좌 성부하나님’이며 불교의 도솔천하나님으로서 서있는 미래부처 ‘미륵불’이다.</p> |

상제님의 호칭에 대하여

| | |
|------------------------|--|
| 하느님의 공식 호칭 '상제' | 우주 통치자 하느님의 공식 호칭은 '옥황상제'이다. * 나는 옥황상제(玉皇上帝)니라. (도전 2:11:12, 2:16:3, 3:174:7, 5:298:4, 6:82) |
| 상제의 뜻 | - 上(상) : 천상의, 지존무상至尊無上의, 최고의 - 帝(제) : 지금은 임금 제 자로 알고 있으나 본래는 하나님 제 자⇒ 따라서, 상제는 '천상의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
| 하느님의 공식 호칭 '상제' | 도道는 우주는 이법을 말하고, 제帝는 도의 주재자를 가리킨다. 이 우주는 이법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이법(道)과 함께 자연계와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帝)가 주와 객, 음과 양의 일체관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상제님께서 도를 주재하여 인간과 만물을 다스림으로써 우주의 이상이 실현된다. |
|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 통치성 미륵불 혹은 하느님, 하나님이라는 호칭보다 상제라는 호칭은 우주 삼계의 최고신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인격성 상제라는 호칭은 하느님, 하나님보다 '천(天)의 주재자'로서의 인격적인 품모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역사성 '상제'는 우리 민족이 약 6천년 전부터 불러온 하느님의 본래 호칭이며 중국에서도 4,300년 전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고 등극했다는 기록이 있다. |
| 상제님에 대한 호칭 비교 | 삼신상제三神上帝 - 유교나 도교 이전에 동방의 신교문화에서 부르던 호칭. 상제는 본래 한 분이나 '조敎·교敎·치道'라는 세 가지 창조덕성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삼신(三神) 상제님'이라고 하였다. 옥황상제玉皇上帝 - 도교의 '옥황(玉皇)'과 유교의 '상제(上帝)'가 통합된 호칭으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느님의 공식 호칭. 천상의 수도인 옥경(玉京)에 계신 거룩하신 상제님이라는 뜻이다. 증산상제甄山上帝 - '증산'이란 인간으로 강세하신 상제님의 도호이다. 따라서 증산상제님 호칭속에는 인간으로 강세하신 '인존(人尊) 천주님의 의미가 들어있다. |

증산상제님의 생애

| | |
|-------------|---|
| 도기 원년(1871) | 상제님은 본래 천상 도솔천 천주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천상의 신성, 부처, 보살 등 천지신명의 간절한 하소연으로, 인류의 시원 성씨인 신농神農의 혈맥과 도맥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
| 도기 6년(1876) | 6세, 부친이 태인 장군리에 사는 훈장 황씨를 불러 천자문을 가르치려 하셨으나, 상제님은 "하늘 천 자에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따 지 자에서 땅의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하시므로 부친이 부득이 훈장을 돌려보내셨다. |
| | 7세,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로서, 마음 경계와 천지개벽의 기개를 노래한 시 '遠志懷抱(遠志懷抱) (마음 편히 하니 마음 편히 깨닫고, 두려니) 壯懷懷抱(壯懷懷抱) (크게 소위하고 하니 천 |

| | |
|-----------------------------------|---|
| 도기 7년(1877) | 步忿地(일터 뒤터 아니 땅이 거덜까 주업고) 天呼忿大驚(그제 소더시더 아니 아 늘이 놀랄까 두렵구나) 을 지으셨다. 이것은 훗날 낡은 천지를 문닫고 새 우주를 개벽하여, 인류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심법과 생명개벽의 큰 지혜를 보여주신 것이다. |
| 도기 14년(1884) | 14세, 미륵불이 땅에서 솟았다 하여 불출암이라 불리운 절(대인 매당)에서 훗날 수석 성도가 되는 김형렬을 만나셨으며, 이 날 상제님은 그에게 공중에 뜨는 조화를 보 여주셨다. |
| 도기 21년(1891) | 21세, 부모님의 명을 받들어 하동 정씨 집안에 장가드셨다. 상제님께서 계룡산 정씨 왕국의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 정씨 가문에 취객이 되었음을 밝혀주셨다. (道典 4:70) |
| 도기 24년(1894) | 24세, 고향 땅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때 동학군의 무리를 앞서기도 하고 뒤를 쫓기도 하시며 혁명이 실패하니 종군하지 말 것을 깨우쳐 주셨다. 동학군의 패 망을 전후하여, 광구천하의 큰 뜻을 선포하셨다. |
| 도기 25년(1895) | 25세, 김형렬과 더불어 김재 내주평에서 서숙을 열고, 잠시 김형렬의 아들 찬문과 학동들을 가르치며, 유불선 음양 참위의 모든 글을 읽으셨다. |
| 도기 27년(1897) | 27~30세, 3년 동안 천하를 유력하고 돌아오시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새롭 게 된다.”고 선언하셨다. |
| 도기 31년(1901) | 31세, 음력 7월 7일,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대신문天地大神門을 여시고 삼계 대권三界大權을 주재하시며 만고에 없는 무상의 대도통 중통인의中通人義를 이루셨다. 이 때 상제님께서 수종을 든 박금곡에게 “이 천지가 내 천지рода! 나는 옥황상 제(玉皇上帝)니라.”라고 선언하셨다. 이 해 겨울에 본택에서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공사를 행하실 때 식음을 전폐하시고, 불을 때지 않은 방에서 창문에 종이를 바르 지 않으신 채 홀웃 차림으로 아흐레를 지내시며 신명들에게 칙령勅令을 내리셨다. |
| 도기 32년(1902) ~ 도기 38년(1908) | 천지대신문을 여신 1901신축년에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기 위한 기본 틀을 짜셨 고[planning], 이듬해 도기 32년 음력 4월 5일, 원평 장터에서 김형렬을 다시 만 나시고 음력 4월 13일에 김형렬의 집에 가서 세 번 다짐을 받고 김형렬을 천지공 사의 식주인으로 정하셨다. 그로부터 8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다. ●초기(1902~1903), 김형렬 김자현 김병욱 백남신 성도 입문. ●중기(1904~1906), 정성백 신원일 김광찬 김성국 김덕찬 성도 입문. ●후기(1907~1909), 후천개벽문화를 여는 기둥이 되는 주요 성도들, 김경학(1907 년 4월), 최창조(4월), 차경석(5월), 박공우(6월), 안내성(6월) 문공신(가을), 신경수 (겨울), 어천하신 해에 이치복(1909년 1월) 성도 입문. ●종통전수 후계자 : 정미(1907)년 음력 11월 3일, 고씨 부인을 맞이하여 보신 수 부책봉공사를 통해 “내가 너 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다”,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네게 맡기리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고 선언하시며 고수부 님을 종통 후계자로 세우셨다. |
| 도기 39년(1909) | 39세, 천상보좌로 어천하셨다. |
| 도기 41년(1911) |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통과 종통을 전수받으신 상제님의 수부 태모님이 상제님의 성도들을 소집하여, 첫 도장을 개창하셨다(증산도 개척사의 첫걸음). |

04

팔관법 진리공과상제관3

팔관법 진리 공과 | 상제관 공과정리

상제관 전하기 핵심 포인트 (5가지)

첫째, 우주일년의 결론이 상제님 강세임을 확실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상제님 강세의 원리를 우주 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둘째, 상제上帝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역사속의 상제문화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신교의 상제문화가 인류 문화역사의 시작이요 결론임)

넷째, 선천성자들의 가르침과 확연히 다른 상제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들의 차이 / 진리 위대성의 차이)

다섯째,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이유와 서신사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 천지공사를 전해야 함)

상제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상제上帝는 하느님의 공식 호칭이고, 증산龜山은 인존상제님의 존호입니다. ‘상제’와 ‘증산’이라는 글자에 담긴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상제上帝의 의미: _____

② 증산龜山の 의미: _____

2. 우주 절대자의 호칭에는 ‘하느님, 하나님, 미륵님, 천주님’ 등 여러 호칭이 있는데 왜 꼭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상제님께서 동방 조선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사실에는 이법理法과 신도神道, 인사人事 등에 관련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강세 이유(배경)를 정리해 보세요.

- ①이법(우주원리) 측면의 강세 이유:
- ②신도(신명계) 측면의 강세 이유:
- ③인사(인간계와의 인연) 측면의 강세 이유:
- ④지리(지정학) 측면의 강세 이유:
- ⑤기타 강세 이유:

4. 한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상제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문화에 남아있는 상제문화의 자취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5. 불교, 기독교, 유교 가르침의 총 결론은 상제님이 강세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종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서술해 봅시다.

- ①불교의 메시지:
- ②기독교의 메시지:
- ③유교의 메시지:

6. 강세하신 인존상제님의 신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을 채워 보세요.

- ① 강세 시기: 1871 신미辛未년 음력 □월 □□일 양력 11월 1일 자시子時
- ② 강세 장소: 전라도 □□군 우덕면 □□리(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리)
- ③ 존성尊姓: □□, 성휘聖諱: □□, 아명兒名: □□, 자字: □□, 도호道號: □□

7.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과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8. 상제님께서 인류를 위해 구원의 큰 뜻을 집행하셨습니다. 상제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실천해야 할 사명이나 도리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05

팔관법 진리공과우주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우주관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

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진리의 원천 우주宇宙

주제 생각해 보기

진리의 모체인 우주의 존재 모습은 어떤 것인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근원적 의문들(우주와 인생의 생성 및 존재 목적 그리고 성공적 삶의 정체 등등)을 풀기 위해 진리眞理를 찾게 됩니다.

‘왜Why’ 에 대한 답을 얻고 ‘무엇What’ 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진리를 파악하는 첩경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주宇宙의 생명 원리와 존재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전道典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우주를 변화시키는 시간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하느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도전道典 말씀을 살펴보면, 우주의 변화는 ‘시간의 법칙’ 과 연관되어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변화의 속성과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주 변화의 시간 주기는 얼마인가?

우주가 일정한 시간의 주기성을 갖고 변화한다면, 그 변화의 주기는 얼마나 되며 그것이 구성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주제 확인해 보기

진리의 모체인 우주의 존재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인간人間’은 우주에서 태어나 우주의 속성을 온전히 가진 존재이므로, 인간 삶의 생사와 희노애락 등 모든 문제들은 우주의 틀과 법칙 속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만물에 있어서 우주론은 진리의 출발점이요 바탕이며 고향과 같습니다.

-우주 대자연의 속성과 이법을 체계화시킨 틀을 역易이라 합니다. 상제님의 진리세계는 곧 ‘우주원리’이고, 우주원리는 ‘역易철학’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주(천지)는 삼신조화 기틀에 의해 문득 한꺼번에 열리면서 사방에서 옥여들어 생성됐으며, 끝없이 낱고 쉽없이 변화하며 순환 운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지이치가 들어있는 역易

[도전] 2:20:5(천지 이치가 역易에), 5:248:6(주역은 개벽때 쓸 글)

●삼신 기틀로 열린 천지

[도전] 1:1:1~3(삼신기틀로 ‘문득’ 열린 천지)

●한꺼번에 열린 천지

[도전] 6:83:3(24방위에서 한꺼번에 열린 천지)

●사방에서 옥여든 천지

[도전] 11:229:7(동서남북에서 옥여든 천지)

●생성 순환의 우주속성

[도전] 2:49:4(생성과 운행의 천지 속성), 2:20:4(우주의 순환 이치) + 2:20:4 측주(만물 창조와 생성의 근본

원리)

우주를 변화시키는 시간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중국 고전 <회남자> 등에 의하면 우주는 거대한 조화의 생명체이고 영원히 자존자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합일체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는 주기적인 시간의 순환 변화 속성(:극즉반極則返의 원리/분열&통일/역도수&순도수)을 가지며, 순환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 마디를 계속 이어가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화 운동을 합니다. 즉, 우주론은 시간질서의 순환변화론입니다.

-이러한 시간 변화의 주기적 순환 질서는 낱고(生) 기르고(長) 거두고(斂) 쉬는(藏) 4박자 리듬의 속성을 지닌 채 운행됩니다.

● 음양 사시 순환의 이법

[도전] 11:102:3, 4:95:11(음양 사시 순환)

● 생장염장의 우주순환법칙

[도전] 2:20:1~3, 4:58:4(생장염장 4박자 순환 이치)

▶ [핵심술어] 생장염장 사의

[도전] 2:20:1 측주(24방위에서 한꺼번에 열린 천지)

우주 변화의 시간 주기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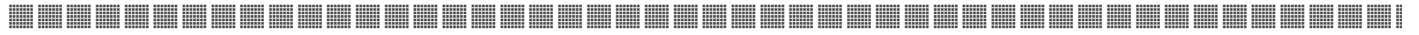
-우주변화의 시간 주기는 129,600수로서, 이 순환주기 역수는 중국 송나라 때의 대학자 소강절이 밝혔고, 상제님께서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변화의 기본 순환 정도수 360 × 완전한 대순환 1주기 도수 360 = 129,600

-소강절은 이 변화의 순환을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수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강절의 지식

[도전] 2:32:1(알음은 강절康節의 지식이 있나니)



2 우주일년의 변화원리

주제 확인해 보기

‘우주일년’의 의미와 출처는 어떻게 되는가?

우주의 변화운동이 4박자 주기의 속성으로 움직인다면 ‘우주일년’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이 ‘지구일년’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우주일년의 변화 원리 도표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요?

우주일년 시간 변화의 절대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주일년 변화의 절대법칙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또한 4박자의 각 변화 법칙과 관련되는 특성과 개념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주일년의 변화에서 ‘개벽’은 어떤 의미인가?

우주가 1년 주기의 변화 과정을 거칠 때 ‘개벽’이라는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개벽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또한 그 개벽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주제 확인해 보기

‘우주일년’의 의미와 출처는 어떻게 되는가?

-우주일년은 대우주가 만물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을 낳고(生生)-기르고(장長)-결실하고(염斂)-쉬는(장藏) 순환의 1주기 흐름을 말합니다. 이는 지구가 1년의 순환주기를 거치며 낳고 기르고 결실하고 쉬는 순환의 원리와 같습니다.

-대우주와 지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전체와 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 속성과 순환운행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지구1년과 우주일년은 시간주기의 단위와 운행의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나라 소강절은 우주 변화의 수리적 이치를 발견해 냈지만, 이를 우주1년의 문명적 순환 변화의 이법으로 체계화시킨 ‘우주1년 도표’는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에 의해 1946년 최초로 이 세상에 공표되었습니다.

● 우주1년 순환의 이법

[도전] 2:20:1~3(생장염장 이치), 4:84:4 (만사는 이치 없이 못함)

■ 지구1년과 우주1년의 차이점

①시간주기의 차이: 지구는 365일 주기 / 우주는 129,600년 주기

②운행목적의 차이: 지구는 초목농사 성공시켜 인간문명을 유지 존속시킴 / 우주는 만물의 영장 인간을 성공시켜 우주순환을 유지 존속시킴

우주일년 시간 변화의 절대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주의 본성은 끊임없는 변화성인데, 우주가 변화해 가는 절대 법칙은 크게는 선후천 음양 순환의 2박자 원리이고, 구체적으로는 생장염장의 4박자 원리입니다.

-또한 생장염장 4박자 변화 이법의 특성들 및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 주요한 변화 섭리의 핵심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 변화의 大원칙

[도전] 2:20:4, 4:95:11, 11:102:3(음양사시순환)

● 우주의 2박자 변화

[도전] 8:62:3(춘생추살/음양극즉반)

- 우주의 4박자 세부변화

[도전] 2:20:1~3(생장염장)

- 현실 인사의 변화원리

[도전] 2:72(이신사理神事 원리)

- 생장염장의 특성과 연관 개념

[도전] 원전 133쪽 <우주의 변화원리> 도표

우주일년의 변화에서 ‘천지개벽’은 어떤 의미인가?

-천지개벽이란 천지일월 각 계절의 운행 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대가 열리는 천지기운의 대변화 사건을 말합니다. 우주 사계절 변화의 월월 시간마디(10,800년)마다 인류문명은 소개벽의 변화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며, 특히 양에서 음의 마디로 전환되는 큰 변화의 마디인 하추교차기에는 가을 대개벽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를 후천개벽이라 합니다.

-대개벽 변화의 원인은 ①화금상쟁火金相爭의 우주이치와 ②선천 5만년간 누적된 인류의 원한과 악업이 우주의 가을환절기 기운을 타고 살기로서 폭발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화극금火克金の 이치

[도전] 2:20:1~3(생장염장 변화이치) / 8:62:3(춘생추살의 이법) / [도전] 원전 133쪽 <우주의 변화원리> 도표

- 선천원한의 누적 폭발

[도전] 2:17,7:38(선천 5만년 인류 원한의 살기 폭발) / 5:347:7(무도無道로 병든 천하)

- 개벽 운수의 불가피성

[도전] 2:73:4(개벽의 운수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3 가을개벽의 이법과 현상

주제 생각해 보기

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통상적으로 개벽이란 파국과 종말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개벽이라는 말에 심한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주의 이법으로 발생하는 개벽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우주일년에서 현 시대는 어느 시간대에 위치해 있는가?

우주1년의 변화 이법은 생장염장의 틀로 각기 변화의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인류는 우주1년의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지 도전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시점을 상징하는 현실적 징표들도 설명해 보세요.

개벽의 세 가지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후천대개벽의 시대에는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후천개벽의 3대 현상에 대해 정리할 수 있나요?

주제 확인해 보기

개벽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개벽을 종말이나 파국으로 보는 것은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에 불과합니다. 개벽은 신천지 문명의 새 장을 여는 것(re-newing)이므로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일시적 통과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가을 대개벽의 현상은 인간의 가치관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천리天理로 오는 것이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산고産苦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믿음의 대상이 아닌 자연현상이며 진리의 물결입니다(: [개벽을 대비하라])

우주일년에서 현 시대는 어느 시간대에 위치해 있는가?

-지금 시대는 우주1년 중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전환기(夏末秋初)로서, 하추상극원리, 춘생추살원리에 의한 후천대개벽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때입니다.

-분열 발전의 극기인 여름철 말기임을 알 수 있는 징표로는 물질만능시대, 극도의 다원 분열시대, 경제 중심의 상극 현상, 개인 및 집단의 이기주의 팽배, 종교 백화점 시대, 도덕윤리의 타락시대 등의 시대 특성들을 들 수 있습니다.

- 하추전환기인 현 시대

[도전] 2:43:1(지금은 가을운수의 시작), 7:38:4(큰 가을의 때를 맞이함)

- 생사판단의 시대

[도전] 2:44:3(이때는 생사판단을 하는 때)

- 대개벽기를 맞은 천하

[도전] 2:42:1(대개벽기를 맞은 천하)

개벽의 세 가지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개벽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자연개벽(천체 정립으로 인한 시간질서의 변혁), 문명개벽(가을철 인존문명으로의 질적 대비약), 인간개벽(신인합일 영성문명을 열기 위한 인간의 심신과 생활문화의 개벽)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자연개벽, 상씨름개벽, 병란개벽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전道典에서는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개벽의 세 가지 현상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구들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세요.

● 개벽현상①(자연개벽)

[도전] 4:152, 7:23~24(지각변동,지축정립,공전궤도의 변화)

● 개벽현상②(상씨름개벽)

[도전] 7:35, 5:7, 5:406(남북상씨름 병란兵亂)

● 개벽현상③(병란개벽)

[도전] 7:32~44(병란病亂의 발생과 전개 양상)

▶ [핵심술어] 의통

[도전] 7:33:5 측주(병겁 심판 때의 인류 구원 법방)

▶ [핵심술어] 구원의 법방

[도전] 7:39:2 측주(개벽기 구원의 유무형 법방)

▶ [핵심술어] 백조일손

[도전] 7:38:1 측주(가을개벽기 구원의 정신을 상징)

▶ [핵심술어] 큰 병(의통목)

[도전] 7:38:5 측주(의통목의 의미)



4 개벽의 극복과 구원섭리

주제 생각해 보기

가을개벽시 인간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가을대개벽의 천지이법은 인류로 하여금 개벽의 큰 위기에 직면하게 하지만, 한편으로 개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주의 엄정한 이법으로 발생하는 개벽에서 굳이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필요성 또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가을개벽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는 무엇인가?

가을대개벽기에서의 인류 구원은 너무도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라서 단순히 기존 문명 차원의 합리적 이념이나 행동의 실천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주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구원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후천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이법은 어떤 것인가요?

인류 구원을 위해 상제님이 내려주신 가르침은 무엇인가?

상제님께서 인류를 위해 내려주신 구원의 진리는 실로 깊고 위대한 것입니다. 후천개벽기 인류 구원을 위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여러 가르침 중 현실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구원의 법방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나요?

주제 확인해 보기

가을개벽시 인간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주 가을의 추살 기운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대자연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인간의 선악이나 가치판단에 상관 없이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주 천지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요, 삼신의 조화기운을 온전히 받아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며, 개벽 후에 인존시대의 신문명을 열고 누려야 하는 후천 결실문명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개벽기에 허망하게 사라질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대상이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역사 속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천지의 완성이고 우주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개벽기에 인간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 우주사의 인존시대 선언

[도전] 2:22:1~2(이제는 인존시대)

- 인간의 존귀성

[도전] 2:23(사람이 최고로 존귀) / 8:100(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 인생의 근본 원리

[도전] 11:118:4~10(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결실 못함)

- 삼신일체의 인간 존재

[환단고기] 단군세기 서序(조교치-성명정 삼신일체의 기운을 받은 인간)

가을개벽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는 무엇인가?

-상제님께서는 우주의 열매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인간의 몸으로 탄강하셔서 인간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처방을 내리심으로써, 장차 다가올 대개벽을 극복하고 인간완성의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틀을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존 상제님의 강세와 인간 구원 사명의 섭리를 ‘서신사명’이라 하고, 그 구원 사명의 집행 틀을 인간 역사로 구체화한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 인존상제님의 서신사명

[도전] 4:21:2(서신이 명을 맡아), 4:152:2(서신사명), 5:291:12(병겁과 서신사명), 4:155:1~2(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 개벽기 인간 씨종자 구원

[도전] 8:21:2(씨종자라도 있어야)

인류 구원을 위해 상제님이 내려주신 가르침은 무엇인가?

-상제님께서는 인존으로 강세하셔서 인류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실천 법방들을 일러주셨습니다. 생활 속에서 인류가 행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적 가르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① [도전] 2:73, 2:137, 5:347:12 (천지대세를 자각해야)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② [도전] 7:19, 2:78, 11:407 (선령신 봉경)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③ [도전] 2:23, 8:100 (천하사에 참여)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④ [도전] 7:75 (태을주 많이 읽기)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⑤ [도전] 5:416 (묵은 습성의 타파)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⑥ [도전] 2:78 (3생의 인연) / 6:61:2 (바른 길 찾기의 중요성)
- 개벽기 실천 구원법방⑦ [도전] 8:1 (성사재인의 일꾼사역에 나서야)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06

팔관법 진리공과우주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우주관 공과 학습 자료

종도사님이 일러주신 우주관 말씀

우주의 존재 목적

이 우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2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숏한 별들이 우주 속에서 순간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 변화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우주의 현란한 움직임의 목적은 사람을 낳아서 길러내는 데 있다. 즉 우주에는 봄여름을 넘어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우주는 봄여름에 인간을 낳아 길러서 가을에 그 인간을 성숙시킴으로써 우주의 목적을 실현한다. 인간을 통해, 인간의 손을 빌어서 천지의 꿈과 이상을 건설하는 것이 우주의 존재 목적이다.

시간은 천지의 변화 현상의 흐름

우주관의 문제는 한 마디로 시간의 문제다. 시간이 무엇인지, 시간의 본성, 그 변화의 기본정신을 확연하게 깨는 것이 우주관의 핵심 명제다. 천지 만물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물결에 휩쓸려,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이 시간에 대해 깨치는 것은, 천지 자연과 생명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의 근본이다.

철학의 문제도, 종교의 문제도, 결국 시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간에 대한 인식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인생사 모든 게 시간의 문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주는 왜 생겨나고, 인간은 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의 참된 가치는 뭐냐? 이 모든 문제가 시간과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시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우주에는 변화 현상이 있다. 우리 마음의 세계로부터 극대 우주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현상세계가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실체는 모두 천체의 운동이다. 만물의 변화는 천체의 끊임없는 순환운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안고 공전한다. 8대 행성이 그 주기와 모양새는 각기 다르지만, 태양을 안고 함께 돈다. 이러한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의 변화를,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의 물결로 인식하고 있다. 또 그 변화 리듬에 맞추어 우리의 생리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는 자연의 운동 리듬에, 자신을 적응시키며 살아간다. 인간은 자연(천지)과 일체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천지 일월의 변화 현상을 척도질하는 말이다. 지속되고 있는 우주 변화의 단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흘러간 것은 과거, 진행되고 있는 건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건 미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실체가 없다. 시간은 끊어진 마디가 없다. 시간의 본성은, 천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탕자리는, 불가에서 말하는 공(空)이다.

시간은 천지 만물의 변화 현상의 흐름(flow)이다. 그러나, 시간은 천체의 물리적 순환 운동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나선형으로 끊임없이 돈다. 이 방향성을, 증산도에서는 우주의 목적성으로 말한다. 우주에 내재된 목적성으로! 그것이 바로 지구와 우주 1년의 시간 리듬이다.

동서양의 우주관 - 서양의 창조론 vs 동양의 개벽開闢론 · 생성生成론

서양의 우주 창조관은 기독교 사상으로 대변되는 유일신 창조관이다. 그에 상응하는 동양의 창조론이 개벽론인데, 이 개벽론이라는 용어보다 더 우리 귀에 익은 말이 생성론生成論이다. “천생지성天生地成, 하늘은 낳고 땅은 성취한다. 즉 하늘에서 창조하고 땅에서 그 창조가 완성된다.” 는 것이 생성론이다.

이에 비하면, 서양의 창조론은 반쪽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사막문화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서 하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물리적인 하늘도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 또 하늘에서 땅을 창조했다고 한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때문에 하늘(아버지)과 땅(어머니)은 수평적이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 관계로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늘과 땅은 우리 증산도의 우주론에서처럼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간다.

다시 말하건대, 동양의 개벽론은 다른 말로 생성론이다. 하늘은 창조하고 땅은 모든 것을 완성한다. 곧 이 우주 안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현실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우주변화의 근본 틀, 생장염장

이 우주에는 근본적인 보편적 현상이 하나 있다. 변화한다는 것! 흘러간다는 것! 이 우주에는 고정돼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우주에는 변變과 불변不變의 원리가 항상 병존한다. 다시 말해서, 우주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근본법칙은 불변이란 말이다. 이기론理氣論으로 보면, 그게 리理다. 우주의 이법!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 창조 법칙의 리듬꼴!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증산도에서는, 그것을 우주 1년 4계절의 사이클로 밝혀준다.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보라.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위이화라 하느니라.” (道典 4:41:4)

이 말씀은, 상제님이 천지를 맡아 우주만유를 통치하시는데, 생장, 낳아서 길러 가지고, 염장, 거두고 저장하며 휴식하는 네 가지 원리를 쓰신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우주가 만물을 낳고[生], 기르고[長], 거두고[斂], 폐장하여 완전히 생장을 멈추고 쉬는[藏], 이 4계절의 변화는 ‘무위이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우주에 내재한 이법에 의해 저절로 변화하는 것이지, 창조주가 작위적作爲적으로 고안해 낸 게 아니라는 말씀이다.

선후천 변화의 차이 - 양量적 변화와 질質적 변화

선천 봄개벽을 통해서 시원 인간이 처음으로 몸을 받아 지구촌에 태어나, 오만 년 동안 문명을 열어 현재까지 내려왔다. 여름철 말이 되면 지상에 초목이 무성한 것처럼 인간종자가 지구촌에 짝 들어찬다.

선천의 변화는 양量적인 변화다. 숫자가 한없이 증가한다. 또한 지엽이 벌어져 가면서 자꾸 근원에서 멀어진다. 그로 인해 인간도 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근본을 잃어버림으로써 도덕률이 무너져버린다.

그런데 가을로 들어가면 질質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 곧 우주의 계절 변화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면서 인류 문화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선천에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문화도 자기중심적으로 구분지어 생각해 왔다. 중동 중심, 인도 중심, 중국 중심, 그리스 로마 중심 등 상이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세계

관, 우주론을 개발하며 몇 천 년 동안을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간의 의식과 천지자연의 변화, 인간 문명의 변화 등 모든 변화가 통일로 돌아간다. 지구 1년에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봄여름철에 낳아 길러 온 초목농사의 목적을 완수하듯이, 우주 1년에는 선천 봄여름 동안 다양하게 분열하여 발전해 온 인간 문화의 진액을 거두어 가을의 통일문화를 연다.

춘생추살春生秋殺, 가을개벽은 우주의 자기부정

우주의 이법, 생장염장을 네 글자로 정리하면 ‘춘생추살春生秋殺’이다. 봄에 인간을 낳고 여름철에 길러 가을이 되면 천지의 추살로 인간 생명을 거둔다. 가을의 숙살기운, 서릿발 기운으로 오는 괴병이 모든 인간의 명줄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한 번은 이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이 천지조화로 죽이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면 우주와 더불어 영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넘어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조상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 바로 여기에 인간 구원 문제의 심각성, 절대성이 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위대한 과학자라도, 이 세상에 공덕이 많은 사람이라도, 또는 선천 성자의 어떤 가르침에 매달린 사람이 됐든, 산골짜기 선방에 앉아 30년, 50년, 80년, 100년을 수행한 사람이 됐든, 불쌍한 어린아이가 됐든, 누구도 가을천지 추살로 넘어간다. 우주의 이법, 우주 섭리에는 선악의 시비가 없다. 자연 섭리는 인간이 뭐라고 평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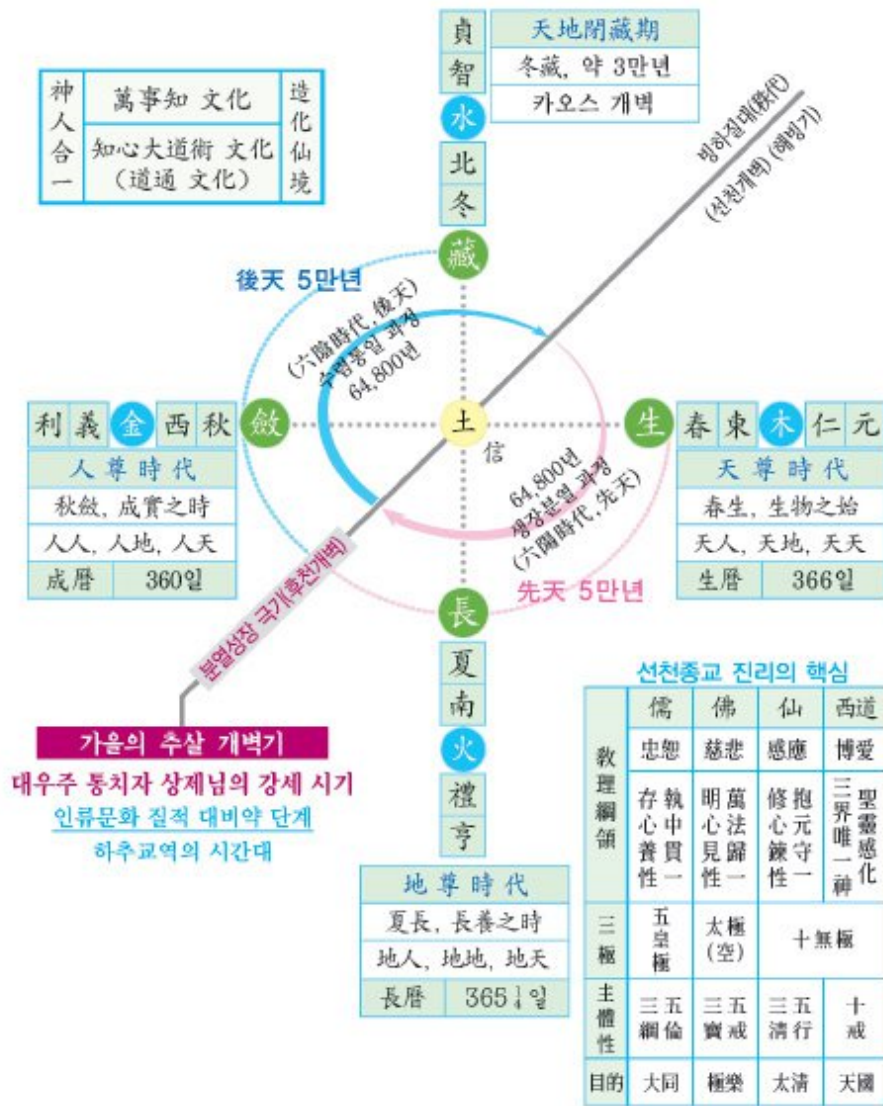
상제님은 “천리는 지공무사하여 털끝만큼의 사육도 없다.”(道典 3:305:6)고 하셨다. 천리, 하늘의 이법은 지극히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전혀 없다. 천지 불칼로 베고 병겁으로 죽일 때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누구는 불쌍하다고 울고 그런 게 없다. 오직 찬바람만 불 뿐이다.

지금 우리는 지구 1년 사계절 가운데 가을을 맞이하였다. 찬 서릿발 기운이 한 번 내리치면 얼마나 많은 낙엽이 떨어지는가. 어디 들녘이나 산간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라. 홀연히 바람이 한 번만 스쳐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천지조화의 이법, 추살에 의해 다 떨어져 버린다. 천지의 대덕도 봄에는 은혜를 베풀어 나를 낳아주시고, 가을에는 이 우주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생장을 끝맺고 만물을 일시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거두기 위해 추살의 서릿발로 내리친다. 우주의 자기부정! 이것이 가을 우주개벽, 후천개벽이다.

| 출 처 | 내 용 |
|--|---|
| <p>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 二 찬도지요 纂圖指要 下</p> | <p>〈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이치 〉</p> <p>日爲元，元之數一。月爲會，會之數十二，星爲運，運之數三百六十，辰爲世，世之數四千三百二十。則是一元統十二會三百六十運，四千三百二十世。一世三十年，則一十二萬九千六百年。一十二萬九千六百年是爲一元之數。</p> <p>일일은 원일이 되고 원일의 수數는 1이다. 월월은 회월이 되고 회월의 수數는 12이다. 성월은 운월이 되고 운월의 수數는 360이다. 신월은 세월이 되고 세월의 수數는 4,320이다. 곧 1원일은 12회월 360운월 4,320세월을 거느린다. 1 세월은 30년, 곧 129,600년이다. 129,600년은 1원일의 수數이다.</p> <p>日甲，日之數一歲一周，月子至亥，月之數十二歲十二周也。星三百六十隨天而轉日一周勢三百六十周也。一日十二辰積一歲之辰，則歲四千三百二十辰也。</p> <p>일일은 갑에서 계까지이고 수數는 1세월 1주월이다. 월월은 자에서 해까지이고 수數는 12세월 12주월이다. 성월은 360이고 하늘을 따라 해가 한 바퀴 도는데 일일은 1주월이고 세월은 360주월이 된다. 하루의 12진일이 쌓여서 1세월의 진일이 되는데 세월은 4,320진일이 된다.</p> <p>一元之數，卽一歲之數也。一元有十二會，三百六十運四千三百二十世猶一歲十二月，三百六十日，四千三百二十辰也前六會爲息後六會爲消卽一歲之自子至巳爲息自午至亥爲消開物於星之七十六，猶歲之驚蟄也。閉物於三百一十五，猶歲之立冬也。一元有十二萬九千六百歲，一會有十二萬九千六百日，一運有十二萬九千六百日，一世有十二萬九千六百辰，皆自然之數非有所牽合也。或曰，氣盈於三百六十六，朔虛於三百五十四，今經世之數以三百六十爲率何也。曰，所以藏諸用也。</p> <p>1원일의 수數는 1세월의 수數이다. 1원일에 12회월이 있고 360운월, 4,320세월은 1세월 12월 360일 4,320진일과 같다. 앞의 6회월은 식으로 양陽이 자라는 것이고 뒤의 6회월은 소消로 양陽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1세월은 자에서 사까지가 식이고 오에서 해까지가 소消이다. 만물이 열려지는 것은 성월의 76인데 이는 1년의 경칩驚蟄에 해당한다. 만물이 닫히는 것은 성월의 315인데 이는 입동立冬과 같다. 1원일에 129,600세월이 있고 1회월에 129,600진일이 있다. 이는 모두 자연의 수이며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물기를 기氣가 차면 366일이 되기도 하고 또 삭朔이 부족하면 354일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황극경세서皇極經世』의 수數는 360일을 기준으로 하니 어째서인가? 가로되 이는 모든 용을 감추었기 때문이다.</p> |

| 출 처 | 내 용 | |
|--|--|---------------------------|
| <p>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 二 천도지요 纂圖指要 下</p> | <p>元會運世之數,大而不可見.分釐絲毫之數,小而不可察.所得而數者,卽日月星辰而知之也.一世有三十歲,一月有三十日,故歲與日之數三十.一歲有十二月,一日有十二辰,故月與辰之數十二.自歲月日時之數推而上之,得元會運世之數.推而下之,得分釐絲毫之數.三十與十二反覆相乘爲三百六十,故元會運世歲月日時八者之數皆三百六十.以三百六十乘三百六十,爲十二萬九千六百,故元有十二萬九千六百歲.會有十二萬九千六百月.運有十二萬九千六百日.世有十二萬九千六百辰.歲有十二萬九千六百分.月有十二萬九千六百釐.日有十二萬九千六百毫.辰有十二萬九千六百絲.皆天地自然,非假智營力索,而天地之運,日月之行,氣朔之盈虛五星之伏見,屈伸,交食淺深之數莫不由比.</p> <p>원회운세元會運世의 수數는 너무 커서 보이지 않으며, 분리사호分釐絲毫의 수數는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다. 수數를 알게 되는 것은 일월성신日月星辰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1세世에 30세歲가 있고, 1월월에 30일일이 있으므로 세歲와 일일의 수數는 30이다. 1세歲에 12월이 있고 1일에 12진辰이 있으므로 월월과 진辰의 수數는 12이다. 세월일진歲月日辰의 수로 추측하여 올라가면 원회운세의 수를 얻을 수 있다. 또 추측하여 내려가면 분리사호分釐絲毫의 수도 얻을 수 있다. 30과 12를 반복하여 서로 곱하면 360이 된다. 그러므로 원회운세 세월일진 여덟 가지의 수는 모두 360으로 360×360 하면 129,600이 된다. 그러므로 원월에 129,600세歲가 있고 회會에 129,600월월이 있으며, 운運에 129,600일일이 있고 세世에 129,600진辰이 있다. 또 세歲에 129,600분분이 있고 월월에 129,600리釐가 있으며, 일일에 129,600호毫가 있고 진辰에 129,600사絲가 있다. 이것은 모두 천지자연의 수이며 지혜를 짜서 찾아낸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운동하는 것, 해와 달이 운행하는 것, 월상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 다섯 별(五星)이 숨고 나타나는 것, 초하루와 그믐이 오고 가는 것, 일식과 월식이 깊고 얇음의 수도 이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소강절,)</p> | |
| <p>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 七 - 外書篇 어초문대 漁樵問對</p> | <p>〈 춘하추동春夏秋冬의 변화원리 〉</p> <p>春爲陽始. 夏爲陽極. 秋爲陰始. 冬爲陰極. 陽始則溫. 陽極則熱. 陰始則涼. 陰極則寒. 溫則生物. 熱則長物. 涼則收物. 寒則殺物. 皆一氣別而爲四焉. 其生萬物也亦然.</p> <p>봄은 양陽의 시작이며, 여름은 양陽의 극極이며, 가을은 음陰의 시작이며, 겨울은 음陰의 극極이다. 양陽의 시작은 따뜻하고, 양陽의 극極은 덥고, 음陰의 시작은 서늘하고, 음陰의 극極은 춥다. 따뜻하면 사물을 발생시키고, 더우면 사물을 자라나게 하고, 서늘하면 사물을 수확하고, 추우면 사물을 사라지게 한다. 모두 일기一氣이지만 그것이 나뉘어서 넷으로 된 것이다. 만물을 낳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p> | |
| <p>◆소강절의 원회운세 元會運世</p> | 원元(시간변화의 기본:우주1년:12회會:129,600년) | 회會(대변화:우주1달:30운運:10,800년) |
| | 운運(중변화:우주1일:12세世:360년) | 세世(소변화:우주1시간:1세世:30년) |

우주변화원리(우주1년)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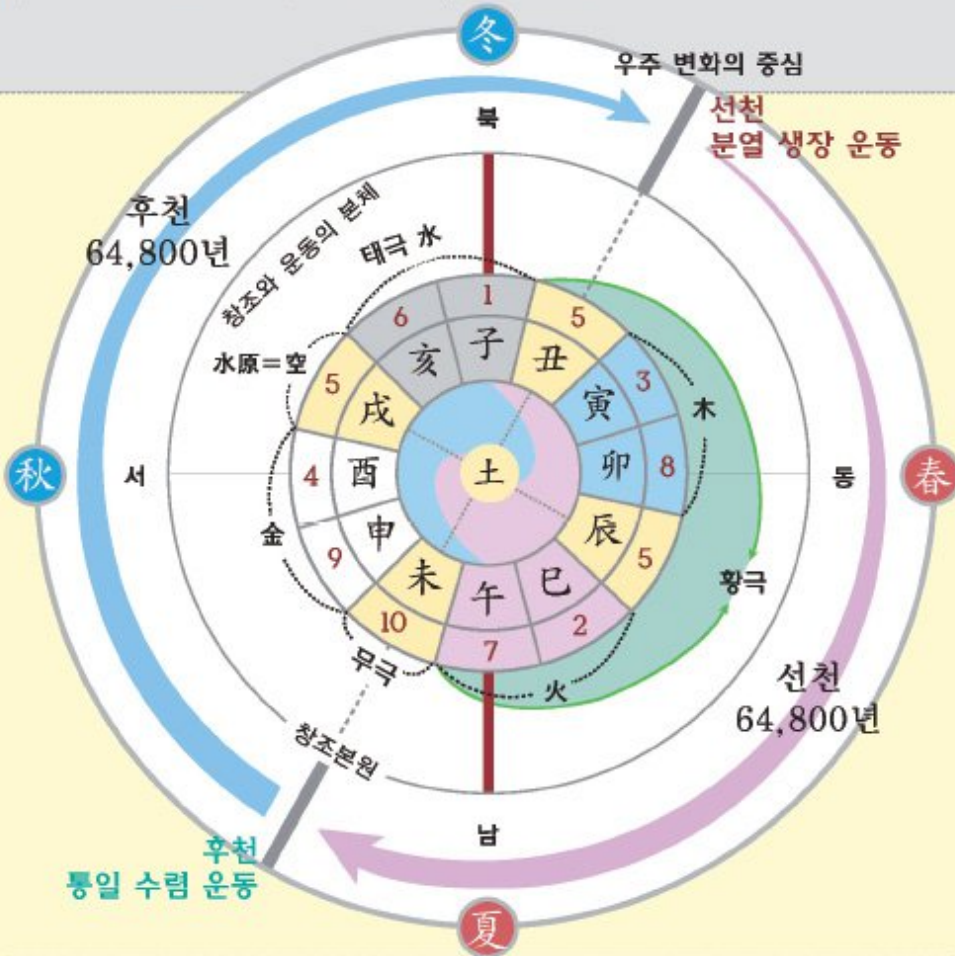


선후천과 생장염장의 특성

| 선천 先天 | | 후천 後天 | |
|--|---|---|---|
| 봄 生 | 여름 長 | 가을 斂 | 겨울 藏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5만 년 전 현생인류 Homo-sapiens-sapiens의 조상이 지구상에 화생, 역사가 시작됨 •신교神敎시대 •정교政敎일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명의 분화, 발전 농경문화 → 고도의 물질문명 •폭발적인 인구증가 •과학, 종교, 철학의 세분화 다양화 •유불선,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종교 시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류문명의 진액을 수렴, 통일하여 이상향을 지구상에 실현 •우주 통일 문명 •신명과 인간이 하나되는 신인합일시대 •단일문명의 대도시대 •인간의 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우주1년을 위한 대 휴식기 •빙하기(Ice Ag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극시대 •단한시대 •천존과 지존시대 •억음존양시대 •원한이 쌓이는 시대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려 산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시대 / 열린시대 •인존시대 : 성과 웅을 겸비한 성인시대 •정음정양의 남녀동권시대 •화기가 무르녹는 시대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편적인 행복과 도道を 성취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문명 단절과 소멸의 시간대 |

우주의 세 본체 : 무극無極 · 태극太極 · 황극皇極

우주의 세 본체 삼극(三極) - 무극 · 태극 · 황극



천지창조란 한마디로 무극無極에서 태극太極으로의 전환운동이다. 천지는 만물 생명을 지어놓고 스스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분열[태극]과 통일[무극]을 영원히 반복한다. 이 분열과 통일의 리듬을 반복시켜 주는 조화 능력을 지닌 중성 생명을 황극黃極이라 한다.

현대의 컴퓨터, 디지털 문화에서 쓰는 음양의 2진법, 0과 1은 자연 질서의 두 얼굴을 상징한다. 0은 만물의 바탕 속에 살아있는 창조의 본원인 '무극'을, 1은 0이 드러난 만물의 창조 본체, '태극'을 뜻한다. 즉, 0과 1은 자연의 본체의 양면으로 0이 체體라면 1은 용用이다. 곧, 0무극은 체, 1태극이 용이다. 그런데 10무극은 매순간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자연의 시간의 진행과정에서 '가을' 천지의 생명과 질서를 나타내고, 1태극은 가을의 10무극[未]이 압축·통일된 생명의 '해[戌] 자리이면서 통일의 근원자리인 겨울의 '물[水]로 작용한다. 이 북방 수가 발동하여 생명을 낳고 키우는 봄여름철의 목과 화[午]의 전 과정이 '황극'이다.

우주 1년이라는 시간의 열두 문을 무극과 태극과 황극의 우주 본체 삼극론으로 정립한 대철인이 김일부 대성사이다.

출처: 『개벽실제상황』 129쪽

하도와 낙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우리의 논리나 감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대자연의 오묘한 변화 이법을 읽어내고 이를 천지의 기본수(1~10)로 체계화하여 인류역사에 바친 성스러운 그림이다.

| 하도(河圖) : 상생순환도 | 낙서(洛書) : 상극순환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체: 좌선左旋 상생相生(이면裏面은 상극相剋) ▶ 음양의 짝을 이룬 정적 평형상태 ▶ 1 ~ 10까지의 짝수 개의 수 사용(후천의 통일상) ▶ 양수 5개(1,3,5,7,9)와 음수 5개(2,4,6,8,10)가 정음 정양으로 배합되어 있는 상(후천의 정음정양) ▶ 화생토 토생금의 상(10토가 존재하므로) ▶ 중앙에 5수와 10수가 있어 우주조화의 근원인 15수가 들어 있음(10무극 상제님이 역사 속에 강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용: 우선右旋 상극相剋(이면裏面은 상생相生) ▶ 음양의 부조화한 동적 불균형상태 ▶ 1 ~ 9까지의 홀수 개의 수 사용(선천의 분열상) ▶ 양수 5개와 음수 4개(2,4,6,8)로 음양의 불균형을 이루고 변화발전(팽창)하는 상(선천의 난음난양) ▶ 금화교역의 상(2,7화 4,9금) ▶ 중앙에 5수만 있음[마주보는 수의 합=10, 가로 세로 대각선 수의 합=15, 표면은 분열하고 있지만 이면에선 통일(성숙)을 염원하는 상] = [理事無碍法界의 도리] |

| 하도(河圖) : 상생순환도 | 낙서(洛書) : 상극순환도 |
|--|--|
| ▶ 전체수의 합=55, 양수의 합=25, 음수의 합=30으로 음체양용[지천태괘地天泰卦로서 내양이외음內陽而外陰하여 안은 강한 기운을 품고 밖으로는 유순한 태도를 지니며, 내군자이외소인內君子而外小人하여 그 중심에는 군자君子의 뜻을 갖추되 겉으로는 소인小人으로 비쳐지는 상象]시대로 후천의 곤도坤道시대(陽內陰外=交泰之義) | ▶ 전체수의 합=45, 양수의 합=25, 음수의 합=20으로 양체음용[양이 정방에 위치, 음은 간방間方에 있는 천지비괘天地否卦로서 선천시대의 음양의 부조화와 상극관계를 상징한 상象]시대로 선천의 건도乾道시대(陽正陰偏=抑陰尊陽) |
| 5500년전 배달국 태호복희씨가 천하天河에서 용마의 등에 비친 상을 보고 정리 | 4200년전 하나라 우임금이 낙수洛水에서 거북이 등에 빛나는 율동상을 보고 도표화한 것 |
| 1~10까지 10개의 숫자 사용 (후천의 통일상, 우주1년의 가을, 겨울에 생명이 통일하는 모습) | 1~9까지 9개의 숫자 사용 (선천의 분열상, 우주 1년의 봄, 여름에 생명이 분열하는 모습) |
| 중앙에 5와 10이 있음 (10무극 우주의 절대자가 역사속에 강림하시는 상이 있음) | 중앙에 5만 있을 뿐 10이 없음 (선천의 역사 속에서 10무극 상제님이 오실수 없는 상. 하늘이 오실 때까지 5황극 - 성자들이 대행) |
| 순행하면서 상생의 원리를 나타냄 (상생도) | 역행하면서 상극의 원리를 나타냄 (상극도) |
| 10무극 → 1태극 (통일운동, 순수) | 1태극 → 10무극 (분열운동, 역수) |
|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10토가 출현 | 금화교역으로 우주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는 대번국(개벽) 발발 |
| 양수 5개와 음수 5개가 정음정양으로 배합 (후천의 정음정양) | 양수 5개와 음수 4개로 음양 불균형 (선천의 난음난양) |
| 전체의 숫자 합 55중, 음수 30, 양수 25 (후천의 음시대) | 전체의 숫자 합 45중, 양수 25, 음수 20 (선천의 양시대) |
| 중앙의 숫자 (10, 5)의 합 = 15 (15진주眞主) | 가로, 세로, 대각 숫자의 합이 15 (우주변화의 추진력) |
| 태극, 팔괘의 모체 | 문왕팔괘의 모체 |
| 우주창조의 설계도이면서 우주의 이상세계가 현실화된 모습 | 후천가을의 이상세계를 향해 나가는 선천상극의 역사과정. |

우주이법에 관한 깨달음을 수리로 체계화한 역易철학의 흐름

| | | |
|---|------|---|
| 우주의 이법이 드러난 상象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기호를 통해 수리數理로써 체계화시킨 인류 문명의 유산이 하도河圖, 낙서洛書와 팔괘八卦이다. 이러한 우주변화론의 체계화 과정은 한국 시대 삼신상제님의 천강서인 <천부경>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림(하도, 낙서)이나 기호(팔괘도)의 형태로 발전하여 오다가, 태상종도사님의 <우주일년 도표>로 최종 완결되었다. | | |
| ①천부경 | | 삼신상제님의 천강서天降書로, 환국桓國 구전지서口傳之書이자 인류 최초의 계시록이며, 신교神敎문화의 정수임 |
| ②천부경의 열매 | 하도 | 5600년 전 배달倍達국 태호복희씨가 용마의 등에 비친 상을 보고 그린 것으로, 천지 창조의 설계도요 완성도임(복희팔괘의 모체) |
| | 복희팔괘 | 5,600년 전 배달倍達국 태호복희씨가 그린 것으로, 우주 봄철의 공간 배치를 나타낸 괘도임 |
| | 낙서 | 4200년 전 하夏나라 우임금이 거북의 등에 비친 상을 보고 그린 것으로, 천지 변화의 운행도임(문왕팔괘의 모체) |
| | 문왕팔괘 | 3,000년 전 주周나라 문왕이 그린 것으로, 우주 여름철의 공간 배치를 나타낸 괘도임 |
| ③정역팔괘 | | 120여년 전 조선의 김일부 대성사가 그린 우주 가을철의 공간 배치를 나타낸 괘도로서, 팔괘도의 완성 형태임 |
| ④우주1년 도표 | | 1946년에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세상에 공포하신 우주론의 마지막 최종 결실! 이 도표 한 장에 천지 시간변화의 모든 섭리가 집약되어 있다. |

복희 · 문왕 · 정역팔괘의 비교

| 복희팔괘도 (아침, 봄, 生) | 문왕팔괘도 (점심, 여름, 長) | 정역팔괘도 (저녁, 가을, 成) |
|---|--------------------------------------|---|
| | | |
| 제 1괘도 / 생생괘도 | 제 2괘도 / 장장괘도 | 제 3괘도 / 성성괘도 |
| 동쪽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 | 해가 정남에 떠올라 있는 모습 | 해가 서쪽으로 진 상태이며, 양기가 내부에 수렴된 모습 |
| 생명을 낳는 때로 1태극(1乾)이 주재함 | 성장하는 때로 5황극(괘도 안쪽의 공백)이 주재함 | 열매 맺는 때로 10무극(10乾)이 주재함 |
| 아기가 임마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 (未生之前) |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 (已生之後) | 성장이 멈추고 정신의 완성을 이룬 모습 |
| 태극괘도 | 황극괘도 | 무극괘도 |
| 창조도 創造圖 | 발전도 發展圖 | 완성도 完成圖 |
| 8數圖 / 1·8易 | 9數圖 / 1·9易 | 10數圖 / 5·10易 |
| 상수象數의 총합이 36 | 상수象數의 총합이 45 | 상수象數의 총합이 55 |
| 마주 보는 수數의 합 : 8 | 마주 보는 수數의 합 : 9 | 오행의 음양끼리 마주 본다. |
| 5,600년 전 배달국 복희씨가 그림 | 3,000년 전 周나라 문왕이 그림 | 120년 전 조선 김일부가 그림 |
| 생역도 生易圖 (原易圖) | 운역도 潤易圖 (交易圖) | 성역도 成易圖 (正易圖 ; 變易圖) |
| 우주 봄철에 일태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되는 원리 | 우주 여름철에 오황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분열, 성장해 나가는 원리 | 우주 가을철에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십무극을 중심으로 만물이 통일되는 원리 |
| 태극팔괘도 | 낙서팔괘도 | 하도팔괘도 |
| 문왕팔괘도를 준비 | 정역팔괘도를 준비 | 금화교역도 |
| 마주 보는 괘가 정음정양 | 감리를 제외하고 마주보는 괘가 난음난양 | 마주보는 괘와 숫자가 모두 정음정양 |
| 상하上下가 천지비天地否를 이룸 | 상하上下가 화수미제火水未濟를 이룸 | 상하上下가 지천태地天泰를 이룸 |
| 선천팔괘도 | | 후천팔괘도 |
| 우주의 봄 여름철에 기운이 중앙에서 밖으로 발산하는 식으로 안에서 밖을 보면서 괘를 그린다. | | 우주의 가을철에 기운이 중앙으로 수렴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보고 괘를 그린다. |

현대과학이 밝힌 우주변화의 주기

-빙하기는 우주의 겨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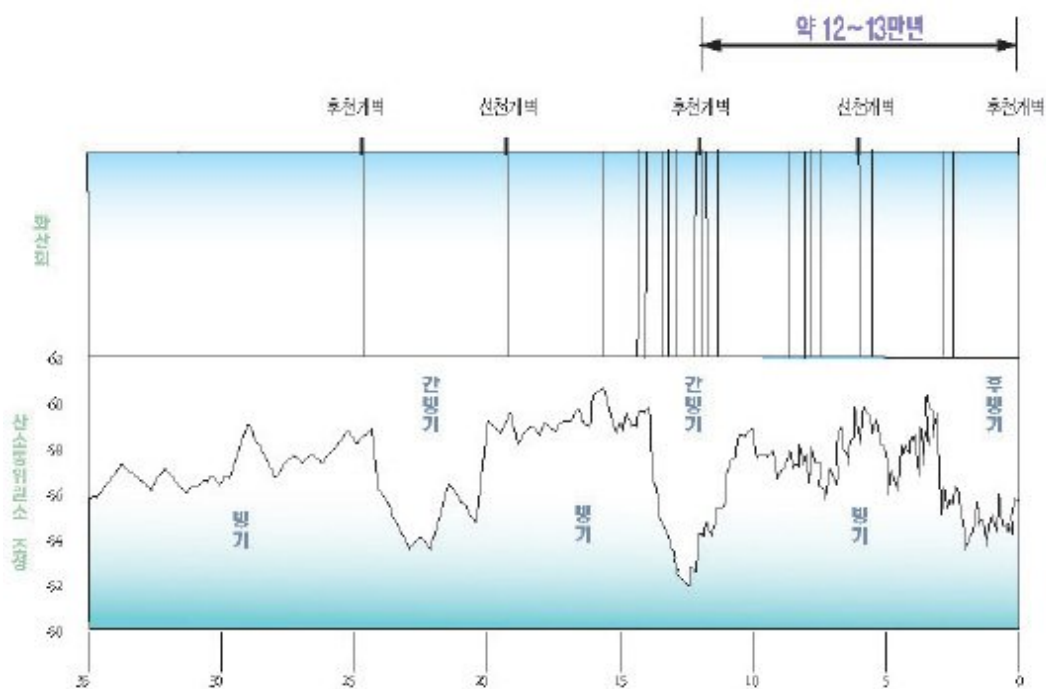
지난 100만 년 동안 빙하기가 적어도 일곱 번 있었다.

최근 과학자들이 지난 100만 년 동안 지구에 일곱 번의 빙하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밝혔다. 이 설에 따르면 약 10만 년 내지 13만 년에 한 번씩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생기는 구체적인 원인을 지구 자전축(지축)의 기울기 변화와 공전궤도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KBS1-TV 사이언스 2004.1.29. 「지구대멸종」 제3부 빙하기의 경고)



현대과학이 밝혀 낸 과거 22만 년 동안의 기상 변동

1996년 12월, 남극 돔 후지 관측 기지에서 2503.52m의 얼음 기둥이 채취되었다. 이 얼음기둥에 함유된 물질을 분석한 결과 지난 34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가 세 번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월간과학 Newton」 199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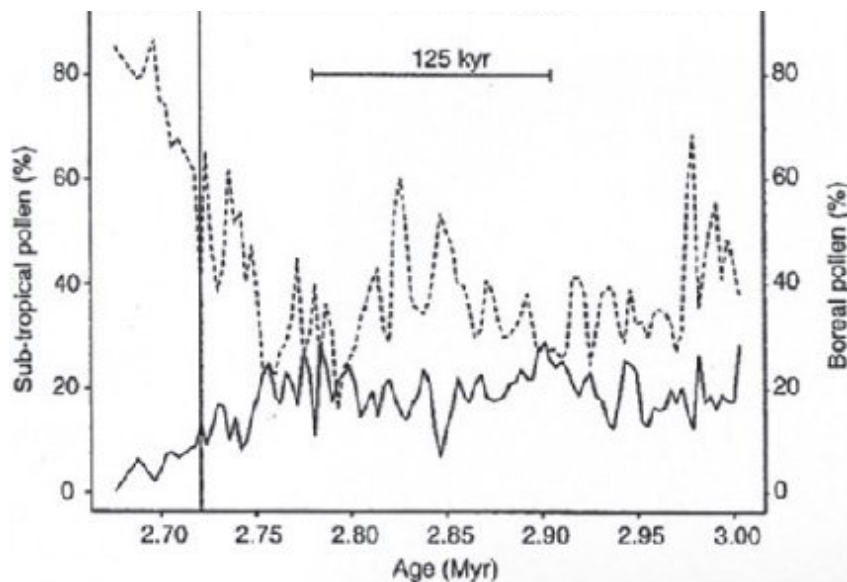


꽃가루 침전물 스펙트럼 분석 : 124,000년 주기

헝가리에 있는 푸라(Pula)분화구의 호수



에 해마다 얇은 판자 모양으로 층층이 쌓여 있는 침전물은 과거 300만 년에서 260만 년 전까지 32만 년 동안의 지구 기후 변화의 기록을 담고 있다고 한다. 침전물의 스펙트럼 분석에 의하면 황도 경사와 세차 운동의 주기 동안 들어오는 태양 복사에 대한 지상의 반응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아력한 지상의 반응은 124,000년의 주기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월간과학 Newton」 1999.2월 25)



밀란코비치 이론

약 13만 년을 주기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다. 그 주요 원인은 지구 자전축 경사의 변화와 공전궤도의 변화이다.

(밀란코비치 : 유고슬라비아의 수리기상학자. 1920년대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지구 자기장의 역전

자기장의 가장 큰 변화는 지구 자기장의 남북이 완전히 바뀌는 역전 현상이다(중략) 해저의 용암을 조사함으로써 지구의 자기장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백 번이나 남북이 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 자기장의 갑작스런 역전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생물종의 멸종과 진화를 보게 된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월간과학 Newton」 1999.10)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07

팔관법 진리공과우주관3

팔관법 진리 공과 | 우주관 공과정리

우주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도전道典에는 이 우주의 생성과 운행에 관한 이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존 재하는 원리와 시간변화의 절대법칙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장염장은 우주변화의 4대 근본정신이고 대자연의 섭리 자체이며 우주 주재자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 다. 우주1년의 개념을 설명하고, 1년 순환 과정상 4박자의 시간 마디별로 주요 특징을 서술해 보세요.
 3. 우주 생명과 인류 문명의 순환 변화 원리를 확연하게 규명한 것이 ‘우주1년 도표’ 입니다. 이 도표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요?
 4. 우주의 신천지 가을 세상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개벽’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개벽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개벽이 발생하는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5. 오늘날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우주1년의 순환 과정상 어느 시점에 위치에 있나요? 또 그 시 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사례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개벽이라는 용어는 자연, 문명 및 인간 개벽의 범주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개벽을 현상적인 관 점에서 보면 자연개벽, 상씨름개벽, 병란개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벽의 의미와 내용 을 정리해 보세요.
- ① 자연개벽: _____
 - ② 상씨름개벽: _____
 - ③ 병란개벽: _____

7. 하추개벽기에는 그 충격파를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의 문제가 수반됩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많은 생명 가운데 특히 인류가 후천개벽의 환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 개벽이라는 우주적 차원의 문제에서 생명의 구원을 집행하려면 우주절대자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후천개벽에서의 인류 구원을 위해 상제님께서 몸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 설명해 보고, 그것이 우주의 이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서술해 보세요.

9. 상제님께서서는 대개벽기에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속의 실천 법방에 대해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도전道典에 언급된 구원의 실천 법방들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08

팔관법 진리공과인간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① 인간관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1 증산도의 인간론- 인간 삶의 새 원리

주제 생각해 보기

새로운 인간론은 왜 필요하며, 무엇이 다른가

인간은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만물을 인식하고 행동하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종교나 사상들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의 삶’ 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산도에서는 ‘새로운 인간 삶의 원리’ 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며 다른 종교 사상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인간의 문제를 우주와의 상호관계에서 파악해야 할 이유는 뭔가

도전道典에서는 인간의 존재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 우주宇宙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인간人間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여러 성구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왜 인간 문제를 우주와 결부시켜 생각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개벽사상과 신인간론은 어떤 관련이 있나

보통 도전道典이나 증산도의 진리를 말할 때는 ‘개벽’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증산도의 5대이념을 말할 때도 개벽 사상이 언급됩니다. 이 개벽 사상과 인간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 주제 확인해 보기

새로운 인간론은 왜 필요하며, 무엇이 다른가

-인간人間의 본성과 삶의 목적을 규명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자 과제였지만, 인간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관념적, 도덕적, 부분적이고 때로는 편협하기도 한 논의들에 그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 인간론이 기존의 인간론과 다른 점은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어야 하며, 보편성과 현실성과 인간의 자기완성을 함께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합되는 총체적인 새 삶의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증산도의 인간론이며, 다른 말로는 증산도의 근본이념·근본사상·종지宗旨 등으로도 표현됩니다.

● 인간의 근원은 천지 우주

[도전] 2:23:2(천지를 형상해 생겨난 인간)

● 우주의 상극 운수와 개벽

[도전] 2:17(선천은 상극의 운), 2:73:4(개벽 운수의 불가피성)

● 우주사의 인존시대 선언

[도전] 2:22:1~2(이제는 인존시대/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음)

● 천지보다 더 큰 인간 마음

[도전] 4:100:7(인간 마음의 기틀은 천지보다 더 큰 조화의 근원)

● 천지일월도 사람이 있어야

[도전] 11:388:3(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공각, 일월도 무용이다)

인간의 문제를 우주와의 상호관계에서 파악해야 할 이유는 뭔가

-종도사님께서서는 “인간론은 우주론과 분리될 수 없다.” 고 하십니다. 우주의 최종 결론이 인간이며 인간과 우주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 문제는 우주와의 상호관계에서 파악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낳은 근원은 우주(도전 2:23)이므로 천지 우주질서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간 마음의 기틀은 천지보다 더 큰 조화의 근원(4:100:7)이므로 인간의 마음과 행위가 우주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이법을 통해 인간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실체적, 현실적 인간론이 새로운 인간론으로서 증산도의 근본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개벽사상과 신인간론은 어떤 관련이 있나

-증산도 인간론은 신新질서의 새 세상을 여는 후천개벽 사상을 근본으로 출발합니다. 대우주는 생명 순환을 위한 재창조의 필연적 과정으로 대개벽을 거치는데, 이러한 변화를 실천적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 원리에 걸맞게 우주와 하나된 인간으로 거듭나서 후천 조화 선경을 실현하는 참된 인간 완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증산도 인간론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 ‘후천개벽’ 관련 도전 성구는 월간개벽 2014년 3월호 ‘우주관 공과’ 91~92쪽 참조)

-증산도의 근본사상을 한 마디로 말하면 곧 후천개벽 사상이고, 후천개벽을 완성하는 절대핵심원리가 원시반본이며, 원시반본의 구체적 실천이념이 보은·해원·상생 사상입니다. 이를 ‘증산도 인간론의 5대 근본사상(이념)’ 또는 ‘증산도의 종지’ 라고 합니다.

●후천인류의 새로운 삶의 원리

[도전] 5:1:4~6(후천 새 세상을 여는 원시반본과 보은·해원·상생의 정신)

●후천세상을 맞는 인간개벽의 자세

[도전] 2:41(묵은 습성 타파), 2:58:6~7(성과 웅이 하나가 돼야), 2:74:2~3(마음을 잘 닦아 좋은 세상을 맞으라), 2:75:11(마음 고치기가 어려운 것)



2 후천개벽 인간완성의 절대정신, 원시반본

주제 생각해 보기

원시반본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원시반본은 새로운 인간론의 핵심이 되는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전道典에서는 원시반본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언급되어 있나요? 그 정확한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원시반본이 인간의 삶에 왜 중요한가

원시반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우주의 이치라면, 그것이 인간의 삶에도 똑같이 중요한 것인가요? 도대체 그것이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원시반본이 적용되는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후천개벽의 근본정신이 원시반본이고 인간의 삶에도 절대적인 것이라면, 인간의 문명과 생활 속에서 원시반본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나요?

▶ 주제 확인해 보기

원시반본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원시반본原始返本은 후천개벽의 우주섭리를 설명하는 근본정신이자 절대법칙입니다. 원시반본의 문자적인 뜻은 ‘시원을 찾아 근본(뿌리) 자리로 돌아간다’ 는 것인데, 이는 시원을 돌이키고 그 의미를 살피서 근본(본래성)으로 돌아가야 살아남는 가을의 추수정신을 뜻합니다. 여기서 ‘되돌아감’ 은 퇴행이나 단순

회귀가 아니라 본래의 근본정신을 회복하면서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의 순환 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시반본은 본래의 제 모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시반본이라는 게 본래 제 모습을 찾는다는 소리다. 알기 쉽게 얘기해서 만유의 생명체라는 게 봄철에 씨알이 떨어지면 발아가 돼서 그놈이 커서 가을철에는 제 모습을 맺는다. 콩은 콩을 여물고, 감은 감 열매를 맺고, 배는 배가 열리고, 다 제 모습을 찾는다. 그렇게 제 모습을 찾아서 다음 해에 제 유전인자, 후손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이법, 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 (: 태상종도사님 말씀)

●원시반본의 시운

[도전] 2:26:1(이 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 2:37:4(개벽시대를 당해 원시로 반본), 2:43:1(온 천하가 가을운수의 시작으로)

●후천의 변화 정신

[도전] 2:19:7(후천은 온갖 변화가 통일로 돌아감)

●원시반본①(혈통)

[도전] 2:26:1~2(환부역조의 죄), 2:26:4~8(선령신 박대), 7:19:1~2(선령이 하느님), 2:26:10(조상 제사는 천지의 합덕)

●원시반본②(민족)

[도전] 5:332:9(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움), 5:347:16(국조삼신이 무의무탁), 2:26:3(나도 단군의 자손)

●원시반본③(인류문명)

[도전] 2:27:2~5(군사부일체의 정교 합일 문명 도래)

●원시반본④(생명&깨달음)

[도전] 7:74:1~6(태을주 읽어야 생명의 뿌리를 찾음), 7:75:1~2(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 “태을천은 만유 생명을 낳는 우주의 자궁이다” (: 태상종도사님)

▶[핵심술어] 원시반본

[도전] 2:26:1 축주(원시반본)

원시반본이 인간의 삶에 왜 중요한가

-초목은 가을이 되면 그 모든 진액을 뿌리로 되돌리고 열매를 맺어야만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 자연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본래의 제 모습인 내 생명의 근본(혈통)을 찾고, 역사의 뿌리와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살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우주의 가을개벽 추살

기운에 의해 낙엽처럼 소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시반본이란 ①가을 대개벽을 맞이한 만유 생명이 근본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섭리이고, ②자연·인간·역사의 성숙成熟 원리이며, ③개벽기 생사生死 문제와 직결되는 구원救援의 절대 정신이므로, 인간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반본이 적용되는 실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현실 생활 속에서 원시반본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초목의 생명력이 가을철에 뿌리로 복귀하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낙엽귀근落葉歸根(떨어진 잎사귀는 뿌리로 돌아감)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원시반본의 실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상제님의 동방 땅 강세

인류 문명의 원시반본(인류 문명 발원처인 동방 땅에 오심)

■ 상제님의 강姜씨 성씨

인류 역사의 원시반본(인류의 시원 뿌리 성씨로 오심)

■ 해외 입양아들의 친부모 찾기

혈통의 원시반본

■ 명절 때 대규모 귀성 행렬

혈통의 원시반본

■ 모천회귀母川回歸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음

■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향하고 죽음



3 가을개벽의 이법과 현상

▶주제 생각해 보기

원시반본의 실천이념은 무엇인가

원시반본은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와 생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전 속에는 이 원시반본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념 또는 실천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념들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나요?

보은 해원 상생의 참뜻을 설명할 수 있는가

도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은과 해원과 상생의 이념은 우리가 통속적,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뜻과는 다른 심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은 · 해원 · 상생의 참뜻을 하나씩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이념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보은과 해원과 상생은 각기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인간론을 구현시키고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들로서 서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실천이념들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 주제 확인해 보기

원시반본의 실천이념은 무엇인가

-우주의 가을 후천개벽의 이법에 걸맞는 인간정신의 절대이념은 원시반본이고, 그 원시반본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원리 · 실천이념으로는 보은報恩과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을 들 수 있습니다.

보은 해원 상생의 참뜻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보은報恩’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되돌려 보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은은

인간이 타인 및 자연 · 신명 · 조상 등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삶과 문명을 통해 원시반본의 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며, 상생의 이념을 실현하는 지극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서는 천지부모에 대한 궁극적인 보은을 ‘도통천지보은’ (6:128:6)이라 표현하셨는데, 이는 인간이 상제님 진리를 깨닫고 사람을 널리 건져내어 천지의 뜻을 실현하는 ‘태일太一’의 인존 일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원解冤’은 모든 생명의 원(冤)과 한(恨)을 풀어준다는 뜻으로, 역사 속에 쌓인 인간과 신명계의 원한을 근원적으로 풀어 치유하는 생명의 이념이고, 근원적인 평화와 자유의 이념이며, 강력하고 보편적인 구원의 이념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의 모든 불상사가 인간과 신명의 원한과 보복으로 일어나므로 상생의 후천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상생相生’은 생명을 건져 살리고 서로를 잘 되게 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共生’ 정도의 의미와는 다른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상생은 오늘의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파괴, 민족갈등과 전쟁, 수많은 이기적 다툼들과 상극적 질서 등 모든 갈등 구조를 풀러 낼 수 있는 생명의 대도 이념입니다. 상생은 후천개벽으로 선천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인간과 신명의 가슴속에 쌓인 원한을 씻어내는 해원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천이념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해원 · 상생 · 보은의 이념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유기적 일체로 작용하면서 원시반본을 실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선천 인간 구원의 근원적 법방인 해원의 과정을 통해 상극이 극복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러한 상생 정신이 발전하여 보은 정신으로 표출되면서 각 이념들이 조화되고 함께 작용을 하면 원시반본의 이념을 실현할 수가 있으며, 원시반본의 구현은 결국 후천개벽을 통해 비로소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은 이념

[도전] 2:28:3(반반지은도 필보), 2:28:4(배은망덕만사신), 6:128:6(도통천지보은), 8:27:5(보은줄)

●해원 이념

[도전] 2:24:1~3(이 때는 해원시대), 4:16(영원한 화평의 바탕 해원) / *인간의 주요 원한- 2:24:4~9(인류 원한의 시초 단주), 2:52(여자의 원한), 2:68(낙태아의 원한)

●상생 이념

[도전] 2:18(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 2:29:1(남 잘되게 하는 공부), 11:123:3(남 살리는 공부), 8:117:1(살릴

생생자를 쥐고 다니니)



4 가을우주의 인존으로 거듭나는 연관 사상들

▶주제 생각해 보기

가을인간으로의 갱생을 위한 연관 사상들은 무엇인가

가을대개벽의 시운을 맞는 인류는 후천개벽과 원시반본 및 보은·해원·상생의 이념(사상)들 외에도 우주 가을철의 새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부속 이념들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연관 사상들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나요?

중요한 사상들 각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새로운 가을 인간으로 갱생하기 위한 중요 이념들인 인존, 천지일심, 정음정양, 신인합발, 조화, 선매송자, 중록, 의통 사상 등에 대하여 각각의 핵심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새 시대의 참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증산도의 인간론은 새로운 가을우주 시대에 걸맞는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한 이념과 실천 덕목들을 설명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도전道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시대 새 인간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 주제 확인해 보기

가을인간으로의 갱생을 위한 연관 사상들은 무엇인가

-증산도 인간론의 5대 근본이념 외에도 도전道典에는 우주의 가을철 새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관 이념들이 있는데, 그것은 천하 통일의 의통 사상과 진법 사상, 인존 사상, 정음정양의 남녀동권 사상, 신인합일 사상, 천지 일심 사상, 조화 사상, 후천 조화선경의 선매송자 사상, 중록사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상들 각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연관 사상들의 개념과 관련 성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통과 진법 사상

의통은 인간 구원의 실체이며,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은 참된 도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진법사상이다. 진법은 도전道典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도전] 2:41, 5:242:18, 5:347:17, 2:132:6, 4:32, 6:2, 6:125, 6:126

■ 인존 사상

지금은 모든 일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사재인의 시간대이다. 천지일월의 열매는 인간이고, 우주 궁극의 완성은 인간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 인존을 위해 일꾼들은 도덕적 · 창조적 · 영웅적 · 외교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개조해야 한다.

[도전] 2:22, 2:23:2, 4:5:4~5

■ 정음정양 사상

선천의 남성우월 사상을 바로잡아 정음정양의 질서로 바로잡는다. 생명 존재 자체가 음양으로 구성되므로 남녀는 음양동덕, 정음정양이 돼야 천지 이치에 부합한다.

[도전] 2:51, 2:53, 4:59

■ 신인합발 사상

후천 선경은 현실적으로 신인합일에 의해 열린다. 인간과 신명의 뜻이 하나로 되어 성숙과 결실을 맺고 조화의 도통문명을 열어가는 것이 신인합발 사상이다.

[도전] 2:19:8, 5:304:3, 11:98:9, 11:286:1

■ 천지일심 사상

천지일심은 내 생명의 근원인 천지와 하나되는 마음이며, 역사를 개벽하고 인사 문제를 총체적으로 끌러내는 심법을 의미한다. 천지일심을 갖는 것이 곧 천지의 은혜에 보은하는 일이다.

[도전] 2:90:4, 2:91, 8:6:2, 8:52, 8:91:6

■ 조화 사상

조화는 변화를 창조한다는 뜻이며, 자연의 이법적 변화를 뒤바꿀 수 있는 개념의 조화를 말한다. 조화사상은 천주를 모심으로써 조화를 정하는 시천주 신앙을 기본으로 한다.

[도전] 2:16:2, 2:19:1, 11:205:2

■ 선매송자 사상

선매송자는 영성개벽의 후천 선仙문화를 매개하는 선맥사상이며, 나아가 생활개혁, 생명개혁의 사상이다.

[도전] 3:25:1, 4:125:1, 7:71, 10:56:3

■ 중록 사상

녹줄이 한정된 상황은 선천을 병들게 하고 수명도 보장될 수 없는 문제를 낳았다. 녹을 중시하는 중록사상은 삶의 질과 양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후천의 행복론이다.

[도전] 2:25:5~7, 8:39:2, 9:1, 9:14

새 시대의 참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도전道典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5대사상은 새 우주질서를 여는 ‘개벽’의 대도이념을 완성하기 위해서 ‘원시반본’이 핵심원리로 작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은’과 ‘해원’과 ‘상생’의 이념이 유기적인 일체 관계로 작용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론에 대한 사상 이념은 이외에도 의통과 진법·인존·정음정양·신인합일·천지일심·조화·선매송자·중록 사상 등 인간 생활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며, 이를 통해 후천 새시대의 생활문화 이념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그려보고 준비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제님이 열어주시는 가을천지의 신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천지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존人尊의 새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인간 삶의 궁극 목적인 것입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09

팔관법 진리공과 인간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② 인간관 공과 학습 자료

인간 삶의 목적, 가을개벽기에 참 진리를 만나는 것

이 우주는 인간농사를 짓기 위해 둥글어 간다. 이 우주의 법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생장염장(生長斂藏)이다. 쉽게 말하면 봄에 인간이 태어나 여름철까지 성장을 해서,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가을개벽과 더불어 열매 인간으로 성숙된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이렇게 자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 목적이란 다름 아닌 가을개벽기에 참 진리를 만나 내 생명을 새롭게 하고 성숙케 하는 데 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든지 간에, 인간의 궁극 목적은 누구도 예외없이 이 대개벽기에 참 진리를 만나, ‘내가 무엇을 위해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삶의 목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한낱 짐승일 뿐이다. 죽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미몽에 갇혀 살아가는 한낱 귀신일 뿐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으로는 인간은 진리를 만나야 한다.

우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성숙한 인간, 인존(人尊)

천지도 여태까지 인간을 낳아서 길렀다. 천지부모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이제 10대 소년기에서 20대 청년 시절로 접어들어 성가成家를 해서 성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역사를 인간이 직접 계획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틀을 짚다는 말이다. 우주의 이상을 실현해서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의 시대, 이것이 인존(人尊)의 참뜻이다.

“천존(天尊)과 지존(至尊)보다 인존(人尊)이 크니 이때는 인존시대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 봄 여름철 선천 세상에서 진리의 틀도 모르고 무지에 갇혀 살아왔던 그런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이제는 닫힌 선천우주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새 우주의 주인, 진리의 주인,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 문화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간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인간의 거룩한 성숙은 오직 상제님의 진리로

이 우주에는 선후천 개벽이 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사계절, 우주의 봄여름과 가을겨울이 있다. 우주의 봄철은 인간을 낳는 정사를 하고, 여름철은 인간을 기르는 정사를 한다. 오직 성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

그런데 우주는 무엇을 위해 인간을 이렇게 기르는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 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기르듯이 이 우주는 궁극적으로 가을철 성숙을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더 높은 거룩한 성숙을 위해서 인간을 기른다. 그 거룩한 성숙이란 ‘인간이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그 깨달음을 인간이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가을철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 그 진리를 공부하여 깨쳐서, 진리의 명령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인간개벽이 궁극적인 개벽의 실현

증산도에서는 개벽을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의 3대 개벽으로 말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절대권자, 조화왕 하나님인 상제님이 신도 세계를 개벽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자연과 문명과 인간개벽이 성취된다. 하지만 그 첫 출발은 자연개벽이다. 천지의 질서를 바꾸어, 인간 문명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뒤집는다. 자연개벽과 문명개벽이 태초 이래로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제님이 질정하신 개벽세계, 후천선경 건설을 현실 역사로 구현하는 주역이 누구인가? 상제님 일꾼들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개벽의 실현은, 결국 인간개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개벽의 모든 문제는 내 몸 개벽, 나의 문제로 떨어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상신앙, 깨달음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지금 천지는 봄여름철 성장과정,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가을철 성숙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가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온 하늘땅의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천지의 계절이다. 따라서 가을이 되면 나도 인간으로서 완성이 돼야 한다. 처음 인간으로 태어나 윤회를 하면서 성장해 온 지난 봄여름 선천과는 달리,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인간으로 성숙돼야 한다. 이 우주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가을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 역할을 하는 때다. 인간이 본래 하늘로부터 받아 나온 영적 능력을 온전히 발현하는 때다. 또 발현을 해야 되는 때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을철은 인간인 내가 내 속에 있는 신의 무궁한 영성, 조화성, 창조의 역량을 완전히 발현해야 되는 때다. 그 길이 바로 가을의 정신이자 가을철 창조의 뜻인 ‘근본으로 돌아가야 생명이 완성된다’는 상제님의 원시반본의 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변화의 도, 그 변화의 정신인 원시반본을 바르게 알 때, 인간 생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정리하여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 나아가 하추교역의 가을 개벽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처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가르침과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상제님이 내려주신 열매 맺는 삶의 길, 원시반본

우주의 가을 정신으로 후천개벽이 온다. 그 가을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을문화를 열기 위해서는, 가을의 성숙하는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길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 자연개벽과 인간 역사를 통합하여 우리 삶의 도로써 열어주신,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 이 때는 원시반본(原始返本)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換父易祖)하는 자와 환골(換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道典 2:26:1~2)

자, 이 때는 원시로 반본하는 때다. 이 원시반본이란 무엇인가? 봄이 되면 땅 속에 있는 양기가 쭉 뻗쳐올라와 초목에 생기가 붙는다. 초목의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핀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작은 줄기에 있던 물기가 전부 모여 큰 줄기로 향해서 원 뿌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변화의 방향성이 뒤집어져서 생명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시반본原始返本이라고 한다. 반返은 돌이킬 반 자다. 이것은 ‘시작, 시원을 바로 알고 생명의 근원,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원시반본, 이것이 가을의 열매 맺는 법칙이다. 이것이 가을의 구원의 법칙이며, 가을의 역사정신, 개벽정신이다.

원시반본의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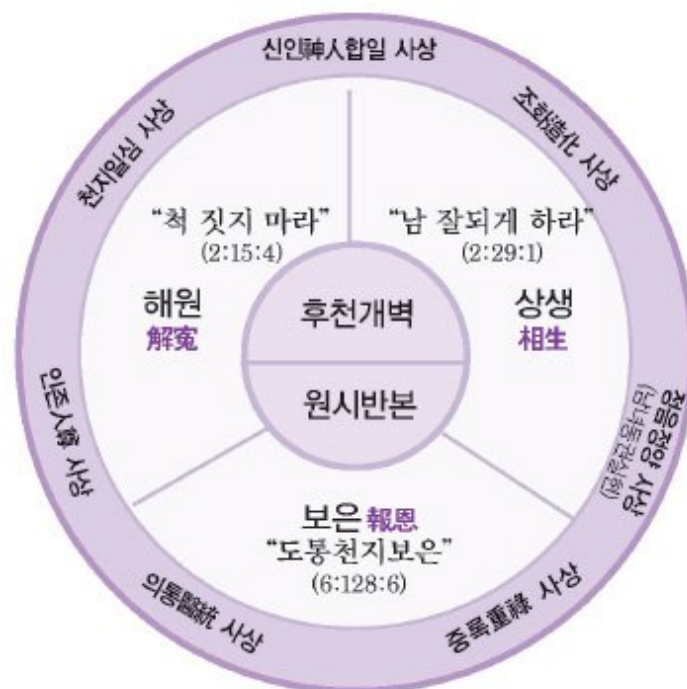
원시반본의 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원시’와 ‘반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네 글자를 둘씩 나누어 보면 ‘원시’란 근원 원 자에 시초, 시조라는 시 자다. 원을 동사로 해석하면 ‘원시’는 ‘어떤 사건이나 역사의 처음, 시작, 시원을 헤아리다’라는 뜻이고 ‘반본’은 ‘근본으로 돌아가다(return)’라는 뜻이다. 따라서 ‘원시반본’은 인류의 뿌리역사, 시원문화를 바르게 헤아려서, 그 근원을 바르게 알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된다.

특히 ‘시’와 ‘본’, 즉 시작과 근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전개하고, 묻고 답할 줄 알아야 된다. 시작을 들여다 볼 줄 알고 근본을 바로 잡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상제님의 진리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

상제님께서서는 ‘이제는 후천의 새 생명의 질서, 상생相生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다. 앞으로 열리는, 새로 태어나는 우주의 질서가 바로 상생이다. 상생은 본래 서로 상 자, 살릴 생 자, 서로가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다. 현실적으로는 가을개벽의 실제상황에서 한 인간을 직접 건져내는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살리는 것일까?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의 진리로 살린다. 가을 개벽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의 새 진리로 인류를 구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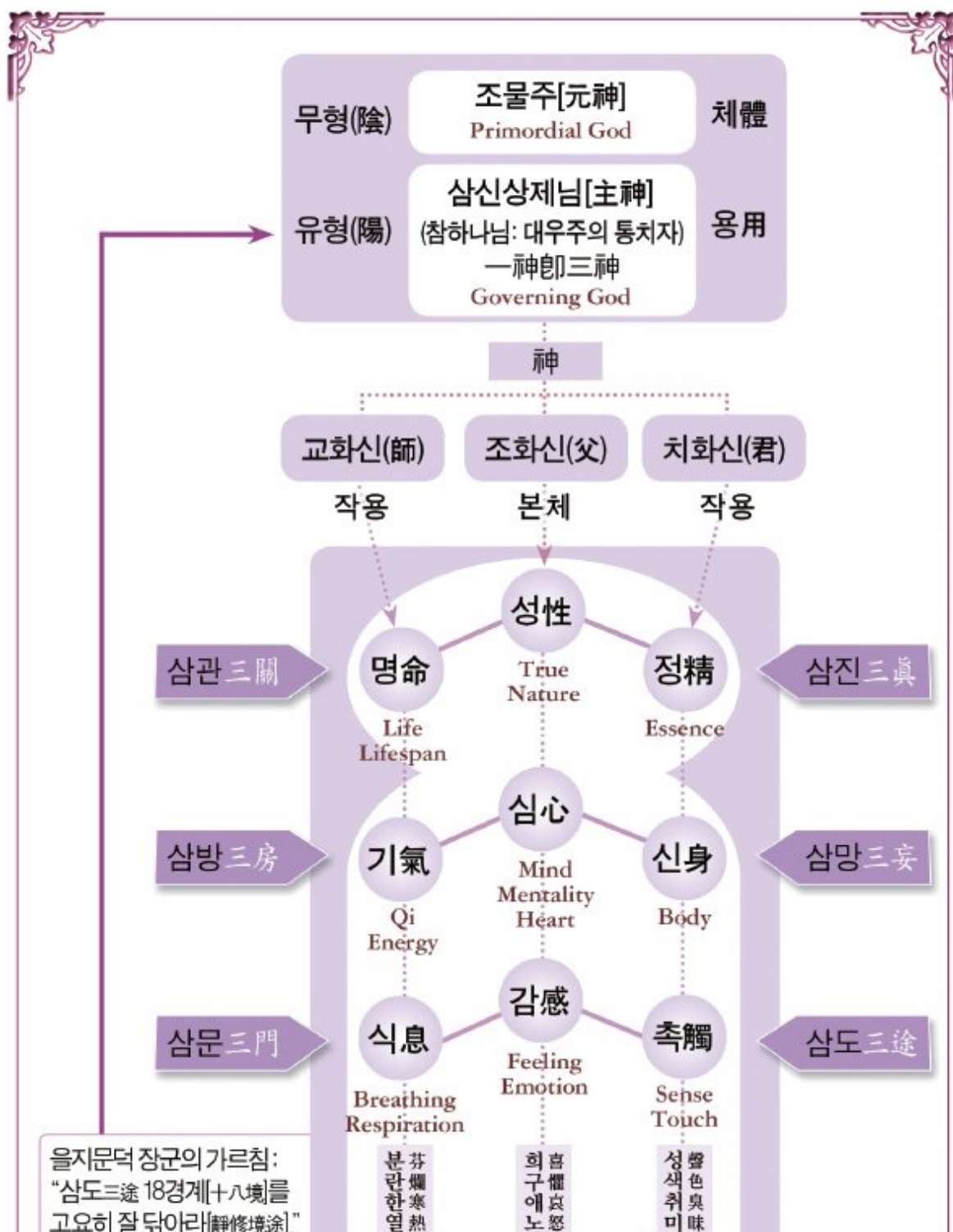
원시반본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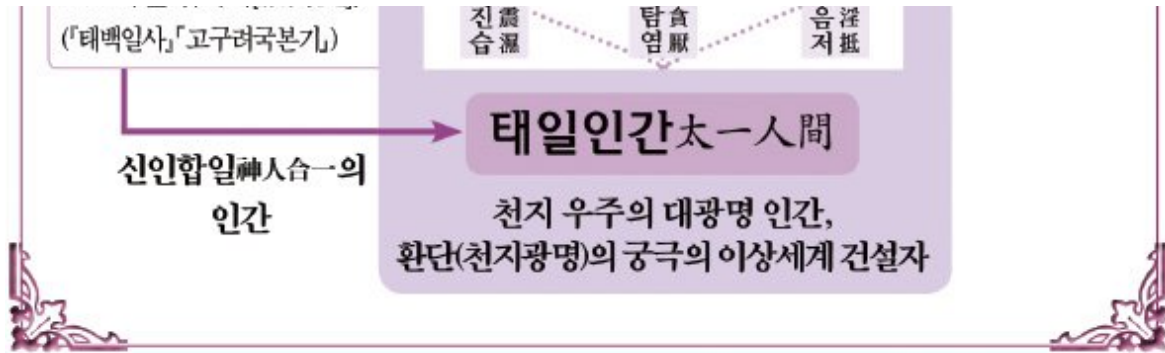


환단고기가 말하는 인간론의 정수, 태일太一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는 9천 년 전 환국 이래 한민족의 정신사를 이끌어 온 신교문화의 주제 내

용과 그 핵심 기틀을 다방면에 걸쳐 전해 주는 사서이며, 그 내용 중에는 삼신일체의 도[三神一體之道]를 바탕으로 한 인간론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몸 속에는 삼신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이 온전히 다 들어 있어서, 조화신이 내 몸에 들어와 성성이 되고, 교화신이 들어와 명명이 되고, 치화신이 들어와 정정이 된다. 한마디로 인간은 살아 있는 대우주 자체요 신神인 것이다. 이것이 삼신문화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전해 주는 깨달음의 한 소식이다.





삼신 개념의 비교를 통한 인간의 존재가치

| | | | | | | | | |
|------|------|----|----|----|----------|--------|---------|--------------|
| 조화造化 | 천도天道 | 신神 | 부父 | 성性 | 전선(神人の道) | 眞(清真大) | 창조, 조화 | 인간의 존재 가치 |
| 교화敎化 | 지도地道 | 법法 | 사師 | 명命 | 선仙(仙人의道) | 善(善聖大) | 육성과 깨달음 | |
| 치화治化 | 인도人道 | 왕王 | 군君 | 정精 | 종儻(大人의道) | 美(美能大) | 통치와 주재 | |

인간과 우주의 완성을 이루는 후천개벽

개벽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자연, 인간, 신)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근원적 뒤집힘, 회귀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후천개벽은 우주의 완성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개벽이다. 이는 상제님이 열어주신 개벽문화 진리의 큰 틀인 이신사理神事의 원리에 따라 천지의 질서가 바뀔으로써, 인류가 지난 날 역사 속에서 그토록 갈구해 온 궁극의 이상 세계가 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천개벽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 |
|------|---|
| 자연개벽 | 천체가 정립하면서 시간 질서가 바뀌므로, 천지의 근본 질서가 성장에서 통일·수렴으로 전환되는 자연 질서의 대개벽을 의미한다. 현상적으로는 지축 정립, 지각 변동 등으로 지구 곳곳에서 대규모의 지형적 변화와 각종 재난들이 발생하게 된다. |
| 문명개벽 | 우주일가 문명이 열리는 가을 운수를 맞아 인류 문명이 대비악하고, 원한의 상극 문명에서 '상생과 조화의 신문명'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후천선경의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기 위해 인류는 자연개벽을 비롯해 상씨름과 병란이라는 현상적인 개벽의 관문들을 극복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주 주재자이신 증산상제님의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 인간개벽 | 가을의 도통 문화인 신인합일神人合一의 만사지 문화가 활짝 열려 인간이 천지를 경영하는 인존人尊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인간개벽(생명개벽)은 인간이 영성靈性개벽을 통해 자신을 길러 온 천지에 대해 이해하고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세 가지 개벽 중 가장 중요한 개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천문화의 모든 낡은 사고방식과 신앙체계, 묵은 습성 등을 뜯어고쳐 생활문화의 개혁을 이루고, 태을주 수행과 도공을 통해 영성문화의 개발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인간개벽의 기반, 생활개혁 10대 지침

가을우주 시대의 조화 영성을 지닌 신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개벽하는 '인간개조공사' (선매송자도수)를 실현하여야 한다. 후천 5만년 조화선경의 문을 여는 가을 선仙문화의 인간 참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혁신하고 인간의 의식주 생활문화를 총체적으로 개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생활개혁 10대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시간 관리

- 1)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반드시 실천하라.
- 2)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둘째, 철저한 건강 관리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 2)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셔라.
- 3) 반드시 아침 수행을 하라.
- 4) 아침에 청수 마시고 배 마사지를 하라.

셋째, 의식주 문화 개혁

- 1) 술, 담배를 단호히 끊어라.
- 2) 합성섬유로 된 옷과 몸을 조이는 옷을 입지 마라.
- 3) 고기를 삼가라.

4) 고층 아파트 생활을 피하라.

넷째, 심법 개벽

1) 묵은 기운, 묵은 정신을 개벽하라.

다섯째, 『도전』 읽기 생활화와 가족 신앙

1) 『도전』 읽기를 생활화하라.

2) 『도전』을 항상 가까이 하라.

3) 어린 자녀들에게 상제님 말씀을 읽어 주어라.

4) 태을주 운장주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읽어라.

여섯째, 일심으로 기도하라

1) 가족과 세상 사람을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라.

2) 참회 기도를 생활화하라.

일곱째, 태을주 · 운장주 숨쉬듯 읽기

1) 태을주 운장주를 숨쉬듯이 읽어라.

2) 단주를 항상 손목에 걸고 다녀라.

3) 잠자리에서도 태을주를 마음으로 읽어라.

여덟째, 성성의식의 대개혁

1) 음란문화를 극복하라.

2) 정精을 생명의 근원자리로 환원시켜라.

3) 유부남, 유부녀와 간음하지 마라.

4) 남의 천륜을 해하지 마라.

아홉째, 상생의 마음으로 포덕 생활화

1) 천하 창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라.

2) 상제님의 도를 펴고 창생을 건지는 데 혼신을 다 바쳐라.

3)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열째, 다 같이 한마음(일심)이 되자

1) 매사에 일심하라.

2) 천지에 맹세한 언약을 지키고 배신하지 마라.

3) 생사 고락을 함께 하라.

선천 인류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단주丹朱의 원한

4300여 년 전 중국의 요순堯舜시대는 흔히 유가儒家 성군聖君의 상징이요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런데 요임금의 맏아들 단주丹朱는 불초不肖(못나고 어리석음)하다 하여 대권을 전수받지 못한 비운의 인물로 역사에 전해져 왔다. 하지만, 상제님께서는 당요唐堯의 아들 단주丹朱를 ‘천륜을 해탈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冤의 역사의 처음’ 이라 확인해 주셨으며, 단주의 깊은 원冤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를 풀어내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셨다. 이 단주의 원한을 해원시키기 위해 상제님께서는 단주에게 세운世運을 맡아 다스려 오선위기五仙圍碁 도수를 관장하게 하셨다.

*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요(唐堯)의 아들 단주(丹朱)가 품은 깊은 원(冤)을 끄르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대저 당요가 그 아들 단주를 불초(不肖)하다 하여 천하를 맡기지 않고 그의 두 딸과 천하를 순(舜)에게 전하여 주니 단주의 깊은 원을 그 누가 만분의 하나라도 풀어 주리오. 마침내 순이 창오(蒼梧)에서 죽고 두 왕비는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단주 해원을 첫머리로 하여 천지대세를 해원의 노정으로 나아가게 하노라. (道典 2:24:4~9)

* 세상에서 요순지치(堯舜之治)를 일러 왔으나 9년 홍수는 곧 창생의 눈물로 일어났나니... (道典 4:30:3)

* 이제 단주를 자미원(紫微垣)에 위(位)케 하여 다가오는 선경세계에서 세운(世運)을 통할(統轄)하게 하느니라. (道典 4:31:6)

* 회문산(回文山)에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이 있으니 이제 바둑의 원조인 단주의 해원 도수(解冤度數)를 이곳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하노라. (道典 5:176:3)

▶소상반죽瀟湘斑竹 아황과 여영 두 왕비는 남편의 비참한 죽음소식을 듣자 대나무를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그만 동정호에 투신하고 말았는데, 이후로 그 부근의 대나무는 지금까지도 피눈물이 얼룩진 반죽으로 자라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단주의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호남성 악양시 군산峯山 상비사湘妃祠 안에 있는 벽화 상비사는 소상瀟湘 강변에서 투신자살한 아황과 여영의 넋을 기리는 사당이다.



한민족사의 국통國統맥(민족의 원시반본)



한민족의 시원사에는 환국의 환인 천제(상계신)와 환국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한 배달국의 시조 환웅 천황(중계신), 고조선의 시조 단군 왕검(하계신)이 국조삼신으로 계신다. 한민족의 잃어버린 7천년 고대사와 민족의 혼인 상제문화를 반드시 되찾는 것이 민족정신의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진리적 사명이요 참된 인간이

되는 정도正道라 할 수 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0

팔관법 진리공과 인간관3

팔관법 진리 공과 | ③ 인간관 공과정리

인간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규명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를 드높이고 생의 보람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존에 논의되어 온 인간론에 대한 많은 명제들과 증산도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새로운 인간론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2. 증산도의 인간론(근본사상)을 한 마디로 말하면 ‘후천개벽’ 사상입니다. 후천대개벽은 엄정한 우주 섭리로 발생하는 일인데, 이 우주이법의 현상과 ‘인간론’에 대한 논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3. 증산도의 인간론에 있어 ‘원시반본’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시반본의 의미와 그 유형들에 대해 서술해 보세요.
4. 원시반본이 단순한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 인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일상적인 삶과 생활문화 속에는 원시반본의 이법이 적용되는 실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사례들에 대해 몇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6. 도전道典 속에는 원시반본의 이념이 현실로 구현되도록 작용하는 실천적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념들의 종류와 개념을 설명하고 그 행동이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도전道典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론에 대한 주요 5대 이념 이외에도 인간 생활 문명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사상 이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한 항목들과 핵심개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 가을 우주 개혁의 새 시대에 걸맞는 참된 인간상을 구현하는 제반 이념과 실천 덕목들이 곧 증산도의 ‘인간론’입니다. 도전道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시대 새 인간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 [월간개혁](#). All rights reserved.

11

팔관법 진리공과신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① 신관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1 인간의 존재와 죽음

주제 생각해 보기

생명의 존재 원리와 인간의 존재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가

유형의 현실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인간은 때때로 무형의 현실 너머 세계, ‘신神’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두기도 하는데, 신神이라는 주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神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생명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쉽게 말하곤 합니다. 도전道典 속에는 상제님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해 주신 성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도전道典에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전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 사후에 벌어지는 현상과 변화의 모습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존재 원리와 인간의 존재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우주宇宙 모든 생명의 존재 원리는 음양陰陽입니다. 건곤乾坤, 천지天地, 일월日月, 남녀男女 등은 물론이고 유형의 물질物質과 무형의 정신精神도 음양의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양자는 한 본체의 양면성이며, 일체관계를 이룹니다.

- 하늘 땅을 형상하여 생겨나 만물 중 가장 존귀한(도전 2:23:2) ‘사람’도 음양 원리에 따라 몸(身)과 마음(心)으로 구성됩니다. 몸은 다시 겉사람(육체肉體; 하드웨어)과 속사람(영체靈體; 소프트웨어)으로, 마음도 드러나는 의식과 감춰진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존재합니다. 영육靈肉이 음양으로 결합된 인간의 모습에서 영적인 ‘신神’의 문제도 출발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죽음이란 육신의 허물을 벗는 것이며, 아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몸 속에 신神이 있어서 사람은 곧 살아있는 신神이며, 신神은 인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육신은 수명을 다해 없어져도, 그 속의 영신靈神은 남아 존속을 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고, 신이 죽으면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인간이 살고 죽는 이치는 정기精氣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신神

[도전] 4:54:8(사람마다 몸 속에 신이 있다)

●죽음은 육신의 허물을 벗는 현상

[도전] 10:36:2(죽음은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옷벗어 놓는 이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도전] 4:117:10~13(생유어사 사유어생 , 문턱 밖이 곧 저승)

●살고 죽는 이치

[도전] 10:45:9(생사의 도는 몸의 정기精氣에), 9:76:1~2(도를 닦는 자와 닦지 않는 자)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 죽음은 겉사람(육체)과 속사람(영체)이 분리되는 현상이며, 이를 1차적 죽음이라 합니다. 분리된 겉사람은 수명을 다해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다시 혼(魂)과 뉘(魄)이라는 음양으로 나뉘어 본래 생겨난 자리인 하늘과 땅으로 환원되어 신神과 귀鬼가 됩니다. 즉 몸이 늙어 죽으면 몸속에서 생명의 총수역할을 하던 영신은 몸에서 이탈하여 신명神明(=신神)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 1차적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난 영혼(인격신)은 살아서 도를 닦은 만큼 정기가 뭉쳐 있습니다. 즉 도를 잘 닦은 자는 정혼이 굳게 뭉쳐 죽어서 신명이되어 천지와 더불어 영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정혼이 흩어져 그 존재 자체가 연기처럼 영원히 소멸(2차적 죽음)하게 됩니다. 영혼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현상 (1차적인 육신의 죽음)

[도전] 2:118:2~4(사람이 죽음의 질서에 들어가면), 9:213:5(죽어서도 공부를 계속한다)

●닦지 않은 영혼의 죽음 (2차적인 영원한 죽음)

[도전] 9:76:1~2(도를 닦는 자와 닦지 않는 자)

▶[핵심술어] 정기신혈精氣神血과 정혼결집

[도전] 9:76:1 측주 (정혼이 굳게 뭉쳐서)



신도神道の 개념과 질서

주제 생각해 보기

신神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신神이라는 말의 뜻과 이미지 및 그 속에 담긴 의미 등과 관련하여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과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도전道典에는 신神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상제님께서 일러주신 신神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상제님께서서는 신神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도전道典속에 나오는 신神에 대한 성구들을 정리해 보면 증산도에서 말하는 신관神觀의 본질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구들을 찾아 신神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신명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이치로 존재하는가

신神의 세계는 우주천지의 이법을 기반으로 존재하고 구성됩니다. 도전道典 성구를 바탕으로 하여 신명세계의 구성과 존재 이치에 대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제 확인해 보기

신神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신神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생명 운동의 근본 주체로서, 기氣를 본질로하는 영적인 실체(神卽氣也)이고, 만물을 서로 연결하는 초월적인 우주생명의 혼을 의미하며, 지극한 우주이치(天理)에 입각해 존재와 작용을 합니다(도전 4:67:1). 이러한 신명세계의 질서나 법도를 신도神道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神의 의미를 다시 몇 가지로 유형화 하여 살펴보면 ①우주 자체(얼굴 없는 하느님; 원신), ②우주 주재 인격신(God; 주신), ③사후의 인간 모습(신명;god), ④천지간의 자연신(망량신이 대표적)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 귀신은 천리의 지극함

[도전] 4:67:1(귀신鬼神은 천리天理의 지극함이니)

■ 신神은 곧 기氣이다

[환단고기] 소도경전본훈 (神卽氣也: 신神은 곧 우주의 기氣이다)

상제님께서 일러주신 신神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신神의 본질은 원신元神과 주신主神의 음양 구조로 동시에 존재하며, 천지에 가득 차서 없는 곳이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통치·주재하는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 통치의 명을 현실로 집행하고 작용시키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이 일신一神과 다신多神은 근본적·본질적 가치는 차등 없이 같지만 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체와 위격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를 일원적 다신관이라 합니다. 상제님께서 모든 신에 대해 평등과 존중과 참여와 조화의 관점에서 주재하시고, 진정한 인간 성숙(인존)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신神의 보편적 속성

[도전] 4:62:4~6(신이 없는 곳이 없고 하지 않는 일이 없다), 4:48:1~2(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 된다)
☞ 무소부재無所不在·무소불위無所不爲의 속성

●평등과 조화의 신관

[도전] 4:48:4(파리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다), 5:207:4(미물곤충도 원망 붙으면 안 된다)

●존중과 참여의 신관

[도전] 4:67:1(공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귀신과 더불어 판단하노라)

●인간성숙(인존)의 신관

[도전] 3:312:10(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주체적 인간성숙과 구원의 길 개방

[도전] 3:312:10 축주 (마음대로 되리라)

신명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이치로 존재하는가

- 천상의 신명 세계는 현실 겉우주보다 훨씬 방대한 우주 내면세계(속우주)의 통칭으로서, 그곳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이 지상의 삶과 똑같은 생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의 신명계는 종縱으로 9천, 횡橫으로 33천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후천에는 지구가 신명계의 최상천인 10천으로 통일 수렴됩니다.

- 또한 상제님께서 땅 속(지하 문명)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일러주셨습니다.



3 신명계와 인간계의 상관관계

▶주제 생각해 보기

신명계와 인간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신명세계는 별개의 천지가 아니라 인간계와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명세계와 인간세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인간의 완성과 역사 전개에 있어 신도神道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전道典을 살펴보면 신도神道の 세계가 인간의 완성과 인간 역사의 전개에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완성’과 ‘인사人事 전개’에 관련된 신도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인사人事의 성공을 위한 인간과 신명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신명계가 인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면, 인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신명이 어떤 관계를 이뤄야 하는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道典과 도훈道訓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확인해 보기

신명계와 인간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 신명계와 인간계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인간을 보호·지원(조상신·보호신·보은신)하고 문명 발전에도 조력을 하는 관계이고, 부정적인 관계는 원한과 살기 및 악척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관계는 맺힌 것을 풀고 상제님 도道자리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최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원천도 및 제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명계와 인간계의 긍정적 관계

[도전] 2:61(보호신 - 신명의 지킴), 4:154(배후영단), 7:32:7(보은신), 2:30(지도령 - 문명발전조력), 5:340:2~4(천상 과학문명의 지상 이식)

●신명계와 인간계의 부정적 관계

[도 전] 2:103~104(척 隼이 없 어 야 한 다), 3:188:10~11(모든 참사는 척신의 난동), 9:87(모든 병의 근원은 척 때문), 9:81(해원의 길 천도식)

인간의 완성과 역사 전개에 있어 신도神道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인간과 신명은 자기성숙·완성을 위해 ‘윤회輪廻’라는 방식으로 인간계(이승)와 신명계(저승)를 오가는 왕래순환 과정을 반복하며 서로 교류합니다.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적을 위해 윤회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 또한 인간의 현실역사(事)는 하늘의 명(理)을 받아 신도(神)에서 주재하여 먼저지은 후에 사람이 비로소 행行함으로써 현실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인사는 인간과 신명의 공동합작품인 것입니다.

●인간완성을 위한 신도의 역할(윤회輪廻)

[도전] 4:117:10~13(문턱 밖이 곧 저승 , 생유어사 사유어생), 9:126(전생의 보복을 받은 것), 2:10:3(박금곡의 전생과 할 일), 2:79:2(전생의 죄업)

●인간역사(人事)의 전개와 신도의 역할

[도 전] 2:72(이 理- 신 神- 사 事의 원 리), 4:48:1~2(신명이 들어야 일이 된다), 4:5:1(신도로서 다스리면 무위이화니라), 4:50:3(비구름의 운행도 신명의 명을 따르는 것), 4:58(신도로서 무위이화)

▶[핵심술어] 이신사理神事의 법칙

[도전] 원전 후주 523~524 쪽 〈이理- 신神-사事〉

인사人事의 성공을 위한 인간과 신명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 신명神明은 현실 인사人事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재하고 매개하는 절대적 역할을 하므로, 인사를 집행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명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인사를 성공成功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됩니다.

- 그러므로, 인사를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법과 실행 의지 및 신명봉경의 마음가짐을 잘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① [도전 4:89:7, 2:137:2] 마음은 신명이 출입하는 문이고 천지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열린 마음가짐을 갖고 바른 진리 선택을 하며 마음을 바르고 굳고 강하게 가져야 신도가 감응해 인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② [도전 7:19, 2:26, 2:78, 11:407] 개혁기 인간구원은 신명계 조상의 손길과 공력으로 이뤄지므로, 신명(조상) 봉경을 잘 해야 인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③ [종도사님 말씀] 심법을 잘 닦아서 신도에 눈을 뜨고 체험을 할 수 있어야 인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법을 닦는 만큼 신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④ [종도사님 말씀] 인간의 자유의지(토화작용)를 강화해야 인사의 성공이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진리적 주체성과 실행 의지(뜻대)가 필요합니다.



4 가을우주의 인존으로 거듭나는 연관 사상들

▶주제 생각해 보기

인간에게 수행修行은 어떤 의미이며, 왜 해야 하는가

영靈적인 신神의 세계를 체험하고 신도神道 세계의 신령한 기운과 소통하여 하나가 되는 방법이 수행修行

입니다. 인간에게 수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수행을 통해 인간 본연의 영성을 열려면 그것을 행하는 방식과 자세 등이 삳되지 않고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는 바른 방법에 대해 도전道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세요.

태을주太乙呪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선천 수행문화의 결론은 태을주太乙呪입니다. 상제님께서 인류를 위해 내려주신 태을주에는 무궁한 조화의 권능과 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이러한 태을주의 신권神權과 은혜恩惠에 대해 정리해 보고, 그것을 체험했거나 목격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확인해 보기

인간에게 수행修行은 어떤 의미이며, 왜 해야 하는가

- 수행修行은 몸과 마음의 움직임(行)을 닦는다(修)는 뜻이고, 인간의 본성인 신성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수단이며, 마음 구조의 신비를 벗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생명의 근원을 듣고 보는 것이며, 상제님의 신권神權을 받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 수행은 인간의 생명을 천지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필연적 우주 이치로 발생하는 개벽 기운을 극복해 우주의 열매로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의의[종도사님 말씀]

인간은 대우주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생명의 본질 문제로 보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지극히 순수하고 평화롭게 완전히 될 수 있다 .

●수행의 당위성

[도전] 9:76:1~2(도를 잘 닦는 자는), 10:45:9(살고 죽기는 쉬우니), 9:217:3~4(영원히 생명을 늘여 감
이 옳은 일), 6:61:2(내 한 몸 잘 가짐이 천금보다 중함), 2:140:1~3(태을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

수행을 하는 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 수행을 할 때는 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마음을 비운 채 편안하게 온
몸으로 주문 소리와 하나가 되도록 집중해야 하며, 오직 허리만이 곧게 서서 백회와 회음의 일직선이 되고
온몸이 이완된 상태가 되어야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앉은 자세로 하는 주문 수행이 기본입
니다)

●마음이란

[도전] 2:137:2(천지의 중앙은 마음), 4:100:6~7(마음은 귀신의 문호요 조화의 근원)

▶[핵심술어] 마음

[도전] 4:100:7 축주 (마음의 작용과 의지의 중요성)

태을주太乙呪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 태을주太乙呪는 우주 최고신이 만든 최고의 주문으로서, 선천 수행문화의 결론이며 개벽기 구원의 열쇠
이자 일꾼의 여의주입니다. 종도사님께서서는 “태을주에 천지의 모든 조화와 대광명이 들어있고, 태을주를
읽을수록 영이 맑아지고 순수해지며 새 생명을 받고 건강을 되찾는다. 개벽과 구원의 주제, 선경의 주제,
도통도 바로 태을주로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려 주셨습니다.

-태을주는 신도神道를 통하게 하고 치유healing와 깨달음enlightenment과 보호protection와 구원salvation
의 권능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공부방법을 알고서 바른 심법과 자세로 읽어야만 그 무궁한 조화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을주의 소중한 체험과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문공부의 방법

[도전] 9:201(믿고 읽는다), 9:200(바른 마음과 자세로 읽는다), 8:64(소리와 고저장단을 맞춰 읽는다
, 7:75(양적으로 많이 읽는다)

●태을주의 화권

[도전] 11:180:4(태을주의 근본정신), 9:199:3(태을주의 신권), 2:140:3(천하사람을 살림), 6:112:13(신
병神兵이 침범하지 않음), 5:263:12(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들어 있음)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2

팔관법 진리공과신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② 신관 공과 학습 자료

증산도의 신관은 일원적 다신관

이 대우주 진리의 중심에는 상제님이 계신다. 그리고 천지신명들이 있고 각 개인의 조상신들이 있다. 이 모두가 신의 세계를 이룬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God)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spirit, 영靈, 그리고 이 우주에 살아 있는, 인간이 죽어서 된 모든 신명도 포함한다. 증산 상제님은 성자들의 신명을 비롯한 천지 안의 모든 신들의 존재를 밝혀주시고 다 인정해 주셨다. 따라서 증산도의 신관은 다신관이다. 다신관이면서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최상의 조화주 하나님으로 섬긴다. 한마디로 유일신 문화와 다신 문화가 통합돼 있는 것이다. 바로 조화신관이며, 다른 말로 일원적다신관一元的多神觀이라고 한다.

순수 감성이 있어야 실재하는 천상 신명계를 볼 수 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천상에 올라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났다가거나 또는 죽은 남편을 만났다가거나 죽은 어린 자식을 만났다. 그래서 한창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소리를 질러 확 깼다? 그럴 경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영이 천상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들을 만난거다’ 하는 걸 생생하게 안다. 그리고 올 때는 그 머나먼 천상에서 1, 2초 만에 돌아온다. 시공을 초월해버리는 것이다. 영적 세계는 그런 세계다. 신도는 직접 체험을 해서 내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들을 줄 알고 온몸으로 느낄 줄 알고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순수 감성이 있어야 된다. 천상 신명계에는 이 세상을 살다 간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다. 실제로 우주의 성좌星座에는 신명세계로 특화特化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 역사의 선배 되는 이들이 신명으로 살고 있다. 상제님 말씀을 보라.

*사람에게는 혼(魂)과 넋(魄)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神)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靈)

도 되고 혹 선(仙)도 되며 낮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鬼)가 되느니라 (道典 2:118:2~4)

우리의 영이 밝아지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죽은 동생이 무덤에서 나오는 게 보인다. 보면 하얀 솜 같다. 아주 미세한 솜털 같고 바람과도 같이 가볍다. 내가 직접 봤는데, 신명이 무덤 속에서 나올 땐 수평으로 올라온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서 걸어나온다. 제삿날이 되면, 저녁 해질 무렵 신명들이 하늘에서 막 떼거리로 내려온다. 한번 상상해 보라. 제삿밥 먹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 같은 하얀 사람들을. 그 하늘사람들이 땅 속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걸어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손들이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 제사 지내는 이유조차 모른다.

조화성령을 받고 큰 뜻을 품는 공부를 하라

상제님은 늘 “파고 또 깊이 파라. 마음 얹은 것이 가장 큰 한(恨)이 된다.” (도전 6:3:1~2)고 강조하셨다.

앞 세상 조화낙원의 새 문화에서는 마음 얹은 것이 가장 큰 한이다. 마음 문이 크게 열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꼭 청수 올리고 천지부모님께 성스럽게 절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해서 가을철 새 하늘의 성령을 받는 신앙을 해야 한다. 자꾸 절하고 참회하고 주문 잘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영대가 밝아진다. 천지가 밝아진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개인 일도 풀리고 도장 일도 잘 풀린다. 천지 조화성령을 받는 공부, 그것이 바로 뽀족한 수다.

이 공부 되는 걸 다시 한마디로 하면, 뜻[意]을 굳 히는 것, 뜻을 체험하는 것이다. 큰 뜻을 품으라.

상제님 도에서 대의大義, 큰 대 자 옳을 의 자, 이 대의가 원 우주의 마음이다. 우주의 도의 속마음. 수행할 때에는 큰 뜻, 우주의 큰 꿈, 우주의 마음자리를 품는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의意 자에다가 뜻 지志 자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의 중앙 오십토의 토의 조화기운의 본성, 그걸 의라고 한다. 모든 변화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 밖에 없다. 모든 걸 조화하고 다스리고 하나되게하고, 끊임없이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토의 정신, 그 순수 변화의식 그게 의意의 뜻이다. 그런데 그 천지 조화의 큰 뜻을 품었다고 할 때, 그 큰 뜻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무극이니까.

주문 읽을 때, 공부할 때에도 그런 천지의 본래 마음자리, 도의 큰 뜻을 딱 품는다. 하늘도 거기서 나오고 땅도 거기서 나오고 인간도 거기서 나오고 신명도 거기서 나온 본래의 도심道心을. 그것이 온화한 마음으로 짝 들어찬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들여다보라!

* 心也者(심야자)는 鬼神之樞機也(귀신지추기야)요 門戶也(문호야)요 道路也(도로야)라 開閉樞機(개폐추기)하고 出入門戶(출입문호)하고 往來道路(왕래도로)에 神(신)이 或有善(혹유선)하고 或有惡(혹유악)하니 善者師之(선자사지)하고 惡者改之(악자개지)하면 吾心之樞機門戶道路(오심지추기문호도로)는 大於天地(대어천지)니라. (道典 4:100:6, 7)

큰 뜻을 품는다는 게 뭐냐? 직접 느껴보라! 태을주 읽으면서 완전히 나도 잃어버리고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기분이 극치로 좋다. 이른 새벽에 앉아서 한 너댓 시에 수도하다가 강력한 체험을 하면, 참 멋지다. “인간은 대우주다!” 이것을 깨닫는다. “내가 우주다! 내 마음이 하늘과 땅과 같다!” 이렇게 돼야, 상제님 천지대업을 집행하는 일꾼의식을 갖는다. 그래야 이 몸뚱아리 색신의 경계를 벗어나서 너의 본래 몸, 법신의 세계가 뭔지를 안다. 이 진리의 몸뚱아리는 우주와 같다.

인간의 영체, 정신세계, 생명의 몸뚱아리라는 게 우주와 같다. 사람 몸 색신色身은 끊임없이 바뀌면서 때가 되면 죽어서 땅 속에 가 썩어버리지만 영체는 남는다. 그 영체의 본래 주인 되는 마음이 열려 하늘과 같은 의식이 되면, 법신의 경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상제님도 가끔 법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가.

태을주를 읽어야 그걸 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생활 속에서 집중하면서 밤낮으로 공부한다” 이래야 한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시간도 마음 속으로 안 읽고 다니면서, 일주일 죽고 살기로 몰입하면 뭐 좀 오지 않겠나 하겠지만, 소나기식 공부로 몸을 괴롭히면 그만큼 힘들기만 하다. 평소에 준비가 돼서 공부를 하면, 하루만 해도 단박에 신도세계 체험도 하고, 개벽도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이법 · 신도 · 역사를 인식하는 주체

자연의 이법 속에서 신도의 손길에 의해 인간이 전개해 나가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진리의 기본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인식하는 주체는 바로 마음이다.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의 천지 이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신도 세계,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이 뭔지를 안다. 또 인간 역사를 제대로 깨쳐야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총체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이 이법과 신도와 인사를 구성하고, 영원히 현재화 되는 시간의 파도 위에 인간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다!

신도神道を 체험하는 방법, 기도와 수행

천지의 이법에는 시비, 가치, 선악이 붙질 않는다. 허공에다 대고 한번 외쳐보라. 거기 어디에 착하고 악하고 있는가. 모르면 죽는 것이다. 이것이 가을 개벽기 인류의 현실에서 절감하게 되는 진리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천지 이법을 다스리는 것은, 모든 우주 현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신도에서 행한다. 이법을 다스리는 주체인 하나님의 세계, 신도를 제대로 알아야 진리의 원 중심, 눈동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진리가 보인다. 그건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신도를 아는 길은 오직 기도와 수행을 통해 체험하는 것밖에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영성이 맑아야 신도가 보인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진심으로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거듭나 사상적으로 깨지고, 날마다 수도하고, 천지와 함께 기도하는 삶이 아니면 결코 신도를 깊이 체험할 수 없다.

상제님을 만나게 해 주는 선령신이 너희에게는하나님

상제님은 당신만을 모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름철 말에 오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에서처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니라.” 는 것이 아니다. 문화가 전혀 다르다.

기독교는 중동의 유목 문화에서 싹텄다. 이동하면서 천막 치고 2대 3대가 함께 살아서 강력한 율법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십계가 나오고,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고 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조상신에게도 적용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고 했다. 제물을 차리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런데 상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이 너희 선령신’ 이라고 하셨다. “너희에게는 선령(先靈)이 하나님이니라.” (도전 7:19:1~2)고 하시며 선령신의 음덕과 선령신의 인도로 상제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다.

‘모든 인간은 선령으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선령보다 나를 먼저 섬긴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너희 선령이 네 하나님이니 너희 선령을 먼저 모시고 나를 섬기라’ 는 말씀이다. 이야말로 참 가르침이 아닌가.

선령을 기쁘게 해 드릴 때, 내 마음이 밝아지고 수행을 해도 기운이 크게 뿜린다. 선령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본(報本)하려는 의식만 가져도 그걸 안다. 우리가 제사 안 지내고 박대한 선령, 또는 억울하게 죽어간 형제나 누구에게, ‘내가 한번 밥상을 차려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날짜만 잡아도, 몸 아픈

게 받은 없어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신명이 그걸 알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이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만 가져도 그 순간 다 알아채는 내면의 신도세계가, 과연 믿어지는가?

지금 이 세상은 물질주의와 과학문명에 빠져서, 신도 세계에 대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세속말로 완전히 ‘니나노 세상’ 이 돼 버렸다. 이(利)끝만 추구하는 기회주의, 이기주의 세상으로 변해서, 반 금수 세상이 돼 버렸다. 나를 낳아주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한 선령! 선령은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생명의 제 1의 창조주다. 우주의 조화옹 하나님 상제님이 “나를 생각하기 전에 너희들 선령을 먼저 잘 섬겨라.” 하신 말씀을 뺏속깊이 새기라.

천도식은 조상신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것

왜 제사를 잘 지내야 하고 천도식을 해야 하느냐?

더러는 일꾼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듣는다. “천도식을 안올리면 조상신이 자손을 받들어주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자손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잘 안 낫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죽기도 한다. 하지만 천도식을 올리고 조상을 잘 모시면, 조상신명이 자손을 잘 받들어 주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도 잘 극복하고 신앙을 꾸준히 잘 한다” 는 것이다. 천도식은 우리가 입도식을 하듯, 조상신명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고 조상님들을 위해 길을 닦아 드리는 것이다.

태을주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깨달음의 총결론

태을주란 어떤 주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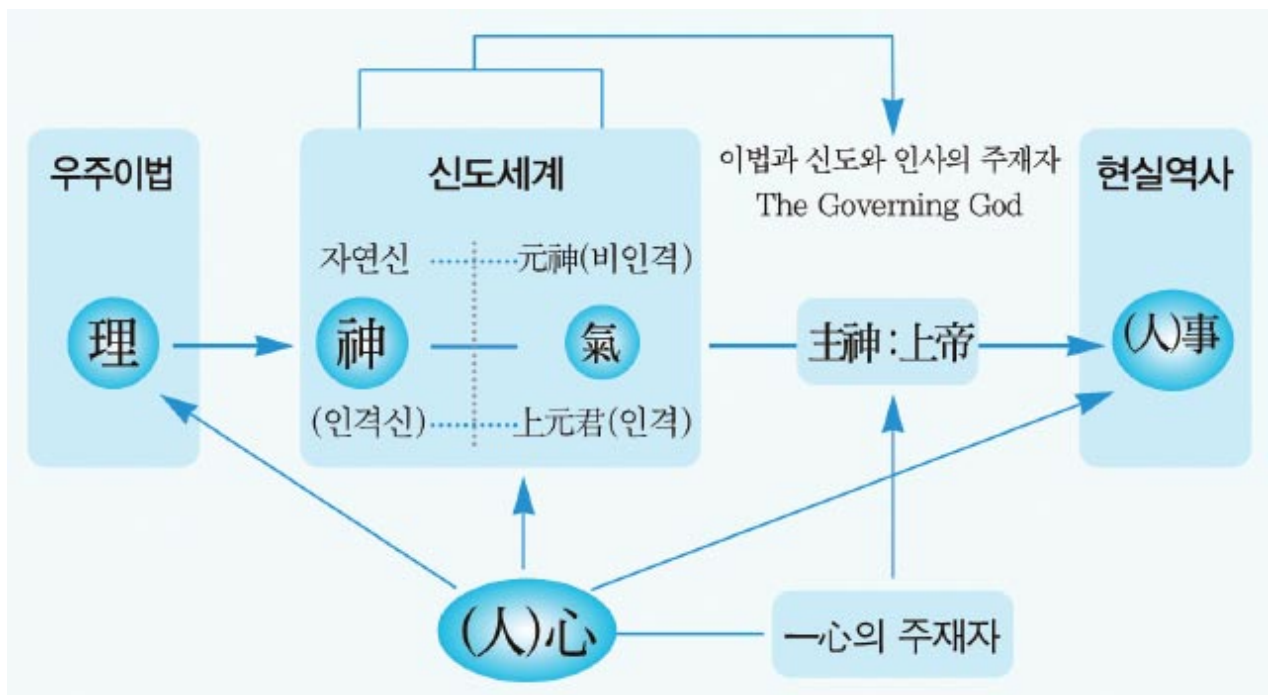
“흠치흠치 태을천상원군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사파하~.”

태을주는 총 스물석 자로 이루어진 주문이다. 하늘땅에서 살다 간 모든 인간과 신명들, 진리를 찾아 나선 모든 구도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궁극의 진리 공부, 영험한 우주적인 도의 체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이 바로 태을주 공부다. 태을주는 이전의 어떤 주문보다도 그 뜻과 영적 차원과 도권과 신권과 조화의 수준이 높다. 그래서 ‘태을주는 조화 주문이다, 조화성신을 받아 내리는 주문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다. 전체 스물석 자로 구성된 태을주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언어이며, 모든 창조와 조화의 생명 질서가 열려 나오는 신의 세계, 즉 하늘의 성신을 내려 주는 신령스런 주문이다. 태을주는 인간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깨달음의 총 결론이자 최종 열매이다. 태을주를 이해하는 만큼, 태을주를 제대로 체험하는 만큼 진리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이 대우주의 생명과 창조의 신비에 대해 궁극

의 도통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태을주보다 더 성스러운 언어의 조합이 있을 수 없다.

태을주가 어떤 주문인지, 태을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즉 태을주의 형성 과정을 제대로 알고 읽으면 누구도 ‘정말 태을주를 제대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 신령한 태을주 주문의 조화 속에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법과 인사의 주재처, 신 神(이신사理神事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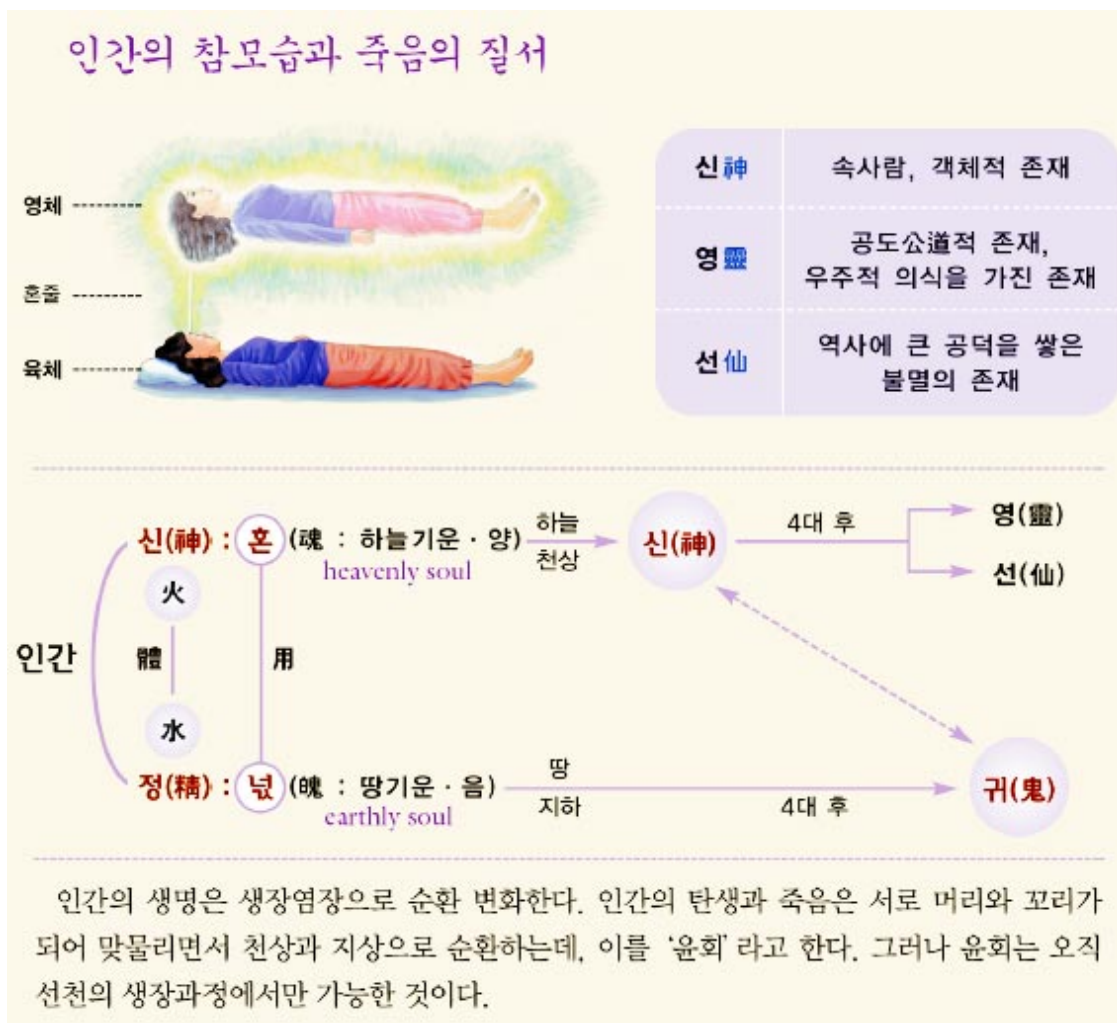


| 이理 | 신神 | 사事 |
|------------------|---------------|---------------|
| 객관적 이법(이치;섭리) | 신도神道の 매개 | 인사人事의 실현 |
| 가능태 Potentiality | 가능태→현실태 | 현실태 Actuality |
| 진리의 바탕 | 진리의 속 눈(모사재천) | 진리의 실현(성사재인) |
| 인과율 ; 필연 | 신도율 ; 조화 | 목적률 ; 우연 |

[종도사님 말씀 - 월간개벽 2005년 5월호 89쪽]

이치理致에 밝지 못하면 몽매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도神道에 어두우면 진리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알 수가 없으며,
 인사人事를 모르면 역사를 매듭짓는 일꾼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다.

인간의 참모습과 죽음의 질서



선 · 후천 성령관

동방 신교의 성령론과 서방 기독교의 성령론

성서에 나오는 성령 사역의 예

신약성서를 보면(사도행전 2:1~4), 예수가 로마군에게 잡혀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쇠갈고리의 채찍을 맞아 가면서 고문당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잡아떼던 소인배 제자들 120명이 예수 승천 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급히 바람이 불면서 뱀의 혀바닥 같은 불덩어리로 성령이 임재하자 갑자기 모두가 담대하고 강력한 영적 군사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하루에 3천 명을 전도하는 기독교 전

도 폭발의 첫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성령은 유약한 자연의 인간을 성부(아버지) 성자(아들)의 구원의 뜻과 진리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합일되는 영원한 생명적 인간으로 변화시켜 준다. 기독교 신앙과 모든 문명 창조를 받쳐주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 내리는 데 있다.

성령의 역할

그렇다면 동서양에서 말하는 공통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과 평화의 마음을 열어준다.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원지 신앙이 원지를 안다. 우주 원리로 말하면 토심土心, 즉 대자연이 태어난 생명의 근원인 토 자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

셋째, 성령은 치유의 영이다. 성령은 몸에 있는 모든 불결하고 불건강하고 어두운 기운, 죽음의 모든 병기를 완전히 소멸시켜 씻어내 준다.

넷째, 성령은 조화의 영이다. 본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연합'하여 한 몸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모든것이 하나라는 일체적인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화합하고 적극 참여하여 우주의 조화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천지의 통치 목적, 대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생명적 인간, 섭리적 인간, 역사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살아있는 만물의 조화 모습 자체가 진실로 아름답고 참되게 보인다.

다섯째, 성령은 진리 선포의 영으로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은혜의 손길이다.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선령신

천지와 인간을 낳는 조물주 삼신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는 현실적으로는 천지부모의 생명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낳아 기르는 선천 봄여름 세상에는, 인간의 생명 창조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성령하나님의 사역만을 주장해 왔으나, 인간 생명을 추수하는 가을우주 개벽기에는 인간을 낳아 준 직접적인 생명의 부모인 선령신들이 성령의 손길과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존시대를 당하여 모든 인간의 선령신들이 가을의 생명법칙, 즉 생장을 종식하는 추살 기운에 의해 일제히 죽어가는 가을개벽의

화급한 순간에 자손 줄을 건지기 위해 천상에서 내려와,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생사를 걸고 분주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은 이것을 가을 개벽기 인간의 생사 판단에 가장 결정적인 구원의 명제로 강조하셨다. 자손을 위해 애통해 하고 간절히 사무치게 돌보는 조상의 음덕이 달힌 선천 우주의 조화성령의 힘보다 더욱 큰 것이요. 그래서 상제님 조상이 너희들 각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만성萬姓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奉公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 내리고 살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육급선령辱及先靈이 되느니라.(7:1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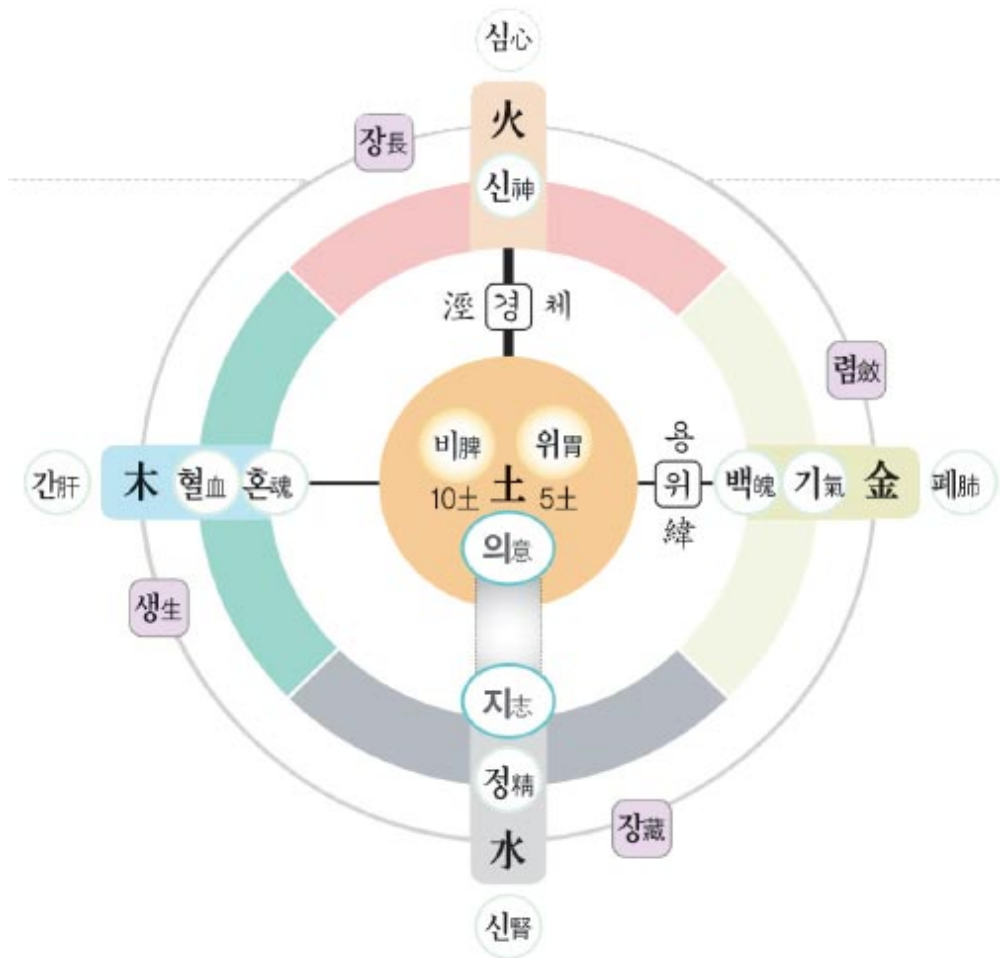
예수는 선령신들이 반대하므로 천지공정에 참여치 못하리라. 이제 인종 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운수를 맞아 선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2:26:7~8)

그럼에도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신주의만을 주장하여 선령신의 존재를 소홀히 여긴다. 대자연의 생명계는 전부 음양이 하나로 조화되어야 성립된다. 신의 세계 또한 그렇다. 유일신과 다신이 조화를 이루며 음양 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행하여 직접 저를 낳아 질러준 생명의 근원적 뿌리인 조상에 대해 우상숭배라 하여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며 조상을 박대하는 행위는, 가을천지가 열리는 인간 씨종자 추리는 가을 개벽기에는 살 길이 없다고 경계하셨다.

정신의 생성과 통일

정신과 혼백의 체용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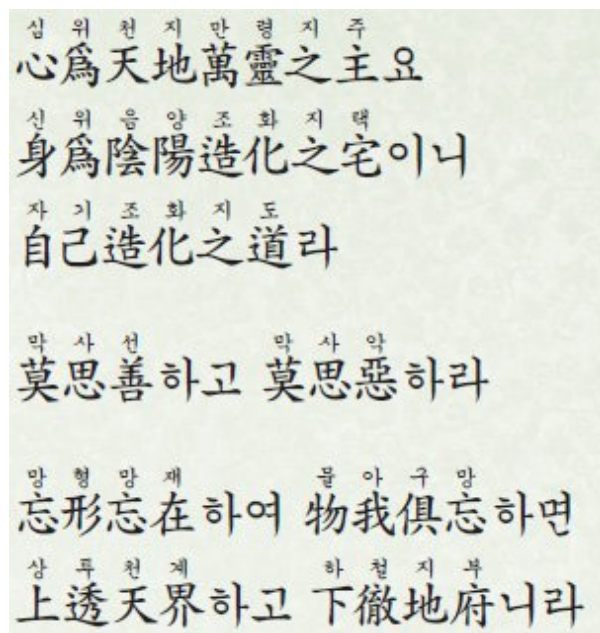


정精 · 기氣 · 신神 · 혈血은 천지부모와 인간부모에게서 부여받은 인간 생명의 4요소이다. 정은 생명의 가장 기본 되는 물질로 신장에서 생성되며 정이 고갈되면 생명을 잃는다. 기는 생명활동의 기본 에너지로서 공기와 음식물의 기운이 합해져 생성된다. 신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조절한다. 혈은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길러내는 지극한 조화의 물질이다. 기의 바다에서 노니는 것이 백魄, 혈속에서 노는 영적 요소가 혼魄이다.

정이 수직으로 기화의 과정을 거쳐 내 몸의 하늘인 머리로 가서 신으로 발휘되면 양의 극에서 음이 태동하듯 신은 음화되어 혈을 만들며 통일, 완성되어 정수로 다시 탄생한다. 정 · 기 · 신 · 혈은 생명의 총수인 신이 주관하여 생장염장 이치에 따라 순환 생성되는 것이다. 정신과 기혈은 음양 짝이 되어 양은 음을 업고 오르며 음은 양을 안고 내려오면서 기혈의 조화와 정신의 통일을 이루어낸다. 토심土心[일심, 자연의 마음, 평화로움의 중도中道의식]은 이 순수한 정신과 기혈의 조화, 혼백의 안정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토심으로 인해 인간 몸에 생명력이 생성되고 조화를 이루어 궁극으로 인간이 만물과 하나 될 수 있다.

한편 정과 신을 중간에서 통솔하는 것이 의意이다. 의와 지志는 음양 짝으로서, 천지의 뜻을 품는 것이 의이고 그것을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이다. 몸의 토기와 수기가 하나로 조화, 통일될 때 강항 하늘의의지가 발휘되어 나의 정신을 조화하고 통일하는 강력한 초인적 힘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태상종도사님의 수도요결修道要訣



마음은 천지만령의 주인이고 몸은 음양의 조화를 짓는 집이니, 도통이라 하는 것은 자기조화지도自己造化之道다.

착하려고도 하지 말고, 악하려고도 하지 말라.

나의 형상도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도 잊어버려서 이 세상 만물과 나라는 존재가 함께 없어지면, 위로는 대우주 천체권을 꿰뚫고 아래로는 땅 속도 환하게 꿰뚫게 되느니라.

도기道紀 128년 1월 2일

안운산安雲山 태상종도사太上宗道師님 말씀 중에서

수행修行의 요체要諦

| | |
|----------------|--|
| 신교神敎의 세 가지 공부법 | ①마음공부: 지감법止感法(불교의 명심법明心法). 감정과 느낌을 자신이 조절해 그 한계를 지키는 것. |
| | ②기공부: 조식법調息法(선교의 양기법養氣法). 호흡을 잘 가다듬으면서 자신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것. |
| | ③몸공부: 금촉법禁觸法(유교의 수신법修身法). 소리나 색, 맛이라든지 음란한 것을 보면 자신이 금하여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 |
| 신교神敎의 수행법 | ①주문수행법呪文修行法: 주문을 읽어 도道を 이루는 것으로, 신교 시대의 수행법들은 『환단고기桓檀古記』의 <삼성기> 상·하, <태백일사>의 환국본기, 소도경전본훈, 고구려국본기 등에 수록되어 있다. *呪願有功(주문을 읽고 공덕이 이뤄지기를 기원하셨다- 삼성기上), *乃以呪術 換骨移神(환웅께서 웅족熊族과 호족虎族을 신령한 주문의 도술로써 환골換骨케 하여 정신을 개조시키셨다- 삼성기下) |
| | ②지생쌍수법智生雙修法: 지식과 경험, 지혜와 물질생활, 생명력 등을 동시에 닦아 가는 방법으로서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닦는 영육쌍전법靈肉雙全法이다. |
| 수행의 세 가지 원리 | ①수승화강水昇火降: 신장에서 발생한 수기水氣는 위로 올라가고, 심장의 화기火氣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건강한 몸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 | ②정충기장신명精充氣將神明: 정精이 충만하면(하단전 완성) 기氣가 장해지고(중단전 완성), 기氣가 장해지면 신神이 밝아진다(상단전 완성)는 뜻으로 인체 내의 기의 진화과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
| | ③심기혈정心氣血精: 마음心이 있는 곳에 기氣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혈血이 있으며, 혈이 있는 곳에 정精이 있다는 뜻이다. 마음(心)을 집중하여 몸 속에서 에너지(氣)가 응축되면 몸속의 피(血)로 표현되는 생명력을 형성하고 이 피는 몸과 물질(精)을 만드는 생명력이 된다. |
| 수행의 사정법四正法 | ①정심법正心法: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와 중심中心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수행시 가장 중요한 기본 요건이며 중심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 마음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
| | ②정좌법正坐法: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서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는 요건이다. 정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지그시 감고 허리를 반듯이 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다.ㄷ |
| | ③정주법正呪法: 주문을 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문의 근본정신을 확고히 알고 밝고 경쾌하며 정확하게 발음하고 주문소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
| | ④정관법正觀法: 수행시 일어나는 무수한 영적 현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수행과정의 하나로 관조하는 무욕의 자세이다. |
| | ①집중執中(지속과 반복): 집중執中은 생명의식을 잡는다, 생명의 근원 의식의 상태에 머문다는 뜻이며, 선과 악·아름다움과 추함 등과 같은 모든 대립과 분별의 의식이 끊어져 있는 근원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을 개시한 후 처음 단계에서는 먼저 내 의식을 태울주 소리와 하나가 되도록 모으는 데에 '집중集中'을 해야 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두 번째 단계인 중도, 생명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執中'에 도달하게 된다. |
| | ②호흡呼吸: 수행시 정신을 집중해서 평화로운 중도의 생명의식에 머무는 데에는 고르고 바른 호흡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수행을 할 때에는 공기 순환을 잘 시키고 앉 |

| | |
|------------------------|--|
| 수행시 중요한 네 가지의 문제 | 는 자리도 불편하지 않게 조정을 해야 하며, 안정된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옷을 편하게 입어야 한다. 호흡과 의식은 하나이므로 딴 생각이나 잡념을 떠올리면 그 순간 리듬이 깨지면서 호흡도 끊어지게 되고 그 동안 수행한 공력도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 |
| | ③의지意志: 호흡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의지(will power)이다. 이 의지가 강해서 정의로운 기운으로 꽉 뭉쳐 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수행공부가 되기 시작한다. 의지를 강하게 가지려면 평소 식생활 습관과 잠자는 습관을 잘 가져서 비위를 맑고 튼튼하게 해야 한다. |
| | ④리듬rhythm: 리듬은 생명의 본성이고 자연의 본질이며 이 우주의 변화 자체이다. 주문 읽을 때 리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생명, 우리 몸 자체가 어떤 생체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문 수행은 우리 몸을 통해 우주 공간 속에 그 신성한 소리(holy sound)를 창조해 내는 것이므로 주문 수행 공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리듬에 달려 있다. 어떤 리듬으로, 어떤 정신 상태와 의식에서 그 생명의 소리를 읽느냐에 따라 공부가 달리 되는 것이다. |
| 수행시 경계할 점 (영보국정정지법) | 불신不信: 진리에 의심을 갖고 수행을 부정하는 것 설독泄讀: 주문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집착執着: 마음의 중中을 빼앗기는 것 환희歡喜: 약간 공부가 되는 조짐이 있다 하여 속으로 기뻐하는 것 욕속欲速: 수도 공부를 급하게 이루려는 성급한 마음 |

천지조화주문 태을주太乙呪

| | |
|-------------|--|
| 태을주 각 절의 의미 | 咩咩 천지부모(상제님, 태모님) |
| | 咩咩 일월부모(상제님의 대행자) |
| | 太乙天 上元君 도신道神의 뿌리, 우주 도통사의 뿌리: 할아버지 하나님(오직 선천의 도교만이 이를 인식했다) |
| | 咩哩哆哪都來 咩哩喊哩娑婆訶 도가에서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세상의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로 비전되어 온 주문 |
| 태을주의 리듬 | 2-3-3-2-2 의 박자로 구성 흠치V흠치V 태을천V상원군VV 흠리V치야V도래V 흠리V합리V 사파V하V |
| 태을주 읽는 방법 | ①독송: 크게 소리 내서 읽는 것 ②묵송: 귀에 들릴 정도로 작게 소리 내서 읽는 것 ③염송: 마음으로 읽는 것 ④합송: 치성 등에서 여럿이 함께 소리를 맞춰 읽는 것 cf) 각송: 치성 등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송주하는 것 |
| 주송시 유의사항 | ①맑은 소리, 정확한 발음, 밝은 마음으로 송주한다. ②태을주 읽을 때는 안으로 향해서 읽어야 한다(Inward chanting). 속으로 하는 주송은 마음이 편해지고 영靈의 세계를 향한다. 주문소리는 영적에너지를 만든다.(종도사님) |

태을주 수행 체험 사례

천지일심으로 받아내린 태을주 조화성령

심원의 무아지경 속으로 나를 인도하다

- 매들린 코너 Madeline Connor | 44세 | 증산도 미국 산호세도장

평화와 고요의 잔잔한 물결이 서서히 내게로 밀려오며 몸속의 모든 세포를 깨우면서 온몸을 통과하여 심원의 무아지경 속으로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눈앞에 황금덩이가 있는 듯 눈부신 빛이

이윤정 | 41세 | 증산도 서울 성북도장

상제님 태모님께 태을주 기운을 내려주십사고 기도드리자 태을궁 천장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하고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 빛을 온몸으로 받고 싶어서 자꾸 고개가 젓혀졌습니다. 그러자 마음 가득한 충만함과 온몸을 휘감는 시원함이 머리부터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빛이 나의 앞이마에

- 디네시 왈슨 Dinesh Valsan | 30세 | 증산도 구리 수택도장 | 인도 뉴델리도장 개척자

태을주 수행을 하면서 아름답고 눈부신 빛이 나의 앞이마 바로 아래의 머리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의 상태가 되고

- 이마나미 | 40세 | 증산도 일본 니시노미야 도장 개창자

주문을 읽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爲의 상태가 되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보랏빛이나 흰 둥근 빛이 보여 눈이 부실 때가 있습니다. 태을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밝혀줍니다. 태을주 수행을 하면, 몸이 스스로 사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 줍니다.

소용돌이치던 물방울들이 태을궁으로

- 백선헌 | 27세 | 증산도 태안 남문도장

하늘에서 물이 태을궁 한가운데를 향해 동그랗게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소리가 멈추자 물방울이 하나씩 하나씩 태을궁 전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전혀 뜨지 않았는데, 제 앞에 밝은 광명이 비치더니 그 물방울이 점점 더 커지고 반짝반짝하면서, 색깔이 파란 바다 색깔을 띠다가 연두색으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용이 나타나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로 날아

- 신동현 | 18세 | 증산도 부산 가야도장

도공道功 시작한 지 10분 정도 지나자 하늘에서 여의주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용이 나타나 그 여의주를 입에 물고 하늘로 날며 뱅뱅 돌더니 땅에서 불길이 마구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끼는데 불은 자꾸 솟아올랐습니다.

선녀 같은 사람들이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 권나리 | 25세 | 증산도 대구 칠곡도장

태을궁 천장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무수히 많은 물방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다음 온 사방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오른쪽 천장의 밝은 보라색 빛이 녹색으로 변하고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 선녀 같은 사람드리 여럿이 강강술래 하는것처럼 한참을 도는데 원의 중간에서 불꽃(불덩이)이 생겼습니다.

태을궁에 짝 찬 물속을 헤엄치는 듯

- 전인태 | 18세 | 증산도 부산 범내골도장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자 아기가 어머니 뱃속을 헤엄치듯 제 몸이 태을궁에 짝 찬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 세상의 빛을 보듯 어느 순간 태을궁에 밝은 빛이 가득 찼습니다.

흰 옷 입은 도공신장이 뒤에 서서

- 정원재 | 43세 | 증산도 서울 강남도장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평소 안 좋은 무릎이 시원해졌습니다. 앞에 작은 신명들이 분주히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인당에 파란 불빛이 보이고, 흰색의 작은 미립자 같은 기운이 내려오며 내 몸에서 나오는 황금빛 색깔의 빛을 보았습니다. 키가 2~3m 되는 흰 옷 입은 도공신장이 뒤에 서서 머리에 손을 대고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3

팔관법 진리공과신관3

팔관법 진리 공과 | ③ 신관 공과정리

신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사람들은 보통 ‘신神’을 말할 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이 이치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신神의 문제도 천지이법을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기본은 생명 존재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존재 모습을 아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道典 속에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3. 상제님께서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도전道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 사후에 벌어지는 현상과 변화의 모습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도전道典에는 증산도 신관神觀을 구성하는 본질적 특성들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구 말씀을 바탕으로 신의 의미, 신의 본질과 특성, 신도세계의 구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명세계는 인간세계와 불가분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양자의 상호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로 나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에 대해 관련 성구 중심으로 설명해 보고, 천도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세요.
6. 신명계는 인사人事, 즉 인간 세상의 현실 역사 전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의 완성에도 일정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도전道典 성구를 제시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상제님 진리를 살펴보면 신명이 인간의 일을 성사시키는 열쇠를 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이 취해야 할 진리적 자세나 행동 방향은 어떤 것인가요?

8. 영靈적인 신神의 세계를 체험하고 신도神道の 기운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수행修行입니다. 수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수행을 왜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9. 수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전道典속에는 수행의 바른 방법에 대한 상제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는 몸과 마음의 바른 자세에 대해 정리해 보고, 각자의 수행 체험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태을주太乙呪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조화와 권능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태을주 화권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문을 읽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4

팔관법 진리공과 천지공사1

팔관법 진리 공과 | ① 천지공사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천지공사의 개념과 이법

▶주제 생각해 보기

천지공사란 무엇이며, 왜 보셔야만 했는가

증산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천지공사天地公事’ 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천지 차원에서 크게 행해지는 어떤 일의 틀을 의미하는 것도 같고, 인존하느님이 인간구원을 위해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도전道典에서는 이 천지공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또 상제님께서서는 천지공사라는 것을 왜 보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구성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모든 일이 이치 없이는 못 하는 것이라는 상제님의 말씀처럼, ‘천지공사’ 라는 역사 전개의 프로그램도 그것을 구성하고 집행하는 일정한 원칙과 법도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구성하신 기틀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천지공사의 형태는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가

천지공사의 영역은 천·지·인 세 가지의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계(天)와 지운(地)과 인간역사(人)에 대한 상제님의 천지공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개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주제 확인해 보기

천지공사란 무엇이며, 왜 보셔야만 했는가

-천지공사天地公事란 증산상제님께서 천지법도에 맞추어 묵은 천지 질서를 개조하심으로써 하늘·땅·인간·신명 모두에 걸쳐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판도를 재구성하신 역사 전개의 이정표·시간표를 말합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열매 맺는 진리의 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극질서의 선천 우주환경이 낳은 원한 문제가 온갖 인류의 죄악과 참화를 낳고 세상 자체를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은 질서를 개조하고 바로잡아 우주 통일의 가을 새 질서를 지상에 실현시킴으로써 참다운 인간 구제 역사의 길을 여신 프로그램이 천지공사이며, 이 천지공사를 실현하는 핵심이념(실천이념)이 원시반본原始返本, 보은報恩, 상생相生, 해원解冤입니다.

● 천지공사의 개념

[도전] ▶ 3:11:3~4(새 판이 열리는 천지공사), ▶ 5:1(천지공사의 대의), ▶ 5:435(9 년 천지공사 도수), ▶ 5:3:6(나의 일은 천지공사), ▶ 2:13:6~7(1901 신축년 이후 역사는 상제님께서 친히 다스리심)

● 천지공사의 당위성

[도전] ▶ 2:16~17(큰 병이 든 선천의 상극 도수), ▶ 4:16~17(상극의 해원으로 천지개조), ▶ 5:411(뜯어고치지 않을 수 없노라), ▶ 2:42(오직 내가 처음 짓는 일), ▶ 5:416:1~2(물샐틈없는 도수)

▶ [핵심술어] 천지공사의 뜻

[도전] ▶ 5:1:3 축주 (천지공사)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구성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상제님께서서는 천지가 병든 원인을 상극이치가 반영된 인류의 과거사 일체에 있음을 진단하시고 이를 천지공사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원解冤을 통한 세계(우주)일가 후천지상선경 건설을 천지공사의 최종 지향점(귀결점)으로 정하셨습니다. 아울러 천지공사의 도수와 집행에는 우주이치가 선행하고 신도세계에 먼저 수용된 후에 인간계 질서에 투영되어 드러나는 이신사理神事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천지공사의 토대(재료)

[도 전] ▶ 2:24(인 류 원 한 의 뿌 리 와 해 원), ▶ 2:17(상 극과 원한으 로 가 득 찬 세상), ▶ 5:347:7(천하개병)

●천지공사의 지향점(귀결점)

[도전] ▶ 2:19:3~7(세계를 한집안으로 통일), ▶ 4:1(대우주일가의 지상선경), ▶ 5:325(세계일가 통일정권), ▶ 7:8(도술정부 우주일가)

●천지공사의 적용 이법

[도전] ▶ 2:72(이신사理神事 원리) / [도전] 원전 후주 523~524 쪽 < 이理- 신神- 사事>

천지공사의 형태는 어떻게 나누어 볼 수 있는가

-천지공사는 크게 천天공사, 지地공사, 인人공사라는 세 유형의 틀로 구성됩니다. 먼저 천天공사는 천상 조화정부를 수립하여 신명계의 질서를 통일하는 공사이고, 지地공사는 분열되고 배타적인 지운(땅 기운)을 하나로 통일하는 공사이며, 인人공사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정표를 짜신 공사인데 다시 세상 운로의 전개 질서인 세운공사 및 상제님의 종통 전개 프로그램인 도운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천지공사는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를 말하므로, 천지공사의 중심은 바로 인人공사이며, 인人공사 중에서도 도운공사가 최종 주체요 결론이 됩니다.

=====

2 신명과 지운의 통일, 천 天공사와 지地공사

▶주제 생각해 보기

천상 신명계에 대한 천지공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상 신명계에 대한 천지공사는 우주 주재신인 상제님께서 신도세계의 기존 질서를 새롭게 재정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신명 공사를 보신이유와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서술해 보세요.

지운을 다스리는 천지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상제님께서 인간이 정착해 삶을 영위하는 영역인 지운地運(지기地氣)과 관련된 공사도 보셨습니다. 지운을 개조하신 공사의 의미와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공사와 지地공사는 인상공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신명계와 지운에 대한 공사는 인간역사에 대한 공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천공사와 지地공사가 인상공사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제 확인해 보기

천상 신명계에 대한 천지공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천의 천상 신명세계는 상극원리에 의해 9천으로 분열되어 있고 명부의 위계 질서가 혼란한 상태이므로 신도의 영향을 받는 지상 인간세계도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서의 천지공사 집행을 위해 신도 세계를 먼저 통일한 공사가 천천공사입니다.

-구체적인 천천공사 내용은 천상조화정부의 수립, 명부의 정리 공사장(명부대왕)의 임명, 천상 신도神道の 개방과 세계 각 지방신의 통일, 선천 종교 종장의 교체 공사 등입니다.

●천상조화정부의 수립

[도전] ▶4:1(신명조화정부 수립 공사), ▶4:3·4:5(신도 조화정부), ▶5:1:7(조화정부 참여 신명)

●명부의 정리 공사장(명부대왕) 임명

[도전] ▶4:4:4·5:4:5(각국의 명부 정리 공사장 임명)

●천상 신도 개방과 세계 각 지방신 통일

[도전] ▶4:6:1~3(신도개방·문화교류와 각국 지방신의 통일)

●선천 종교 종장 교체

[도전] ▶4:8(선천 종교의 종장 교체와 종교문화 통일)

▶[핵심술어] 조화정부의 의미

[도전] ▶4:5:2 측주 (조화정부)

▶[핵심술어] 천지공정(천지공사장)의 의미

[도전] ▶4:3:5 측주 (천지공정)

▶[핵심술어] 명부의 의미

[도전] ▶4:4:1 측주 (명부)

지운을 다스리는 천지공사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인간은 하늘 기운도 받지만 땅기운을 직접 받고 살기 때문에 지운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는 각 지역별 지운(지기)이 서로 달라 족속간 반목 투쟁을 벌여왔는 바, 인류화평을 이루기 위해 지방신과 지운地運을 통일하고 각 족속 문화의 진액을 뽑아 모아 후천문명의 기초를 정한 것이 지地공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지부모산(회문산·모악산)으로 전 지구의 기운을 통일하고, 사명당四明堂의 기운을 풀어 천하문명 통일과 동서 4대종교의 이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운地運 통일과 문화 정수 취합

[도전] ▶4:18(지방신과 지운의 통일 및 문화 진액의 취합)

●대지강산의 정기 통일

[도전] ▶ 4:19:1~6(천지 부모산으로 산하의 기령 통일)

●문명 통일과 4대종교의 이상 건설

[도전] ▶ 4:19:7~13 · 5:395:8~13(사명당 발음 공사)

▶[핵심술어] 지방신의 개념

[도전] ▶ 4:18:1 측주 (지방신)

▶[핵심술어] 사명당의 의미와 기운

[도전] ▶ 4:19:8 · 5:395:9 측주 (사명당), ▶ 4:19:9 측주 (오선위기), ▶ 4:19:10 측주 (호승예불), ▶ 5:410:2 측주 (무안 승달산 - 호승예불), ▶ 4:19:11 측주 (군신봉조), ▶ 5:410:2 측주 (태인 배례발 - 군신봉조), ▶ 4:19:12 측주 (선녀직금) ▶ 5:410:2 측주 (장성 손룡 - 선녀직금)

천천공사와 지地공사는 인공공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신명계의 혼란된 질서를 통일하는 천천공사와 분열된 지운을 통일하는 지地공사는 세운과 도운의 인간 역사 전개 프로그램인 인공공사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또는 준비準備 공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천지공사의 중심은 인간 역사 문명과 도맥의 통일 공사(인공공사)입니다. 이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인간 역사에 선행하는 천상 신도와 현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운의 통일이 먼저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세계문명의 통일과정, 세운공사

▶주제 생각해 보기

세운공사의 근본 원리와 기틀은 무엇인가

인간 역사에 대한 천지공사 중 세운世運공사는 이 세상의 문명 질서가 흘러가는 역사 전개의 시간표입니다. 이러한 세운공사에는 공사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의 원리와 기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세상 역사가 세 번 굽이치는 과정을 알고 있는가

세운공사의 과정을 보면 크게 세 번에 걸쳐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생생-장長-성成의 세운 전개 과정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씨름판 세운공사에 대해 도전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도전道典에는 씨름판으로 비유되는 세운의 대결 구도가 마지막 상씨름판으로 종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씨름판은 이전의 두 씨름판과 다른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제 확인해 보기

세운공사의 근본 원리와 기틀은 무엇인가

-세운공사는 세계 역사 문명의 통일 과정인데, 우주운동의 삼변성도三變成道(생생→장長→성成) 변화 원리와 오선위기五仙圍碁 도수(단주해원 + 오선위기지운)의 기틀로 세계정세가 흘러가도록 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운의 적용 원리1 - 삼변성도의 원리

[도전] ▶ 5:356:4 · 6:64:8(삼변성도의 성사 법도), ▶ 5:7:1(세 차례 씨름판 천하대세)

●세운의 적용 원리2 - 오선위기 도수

[도전] ▶ 5:176:3(오선위기혈 발음과 단주해원도수로 조선의 국운을 돌리심)

세상 역사가 세 번 굽이치는 과정을 알고 있는가

-세운공사의 적용 원리에 따라 세상 역사 전개는 크게 세 차례의 씨름판(국가 간의 전쟁)으로 흘러가는데, 그때마다 주인인 조선 및 주변 4대강국의 다섯 주체가 양 진영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구도로 전개됩니다. 세운의 3번 변화와 관련된 성구의 흐름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운공사 제1번 오션위기- 애기판(러일전쟁과 1차세계대전)

[도전] ▶ 5:50(일러전쟁 붙여 서양세력을 물리침), ▶ 5:53(49 일 동남풍 공사), ▶ 5:23 · 5:25 · 3:40(조선신명을 서양으로 보냄), ▶ 5:166 · 5:401(관운장의 서양 대전쟁 공사), ▶ 5:286(일본의 삼한당 해원), ▶ 5:164(조선을 일본에 의탁), ▶ 5:177:3(조선을 서양에 의탁 못하는 이유), ▶5:325:10~12(만국 제왕의 기운 거둠)

●세운공사 제2번 오션위기- 총각판(중일전쟁과 2차세계대전)

[도전] ▶ 5:405:1~2 · 5:323:4(중일전쟁), ▶ 5:402:5~6(중국의 사회주의 국운공사), ▶ 5:166 · 5:401(관운장의 서양 대전쟁 공사→제 2 차 세계대전으로 확산), ▶ 5:177:6(일본에 붙인 천하통일과 일월대명의 기운), ▶ 5:177:7~8(어질 인仁이 없는 일본) ▶ 5:295:8(일본의 강렬한 지기와 침략열), ▶ 5:285:8(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물러감→ 미국의 참전), ▶ 5:119:1~3(배사울로 망하는 일본), ▶ 5:407:3(칠월칠석 삼오야→ 8.15 해방)

●세운공사 제3번 오션위기- 상씨름판(남북한 및 세계 질서 통일)

[도전] ▶ 5:7:2~4(삼팔선에 소 나가는 공사), ▶ 8:44:9(풍류주세백년진 도수), ▶ 5:306:6(만국활계남조선 도수), ▶5:202:3(천지전쟁), ▶7:35(세계전쟁도수), ▶5:229:12~13 · 5:275 · 5:391(화둔공사), ▶ 5:415:1~8(상씨름전쟁의 대세), ▶ 5:303(파탄도수), ▶ 7:63:6~10(시두의 대발), ▶ 7:40:1~2(병겁의 시발처 · 구원의 도), ▶ 7:34:6~7(무법 3 년), ▶ 7:50(괴병의 정체 · 의통성업), ▶ 5:415:5(병란兵亂과 병란病亂의 동시발생), ▶ 2:139:4~9(세계전쟁 · 병란), ▶ 2:139:1~3(불로 치는 일본과 물로 치는 서양), ▶ 2:38:2(시루떡을 찌는 이치), ▶ 3:14:1(조선으로 들어오는 세계대운), ▶ 5:184(일만이천도통군자 출세)

▶[핵심술어] 3번 씨름판(전쟁)의 의미

[도전] ▶ 5:7:1 측주 (애기판), ▶ 5:7:1 측주 (총각판), ▶ 5:7:1 측주 (상씨름)

▶[핵심술어] 오션위기의 난장판 기틀

[도전] ▶ 5:6:2 측주 (오션위기의 기령으로)

상씨름판 세운공사에 대해 도전에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도전에서는 상씨름 세운공사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애기판, 총각판과는 달리 상

씨름판 공사는 세운의 최종 매듭을 짓는 공사입니다. 상씨름은 당사자 간의 승부가 속히 나지 않는 가운데 (5:176:5), 북한 핵위기와 관련된 화둔도수(5:229·5:391)와 파탄도수(5:303) 및 병란兵亂·병란病亂도수 (5:415:5)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국으로 전개됩니다.

-오선위기 도수의 총결론은 ‘상씨름으로 종어간終於良’ (5:415:1~2)이라는 성구에서 대세의 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때가 되면 천지대세가 천하사 일꾼들에게 돌아가서 상제님의 일이 일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5:415:8).

-결국 상씨름 세운을 통해 추수 결실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남 모르는 공부’, 즉 인사人事를 전제로 한 천지조화공부·판물이공부를 잘 하면서 최종 상씨름판의 끝내기 운수를 준비(6:71~72)하는 충실한 상씨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4 도통맥의 전수과정, 도운공사

▶주제 생각해 보기

도전에서 말하는 도운공사의 집행 원리와 전개 운로는 무엇인가

도운道運공사는 상제님 진리의 바른 법통이 어떻게 전수되고 실현되는지에 대한 역사 전개의 과정입니다. 도전道典에서는 도운공사의 집행 원리와 대국적인 전개 운로運路에 대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태모님께서 알려주신 도운의 법통맥 핵심은 무엇인가

태모님은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셨고, 이후의 종통맥 전개와 마무리의 기틀을 천지공사로 선언하신 분입니다. 태모님께서 알려주신 종통맥의 전수 도수에 대해 핵심을 정리해 보세요.

도운을 바탕으로 한 천지공사의 총 결론과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우주는 상제님 도道の 생명체로 둥글어 가기 때문에, 도운공사는 천지공사의 중심이고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운을 중심으로 천지공사의 총 결론을 정리해 보고, 천지공사가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 유의해야 할 장애 요인과 성공 요인은 각각 어떤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확인해 보기

도전에서 말하는 도운공사의 집행 원리와 전개 운로는 무엇인가

-도운공사는 도통맥의 전수 과정을 의미하는데, 삼변성도三變成道 변화 원리와 진주眞主도수의 성사재인 成事在人 원리(15진주 도수 + 사마소 도수)의 기틀로 도판의 흐름이 전개됩니다.

-도운 전개의 대국적인 운로運路는 ‘판 밖의 남 모르는 법’ 이라는 규범의 틀을 전제로 하여, 개시는 매우 왕성한 형세로 출발하고, 전개 과정은 난법에서 진법으로 이행하면서 종통 전수자를 중심으로 도판이 분열 발전하다가, 최종 3변 도운의 마무리는 대두목에 의해 화려하게 굽이쳐 성공하는 형체로 귀결이 됩니다.

●도운의 적용 원리1 - 삼변성도의 원리

[도전] ▶5:356:4 · 6:64:8(삼변성도의 성사 법도)

●도운의 적용 원리2 -진주도수의 성사재인 원리

[도 전] ▶ 5:7:5(15 진 주 판 물 이 도 수), ▶5:356:1~3(천하통일의 사마소 도수)

●도운의 대국적 운로

[도전] ▶ 2:41:4 · 5:134(도운의 규범 틀 - 선천문화와 견줄 수 없는 판 밖의 남 모르는 법), ▶

6:106:13(도운의 개시 - 초장봉기지세), ▶4:32(도운의 전개① - 난법에서 진법으로), ▶6:106:1~12(도운의 전개② - 11 성도 대나무 공사), ▶ 6:109(도운의 마무리 - 사두용미의 형체)

태모님께서 일러주신 도운의 법통맥 핵심은 무엇인가

-도운공사의 집행 원리대로 도운은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세 번의 부흥기가 있는데, 도판에 창립의 씨를 뿌리고 판을 옮겨서 부흥시키는 단계를 거쳐 도운 매듭의 최종 단계에서는 추수도수의 참 주인(15진주眞主;대두목)이 마침내 도운의 최종 통일을 완수하는 성사재인의 도수가 전개됩니다. 태모님은 이를 낙종-이종-추수도수(11:19:10)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운을 바탕으로 한 천지공사의 총 결론과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상제님 천지공사의 중심이요 결론은 도운공사이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삼변성도를 완성하는 진주도수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천지공사의 총 결론을 종합하면, 지리로는 간艮도수의 실현이고, 역사로는 오선위 기도수의 종결과 남조선도수의 실현이며, 최종적인 인사로는 진주眞主도수의 실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도수들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으려면 ‘ 성사재인 ’ 을 방해하는 제반 장애요인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의 근간과 동떨어진 근본신앙의 해이나 조직신앙에 대한 몰이해는 진리에 대한 순명의식과 정의로움 및 분별력을 저하시키고 세속화된 눈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합니다. 특히 난법의 기운에 휘둘려 신앙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매우 큰 상처와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공사의 성공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도생道生 스스로가 자신의 근본신앙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조직신앙에 입각한 봉명(순명)과 충의의 정신을 유지하며, 대국적인 안목으로 천지공사의 대의를 자각하고 진리의 주체성을 늘 각인하며 진주 중심의 도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원형을 지키고 발전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운공사 제1변 - 교단 창립과 보천교 시대

[도전] ▶ 11:19:10(낙종물 - 태모님 / 이종물 -차경석 사명), ▶11:183(상제님 어진 봉안), ▶11:215(숙구지 종통 전수 공사), ▶ 11:244(대순전경 간행), ▶ 11:365(용 봉 종통도수), ▶5:180(초패왕도수 - 차경석), ▶ 5:205(동학 역신 해원도수 - 차경석), ▶ 6:106:1~12(대나무 공사 - 도 받는 수효)

●도운공사 제2변 - 용화동 증산교 시대

[도전] ▶11:215 · 6:75:1-3 · 6:111:7-8(숙구지도수), ▶ 5:7:6~7(가구판도수), ▶ 5:207:3(문왕 의 도 수

), ▶ 5:226:8 · 10:145:8(진 주노 림 독조사 파방도수), ▶ 5:201:2 · 5:206:5(천자피금도수), ▶ 6:66:8(천지의 도정집행도수),▶ 10:24:3& 측 주 참조 (수원나그네 도수), ▶6:22(20 년 말점도 도수),

●도운공사 제3변 - 태전 증산도 진법 추수시대(1974~)

[도전] ▶11:19:10(3 변 추수도수), ▶ 5:136:2(후천선경 건설의 뜻대는 태전에), ▶11:24:7(새 배포를 꾸밈), ▶ 6:72(콩밭의 상씨름 일꾼), ▶11:413:4(상씨름판의 엉뚱한 인물), ▶ 4:146(진리의 드러남 도수), ▶ 5:305:10 · 5:108:6(만사성공의 말馬 공사), ▶ 5:7:6~7(대두목 판몰이도수), ▶ 5:7 · 5:357 · 6:74(가구판 15 진주 도수),▶ 5:226:8 · 10:145:8(진주노름 독조사 파방도수), ▶ 5:356:2(사마소 통일 도수), ▶ 6:61(일꾼 양육의 대학교공사), ▶ 6:109(원원한 천지대운), ▶ 8:44:9(풍류주세백년진), ▶ 5:414(거백옥 도수), ▶ 5:207:3(문왕 도수), ▶ 5:226(이윤도수), ▶ 5:7 · 4:73 참조 (대두목 판몰이 도수),▶ 5:121~134(천자부해상 도수), ▶ 5:201:2 · 5:206:5(천자피금도수), ▶ 6:71(갑자꼬리도수),▶11:263 · 7:35 · 5:406 · 5:415(대개벽도수),▶10:27:3(사람 둘 도수)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5

팔관법 진리공과 천지공사2

팔관법 진리 공과 | ② 천지공사 공과 학습 자료

▶종도사님이 일러주신 천지공사 말씀

천지공사는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요 열매맺는 진리의 바다

선천 여름철의 분열 말기인 지금의 역사 사건은 너무도 복잡하다. 이에 대해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道典 4:7:6)

가을 개벽기를 맞이한 지금은 세상사가 불교의 마음 닦는 것, 기독교의 성령 문화, 유가의 인륜 도덕, 현대 과학문명의 컴퓨터, 이런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주의 모든 법을 통합해서 써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오신 참하나님, 상제님께서 모든 법을 합해 신도와 더불어 짜 놓으신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 후천 5만년 역사의 새 이정표, 그것이 바로 천지공사(天地公事)다. 천지공사는 오직 증산도에서 처음 만나는 새로운 진리세계요, 새로운 진리의 한소식이다.

‘천지공사’에서 천(天)은 하늘이요 지(地)는 땅이란 뜻이며 공(公)은 공적이라는 뜻이다. 사(私)적인 것이 전혀 티끌만치도 없는 공적인것을 말한다. 그 공은 하늘과 땅의 이법, 하늘과 땅의 뜻에 맞춘다는 의미의 공변될 공 자다. 그리고 사(事)는 하늘과 땅과 함께 하는 인간의 일, 인간의 삶,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를 말한다. 인간이 천지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역사!

천지공사 세계는 바로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열매 맺는 진리의 바다다. 여기서 증산도의 역사관이 나온다.

세운의 궁극 이상을 도운에서 실현

상제님 도운공사는 너무도 중요하다. 상제님 도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 태초 이래 인간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태고 이래로 이 세상에 살다 간 모든 신성神聖들과, 지구촌 동서문화의 상징인 유교·불교·기독교·선도 등의 선천 성자들, 이 외에 인류를 위해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바쳐 일했던, 하늘의 뭇별과도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 꿈꿔 온 궁극의 세계를 최종 마무리짓고 결판내는 일이 상제님 도운공사란 말이다. 따라서 도운의 역사 무대 위에 나타난 일꾼들은 선천 인류 역사상 어떤 인물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세운을 마무리짓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운의 궁극 이상을 도운에서 실현해 준다! 세운을 전체 인류 역사, 세계사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정의할 때, 인류 역사 전체는 물론, 지난날 인간을 낳아서 길러 온 선천 우주 역사의 총체적인 과정, 선천 우주의 이상 등, 천지자연과 인간문명의 모든 것을 최종 마무리짓는 게 도운에서 이루어진다.

상씨름은 천지전쟁

“상씨름이 넘어간다.” 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씨름꾼이 해야 할 일은 천지전쟁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을 끌러 내는 일이다. 그러면 천지전쟁이란 무엇인가? 천지전쟁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道典 5:202:3)고 하신 말씀처럼, 이 전쟁은 땅 위에 사는 인간만의 싸움이 아니라 동시에 하늘의 신명들까지 다 동원되어 싸우는 큰 전쟁이다. 하늘과 땅 차원의 거대한 규모의 전쟁, 문자 그대로 천지전쟁이다.

둘째,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禍厄)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느니라.” (道典 2:17:4)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천지전쟁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봄여름의 상극 질서를 끝내는 그런 의미의 전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음과 투쟁, 극한의 경쟁, 참혹한 전쟁의 비극이 끊일 날이 없었던 선천 상극의 시간대를 종결짓는 전쟁이다. 비극의 상극 질서를 종결짓는 마지막 전쟁이요, 천지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궁극의 전쟁이다.

셋째, 천지전쟁은 천상의 조상과 지상에 살고 있는 자손의 생사가 동시에 결정되는 영적 대전쟁이다. 가을은 성숙을 하는 때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인간으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간 대개벽기이다. 이때는 자손이 살면 선령도 살아남고, 자손이 죽으면 선령도 그 자손을 따라 죽는다. 자손은 열매요 선령은 뿌리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은 뿌리는 생명력이 다해 자동으로 해체되고 마는 것이다. 이 인간 개벽기의 상씨름 전쟁에서는 자손의 정성과 참신앙에 의해 선령들이 함께 사느냐, 아니면 함께 죽어 영원히 소멸되어 버

리느냐가 결정되어 버린다.

요컨대 천지전쟁은 하늘의 신명들까지 동원되어 싸우는 전쟁이며, 상극 질서를 끝내는 전쟁이며, 조상과 자손의 생사를 동시에 결정짓는 대전쟁이다.

이 천지전쟁에서, 천지의 상극 질서에 의해 힘을 얻었던 복마들과 악한 영들이 상극 질서가 끝나면서 힘과 권능을 상실한다. 역사는 결국 상극 질서를 극복하는 천지 성령의 내적인 창조 작용에 의해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이다. #신앙의 정의(正義), 그것은 상제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상씨름의 영적 전쟁에서 성공을 해야 가정도 제대로 건사되고 신앙 의식도 진리 중심으로 바로 선다.

또한 “상씨름판에서 주인이 결정된다.” 고 하신바, 새 역사의 참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살려 내는 살릴 생(生) 자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상씨름에서한 인간의 생명과 그의 조상 선령들의 생사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영원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 여기서는 한 생명을 살려 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상씨름꾼은 상씨름을 끝매듭짓는 상제님의 혼백이 된 일꾼

6편 71장의 “상씨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치령코 있다가 ‘상씨름이 나온다.’ 고 야단들을 칠 때 그제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온다.” (6:71:2)고 하신 말씀에서 ‘상씨름 딸 사람’ 은 누구인가? 또 6편 72장 3절에 나오는 끝판에 나아가 한 판으로 상씨름판을 매듭짓는 ‘상씨름에 뜻하는 자’ 는 누구인가? 이 상씨름꾼은 진리 중심, 진리 혼속에 들어서서 상씨름을 끝매듭짓는 상씨름꾼의 주역이 되는 일꾼들이다. 민족과 인류구원에 뜻을 두고 있는, 상제님 당신의 혼백이 된 천하사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다.

6편 72장의 “상씨름에 뜻하는 자 끝판에 나아가 한 판으로 상씨름판을 매듭짓는다.” 는 성구는 너무도 강한 기운을 열어주시는 말씀이다. 앞으로 판이 마무리되고 역사의 새 기틀이 열리는 비전을 너무도 명쾌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상씨름판의 끝매듭, 선천역사의 마무리는 세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도운에 있다. 즉 우리 일꾼들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다.

이번 상씨름판에서는 상씨름을 제대로 보는 안목을 가진 자, 제대로 천하사 신앙을 하는 자, 상씨름 신앙

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자만이 끝판에 나아가서 한 판으로 상씨름판을 매듭짓는다. 이 사람들이 이번
에 최소 1만 2천 명이 나오는 것이다.

‘남모르는 공부’란 무엇인가

도전 6편 7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 바둑도 한 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모르는 공부’를 하고 기다리라. (道典 6:72:1)

바둑도 한 수만 높으면 이긴다! 승부수를 던지는 신앙을 하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제님
께서 내세우려 하시는 일꾼의 기상과 기국, 심법, 또 하루하루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의 삶에 대
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6편 72장 1절 말씀은 ‘너희들이 상씨름을 기다리는데,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남모르는 공부를
하고 기다리라, 천지의 운명이 바뀌는 이 상씨름을 당하여 너희들은 꼭 남모르는 공부를 하고 기다리
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남모르는 공부’란 과연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남모르는 공부란 천지 섭리에 의해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을 개벽기의 인간, 그
사람들을 살려 내는 공부다.

선천의 어떤 성자도 가을 개벽기에 천지에서 조화로써 죽이는 병란으로부터 한 사람도 건져낼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술이 용한 의원이라도, 영적으로 병을 잘 고치는 이도, 수십 년 동안 동굴에서 수행만
한 도력이 높은 이도 개벽기에 단 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상제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 상제님이다’ 하는 엄
연한 역사의 진실조차 모른다. 상제 문화의 원적지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인도 ‘상제(上
帝)’가 하나님의 본래 호칭이라는 것을 모른다. 정말로 요절복통할 수밖에 없는 민족의 이 역사 현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라.

남모르는 공부! 우리는 남모르는 공부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알차게 하는 신앙은 남모르는 공부다. 도
장에 나가는 이것이 남모르는 공부다. 우리 일꾼의 삶, 이 자체가 남모르는 공부다. 집에서 잠들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태을주 공부를 하며, 더 건강한 일꾼으로서, 일심어린 일꾼으로서 ‘가을 개벽

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 고 굳게 결심하는 마음 공부, 신앙 공부, 이것이 남모르는 공부다. 길을 걸으면서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꿈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면 상제님 진리를 전한다는 열린 신앙의 마음, 그것이 남모르는 공부다. 상제님 천지 사업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력과 정성을 다 바치는 간절한 마음, 일꾼의 진실한 마음, 그게 다 남모르는 공부다. 천지 사업을 하는 일꾼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곧 남모르는 공부라는 말이다.

그 남모르는 공부의 첫째가 바로 살릴 생(生) 자 공부다. 이에 대한 말씀이 『도전』 8편 117장에 잘 나와 있다.

*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生) 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得意之秋)가 아니냐. 삼천(三遷)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道典 8:117:1~2)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너무도 큰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다.

가을은 천지의 사람 농사를 끝매듭 짓는 때다. 우리는 천지의 꿈을 이뤄 주는 인간 농사 추수자로서 지구촌 70억 인류의 생사를 거둔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 선천의 성자도, 하나님도 뜻대로 못 하셨다.

그 일을 우리 일꾼들이 한다. 가을 천지의 추살 병겁이 돌 때 일꾼들의 손으로 모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거둔다. “이 때는 생사판단(生死判斷)을 하는 때” (道典 2:44:3)라는 상제님 말씀 그대로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의 진리로서 생사판단을 하는 것이다.

일꾼들에게 주어진 상씨름 신앙의 과제

지금은 해 떨어지는 시간대를 지나 상씨름의 마지막 한판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다. 이제 끝판을 넘어다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의 진리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 보람 있는 신앙, 문제의식 있는 신앙, 일꾼다운 신앙, 상제님의 뜻을 잘 받드는 신앙을 해야 한다. 그 신앙이 바로 상씨름 신앙이다.

상씨름 속에서 선천 우주가 문 닫히고 새 우주로 들어간다. 인간의 생사 문제를 비롯하여 선천 인간 역사에서 누적된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대사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는 대사건이 바로 남북 상씨름이 매듭지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씨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상제님의 천지사업이 이 상씨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역사의 섭리를 더 깊이 깨쳐야 한다. 그리

하여 상씨름을 준비하는 일꾼, 상씨름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씨름 역사의 현장에 나가는 하나님의 진리 군사, 상씨름꾼이 되려면 어떤 신앙을 해야 할지, 일꾼들에게 주어진 상씨름 신앙의 과제를 정리해 보자.

첫째, 우리는 상제님 진리의 화신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추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상씨름꾼 들어오라. 벽력같이 고래장치니 어느누가 당적할까.” 이 말씀은 진리적 확신을 갖고 누구에게도 과감하게 진리를 전하는 일꾼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이다.

진리를 전할 때는, 상씨름 전쟁이나 개혁의 끔찍한 현상만을 앞세워 종말론적으로 전해선 안 된다. 상제님 진리의 원 틀을 정리해 줘야 한다. ‘인간은 왜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진리의 원 틀을 간결하게, 그 핵심을 깨 주도록 하라. 이런 일꾼이라야 사람을 살려 내어 가을 문화로 인도하는 진정한 진리의 가이드다.

둘째, 비장한 각오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틀로 새로 태어나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 서원과 마음가짐으로 신앙하는 일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상씨름꾼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서 말한 영적 대 전쟁이다. 상씨름의 전쟁은 실제로는 영적 전쟁이다. 천지의 사마들이 더욱 집요하게 달려들고 극적으로 파괴를 한다.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밥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을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한다.”(道典 11:263:8)고 하신 태모님 말씀처럼, 천지의 조화 명령을 받아 내리는 태을주를 정말로 많이 읽어야 한다. 또 샅된 기운을 제어하고 복마와 척신 발동을 막는 대차력주, 운장주(雲長呪)를 많이 읽어라. 운장주를 읽으면 의로움으로 충만하여 모든 상극적인 힘을 이길 수 있다.

셋째, 오직 살릴 생 자, 그 마음 하나로 신앙을 하라. 진리를 전해 사람을 살려 내어 하나님의 인간 농사 추수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복마의 동반자가 되는 죽은 신앙이지, 천지 역사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신앙, 사람 농사 추수하는 추수꾼 신앙이 아니다.

천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기 위한 진주신앙

“너는 내 도(道)의 아내다.”(道典 6:76:1)라는 말씀에서, 아내는 살림살이를 맡은 주인을 말한다. 안내성 성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상제님의 천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상제님을 대행

하여 살림을 하는 천지 살림살이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우리 도장의 주인이다. 상제님의 아내 역할을 한다' 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주모 이상으로, 이 천지 살림살이, 천지 사업의 주역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진주 신앙을 해야 한다. 그 첫째가 진리 공부에 일심을 갖는 것이다. 『도전』을 바탕으로 『개벽 실제상황』과 어록을 잘 읽어서 진리 맥을 확고하게 잡아야 한다.

둘째는 도장 중심의 신앙을 하는 것이다. '나는 상제님 천지 사업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내 생명의 큰 집은 도장이다. 나와 가족이 사는 보금자리요 진리의 큰 집이 도장이다.' 이렇게 돼야 한다. 도장 중심으로, 도장 살림이 어떻게 둥글어 가는지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진주 신앙을 하게 되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살림살이를 알속 있게 잘 키워서 지구촌에 상제님 문화를 뿌리내릴 것인가?' 이 생각을 늘 무엇보다도 먼저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행동 또한 상제님 천지 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나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은 상제님 천지 사업인 것이다.

이렇게 내가 '상제님 천지 사업의 주인, 천지 살림살이의 화신이 되어 상제님 진리의 주역 노릇을 하는 신앙', 진주 신앙을 해야 선천 세상 기운을 걷어잡을 수 있다. 상제님 대도로써 선천 세상을 정리하고, 선천 인간 역사를 마무리 지어 새 역사를 구성할 수 있다. 진주 신앙이 안 되면 의식이 분열되고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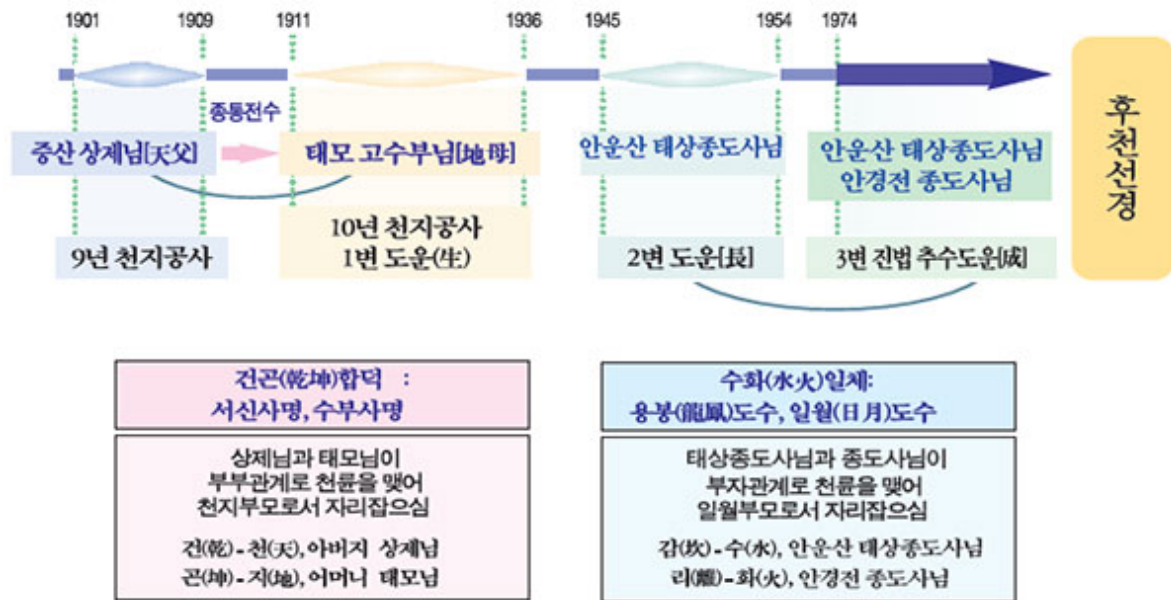
천지공사의 개관



천상조화정부의 신도神道 조직



도운공사의 종통맥



상제님의 천지공사 연대표

| | | | | |
|--|---|---|--|--|
| <p>중통인의(中通人義)의 대도통을 이루시고 삼계대권을 주재하심</p> <p>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준비하심</p> <p>후천음개벽에 소녀호연을 천지제물로 삼으심</p> | <p>김형렬의 집에 식주인을 정하시고 도문(道門)을 여심</p> <p>삼계우주 통일의 조화정부를 여심</p> <p>명부정리 공사</p> <p>단주해원 도수</p> <p>선천종교의 기운 거두시고 종장을 교체하심</p> <p>만고역신 해원 공사를 집행하심</p> <p>지운과 지방신을 통일하심</p> | <p>후천선경 설날 공사</p> <p>조선 대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대역사를 시키심</p> <p>일본을 서양제국 몰아내는 일꾼으로 세우심</p> <p>일러전쟁 발주 공사</p> <p>모악산 청련암에서 용봉 도수를 보심</p> <p>제주도 바다 개벽 대공사</p> <p>제주도 세계 관광지화 공사</p> <p>백두산 대공사</p> <p>생활문명 공사</p> <p>토지 축량 공사</p> <p>군산 바닷가 공사</p> <p>한강다리 축조 공사</p> <p>문명이기 공사</p> <p>서울 안암동 대공사</p> <p>49일 동남풍 공사</p> | <p>십무극과 일태극의 십일성도 인사 공사</p> <p>황극 말(馬) 공사</p> <p>태전 근교 산에서 공사 보심</p> <p>전국 명산에 제를 지내심</p> <p>수중 신명세계 공사</p> <p>일진회 공사</p> <p>문수보살 도수를 보심</p> | <p>산운 발음 대공사</p> <p>마이산 공사</p> <p>정음정양의 남녀동권 세계를 개벽하심</p> <p>선천 부유 개벽 공사</p> <p>호연을 수도 시키심</p> <p>남조선배 도수 공사</p> <p>민영환을 순절하게 하신 명부 공사</p> |
| 도기 31 | 도기 32 | 도기 33 | 도기 34 | 도기 35 |
|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한국사

| | | | | |
|------------------|------|---------------|----------------|---------------------------------------|
| | | 러시아 용암포 점령 | 제1차 한일협약 | 경부선 개통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
| 1901 | 1902 | 1903 | 1904 | 1905 |
| 헤이그 국제 중재 재판소 설치 | 영일동맹 | 라이트형제, 비행기 발명 | 일·러전쟁 영·불협상 | 제 1차 모로코사건 피의 일요일 사건 중국혁명동맹회 결성 |

세계사

| | | | | |
|--|---|---|--|---|
| <p>대한민국 국호 도수</p> <p>천자부해상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국운을 수습하시고 천하대운을 전하심 ● 종로에서 상씨를 대공사를 보심 <p>49일 대공사</p> <p>상제님 대행자 20년 은둔 도수</p> <p>후천선경 건설의 꽃 대를 태전에 꽃으심</p> <p>최익현 의병 기운을 거두심</p> <p>일본국운 심판 공사</p> <p>난법 거두신 대공사</p> <p>금강 하구둑 공사</p> <p>마이산 연 공사</p> <p>병자 정축 공사</p> <p>남조선 배말뚝 공사</p> <p>호소신 공사</p> <p>후천선경 어획 공사</p> | <p>관운장에게 세계 대전쟁의 천명을 내리심</p> <p>난법 기운을 거두는 추수 일꾼 출세 공사</p> <p>일월의 정음정양 대개벽 공사</p> <p>오선위기 진주 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국운 심판 공사 ● 전봉준 해원공사 ● 장군 도수 ● 초패왕 도수 ● 아윤 도수 <p>천지대도의 수부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부님께 천지대업의 중통대권을 전하심 ● 음양합덕의 지천대 공사 <p>금강산 겁기 제거 공사</p> <p>후천 음양 도수</p> <p>진주천자 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기육형 도수 ● 지구촌 상씨를 대전쟁 공사 ● 비인 복종 복 도수 ● 동학 역신 해원 공사 ● 정음정양 도수 | <p>진주노름의 독조사 도수</p> <p>화둔 공사</p> <p>산하대운을 거두어들이는 공사</p> <p>오선위기도 공사</p> <p>의통성업의 악방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국의원 공사 <p>만국대장을 임명하심</p> <p>28장에 불인 의통 공사</p> <p>천지에 수기 돌리는 대공사</p> <p>태을주 전수 공사</p> <p>지구촌 인구 조사 공사</p> <p>현대의학 개벽 공사</p> <p>후천 선경 낙원의 복록소 · 수명소 · 대학교 공사</p> <p>도통맥 전수 대공사</p> <p>칠성 도수</p> <p>세계구원의 육임 의통 구호대 조직 공사</p> <p>태진공발 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수도운의 진주 공사 ● 군산 전쟁 공사 ● 임피술산 대공사 ● 태전 도공전수 공사 ● 장암 금(金) 도수 | <p>한족 주권 회복 대공사</p> <p>황극 종통 공사</p> <p>살막이 공사</p> <p>세계일가</p> <p>통일정권 대공사</p> <p>무신납월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통구호대 육임 군령 받드는 대공사 ● 서울 대공사 ● 육임도곤 지도자 출세 공사 ● 과학문명 공사 ● 일등무당 도수 ● 상제님 어진 봉안 공사 ● 난법자 심판 공사 ● 팔봉 맡기는 공사 | <p>의통병세운 공사</p> <p>도통판의 진주 도수</p> <p>도세 만회의 새울 도수</p> <p>의통집행 공사 (숙구지 도수)</p> <p>천하통일의 사마소 도수</p> <p>천지공사 마무리 49일 대공사</p> <p>주문 포교의 천명을 내리심</p> <p>입도식 예법 공사</p> <p>김호연 성도를</p> <p>천지에 제 지내심</p> <p>후천 개벽문을 여는 칠성 도수</p> <p>세운 · 도운의 상씨를 공사</p> <p>태전 태봉산에 깃대를 세우심</p> <p>천지일월 사체(四體) 공사</p> <p>조선천지의 사명당 발음 공사</p> <p>상제님 말씀 성편 공사</p> <p>제3번 추수도운의 용돈 공사</p> <p>중국의 사회주의 국운 공사</p> <p>천지대업을 이루는 거백옥 도수</p> <p>초립동이 대운 공사</p> <p>천지공사 마치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성인 심판 공사(22일) ● 대두목 출세와 후비소 공사(23일) ● 의통을 전수하심 |
| 도기 36 | 도기 37 | 도기 38 | 도기 39 | |
| 1906 | 1907 | 1908 | 1909 | |

어천하심(6월 24일)

| | | | |
|--------------------------|--|---|---|
| <p>경의선 개통 통감부 설치</p> | <p>헤이그에 밀사 파견 고종 퇴위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군대해산</p> | <p>전국적인 의병봉기 의병, 서울 진공 작전 동양척식회사 설립</p> | <p>사법권 · 경찰권 일본 이양(기유각서) 안중근의사, 이등박문 저격</p> |
| 1906 | 1907 | 1908 | 1909 |
| | <p>영 · 러협상 (3국협상 성립)</p> | <p>광서제 사망 오스트리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합병</p> | |

태모님의 천지공사 연대표

천지공사 시작

신농씨 도수를 붙여
비 내리게 하신 공사
천하 창생의 죄를
대속하심
조왕 공사
(여성 포교 공사)
온 인류의 어머니로
부르게 하심
칠성용정 공사
십이제국의 운도를
뽑아 쓰는 공사
인류의 구원과 행복
을 기도하심
미륵불 갱생 공사

산을 불러 공사 보심
오성산 은둔 공사
남조선배 공사
(성주와 현인군자를
모셔오는 일)
이마두 대성사를 치
하하심
상제님의 묘각에 가
시어 보신 공사
육임 구호대 도체
조직 공사
참일꾼 추리는 공사

도통 전수의 맥 공사
세계 창생의 복록을
비심
일본 지령 걷는 공사
망량신 도수
만민의 선악 감찰
공사
수농부 도수를 붙여
비를 내려 주심
인마(人馬) 공사
태자(太子) 도수
강태공 성군 만나는
공사
통정신 공사
악장과 법계의 기운
을 뽑아 쓰신 공사
삼도합일의 운도를
새롭게 하는 공사

상제님 어진 봉안
공사
수왕(水王) 공사
미륵불 봉영 공사
태자봉 공사
백만억 불 출세 축
원 대공사
숙구지 공사
가을 대개벽의 구원
중통 공사
보천교의 난법 기운
을 걷는 공사
신도와 인도의 어머
니 공사
천하의 난법 기운을
제어하신 공사

대사업의 근본 조직
기강 확립 공사
계룡산 정씨 기운
걷는 공사
중천 공사를 조정하
심
오성과 오성산신을
치하하신 공사
세계 평정 공사
덩평이 공사
왕심리 도장 이후
모든 원혼신 해원
공사

도기 56

도기 57

도기 58

도기 59

1926

1927

1928

1929

47세

48세

49세

50세

한국사

6·10 만세 운동(6월)

구월산 단군사당
강제 철거(6월)

광주 학생운동

1926

1927

1928

1929

일본 히로히토천
황 즉위(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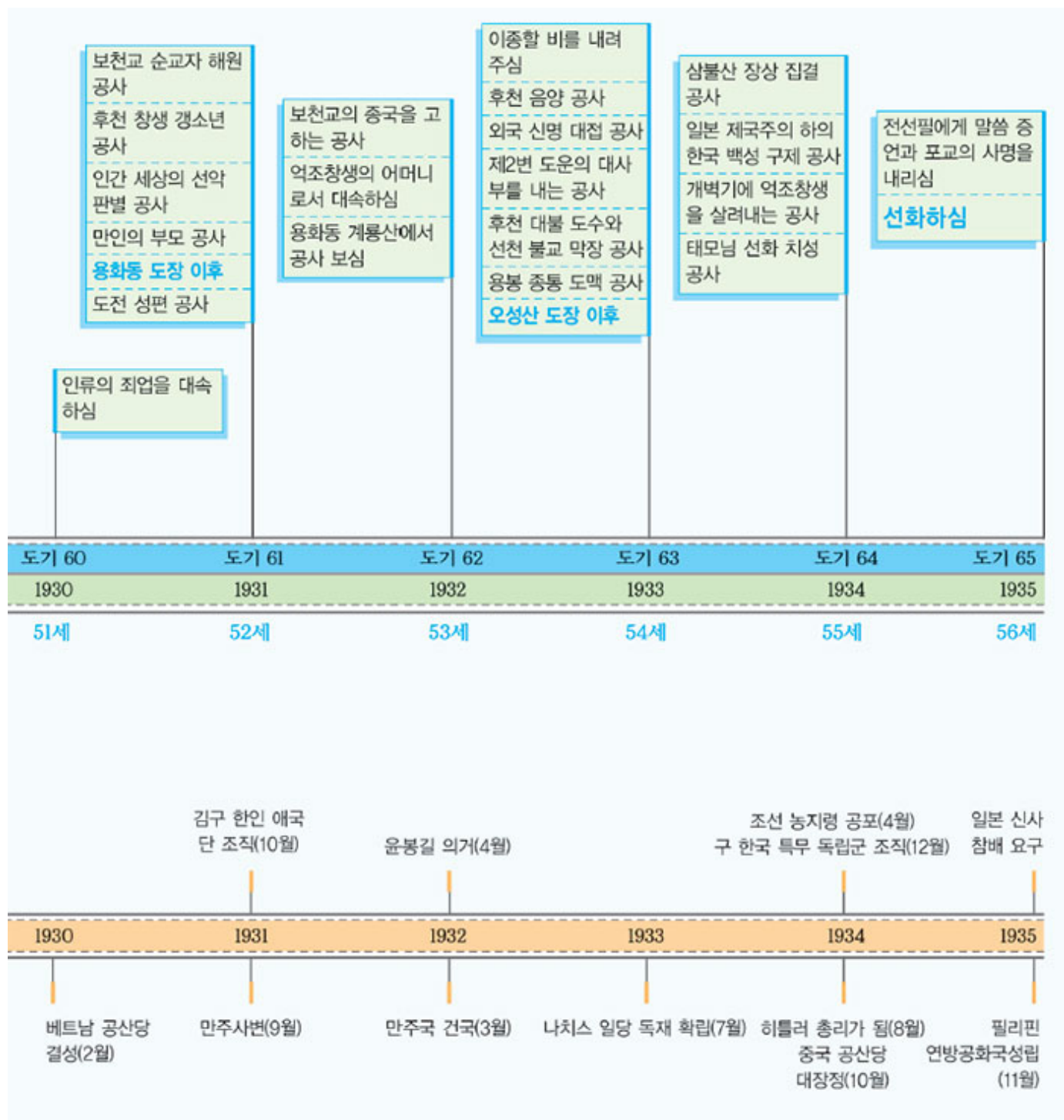
모택동 공산 혁명의
동지를 틈(10월)

영·중 조약 체결(12월)

세계 경제 공황(10월)

세계사

* 한국사와 세계사는 양력으로 표기함



상제님 세운공사의 과정(오선위기 삼변성도)

| | 애기판(生) | 총각판(長) | 상씨름판(成) |
|----|---|---|--|
| 의의 | <p>▶동양에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을 잠시 일본에 위탁시키는 공사</p> <p>▶조선을 근대문명으로 개화시키고자 하심</p> | <p>▶세계대전으로 선천 상극의 장벽을 해소하고 세계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조선의 주권을 회복 하는 공사</p> | <p>▶조선을 남북으로 갈라 놓아 동서양 문화통일을 준비하고한 반도 분단구조 해소 공사로 지구촌 60억 인류 생사를 심판 하신 공사</p> |
| 구도 | <p>▶한반도 지역= 영일동맹 : 러불동맹</p> <p>▶유럽 지역= 3국협상(영불러) : 3국동맹(독오이)</p> | <p>▶한반도 지역= 중·일의 대립 +〈일독동맹(1936) : 중소불가침조약(1937)〉</p> <p>▶유럽 지역= 독일·이태리 중심의 유럽 패권 구도</p> | <p>▶38선으로 대치한 남북한 주인과 미(일)·러(중)의 혼수 대립 → 지구촌의 운명이 걸린 최종 대결 구조</p> |
| 경과 | <p>▶한국과 남만주 지배권 다툼의 러일전쟁(1904~1905) 발발 → 일본을 천지일꾼으로 내세워 동양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냄 (5:50)</p> <p>▶유럽 패권 다툼의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발발 → 관운장과 조선 신명을 서양으로 보내 대전쟁을 일으킴 (5:23, 5:25, 5:166, 5:401)</p> | <p>▶일본에서는 대공황에 이후 군부가 집권하며 대외 세력 확장(대동아공영권) → 만주사변(1931) → 중일전쟁(1937) →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 → 태평양전쟁(1941)으로 치명타 입고 패망(1945)</p> <p>▶유럽에서는 독일 주도로 제2차 세계대전(1939) 발발 → 미국 참전 종결(1945)</p> | <p>▶6.25 전쟁(1950~1953)으로 남북한 상씨름의 전초전 시작 → 남(미일) : 북(러중)</p> <p>▶현재 휴전 상태로 상씨름 진행中</p> |
| 결과 | <p>▶표면상으로는 국제연맹 출범 (4:3,5:325-천상 조화정부의 1차 지상 발현)</p> <p>▶내적으로는 일본의 임진왜란 원한 해원(5:286 삼한당) /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동양에서 몰아냄 / 몰락한 조선의 민족혼을 각성시키고(안중근·윤봉길·민영환·의열단), 근대화를 통해 역량을 배양케 함.</p> | <p>▶표면상으로는 국제연합 출범 (천상 조화정부의 2차 지상 발현)</p> <p>▶내적으로는 동양 여러 나라가 서양의 폭압으로부터 벗어나(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동양에서 완전히 축출 → 한반도 제외한 동양의 모든 나라가 독립·해방) / 조선의 국권 회복 / 세계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 시킴(후천 선경 과학 문명의 토대를 형성)</p> | <p>※세운공사가 진행 중임(→ 후천개벽 상황 및 세계일가통일 정권 지향)</p> <p>▶삼팔선에 소가 나가는 공사 (5:7:2~4)</p> <p>▶만국할계남조선 도수 (5:306:6)</p> <p>▶풍류주세백년진 도수 (8:44:9)</p> <p>▶병겁 도수(7:32~7:51)</p> <p>▶세계전쟁 도수(7:35)</p> |

상제님께서 조선을 일본에 의탁하신 이유

* 조선을 잠시 다른 나라에 넘겨주고 천운(天運)을 기다리게 할 것이니라.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이 다르므로 차별과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청국으로 넘기면 그 민중이 우둔하여 뒷감당을 못 할 것이요
일본은 임진란 후로 도술신명(道術神明)들 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5:177:2~5)



❖ 서양 근대 문명의 침략주의

서양 제국주의 침략은 백인 우월주의를 깔고 있다. 앵글로-색슨주의(인종적 식민사관)를 내세운 식민 팽창론자들은 멕시코 전쟁에서 "멕시코 인종은 앵글로-색슨 민족의 우월함 속에서 혼합되고 사라져야 한다. 그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멸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타민족을 전멸시키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었다.

- 16세기 스페인의 침략을 받은 아메리카 대륙의 아즈텍, 잉카 문명의 중심이 원주민의 60%가 혼혈족이 되고, 90%가 고유 종교와 언어를 상실함.
-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 3,500만이었던 원주민이 마구잡이 학살로 인해 100년 후 300만으로 감소.
- 유럽 상인에 300년 동안 의해 미대륙에 팔려온 흑인 노예는 1500만 명에 이룸.

* 지난 임진란에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성공치 못하여 세 가지 한이 맺혀 삼한당(三恨堂)이 있다 하나니
먼저 도성(都城)에 들지 못하였음이 일한(一恨)이요
인명을 많이 죽였음이 이한(二恨)이요
수종(水種)을 가르쳤음이 삼한(三恨)이라.
그러므로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먼저 도성에 들게 됨에 일한이 풀리고
인명을 많이 죽이지 않게 됨에 이한이 풀리고
3년 가뭄으로 백지(白地) 강산에 백성들이 추수하지 못하게 됨에 삼한이 풀리리라. (5:286)

* 조선 강토가 서양으로 뚝뚝 떠 넘어가는구나. ... 지역별로 동양에 붙여 두면 다시 올 날이 있으리라. 그러나 만약 서양으로 가면 다시 올 날이 없으리라. (5:164:2~5)

말씀명상

상제님이 오실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정(失政)을 했다. 또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지몽매하고 단결심이 없었다. 상제님이 한국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판을 짜셔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민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인에게 위탁시킨 것이다. 마치 나무를 키움에 있어서 보호목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태상종도사님 말씀)

현대문명은 그 자체가 위기에 대단히 취약하다. 미국의 수학자 존. L. 캐스티는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보다 복잡성이 높아지면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놓인다고 하면서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발적 사건들을 'X이벤트(X-event)' 라고 명명했다. 상극질서 속의 현대 문명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취약성을 X이벤트 이론으로 조감해 보자.

캐스티가 예를 든 11가지 X이벤트 중 인류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Destabilization of the Nuclear Landscape(핵무기의 불안정화)

핵무기 실증, 핵 보유 국가 증가 등의 이유로 핵이 폭발하거나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2. Drying Up of World Oil Supplies (석유 고갈)

석유가 바닥나거나, 석유 공급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면 이것이 끼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이탈리아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만에 대도시의 생필품이 동나고, 교통수단이 마비된 적이 있다.

3. A Global Pandemic(국제적 전염병)

역사를 보면 주기적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는 전염병이 등장한다. 14세기 흑사병은 1억 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가며 유럽을 중세에서 근세로 바꾸어 놓았고,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은 6개월 만에 1억 명의 목숨을 빼앗고 1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 전체를 강타할 전염병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 현재도 지구 상에는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과거 맹위를 떨쳤던 전염병이 재발하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4. Failure of the Electric Power Grid and Clean Water Supply

(전력 공급의 중단과 물 부족)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름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신호가 꺼지며 교통 대란이 발생하고, 지하철이 멈춘다. 의료장비가 꺼지며 응급환자의 목숨이 위급해진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40%가 물부족을 겪게 된다고 한다. 현재 석유를 얻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미래에는 물을 얻기 위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5. Global Deflation and the Collapse of World Financial Markets

(세계적 디플레이션과 세계 금융 시장의 붕괴)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신용부도스와프 CDS 등 복잡성의 극치를 달리는 금융 상품이 무너질 경우 수십 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 위기가 닥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내수 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악순환 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런 이상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곧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X-이벤트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상 급변, 지진, 각종 전염병 발생, 경제 침체 등은 자연과 문명 차원에서 장차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정읍 대흥리
첫째 교단 살림**
(1911~1918)



1911년 수부님의 대도통과 교단 창립 선언으로 상제님 어천 후 낙담하여 방황하던 성도들의 혼란은 일거에 수습된다. 이것이 증산 상제님의 진리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낙종(落種) 도수이다.

이후 성도들은 수부님의 명에 따라 포교에 전력하여 3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태을주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교세가 크게 성장하자 교권을 탈취하려는 차경석 성도의 야심으로 상제님의 성도들은 교문을 하직하고 각기 문호를 열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제님 말씀 그대로 초장봉기지세(楚將蜂起之勢)로 벌어져 나가는 이종(移種) 도수가 열리게 되었다.

수부님께서는 7년간의 첫째 교단 살림 시대에 도운의 씨를 뿌리는 낙종 도수로써 교단을 창도하시고 차경석 성도로 하여금 동학 역신 해원 공사를 위해 도운의 씨를 옮겨 심는 이종을 맡도록 하여 도운의 난법이 열리도록 하셨다.

**백산면 조종리
둘째 교단 살림**
(1919~1929)



차경석 성도의 교권 장악으로 1919년 수부님께서는 강씨 집성촌인 조종리로 본소를 옮기셨다. 이것이 둘째 살림 교단의 시작이다. 수부님은 1926년부터 10년간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으며 1928년 1월 3일에는 최초로 상제님의 어진을 모셨다. 그러나 뒤늦게 도문에 들어온 고민환 성도를 수석 성도로 세우고 그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시자, 몇몇 조종골 강씨 신도들이 그동안의 공로와 신앙 경륜을 내세워 배신하였으며, '도집 재판 사건'이 일어난다. 강씨 신도들의 무도함에 노하신 수부님께서는 결국 어진을 모시고 조종리를 떠나 순흥 안씨 집성촌인 정읍 왕심리로 옮겨 가신다. 둘째 살림 13년간은 10무극수의 각 교파가 분열해가며 크게 성장하여 종교사상 유례없는 규모를 이루었다.

**용화동
셋째 교단 살림**
(1931~1933)



'금구로 가면 몸이 부서진다.' (6:67:9)는 상제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수부님은 김제 용화동 이상호의 수 차례에 걸친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 1931년 동지치성을 기해 용화동으로 가신다. 그러나 이상호·이정립 형제의 불의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용화동 측 신도들이 사육과 유교 의식에 빠진 채 수부님의 신도(神道)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2년 만인 1933년에 수석 성도 고민환과 임피 옥구 방면 신도들을 데리고 오성산 도장에 은거하신다. 용화동 교단은 그 기간은 비록 짧지만 수부님이 추수 도운의 발판을 열어 주셨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성산으로 옮기신 수부님은 을해(1935)년 음력 10월 6일에 선회(仙化)하셨다. 이후해 병자(1936)년부터 을유(1945)년까지 10년 동안 가혹해진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과 전란으로 인해 교단은 모두 해체되고 마침내 제1번 도운 시대는 막을 내렸다.

16

팔관법 진리공과 천지공사3

팔관법 진리 공과 | ③ 천지공사 공과정리

천지공사 전하기 문답 정리

1. ‘천지공사天地公事’라는 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접하기 어려운 생소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온 인류를 건져내 새 세상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이며 구원의 복음과 같습니다. 천지공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셔야만 했던 당위성·필요성에 대해서도 서술해 보세요.
2. 천지공사는 기본적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보편적인 인류 역사 전개의 시간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의 틀을 구성하실 때에는 일정하고 보편 타당한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지공사의 토대(재료)와 최종 지향점 및 적용 이법은 무엇인가요?
3. 천지공사의 영역은 크게 천천 공사, 지地 공사, 인人公사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상 신명계 통일 공사(천천 공사)의 배경과 공사 내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4. 상제님께서서는 인간의 현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운地運의 통일 공사(지地 공사)도 보셨습니다. 지운을 개조하신 공사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5. 신명계에 대한 천천 공사와 지운에 대한 지地 공사는 인간역사에 대한 인공人公사와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천천공사와 지地공사가 인공공사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 인간의 세상사가 흘러가는 문명 질서의 판도를 정한 프로그램을 세운世運공사라 하는데, 여기에는 공사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의 원리와 기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7. 세운공사의 과정을 보면 생생-장長-성成 세 번의 변화를 거쳐 전개가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비교 설명해 보세요.

8. 세운공사의 종결인 상씨름판의 구도와 전개는 이전의 애기판, 총각판과는 다른 의미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9. 상제님 진리의 바른 도통맥 전수 과정을 도운道運공사라 합니다. 이 도운공사의 집행 원리와 대국적인 전개 운로運路에 대해 주요 성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상제님 진리의 종통 전수에 대해 태모님께서서는 명백히 그 과정을 공사로 선언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 알려주신 종통맥 전수 도수의 핵심 틀을 정리해 보세요.

11. 상제님 도道の 생명체로 등글어 가는 대우주 질서의 틀을 생각해 볼 때 도운공사는 천지공사의 중심이고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운이 온전히 결실을 맺고 성사재인을 이루기 위해 유의해야 도운 집행의 장애요인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 생각한 바를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7

팔관법 진리공과종통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① 종통관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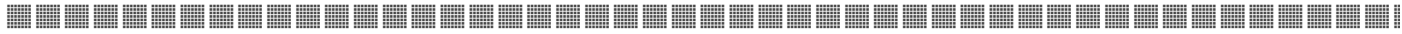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종통宗統의 의미와 전수원리

▶주제 생각해 보기

종통은 무엇이며 천지공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상제님의 도법에 있어서 ‘종통宗統’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며 일꾼의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천지공사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종통이 구성되고 실현되는 근본 이치는 무엇인가

진리 속에서 종통이 구성되고 실현되는 일은 우연히 또는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상제님 진리의 많은 공사와 도수들이 그렇듯이 종통의 문제도 그것이 성립하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근거와 이법이 있습니다. 종통의 근본 이치에 대해 주목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종통맥의 원리 및 전수 도맥에 대해 도전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도전에서는 종통맥의 원리와 구체적인 법통의 전수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도수의 내용을 이해하면 종통의 바른 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성구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생각해 보기

종통은 무엇이며 천지공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종통宗統이란 상제님 도를 전수하는 최상의 바른 맥 · 계통 · 큰 줄기를 말하며, ①도조道祖이신 상제님으로부터 뻗어 내리는 도의 바른 정통맥이고, ②상제님의 심법 그대로를 계승하는 것이며, ③참법의 바탕이요 근거가 되는 도의 역사의 뿌리, 도사道史의 혼백 자체를 의미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은 도운공사이고, 도운은 곧 진법의 종통전수 프로그램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벽 의통성업이 완결되어 후천 문명이 열리게 됩니다.

●종통이란 무엇인가

[도전] ▶ 6:128:5, 6:65:1~2(맥 떨어지면 죽는다) ▶ 11:70:3(올바른 줄 하나 치켜들면)

▶[핵심술어] 종통(맥)의 의미

[도전] ▶ 6:128 측주 (도통과 종통)

종통이 구성되고 실현되는 근본 이치는 무엇인가

-상제님의 진리에 있어서 종통은 우주자연법의 이치를 근거로 구성되고, 자연이치의 인사화人事化를 바탕으로 실현됩니다. 우주 자연의 모든 생명을 낳아 기르는 바탕은 천지일월天地日月(역의 원리로는 건곤감리乾坤坎離) 4체입니다. 천지는 생명을 낳는 근본 바탕이 되고, 일월은 천지를 대행해 음양변화를 일으켜 현실적으로 만물을 양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일월은 말이 없으며, 이 천지일월이 농사짓는 목적이 사람이므로 사람은 천지일월을 대행하는 대역자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현실 세계에서 상제님 진리 실현은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모사재천謀事在天하신 천지공사天地公事を 일월의 인사지도자가 성사재인成事在人하는 대도인사大道人事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전] ▶ 6:1:5 측주 (건곤감리 사체)

-도전道典에서는 종통맥의 전수 원리에 대해 ‘천지일월 사체’의 자연법원리와 ‘천륜으로 우주일가’인 천도(천명)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통맥의 전수는 우주원리가 역사 속에서 인사人事로 자리잡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현실 인격을 지닌 네 분의 진인眞人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 종통맥의 전수 원리

● **종통맥의 전수 공사(도운의 법통맥)**

[도전] ▶ 11:19:10(종통맥 도수의 선포) ▶ 6:37, 6:39(진법 맥 수부종통도수) ▶ 10:27:3(사람 둘 도수)
▶ 11:365:3(용봉도수) ▶ 6:128:5(종통맥이 사는 맥) ▶ 11:138(도통전수의 도맥공사)

2 종통의 뿌리, 태모 수부님

▶주제 생각해 보기

종통을 수부首婦님께 전하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상제님께서서는 도맥의 종통을 반려자이신 태모 수부님께 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제님 진리에 있어 종통도수의 출발은 종통대권의 전수자이신 수부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종통 전수를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부 종통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수부의 의미와 신원 및 호칭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수부首婦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문자적인 뜻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부’의 호칭에 담긴 여러 의미와 수부님의 신원 및 수부님을 지칭하는 다른 호칭들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통과 관련된 수부님의 사명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가

수부님께서는 상제님 진법 종통 전수의 핵심 역할을 하시며 여러 공사를 보시고 집행하셨습니다. 종통 전수에 있어서 수부님의 사명에 관한 공사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주제 확인해 보기

종통을 수부首婦님께 전하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수부님께 종통을 전하신 역사적 의미는 ①후천 정음정양 음개벽 원리의 실현, ②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천지부모 음양합덕으로 역사 속에 자리를 잡으신 것, ③상제님의 대권으로 수부도수를 종통계승의 근본으로 만천하에 선언하신 것, ④수부를 부정하는 자는 그 누구도 난법난도자로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심으로써 수부 종통을 난법난도의 기준으로 규정하신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부종통의 의미

[도전] ▶ 2:83:5(후천 곤도 음양동덕) ▶ 2:51, 2:52, 4:59(후천 정음정양 남녀동권 개벽) ▶ 11:1:2(상제님과 음양 합 덕) ▶ 11:7:4, 6:39:4, 6:96:6(수부의 치마 폭을 벗어나면 다 죽는다)

수부의 의미와 신원 및 호칭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수부首婦라는 말은 모든 여성들의 우두머리, 만백성의 부모, 천지의 큰 어머니(태모님), 못 생명의 뿌리, 천하사람의 생명의 어머니를 가리키며, 종통대권의 전수사명을 맡으신 분을 의미합니다. 수부님은 1880년 음력 3월 26일, 전남 담양군 무면 성도리에서 탄강하셨고, 성은 고高씨이고 본관은 장택이며 이름은 판례判禮이신데, 신교神敎 정화수 신앙의 전통을 지켜온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수부님에 대한 여러 호칭은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 온 인류의 어머니, 못 여성의 머리 외에도 무극대도의 종통전수자, 상제님의 도권계승자, 천하사람의 두목, 도운 개창의 우두머리, 도운개척의 두목, 대도통 하신 도통군자, 천하일등무당, 용화교주자씨부인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부首婦의 의미

[도전] ▶ 6:96(생명의 뿌리) ▶ 11:1:1, 11:7(천하사람의 생명의 어머니) ▶ 6:2:6(못 여성의 머리) ▶ 6:37:12~15(나를 일등으로 정하여) ▶ 11:1(종통대권 전수) ▶ 11:345:1~5(서신사명 수부사명) ▶ 6:70(양주동행兩主同行 공사) / ▶ 11:1:1 측주 (태모 고수부님)

●수부님의 신원

[도전] ▶ 11:2(태모 고수부님의 탄강)

●수부님에 대한 여러 호칭

[도전] ▶ 11:1(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 ▶ 11:93:19(온 인류의 어머니) ▶ 11:1:5(무극대도의 종통전수자) ▶ 6:2:5, 6:2:8(상제님의 도권계승자) ▶ 11:5:4(천하사람의 두목) ▶ 6:2:6(못 여성의 머리) ▶ 6:67(도운 개창의 우두머리) ▶ 6:106(도운개척의 두목) ▶ 11:1, 11:17:5~6(대도통 하신 도통군자) ▶ 6:93, 5:341(천하일등무당) ▶ 11:20(내원궁)

종통과 관련된 수부님의 사명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가

-종통과 관련된 수부님의 공사 도수는 크게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받는 종통대권 전수사명과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신 도운개척의 파종(교단창립 · 도운개창) 사명, 그리고 추수도운의 지도자에 대한 종통 인도와 관련된 진법도운의 매듭사명 도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성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부님의 종통 관련 사명① - 종통대권 전수사명(종통을 받는 뿌리공사)

[도전] ▶ 11:5:2, 6:37:5(천지대업을 네게 맡기리라) ▶ 11:4:2, 6:34:2(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 6:37(수부에게 종통대권을 정하신 예식) ▶ 6:93(천지국의 일등무당도수) ▶ 6:79(왕대뿌리에서 왕대 난다) ▶ 6:42:3, 11:6:5(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삼계를 개조) ▶ 6:39:4, 6:96, 11:7:4(수부 그늘 벗어나면 다 죽는다)

)

●수부님의 종통 관련 사명② - 도운개척 파종사명(교단창립 · 도운개창 공사)

[도전] ▶11:19:10(도운 개창의 파종도수) ▶ 6:106(도운의 개창자와 추수자) ▶ 6:78(도정 개창의 포 정소 도수) ▶6:67(도운 개창 도수) ▶10:9:1(크나큰 세 살림을 어찌 홀로) ▶6:82:4~5(도운개척의 세 살 림 도수) ▶11:28(교단창립을 선언하심)

●수부님의 종통 관련 사명③ - 진법도운 매듭사명(종통을 인도하는 추수공사)

[도전] ▶11:365(용봉기를 꽃아놓고 맞이하라) ▶11:215:6(잠든 개를 깨웠으니 염려는 없다 - 숙구지공 사) 6:75(숙구지공사) ▶10:27:3(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11:346, 6:64:7~8(고난의 짐을 짊어진 대사부) ▶11:413(매듭짓는 성인의 출세) ▶11:54(세상이 바뀔 때에는 대두목이 나오리라) ▶ 6:126(진법이 나오리라)



3 종통의 결론, 추수도운의 인사도맥

▶주제 생각해 보기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인사도수는 어떤 것인가

종통 전수의 결론은 천지공사의 최종 매듭을 짓는 추수도운의 인사도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천지 건곤 의 주인이신 상제님, 태모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역사 기틀을 현실 인사로 실현시키기 위해, 건곤의 대행 자로서 일월 감리 도수의 역할을 하는 두 분이 역사에 등장하여 천지의 대업을 완결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수 도맥의 인사 도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수화일체의 인사지도자에 관한 도전의 공사 도수는 무엇인가

도운 및 세운 공사의 최종 매듭을 짓는 인사지도자는 수화 일체의 기운과 위격을 지닌 두 분입니다. 이에 대한 도전道典의 주요 공사 도수들을 찾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통과 관련해 명심해야 할 신앙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인사 종통의 바른 맥을 찾아 신앙하는 것은 진리의 성공과 신앙의 완성을 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통맥을 지키고 신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명심하고 각성해야 할 신앙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주제 확인해 보기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인사도수는 어떤 것인가

-천지공사는 자연이치가 인사화된 인사대행자에 의해 현실 역사로 드러나고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인사지도자 두 분은 상제님 · 태모님의 분신이고 대행자이며, 천지공사를 최종 매듭짓는 결실 도운의 주체입니다. 또한 모사재천하는 천지天地 · 건곤乾坤의 공사 도수를 현실 인사로 성사재인하는 일월日月 · 감리坎離(수화水火)의 덕성을 지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은 수화일체水火一體로서 대도인사의 조화와 완성을 이루어내는 관계에 있습니다.

| | | | |
|------------------|---------|------------------|---------|
| 천(天), 乾 | 지(地), 坤 | 월(月), 坎 | 일(日), 離 |
| 증산 상제님 | 태모 고수부님 | 태상종도사님 | 종도사님 |
| 천지공사(天地公事), 모사재천 | | 대도인사(大道人事), 성사재인 | |

수화일체의 인사지도자에 관한 도전의 공사 도수는 무엇인가

-일꾼들의 큰 스승인 수화일체의 인사지도자에 대해 도전에는 가구판도수, 문왕도수, 독조사도수, 사마소도수, 숙구지도수, 천자부해상도수, 도전간행도수, 만사 성공의 말(馬) 공사, 대학교 공사, 사부에 대한 도통맥 전수 의전 예법 공사 등 많은 공사와 도수들이 실려 있습니다. 진법 도운의 인사대행자는 도운의 전개 과정에서 분열과 난법 기운의 횡행 등으로 실로 감당키 어려운 고난들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도운의 최종 끝매듭을 사두용미로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도전 성구들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니다.

●수화일체 인사지도자 도수

[도전] ▶ 6:1(도체를 바로잡으심) ▶ 8:1:4(일월의 대사부) ▶ 5:356(사마소도수) ▶ 5:7(가구 판도수) ▶ 5:207(문 왕 의 도수) ▶ 5:226, 10:145(독 조 사 파 방 도 수) ▶ 11:215, 6:75, 6:111(숙구지도수) ▶ 5:201, 5:206(천자피금도수) ▶ 5:7(대두목 판몰이 도수) ▶ 6:66:8(천지의 도정 집행도수) ▶ 4:146(진리의 드러남 도수) ▶ 5:305:10, 5:108:6(만사 성공의 말馬 공사) ▶ 6:61(일꾼 양육의 대학교 공사) ▶ 5:414(포교오십년공부종필 도수) ▶ 6:125(도전간행도수) ▶ 5:121~134(천자부해상도수) ▶ 5:279(사부에 대한 도통맥 전수 의전 예법 공사)

종통과 관련해 명심해야 할 신앙정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종통은 증산도 신앙의 사상적인 주춧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법 종통맥을 지키고 신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명심하고 각성해야 할 신앙정신으로는, 이 진리야말로 성공의 길임을 확신하는 시천주와 순명신앙 의식, 오직 인사대권자만이 진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진주에 의한 진법실현 의식, 일월진주라야 상제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진정한 공사 실현이 가능하다는 천지공사의 실현과 일꾼사명 의식, 자신의 인생과 천하사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하는 생사관 정립의 사상신앙 의식, 역사는 철저히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다는 성사재인의 역사신앙 의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식의 근본 바탕은 상제님의 참된 모습과 바른 진리를 알려주고자 평생을 바치신 인사지도자,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을 바르게 모시는 데에서 출발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종통과 바른 신앙의 길- 난법과 진법

▶주제 생각해 보기

바른 신앙을 가로막는 난법의 원인과 병증은 어떤 것인가

난법亂法은 상제님의 진리를 오도하고 왜곡시키는 그릇된 가르침과 구도 행위로서, 진법이 나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난법은 바른 신앙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암적 존재이며, 그 원인과 병증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법의 종말과 진법의 수호에 관한 도전의 공사 도수는 무엇인가

도전道典에는 난법의 행각과 대응 및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 난법 척결 및 진법 수호에 관련된 성구들을 찾아보시고 상제님께서 당부하신 결론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세요.

올바른 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나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신앙하는 사람이 난법의 해악을 물리치고 진법 종통의 대의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제 확인해 보기

바른 신앙을 가로막는 난법의 원인과 병증은 어떤 것인가

-난법의 원인은 근본신앙의 부실, 진리의식 정립과 유지의 실패, 종통 역사의식에 대한 몰이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근본신앙에 소홀하면 바른 신도의 기운을 받지 못해 복마에 흔들리고, 사욕을 가진 경우에는 자기 착각과 과대망상에 빠져 아무런 과정과 근거도 없이 판을 차리려 하고 대두목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또 바르게 배우려 하지 않거나 잘못 배우고서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 뿌리내린 악성종양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종통의 전수 과정과 인사 집행상의 어려움과 양육과정의 역사를 모르거나 외면하므로 도를 전한 뿌리를 부정하고 위해를 가하는 패륜아적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난법의 병증으로는 ①신앙의식이 허약해지거나 퇴보하여 자기방어의 구실이 늘어가고, ②진리 외의 사도 邪道에 기웃거리며 동조하거나 합류해 배신행위를 하며, ③진리를 끌어내려 자기 머리만으로 해석하므로 공사 및 도수 등을 이해하거나 감당을 못해 욕설 · 음해 · 비방을 하고, ④도수를 정확히 못 보고 왜곡 편향되게 해석하면서도 오히려 철저히 도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진리 주인의 실체를 부정하며, 결국은 진리를 받은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법 출현의 이유

[도전] ▶ 4:32(난법을 지은 후에 진법을 내는 통치 정신) ▶ 2:27:6(선천에는 도수가 그르게 되어서)
▶ 6:98:2(스스로 죽음의 무리를 지으니)

난법의 종말과 진법의 수호에 관한 도전의 공사 도수는 무엇인가

-도전에는 조철제의 상제님 성골 도굴 만행 및 난법 사기행각과 이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대응 방법이 나옵니다. 또한 난법자의 종말에 대한 상제님의 추상같은 법언들이 있으며, 의로운 행동에 대한 신도의 감응과 정의로움 및 믿음에 대해 당부하신 상제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관련 성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의 난법 행각

[도전] ▶ 11:52:1~7(난 법 행 각 의 동 기) ▶ 10:138, 11:52:8, 10:141, 10:142:7(상제님성골도굴 만행)- 1 차 (1921 년) · 2 차 (1923 년) · 3 차 (1928 년 이후) ▶ 10:139:3~5(난법 사기행각)

●난법에 대한 대응

[도전] ▶ 10:139:1(김 형 렬 의 대 응) ▶ 10:140(문공신의 대응) ▶ 5:284:1~2(김경학의 대응)

●난법자의 종말

[도전] ▶ 11:412(자 작 자 배 는 죽 음) ▶ 2:60:3~4(진리조작의 응보) ▶ 6:21(떼죽음 인도는 멸망뿐) ▶ 8:13(알고 짓는 죄는 벌이 큼) ▶ 6:88(상제사칭에 대한 신벌) ▶ 6:100(거짓 필설의 패망) ▶ 6:99(난법자에 대한 경계 - 비태통 불가근)

●의로움과 믿음에 대한 상제님의 당부

[도전] ▶ 2:43:5(의로운 사람에 대한 천지신명의 조력) ▶ 4:15:3~7(의로운 언행에는 천지가 감동) ▶ 10:62:2(너희들이 큰 복을 구하거든 - 일심 · 수심 · 포덕 · 총의 · 수덕) ▶ [핵심술어] 난법과 진법의 의미 [도전] ▶ 4:32:2 측주 (난법 / 진법)

올바른 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나

-실패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종말론자, 새로운 진리의 인식의 지평을 열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

해 만들어진 인식 틀로 상제님 진리를 보는 사람, 왜곡되고 뒤틀린 사도로서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 개인 주의적 신앙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근본이 도전道典이며 태사부님 사부님을 통해서 진리가 정립되어야 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상제님 진리는 지구촌 그 어디에서도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천지공사에 의해 예비하여 놓으신 인사지도자를 통해서만 천지일꾼으로서 진법을 받을 수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항상 진리의식에 투철한 근본주의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18

팔관법 진리공과종통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② 종통관 공과 학습 자료

▶종도사님이 일러주신 종통관 말씀

건곤감리의 천리를 바탕으로 종통맥을 전하심

상제님 도의 원원한 근본 틀인 진주 도수가 왜 건곤감리, 천지일월의 틀 속에서 짜질 수밖에 없는가? 대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천지이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서는 대자연의 도의 이상을 펼치는 당신님의 도의 계승 맥 또한 자연의 도의 틀을 그대로 인사화하신 것이다. 그 건곤감리의 틀에 의해 천지일월의 인사가 일어난다. 천지일월의 인존人尊이 나오는 것이다.

하늘의 역할로 아버지 상제님이 오시고, 땅의 역할로 오만 년 조화선경을 낳아주시는, 역사의 산파역할을 해주는 어머니 수부님이 오신다. 그리고 일월의 광명을 인사로 대행하는 진주眞主가 나온다. 이 진주는 천지부모를 대행하여 실제 인간을 길러내고 새 역사의 구성 틀을 밑자리부터 짜는 역사의 주인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음양일체로 서로 짝이고 일월이 서로 음양 짝이지만, 이 천지와 일월이 다시 음양일체로 서로 짝이 된다. 또 일월은 성신과 짝이 된다. 성신은 과학에서는 말하는 항성과 행성이다. 항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요, 행성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빛나는 별이다.

이 천지, 일월, 성신에 대해 상제님께서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일월은 조왕이 주장하고 성신은 칠성이 주장한다.” 고 하셨다. 물론 천지는 상제님과 태모님이시지만 거기에는 자연을 주관하는 순수자연신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게 망량이다. 망량신은 천지조화를 다스리는 신이다. 망량은 조화다, 조화부리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증가龜哥가 도깨비 성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리고 조왕은 살림을 맡은 신이다. 해서 ‘일월은 조왕이 주장한다’ 는 말씀 속에는 ‘천지살림을 전부 일월이 한다.’ 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지 부모는 조화주이시며, 일월의 광명의 도를 열

어주는 제3변 도운의 추수자, 진리의 추수자는 이 천지 살림살이의 주관자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신에 해당하는 것이 상제님 도의 일꾼들이다. 역사의 별, 새 역사의 뭇 별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천지일월 사체四體의 인사화 과정을 알아야

체를 잡아야 상제님 진리의 뿌리와 본 줄기와 열매 맺는 자리를 보게 되는데, 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상제님이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고 하셨다. 체는 곧 사체四體다. 체가 넷이 있다. 하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땅도 있어야 하고 또 일월도 있어야 한다. 상제님이 “천지도 무일월이면 공각이다.” 라고 하셨다. 하늘땅이 만유 생명의 근원이며 생성의 바탕이지만,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란 말씀이다.

또 폐일언하고 “원형이정元亨利貞 도일월道日月” 이라고 하셨다. 도의 정신, 도의 질서를 시간도수로 그려내는 게 일월이란 말씀이다. 또 우주 주재자인 상제님 도의 얼굴이 일월이란 말씀이다. 상제님 태모님 도를 어디서 듣는가? 일월에게서 듣는다.

천지가 바탕 체體이고 용用은 일월이 한다. 음양의 궁극의 기틀 태극체는 천지이고, 그 천지 태극의 음양 변화의 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체는 일월이다. 일월이 아니면 만물이 에너지를 못 받아 한순간에 죽지 않는가.

이렇게 사체四體가 인간을 낳아 기르는 바탕이다.

상제님 도법도 사체를 바탕으로 한다. 이제 대자연의 섭리대로 인존시대가 되어, 산 하늘이라 하신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또 태모님이 어머니로 오셨다. 그리고 상제님 도를 열매맺게 하는, 상제님 도를 체득시켜 주는, 상제님 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진법에 눈뜨게 해 주는 참 지도자 두 사람이 나온다. 그게 사체四體다. 상제님 도법 맥의 사체! 우리는 상제님 도맥의 사체를 잡아야 한다. 모사하는 체 둘과 성사하는 체 둘이 합해져서 넷이다.

이 천지일월의 인사화 과정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후천 오만 년 지상선경 낙원세계가 열려 나가는, 상제님 도맥이 뿌리내려가는 과정이다. 그게 인간 역사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 후천선경 새 문화의 법문, 도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다.

오만 년 새 역사를 낳아주신 어머니, 수부님

『도전』 6편 37장을 보면 정미년 도기 37년 1907년 음력 11월 초사흘날, 상제님께서 수부책봉 공사를 보

신다. 바로 이날 여자하나님이 인간역사에 탄생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천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력하게 무너지면서 남녀동권의 새 역사가 전개된다.

2절에, 상제님께서서는 “내가 진주 도수를 천한 데 가서 가져온다.” 고 하신다. 곧 ‘내가 수부를 천한데서 가져온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부가 진주다, 수부도 진주다!’ 라는 뜻이다. 또한 이 말씀은 수부님의 삶과 인생역정이 참으로 고달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제님은, ‘수부는 나의 아내이면서 너희들의 어머니, 만백성의 어머니, 온 우주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셨다. ‘이 어머니가 바로 나의 종통대권을 맡은 절대자다.’ 라는 말씀이다. 왜? 여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제님은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는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곧 어머니 품에서 오만 년 새 역사가 태동되어 나온다, 어머니가 새 역사를 낳아주시기 때문에 현실 역사에서는 어머니가 근본이라는 말씀이다.

상제님은 통치자, 태모님은 제사장

하나님도 두 분이 오신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오신다. 이걸 기독교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기독교인들은 메시아(Messiah)가 두 분으로 온다는 것을 절대 못 받아들인다. 그런데 원래 초기 두루마리 성서(聖書)에는 ‘두 분이 전혀 다른 분으로 오신다.’ 고 되어 있다. 한 분은 왕으로, 한 분은 제사장으로 온다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한 분은 ‘킹리 피겨(Kingly figure)’ 즉 왕으로 오시고, 다른 한분은 ‘프리스트리 피겨(Priestly figure)’ 즉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태모님이 바로 제사장 아니신가. 태모님께서서는 “나는 천지에 제사지내는 거 밖에는 없다.” 하시고 한 달에 두 번씩 천지 제를 지내셨다. 아버지 상제님은 우주 삼계대권을 집행하는 통치자시고, 태모님은 창생의 죄를 대속하는 어머니로서 제사장이시다. 또 성사재인(成事在人)으로 마무리짓는 인사(人事)의 주인도 두 분으로 오신다.

진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음양론적 사고가 필요하다.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태모님, 선천과 후천, 혼과 낚, 이런 게 다 음양론과 연결되는 것이다.

상제님과 수부님은 억조창생의 부모로서 음양동덕이시다

그 다음 11편 76장 5,6절을 보자.

* 상제님과 수부님은 역조창생의 부모로서 음양동덕이시니, 상제님께서서는 건도(乾道)를 바탕으로 9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수부님께서서는 곤도(坤道)를 바탕으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거늘 인기어인(人起於寅) 도수에 맞춰 시작하시니라. (道典 11:76:5~6)

지금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수부님의 행적과 한 생애, 그리고 어머니로서 보신 10년 천지공사의 내용을 압축한 총론이라 할 수 있는 11편 1장의 핵심을 다시 읽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제님과 수부님은 역조창생의 부모님이며 음양동덕으로 존재하신다!

이 수부에 대한 생각이 바로잡혀야 우리의 신앙이 외딴 신앙, 단편신앙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동안 선천에는 완전한 하나님 신관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반쪽 신앙을 해왔다. 모든 종교에서 아버지만 찾았다. 신앙의 전 역사를 통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아버지 타령만 했다. 낳아주고 기르는 역할을 하시는, 신앙의 밑자리인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걸 모른다.

우리 증산 상제님 진리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두 분이 공존하신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두 분이 계신다, 하나님은 두 분이다’ 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 이것이 머리에서 확 깨져야 된다. 여기서 선천종교의 외딴 신앙이 다 무너져야 된다. 어미 없는 자식이 어디 있나? 아버지 혼자서 무슨 공사를 벌이는가 말이다.

상제님께서도 김형렬 성도에게 “천지에 독음독양(獨陰獨陽)은 만사불성이니라. 내 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네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세우라.” (道典 6:34:2)고 하셨다. “독음독양이면 만사불성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원 틀, 바탕, 근본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하나님관을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모든 것이 음양으로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 이 우주도 하늘과 땅으로 조화롭게 음양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물은 태어날 수가 없다. 어머니가 있음으로써 아버지란 말이 의미가 있듯이, 하늘은 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천지는 동시에 함께 있어 왔다. 땅이 있기 전에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다. 그건 그냥 혼돈, 어둠, 무질서 상태이다. 생명이 탄생되기 이전의 거대한 꿈을 품고 있는 혼몽의 우주, 잠자고 있는 우주일 뿐이다. 지금의 깨어난 우주, 생명을 낳는 우주는 생명의 큰 부모이신 하늘과 땅이 열려 생장염장의 질서를 가지고 순환 변화하면서부터 태동되었다. 신의 세계도 음양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신(萬神)과 인간 역사와 대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두 분으로 계시는 것이다.

선천 역사와 천지사업을 매듭짓는 두 아들의 시대가 열린다

어머니 수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 경석아. 나는 씨를 뿌릴 테니 너는 옮겨 심어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추수할 사람, 다시 말해서 실제 인사를 끝매듭 짓는, 상제님과 태모님 즉 천지부모님의 아들이 장차 나온다는 것이다. 아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 쉬운 말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아들이 나와서 선천 우주 역사를 끝매듭 짓는다는 것이다.

『도전』 5편 337장을 보면 큰아들 도수와 막내아들 도수가 나온다. 큰아들은 김형렬 성도요, 막내아들은 김갑철 성도다. 이 도수에 의해 아들의 시대가 펼쳐진다. 아들을 제일 먼저 낳으면 큰아들이라고 한다. 도문에 큰아들의 시대가 먼저 열리는 것이다. 그것이 해방 후 2번 도운시대다.

아버지 어머니의 뿌리시대에서 자녀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두 아들이 나온다는 것을 아버지 상제님께서 달리 또 말씀하시기를, “독음독양은 만사불성이다”, “사람 둘이 더 나와야 일이 된다” 고 하셨다. 즉 음양합덕으로 두 사람에 의해서 상제님의 천지사업이 매듭짓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것이 3번 도운시대이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부자간이라는 천륜의 도로써 구성이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우주이법의 틀이 천지일월 건곤감리이기 때문이다.

건곤은 천지로서 부모이고, 그 천지부모를 대행하는 것이 감리이다. 감리를 천체로 말할 때는 해와 달이며, 이 해와 달의 기운으로 생명이 태어나고 크다. 그런데 감리는 건곤과 다르다. 건곤은 천지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수평적인 관계지만, 감리는 물과 불로서 수직적인 관계이다. 불이라는 것은 물에 의해 생겨난다. 수화일체이면서도 수직적으로 도통 맥이 전수되는 이치 때문에 감리는 천륜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수화가 태극이지만 태극이 드러날 때는 음양으로 나타난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 하나 될 때 거기에서 음양합덕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대자연의 이치의 근본 틀이 음양이다. 때문에 음양의 이치를 떠나서는 우주만유가 존재를 못한다.

음양의 틀을 벗어나 갑자기 한 사람이 덜렁 나와 계시 받아서 도통을 내려줬다? 그것은 천지이법을 부정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니 천리에 밝아야한다.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떠져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할 수 있다.

지난 백 년 도운사를 반성해 보자. 태모님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세 살림 도수를 받아 도장을 개척하셨다. 당시 잘 믿는 일꾼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난법자들의 가혹한 반향과 저질스러운 모욕을 받으셨다. 난법자를 만나 몸이 부서져 죽는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 — 금구로 가면 네 몸이 부서진다— 그대로, 태모님은 가혹한 개척자의 길을 걸으셨다.

지난 백 년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상제님 진리를 씨뿌리고 세상에 전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는, 악질적인 난법의 뿌리가 이상호다. 그가 처음으로 상제님 말씀을 기록해서 『대순전경』을 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 준 공덕은 분명히 있다. 태모님도 그가 『대순전경』을 성편해 올리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고민환, 전선필 등 태모님의 성도들과 생활한 이교성씨 등이 증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태모님이 천지 신도를 받아내려 공사 보실 때, “이 책 속에 부정이 들어있다.” 즉, 바르지 못한 기운이 박혀 있다고 꾸짖으셨단다. 왜 그러셨을까? 상제님 도통맥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자기네 형제가 진짜 주인이라고, 대두목 노름을 하려는 기운이 역력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태모님이 속내를 들여다보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예를 들면, 태전에서 상제님 일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 “앞으로 개벽기에 피난은 콩밭두둑에서 한다.” 는 말씀을, 지금도 박공우 성도의 후손과 제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다. 오래 신앙한 사람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개벽기에 피난은 콩밭두둑에서 한다.”, 콩 태太, 밭 전田, 글자 그대로 태전이란 말씀이다. 또 “내가 후천선경 건설의 꽃대는 태전에 꽃았다” 는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부정하고 상제님의 종통, 도통 전수의 맥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뿌리뽑아 버렸다. 그래서 내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들이 종통을 훔쳐갔다고. 이상호는 6년 동안 완전봉사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1966년에 죽었다. 그가 죽기 1년 전, 그 동생 이정립이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기대가 꺾이면서 회한에 젖어가지고, 상제님 말씀을 다시 비틀어놓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나서지 못하노라.”

상제님이 어천하시기 전, 성도들에게 6월 20일에 구릿골 약방으로 모이라고 통지하셔서 성도들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마치셨음을 선포하시자, 우주의 대학총장인 김경학 성도가 “천지공사를 다 마치셨으면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뢴다.

상제님이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설 수가 없느니라.” 하신다. 이에 간절한 목소리로 “제가 몸이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닳도록 두 사람 일을 대행하겠습니다.” 고 한다. 그러자 “그렇게 되지 못하느니라.” 거절하신다. (道典 10:27 참고)

그런데 65년도 이상호가 죽기 몇 달 전, 뒤의 “두사람의 일을 대행하겠나이다.” 는 그냥 내버려두고, 상제님 말씀 “ 사람 둘 ” 에서 한 점을 빼버렸다.

“사람 둘이 없으므로” 를 “사람들이 없으므로” 로, ‘둘’ 의 ㄴ을 ㅡ로 고쳐 ‘들’ 로 만들었다. 가운데 모음 하나 ㄴ을 ㅡ로 고쳐서 점 하나를 지웠는데, 오만 년 전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도통맥의 뿌리가 단절된 것이다.

종통의 뿌리 태모 고수부님의 생애

태모님의 탄강

단기 4213년, 경진(庚辰 : 道紀 10, 1880)년 음력 3월 26일 전라도 담양도호부 무이동면 도리에서 탄강하심. 2:2

유소시 이후

9.27. 성부 고덕삼 돌아가심. 3:1
외외가 송씨 승문에서 어린 시절 보내심. 3:1

대흥리 이숙 차치구의 집으로 가심. 3:2

11. 신씨와 결혼. 3:4

3. 태종 출생.

6.20. 신씨 사망. 3:4

만백성의 어머니

상제님 만나심

10. 경석에게 '수부를 들여세우라.' 하심. 4:2
11.3. 수부 책봉 예식을 행하심. 5:1

6.24. 상제님 여천. 9:1

6.30.~7. 상제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심. 11:3~
9. 수행 중 상여와 초반을 보시고 구랏골에 찾아가 상제님 가슴에 '옥황상제' 명정을 덮어 드림. 15:10

4. 상제님의 성령과 혼례식을 올리심. 17:2
대원사 칠성각에서 진법주 수련을 하심. 17:3
9. 신경수의 집에서 활연대각하심. 17:5~6

대도통과 대흥리 첫째 살림

9.20. 대도통과 첫 말씀 :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19:10
9.25. 구랏골 약방의 약장과 궤를 가져 오심. 27:3
10. 상제님의 성도들을 소집, 교단 창립을 선포하심. 28:3

도기 10 도기 15 도기 18 도기 24 도기 30 도기 37 도기 41

1880 1885 1888 1894 1900 1907 1909 1910 1911

1세 6세 9세 15세 21세 28세 30세 31세 32세
태모님 성수

한국사

임오군란

1882

갑오경장
동학혁명

1894

을사조약

1905

일제의 조선 강점
조선총독부 설치

토지조사 시작

1910 1911 1914

세계사

청·일 전쟁
(~1895)

러·일 전쟁
(~1905)

1차 세계대전 (~1918)

중국 신해혁명

* 한국사와 세계사는 양력으로 표기함

10년 천지공사(1926~1935)

본소 이전 운동 실패와
경석의 교권 장악. 38~39

9.21. 김제군 공덕면 공덕리
천종서의 집으로 가심.
44:3

조종리 둘째 살림

10. 조종리 중조 마을로
가심. 47:2

11.26. 대속하시어 목포
경찰서에 구속되심.
49:10

1.3. 석방 후 농사일에
마음을 두시고 한
가로이 지내심.
49:11~13

윤7. 성전 완공 후
수행에 집중하심.
50:3~5

8. 고민환의 입도. 51:2

고민환을 수석 성도로 세우시어 칠성웅정 공사를 보심. 98

1~3. 상제님 어진 봉안. 183~185
5. 조직개편을 단행하심. 207:3~4
9. 숙구지 대공사. 215

9.21. 정읍 왕심리 도장으로 옮기심. 2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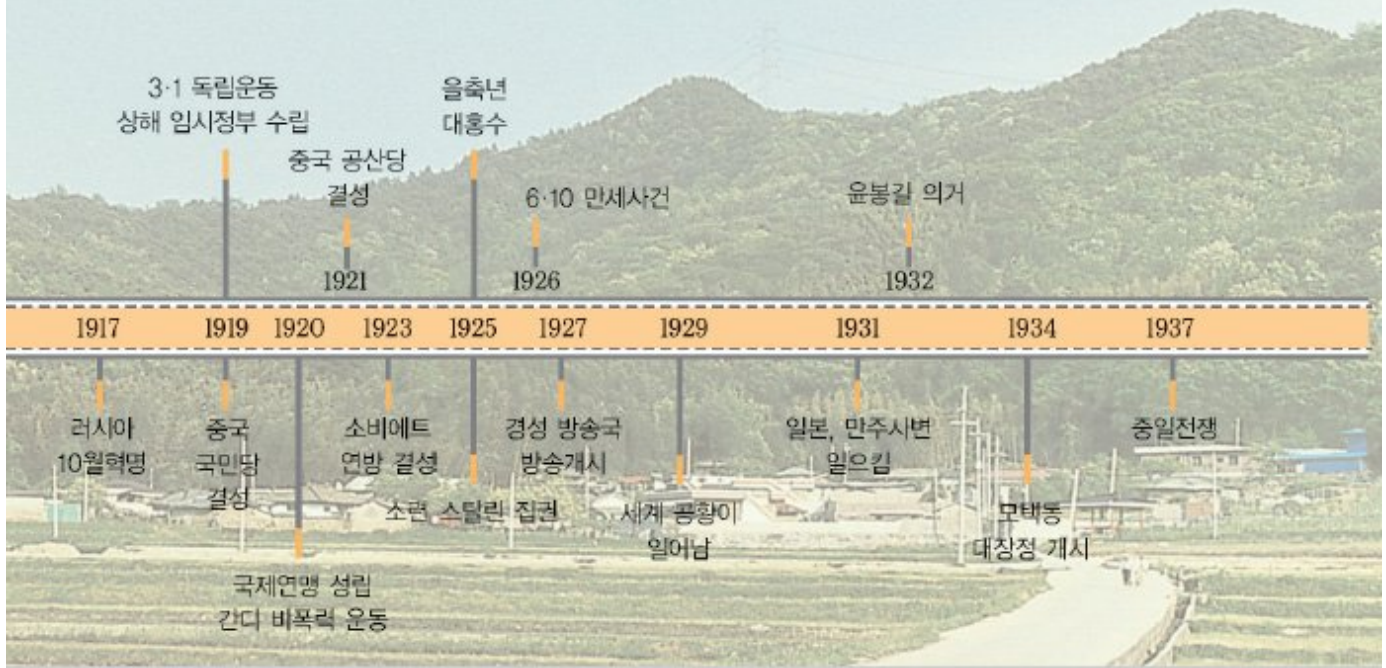
용화동 셋째 살림

11.15. 용화동 셋째 살림 시작. 313

11. '일후에 사람이 나면
꼭 용봉기를 꽃아 놓고
맞이하라.'고 당부하심. 365:3
11.5. 오성산 도장에 은거. 367

10.6 선화하심.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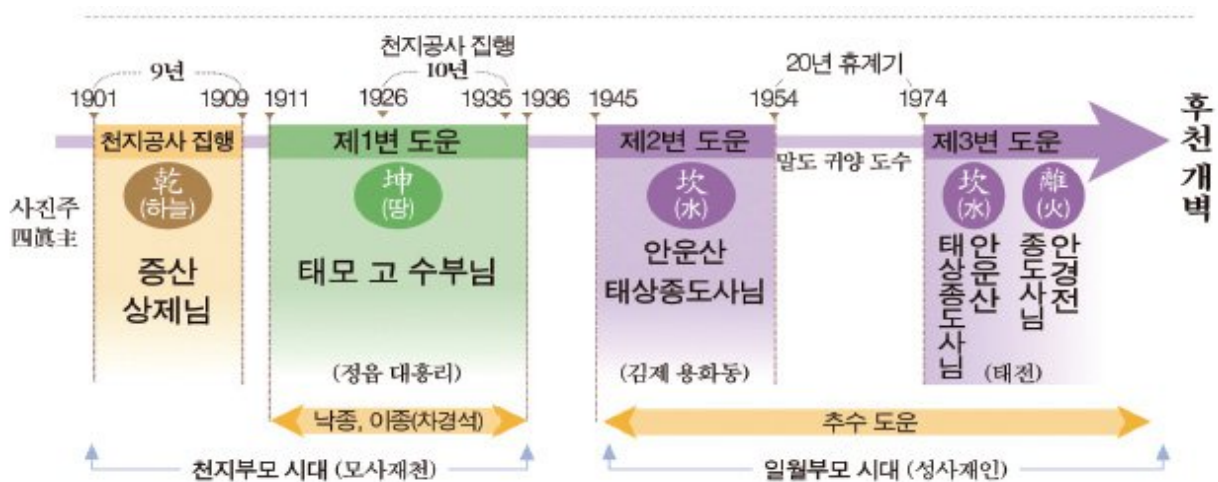
| 도기 46 | 도기 49 | 도기 56 | 도기 59 | 도기 61 | 도기 63 | 도기 65 |
|-------|-------|-------|-------|-------|-------|-------|
| 1916 | 1918 | 1919 | 1926 | 1928 | 1929 | 1931 |
| 1933 | 1935 | | | | | |
| 37세 | 39세 | 40세 | 47세 | 49세 | 50세 | 52세 |
| | | | | | | 54세 |
| | | | | | | 56세 |



* 나는 천지일월(天地日月)이니라. 나는 천지(天地)로 몸을 삼고 일월(日月)로 눈을 삼느니라. (道典 4:111:14~15)

* 상제님께서 “ 나는 천지일월(天地日月)이니라.” 하시고 건곤(乾坤:天地)을 바탕으로 도체(道體)를 바로잡으시니 건곤(乾坤:天地)은 도의 체로 무극이요, 감리(坎離:日月)는 도의 용이 되매 태극(水)을 체로 하고 황극(火)을 용으로 삼나니 이로써 삼원이 합일하니라. 그러므로 도통(道統)은 삼원합일(三元合一)의 이치에 따라 인사화(人事化)되니라. (道典 6:1:5~7)

* 인륜(人倫)보다 천륜(天倫)이 크니 천륜으로 우주일가(宇宙一家)니라. (道典 4:29:1)



* 모사재천(謀事在天)하고 성사재인(成事在人)하는 후천 인존(人尊)시대를 맞이하여 천지부모이신 증산 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께서 인간과 신명이 하나되어 나아갈 새 역사를 천지에 질정(質定)하시고 일월(日月)의 대사부(大師父)께서 천지도수에 맞추어 이를 인사(人事)로 집행하시니라. (道典 8:1:2~4)

| 모사재천 | | 성사재인 | |
|------------------------|--------|------------------------|------------|
| 증산 상제님 | 乾 ☰ | 坎 ☵ | 안운산 태상종도사님 |
| 태모 고수부님 | 坤 ☷ | 離 ☲ | 안경전 종도사님 |
| 건곤(乾坤)합덕 천지부모(天地父母) | | 수화(水火)일체 일월부모(日月父母) | |

추수 종통의 상징, 일월 용봉



이 용봉龍鳳 두 글자는 계묘(癸卯: 道紀33, 1903)년에 증산상제님께서 대원사 주지 박금곡에게 써 주신 글이다. 용[水]과 봉[火]은 증산상제님과 태모고수부님께서 모사재천하신 천지공사 도수를 현실 역사 속에서 성사재인하는 일월日月부모를 상징한다. 역의원리로는 수화기제水火既濟의 모습으로서, 물[水龍; 月]이 위에 있고 불[火; 鳳; 日]이 아래에 있다. 물 기운은 아래로 흐르려 하고 불 기운은 위로 타오르려 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올라오고 위에서는 내려가 서로 교합交融이 되고 상생相生하는 상을 보여준다.

계묘(癸卯: 道紀 33, 1903)년에 상제님께서
대원사 주지 박금곡에게 써 주신 글

종통맥을 왜곡한 과거 기록 - ‘사람 둘’의 문제

▶ 1909년 음력 6월 20일 아침, 어천을 앞두고 상제님께서 천하사를 매듭짓는 성사재인의 매듭일꾼 ‘두 사람’의 출세를 말씀하셨다(도전 10:27:1~5).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상호, 이정립 형제에 의해 1933년에 발간된 『대순전경』 제 2판에서 처음 등장한다. 『대순전경』 2판에서 5판까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대순전경』 6판부터는 ‘사람 둘’을 ‘사람들’로 비틀어 수록하여 종통맥을 왜곡시켰다.

‘사람 둘’을 ‘사람들’로 왜곡한 판본 비교

| | | | | |
|--|---|---|---|---|
| <p>一八 당신이 헌디 공사를 맞치셨을 종도들에게서 명하시니 경학이 엿주어가도대 공사를 맞치셨스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이 가라사대 사람들이 입술으로 나 서지 못하노라 경학이 가도대 내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달로록 두 사람의 일을 대</p> <p>2판 (1933)</p> | <p>一九 천사 천지공사 천지공사를 마치셨을 종도들에게서 명하시니 경학이 엿주어가도대 공사를 맞치셨스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가라사대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경학이 가도대 내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달로록 두 사람의 일을 대</p> <p>3판 (1947)</p> | <p>一九 천사 천지공사 천지공사를 마치셨을 종도들에게서 명하시니 경학이 엿주어가도대 공사를 맞치셨스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가라사대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경학이 가도대 내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달로록 두 사람의 일을 대</p> <p>5판 (1960)</p> | <p>一九 천사 천지공사 천지공사를 마치셨을 종도들에게서 명하시니 경학이 엿주어가도대 공사를 맞치셨스면 나서시기를 바라나이다 가라사대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경학이 가도대 내가 비록 무능하오나 몸이 달로록 두 사람의 일을 대</p> <p>6판 (1965)</p> | <p>弟子一告曰天下萬民이 望堯舜之世하야 若渴하오니 今也에 出世하사 成乎萬民之願하소서 曰天下事난 無二人하야 不可爲也니라</p> <p>【증산교사:이정립 1977】</p> |
|--|---|---|---|---|

▶ 대순전경 2판 ‘사람 둘’ → 대순전경 3판 ‘사람 둘’ → 대순전경 4판 ‘사람 둘’ → 대순전경 5 판 ‘사람 둘’ → 대순전경 6판 ‘사람들’로 바꾸어 오늘의 12판에까지 이르고 있음.

『천지개벽경』 (이중성, 1992) → ‘두 사람’ (二人)

『증산교사』 (이정립의 유고집, 1977) → 다시 ‘두 사람’으로 기록

‘사람 둘’이라는 용어가 『대순전경』 6판(1965)부터 ‘사람들’로 바뀌었다가 1977년 이정립의 유고집인 『증산교사』에서 다시 ‘두 사람’으로 나타남은 『대순전경』 6,7,8,9,10,11,12 판이 의도적인 조작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난법과 진법의 비교

| | |
|-----------------------|---|
| 난법亂法の 의미 | 난법의 문자적 의미는 어지러운 난(亂), 법 법(法) 자로서 일반적으로 어지러운 교법, 앞뒤가 맞지 않는 가르침, 인류가 안고 있는 술한 난제를 풀어 줄 해답과 구원의 역량이 없는 법을 의미한다. 난법의 현실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오도하고 왜곡시키는 그릇된 가르침과 구도 행위. ②상제님의 대도로 광구천하를 실현해 나가는 과도기 과정에서 진법이 드러나기까지 나타나는 도법의 총체적인 난법(진법이 나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 과정). |
| 난법亂法の 특징 | ①난법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 정신을 어지럽히고 상제님 진리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 ②난법은 그 교리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무질서하여 허술하고 모순 투성이다. ③난법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난법자는 결국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다. ★난법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법으로 중국엔 영혼을 파괴하고 멸망시킨다. |
| 난법의 분류 | 난법은 판안과 판밖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 ①판안의 난법- 상제님을 직접 모셨던 성도들이 주역이며, 차경석을 필두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난법 판이다. 참법의 뿌리 역할을 한다. ②판밖의 난법- 상제님 어천 후에 단순한 개인신앙으로 출발한 인물들이 판안의 난법 세력과 도적道的 연관관계를 맺고 가지쳐 나간 난법 세력이다. 대부분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독자적인 판을 이루고 있다. 크게는 모든 선천 종교, 기존 이념을 재해석하여 자작한 일체의 정치, 종교, 철학, 사회사상도 가을대개벽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 |
| 난법 난도자의 대표적 유형(기본 성격) | ①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한 태모님을 부정한다(다른 뿌리를 주장). ②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통 및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자작극을 벌이면서 회도행위를 한다(자기 중심의 역사관). ③보편적·객관적인 진리 체계가 없다. ④때가 되면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등의 논리로 성사제인의 인사섭리를 부정한다. |
| 난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 | ①세계 문화의 미성숙 ②역사의 현실 상황 ③인간 존재의 미완성 ④인간의 욕망·삿된 정신 등 |
| 난법자에 대한 심판 | 난법자는 누가 인위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법도로 인해 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난법에 매달린 모든 사람들도 다 진리의 심판을 받게 된다. 거짓에 속는 무지無知도 그에 못지 않은 큰 죄이기 때문이다. |
| 진법眞法の 의미 | 진眞 자는 '참 진' 자로 참된(true), 진실한(sincere), 그리고 진짜(real)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법은 참되고 진정 그러한 법, 진리에 부합되고 상제님의 뜻을 실현하는 법이다. 즉 참법이며 정법으로서, 가을개벽의 문턱에서 일어나는 인류 문명개벽의 참된 도리를 말한다. 삼변성도三變成道의 원리에 의해 도운도 3변이 되어야 난법이 종결되고, 일꾼들이 상제님과 태모님을 올바르게 모시고 개벽을 참되게 인식하는 진법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 진법문화를 통해 개벽상황을 극복하고 후천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
| 진법판에 담겨있는 정신 | ①진법판은 어느날 갑자기 도통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process)을 거쳐 성숙해 간대(말수도수). ②진법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이다. 이 전과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판을 만들어 새 시대를 여는 것이다(문왕의 도수). ③진법판은 진리의 핵심을 쥐고 있다(진주도수). ④상제님을 대행한 참 지도자는 수화일체의 진인, 대사부이다(대두목도수). ⑤진법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종통宗統맥과 도통道統맥이 분명하다는 점이다(수부도수 및 용봉도수). ⑥천하의 영재들이 상제님의 진법판으로 모이게 된다(대학교도수). |
| 진법의 대도大道를 찾는 열쇠 | ①먼저 예리한 분석력과 함께 항상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②진법을 찾으려는 기백과 투철한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진리의 뿌리를 찾지 못한다. ③상제님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 진리를 가슴에 떠담는 순정이 살아있어야 한다. ④진법은 제3변 도운을 통해 고난과 형극의 길을 거친 뒤에야 세상에 드러나 천하에 굽이치게 된다(가구판도수). |
| 상제님 진법 구원의 관건 | ①참 스승(지도자)을 모시는 것 ②조상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 ③자신의 강인한 정신력과 지극한 정성 ④태을주 수행과 칠성도수 포교 |
| 진법을 만나는 인연을 가로막는 요인 | ①척신난동隻神亂動과 조상의 죄악 ②진위眞僞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③무지한 것 ④기운이 탁한 것 ⑤시간을 전혀 못내는 것 |

19

팔관법 진리공과종통관3

팔관법 진리 공과 | ③ 종통관 공과정리

종통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데에 있어서 바른 종통宗統을 찾는 것은 신앙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종통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나요?
2. 종통은 상제님의 진리 속에서 구성되고 구현되는 천지의 공도입니다. 종통의 근본 이치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3. 도전에서는 종통맥의 원리와 구체적인 법통의 전수 도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필수 성구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상제님께서서는 도맥의 종통을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전하셨습니다. 종통을 반려자이신 수부首婦님께 전하신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5. 수부首婦라는 말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소 생소한 호칭입니다. ‘수부’의 의미와 다른 호칭들 및 수부님의 신원에 대해 기술해 보세요.
6. 수부님은 종통의 뿌리이자 인간 구원의 핵심입니다. 수부님께서 보신 종통 관련 공사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7. 수부님께서 전수해 주신 천지공사의 최종 매듭은 추수도운의 인사 도수에 있습니다. 낙종물과 이종물이 지난 후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다고 하신 바대로 도운의 마지막 결실을 완수할 인사대행자가 역사에 등장하여 천지 도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수 도맥의 인사 도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8. 인사의 진법 종통을 만나 제대로 된 신앙을 하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진법 종통맥을 지키고 신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성해야 할 바람직한 신앙 정신과 자세는 무엇일까요?

9. 바른 진법 신앙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난법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난법의 원인과 병증은 어떤 것인가요?

10. 도전에는 난법의 행각과 대응 및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상제님께서 당부하신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실려 있습니다. 난법 척결 및 진법 수호에 관련된 성구들과 상제님께서 당부하신 믿음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11.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신앙하는 사람은 바른 진법 신앙을 위해 스스로를 닦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20

팔관법 진리공과구원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① 구원관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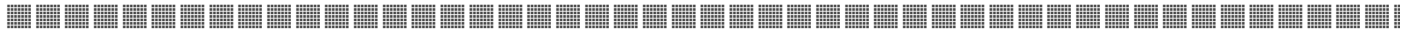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개벽론과 구원론의 상관성

▶주제 생각해 보기

대개벽의 필연성과 3대 관문을 정리할 수 있는가

천지의 변화 섭리로 순환하는 우주일년의 과정을 이해하고 보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지금의 이 시기에는 대개벽이라는 변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관에서 살펴본 바 있는 가을 대개벽의 원인과 필연성 및 3대 관문, 즉 세 가지 개벽 현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구원론의 목적과 한계는 무엇인가

인류에게 있어 개벽 현상은 현실적으로 생사가 걸린 큰 재난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여러 종교나 사상들이 이러한 대재난을 내다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원의 법방을 제시하여 왔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기성종교 사상의 한계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벽섭리와 인류구원의 당위성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가을개벽의 추살 심판은 인류 구원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우주의 이법으로 일어나는 대개벽의 재난 현상과 인간을 죽음의 질서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나요?

▶ 주제 확인해 보기

대개벽의 필연성과 3대 관문을 정리할 수 있는가

-우주일년에 있어서 여름과 가을의 교차기에 일어나는 가을대개벽은 ‘춘생추살’이라는 천지만물의 주기적 순환 변화의 섭리와 선천 5만년간 누적되어 온 ‘인류의 원한과 악업’이 폭발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며,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산고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종말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인류는 현재 이러한 하추교차기의 대개벽 시운을 맞고 있으며, 그것은 ①지축정립과 지구 공전궤도 변화 등 시간질서의 변혁으로 나타나는 자연개벽, ②세계질서의 종결과 지구촌 문명통일로 귀결되는 남북상씨를 전쟁개벽, ③선천 악업의 최종 심판이라 할 수 있는 3년 병란개벽 등 세 가지의 관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 개벽의 요인과 필연성

[도전] ▶2:20:1~3(생장염장 변화이치)

▶8:62:3(춘생추살의 이법) ▶2:17,7:38(선천 5만년 인류 원한의 살기 폭발) ▶5:347:7(무도無道로 병든 천하) ▶2:42:1,2:43:1(가을 대개벽기를 맞은 천하) ▶2:44:3(이때는 생사판단을 하는 때) ▶2:73:4(개벽 운수의 불가피성)

● 가을대개벽의 3대 관문(현상)

[도전] ▶4:152,7:23~24,11:263:3(지각변동, 지축정립, 공전궤도변화) ▶7:35,5:7,5:202, 5:406,5:415(남북상씨를 병란兵亂) ▶2:45,7:32~44(병란病亂의 발생과 전개 양상) ▶7:63, 11:264(병겁 전에 단독과 시두가 선행)

기존 구원론의 목적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는 인류가 처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 데에 있어서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결과에만 주목하였을 뿐, ‘왜 (Why)?’ 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천지 대자연의 이법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제님의 진리에서 ‘인간’은 천지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이고, 삼신의 조화기운을 온전히 받아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며, 개벽 후 열리는 가을 결실문명의 주인공으로서 개벽기에 허망하게 사라질 대상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충분한 가치와 필요성을 지닌 자격자입니다. 따라서 선천 상극의 모순된 질서를 문닫고 새로운 상생의 질서를 여는 대개벽 심판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일은 인간을 역사 속에서 완성시켜 우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참된 인간구원의 길이요 천지성공의 길입니다.



원'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대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가을대개벽기에 인간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였다면, 상제님 진리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원을 받을 대상이 어떤 부류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전道典에는 개벽기에 구원의 대상자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여부를 좌우하는 생사판단의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제님의 진리에 입각해 구원의 적격 대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한 반대의 부류도 존재할 것입니다. 구원의 여부를 좌우하는 생사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전道典을 통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제 확인해 보기

구원이란 말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구원은 이치적 측면에서는 후천의 영속적 삶과 우주의 이상 실현 여부를 좌우하는 생사판단生死判斷의 의미가 있고, 구도자 측면에서는 가을의 새 진리를 만나 열매인간이 되는 것이며, 구원자일꾼 측면에서 보면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사명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죄업과 병겁의 대속으로 베푸신 인류를 위한 대은大恩의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3 구원의 방법과 내용

▶ 주제 생각해 보기

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개벽기 추살기운에서 인류를 실제로 구원하는 일은 관념적·추상적·논리적 사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형과 무형의 도권道權과 신권神權으로 성사재인되는 매우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천도의 성업입니다. 개벽기에 현실적 인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인류 구원의 주체와 그 대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인류 구원의 기틀은 인존상제님의 천지공사 주재에 의해 도수로 정해진 일이지만, 현실 상황에서 인간 구원의 실제적 집행은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개벽기 인류 구원의 성사 주체와 구원의 대세 국면에 대한 도전道典 속의 내용들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벽의 최종 관문인 3년 대병겁과 구원의 법방을 정리할 수 있는가

가을개벽 인류 구원의 최대 관문은 3년에 걸쳐 전개되는 전 세계적인 대병란 사건으로, 이는 개벽심판의 최종 도수이며 인류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병겁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구원 집행의 도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확인해 보기

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도전道典에서는 구원의 방법이 ‘의통醫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통은 후천개벽의 대환란기 병겁 심판 때 상제님께서 사람을 살려 내시기 위해 대두목에게 전수하신 유형의 실물로 인류 구원의 법방입니다. 의통의 핵심은 태을주太乙呪이며, 천하 구원의 6임구호대 조직에 의해 3년 동안의 의통구호대 활동이 진행됨으로써 사람을 널리 살리게 됩니다. 의통에는 호신護身의통과 호부戶符의통,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통인패, 즉 해인海印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도전] ▶7:32:3,7:33:5(모든 기사묘법 버리고…의통을 알아두라) ▶5:242:18(만법 중 의통법이 제일이다)
▶8:101(태을주로 천명을 이룬다) ▶4:147(약은 곧 태을주) ▶11:386(태을주 잘 읽는 것이 피난의 길)

●의통의 유형

[도전] ▶10:48:5(호신의통) ▶7:73:6(호부의통) ▶7:30:3(의통인패:해인)

▶[핵심술어] 유형의 도권과 무형의 신권

[도전] ▶7:39:2 축주(구원의 법방)

▶[핵심술어] 의통의 의미와 유형

[도전] ▶7:33:5 축주(의통)

인류 구원의 주체와 그 대세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인류 구원의 틀을 열어주신 인존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인사人事로 성사시키는 주체는 상제님의 대행자이신 태극과 황극의 인사지도자 두 분이시며, 이 인간 구원의 대업에 천지사역꾼으로 동참하는 것이 증산도의 개벽일꾼들입니다.

-도전道典에서는 세계구원의 주체 민족을 가리켜 ‘남조선(대한민국)’으로 칭하고, 구원의 장소(조화자리)는 ‘태전’이며, 살아날 사람이 많은 구원의 대세 방향을 ‘동남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벽의 최종 관문인 3년 대병겁과 구원의 법방을 정리할 수 있는가

-도전道典에 의하면 최종적 심판개벽인 3년 병겁은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가을 운수 아래에서 천하의 큰 병과 큰 난리를 지으면서 발생합니다. 또한 병겁의 예고편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본격적인 병겁의 시발처, 지구촌 병겁의 전개 상황, 병겁심판의 정체 등에 대하여 중대한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관련 성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통은 상제님에 의해 박공우 성도에게 비전祕傳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2·3번 도운 종통의 인사 지도자에 전해졌으며, 이 의통을 바르게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의통성업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병겁의 원인과 상황 전개

[도전] ▶7:38:5(병겁의 원인) ▶7:63(병겁의 전주곡) ▶7:40(병겁의 시발처) ▶7:41(지구촌 병겁의 전개 양상) ▶5:291:8~10,7:50:1~2(병겁심판의 정체) ▶5:347:7(의통성업으로 세상을 끝막으신 이유)

●의통 관련 공사

[도전] ▶5:249(만국의원 공사) ▶5:250,5:368:12(약장공사) ▶5:321,5:135(남북상씨를 49일 의통집행공사) ▶10:48~49(인암 박공우 성도에게 비전된 의통) ▶7:31,6:52,5:334,11:126,6:115:1(육임 의통구호대 조직공사) ▶11:99(칠성공사는 후천 인간을 내는 공사)



4 구원의 진리 사명과 실천과제

▶주제 생각해 보기

증산도 진리에 있어서 구원론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참하느님이신 상제님의 천명을 집행하는 증산도의 진리에서는 대개벽이라는 재난 현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본 관점과 방식 등이 기존의 다른 진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증산도 구원론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구원의 진리 정신과 사명은 무엇인가

진리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그 안에 내포된 구원의 근본 정신과 구원의 사명에 대한 기본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구원의 집행 또한 바르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도전道典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신과 사명은 무엇인가요?

구원사명의 실천 과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상제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천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사명과 의통성업을 완수하는 데에 필요한 실행상의 지침들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구원 사명의 실천 과제들을 정리해 보세요.

▶주제 확인해 보기

증산도 진리에 있어서 구원론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증산도 구원론의 특징은 ①사후에 구원을 받아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명의 주체로서 살아서 구원을 하는〈받는〉현실적 구원이고, ②나 살고 남도 살림으로써 피동적·수혜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주체적 입장에서 구원을 하는 주체적 구원이며, ③인간과 신명-영과 육-조상과 후손을 동시에 구원하는 종합적 구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산도의 구원론은 천지의 자연이법을 바탕으로 인간 생명문제의 바탕을 근원적으로 파고들어 해법을 찾는 주재자 하느님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구원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 구원론의 특성

[도전] ▶11:250:5,11:347:3(살아서 잘되기를 바라라) ▶7:32:6,7:42:2,7:50:3,7:51:3(일꾼들이 창생을 구원함), 2:22:2(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음) ▶2:42(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7:19:6(선령신은 그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남)

구원의 진리 정신과 사명은 무엇인가

-개벽심판에서 인간 구원의 정신은 바로 정의로움(義)입니다. 도전道典에서는 의로움을 천지의 가장 으뜸가는 보배라 하였고 이는 또한 가을의 우주정신을 상징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천지 공도 집행 시에는 샅되거나 왜곡된 기운이 아닌, 개벽의 섭리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겠다는 의로운 정신이 필요합니다.

-인존상제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강세하신 목적을 ‘서신사명’ (개벽기 인간 구원 사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 개벽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꾼들의 사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제님께서서는 “앞으로 세상이 한바탕 크게 시끄러워지는데 병겁이 돌 때 서신사명 깃대 흔들고 들어가면 세계가 너희를 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사역을 맡은 일꾼들은 ‘새로운 생명질서’ 를 열어 주신 증산 상제님의 후천개벽 구원 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그들이 천지대세를 자각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 정신과 사명

[도전] ▶4:15(천지에서 으뜸가는 보배, 의로움) ▶5:291:12~13(병겁이 돌 때 서신사명 깃대 흔들고 들어가면)

구원사명의 실천 과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개벽기 구원 사명의 실천 과제는 ①육임 포교를 완수하여야 하고, ②일심을 갖고 천하사에 임해야 하며, ③판박의 남모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박의 남모르는 공부’란 의통공부·태을주 도공수행 등 인사人事를 전제로 한 천지조화공부, 심법 및 자아성숙을 위한 자기계발 공부, 판몰이를 준비하며 상제님 진리의 맥을 잡고 전하는 체體공부와 용用공부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사명의 실천과제

[도전] ▶8:21:3,8:101(육임포교의 완수) ▶2:91,8:52~54,8:57~58,8:81~82,10:62:1~2,11:277:3~4(일심을 갖고 천하사에 임해야) ▶7:72:1(판박의 남모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21

팔관법 진리공과구원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② 구원관 공과 학습 자료

▶종도사님이 일러주신 구원관 말씀

인간 구원의 총 결론은 진리를 깨달은 힘으로 사람 살리는 것

이번 가을우주 개벽에서의 인간 구원, 그 총 결론이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힘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때문에 진리를 전할 때 진리 맥을 제대로 못 잡고 엉뚱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반 거짓말로 비위 맞춰가면서 포교를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일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거부하는 기운이 온다.

반드시 진리 만족감을 넣어 줘야 한다. 깨달음을 얻게 해야 한다. 진리로부터 충격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진리 중심 신앙을 해야 한다. 『도전』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 읽기도 하고, 성구 말씀을 복사를 하든지 직접 쓰든지 해서 항상 진리 의식으로 나의 생각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내 인생이 끝나는 때까지 이 말씀을 나의 좌우명으로 삼는다.’ 하고.

진리를 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면 끝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의 진리 의식이 삭지 않았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불을 질러야 한다. 진리 의식이란 내 영혼 속에서 깨달음을 향한 의지가 타오르는 것이다. 그 의지가 세차게 타오르도록 지펴 주고 거기에 깨달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때를 놓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힘이 약해지고, 뿌리부터 흔들린다. 시간이 가면 신앙이 더 성숙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몸이 굳고 마음이 지치고 방향을 한다.

기존의 심판론을 넘어서는 증산도 구원관

대우주의 근본 법칙, 생장염장을 묶어서 총정리하면 춘생추살春生秋殺이다. 이 우주는 거대한 본질적 법

칙, 근본 섭리를 전제로 하여 인간을 낳고 길러왔다. 그 결론이 추살秋殺이다. 가을이 되면 인간을 무조건 다 죽인다. 이것이 증산도의 심판론, 구원론의 주제다. 증산도의 구원론은 우주 법칙에 의해 전개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후심판(The Last Judgment)과 다른 점이다. 이제 우주는 봄여름의 시간을 지나서 가을의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의 삶 속에, 인류의 삶의 중심에 놀라운 격변이 일어나는 가을개벽이 온다. 그 가을개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하루 낮과 밤의 교체나 지구 1년에서 봄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오는 것과는 달리 우주 1년에서 천지 질서의 틀이 바뀌는, 큰 여름과 큰 가을이 바뀌는 하추교역, 가을 우주개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가을개벽은 모든 종교에서 말한 바, 종말과 심판이 성립되는 실제 상황이다. 상제님은 이 개벽상황이 3년 동안 하늘과 땅의 변화 질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지구촌에 전개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증산도의 구원관은 기존의 심판론의 성격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넘어선다. 사실은 선천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구체적이다.

시두가 대발하면 가을개벽으로 들어간다

선천의 상극 역사를 종결짓고 신천지의 새 문명을 열어 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은 개벽이 오는 실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대개벽의 소식을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 자연과 문명과 우리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상제님 말씀을 통해 정리해보자.

상제님이 어천하시기 1년 전인 무신(戊申, 도기 38, 1908)년, 우리나라가 망하기 바로 2년 전, 하루는 최창조 성도의 집에서 이런 공사를 보셨다.

* 하루는 최창조의 집에서 성도 수십 명을 둘러앉히시고 “각기 글 석 자씩을 부르라.” 하시므로 천자문의 처음부터 부르기 시작하여 최덕겸(崔德兼)이 ‘일(日) 자’ 까지 부르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덕겸은 일본 왕도 좋아 보이는가 보다.” 하시며 “남을 따라 부르지 말고 각기 제 생각대로 부르라.” 하시니라. 그 다음 날 밤에 담뱃대 진을 쑤셔 내시며 덕겸에게 “한 번 만에 잡아서 놓치지 말고 뽑아내어 문 밖으로 내버리라.” 하시거늘 덕겸이 명하신 대로 하니 온 마을의 개가 일시에 짖어대는지라, 덕겸이 여쭙기를 “어찌 이렇듯 개가 짖나이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대신명(大神明)이 오는 까닭이니라.” 하시거늘 또 여쭙기를 “무슨 신명입니까?” 하매 말씀하시기를 “시두손님인데 천자국(天子國)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時痘)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그 때가 되면 잘난 놈은 콩나물 뽑히듯 하리니 너희들은 마음을 순전히 하여 ‘나의 때’ 를 기다리라.” 하시니라. (道典 7:63:1~10)

상제님이 담뱃대에서 진을 빼가지고 마당에다 던지라고 하셨다. 그러자 동네 개들이 막 짖어댄다. 최덕겸 성도가 그 연유를 여쭙니까 상제님께서, “대신명이 오는 까닭이니라.” 고 말씀하신다. 과연 어떤 대신명이 온다는 말씀인가? 시두신명이다. 개벽이 될 때 시두신명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시두손님인데 천자국(天子國)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時痘)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이 말씀은 ‘장차 시두가 대발하면 가을개벽의 실제상황으로 들어가는 줄 알지어다!’ 라는,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명(天命)이다.

그리고 역사의 틀이 바뀌는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잘난 놈은 다 뿔힌다, ‘잘난 놈은 콩나물 뿔히듯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가을개벽으로 진입하는 초기 상황을 해독할 수 있다. ‘가을개벽으로 진입하는 초기 상황’ 이것도 하나의 주제이다. 개벽의 실제상황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에서 개벽의 불길을 당겨 급진전시키는 그것이 바로 시두의 대발인 것이다.

상제님의 도를 받은 은혜로 추살을 극복한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핵심 결론이 무엇인가? 여름철 생장과정이 끝나면 열매를 맺어 완성되느냐, 아니면 소멸되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추살일진대 그것을 넘어서는 가을 맞이, 가을의 성숙, 조화, 통일, 하나 됨, 열매 맺는다는 것은 또 무엇이나? 그것은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를 받는 것이다. 상제님의 도를 받아야 그 도를 받은 은혜로 내가 산다. 우주의 법칙인 추살을 극복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안고 사는, 대자연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삶의 과제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우주적인 숙제가 주어졌다. 선천이라는 달힌 우주에서 열린 가을우주로 들어서서 지고한 사명이 부여된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 줘서 그냥 흥청망청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아니다. 이 우주는 생장과 염장으로, 봄여름에 인간을 낳아 길러놓으면 가을에는 우주의 주재자가 오셔서 그 분의 도로써 거둔다. 이제 때가 되어 이 우주의 참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가을개벽기에는 가을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다

지구 1년에서 가을이 되면 서릿발 기운이 들어와 여름 내 무성했던 이파리들이 주락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 우주 1년 사계절에서도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는 언제나 우주의 서릿발 기운이 온다. 왜 그런

가? 봄여름의 분열 운동을 끝맺고 가을의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 하늘의 질서가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을 개벽기에는 이러한 천리에 의해 인간 생명이 단절된다. 선천 봄여름철에 인간은 천지부모로부터 명줄을 받아서 태어난다. 선천 5만년 동안은, 인간은 지상에 태어나 살다 죽으면 천상에서 영적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죽어서 천상으로 올라가면 영적인 진화를 다시 더 하고서 인간으로 또 태어나고, 이렇게 천상과 지상을 오르내리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생명줄이 작동을 멈춘다. 가을이 되면서 스스로 정지된다. 오직 가을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

의통은 치유 문화다

증산도의 의통은 바로 치유 문화(healing culture)다. 치유란 무엇인가? 큐어(cure)는 물리적으로 약을 써서 낫게 하는 것이고 힐링(healing)은 근본을 고치는 것이다. 의통으로 나의 마음과 영혼, 내 몸의 건강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사회와 역사의 병을 바로잡고 자연의 병까지 뜯어 고친다. 그리하여 분열된 모든 것을 통일한다. 내 마음도 통일하고, 가정도 통일하고, 사회도 통일하고, 민족도, 동서 문화의 장벽도 무너뜨려서 인류가 한마음으로 사는, 한 형제로 사는 통일 문화를 연다. 이것이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의 세계일이 통일정권 문화다.

추살 기운인 괴병을 극복하는 의통 성업의 바탕, 태을주

그러면 우리가 가을의 생명을 받아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제님께서 ‘천하의 복록과 수명이 이 주문에 들어 있다’ 고 하신 태을주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왜 태을주가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건져내는 구원의 안내자인가?

태을주는 추살기운인 괴병을 극복하는 의통성업(醫統聖業)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의통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근원적인 인류 구원의 큰 은혜이다. 의통은 무형과 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태을주를 읽어서 조화성령을 받아 내리는 것은 무형의 의통이고, 개벽 실제상황에서 실물인 의통을 전수받아 생명을 구원받는 것은 유형의 의통이다.

박공우 성도에게 붙이신 육임구호대 조직 공사

9년 천지공사는 초반 3년, 구릿골에 가신 후 중반 3년, 그리고 대흥리 시기로 정미, 무신, 기유년의 후반 3

년, 즉 도기 37, 38, 39년, 서력으로 1907, 1908, 1909년으로 나눌 수 있다. 상제님은 천지공사 후반 3년 가운데서도 마무리를 짓는 무신년부터 실제 인류 씨종자를 추리는 구원의 조직, 육임군 공사를 보셨다. 그것이 바로 『도전』 7편 31장에 있는, 앞으로 개벽 실제상황에서 인류 역사의 전면에서 나가는 육임구호대 조직 공사다. 이 공사를 들여다보면, 상제님이 육임군의 신명계 대장으로 임명한 박공우 성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 무신(戊申 : 道紀 38, 1908)년 여름에 고부 와룡리(古阜 臥龍里)에 계실 때 하루는 상제님께서 박공우(朴公又)에게 “마음으로 속 육임(六任)을 정하라.” 하시거늘 공우가 마음으로 육임을 생각하여 정할 때 한 사람을 생각하니 문득 “불가하다.” 하시므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니라. 이 날 저녁에 그 여섯 사람을 부르시어 밤이 깊은 뒤에 등불을 끄고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시천주주(侍天主呪)를 읽게 하시니 문득 한 사람이 거꾸러지거늘 여러 사람이 놀라 주문 읽기를 그치니 말씀하시기를 “놀라지 말고 계속하여 읽으라.” 하시니라. 이에 계속하여 읽다가 한 식경을 지낸 뒤에 그치고 불을 밝히니 손병욱(孫秉旭)이 거꾸러져 죽어 있는지라 말씀하시기를 “이는 몸이 부정한 연고라.” 하시고 “병욱에게 손병희(孫秉熙)의 기운을 붙여 보았더니 이기지 못한다.” 하시며 물을 머금어서 얼굴에 뿜으시니 병욱이 겨우 정신을 돌리거늘 병욱에게 “나를 부르라.” 하시므로 병욱이 목안 소리로 겨우 상제님을 부르니 곧 기운이 회복되니라. (道典 7:31:1~9)

이 공사 말씀을 보면 실제 개벽상황에서 우리가 인류를 건지기 위해 필요한 의통구호대는 여섯 명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조직이다. 군대로 말하면 1개 분대 규모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길러내어 육임조직을 짜는 공력으로 보면, 숫자는 여섯 명이지만 사실은 1개 중대 이상의 공력이 들어간다.

3절을 보자. 박공우 성도가 “마음으로 속 육임(六任)을 정하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누구누구 해서 여섯 명을 마음속으로 정했다. 그런데 상제님이 박공우 성도의 마음속을 다 보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된다.” 고 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육임을 짤 때도, 가족신앙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는 아내에게 “지금 육임을 어떻게 짜려고 그래?”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댈 것 아닌가. 그런 경우 포교를 많이 해보고 상제님 진리 사업에 대해 안목이 있는 아버지라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열매 못 맺어. 명단에서 빼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도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상제님은 박공우 성도가 생각한 한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아셨다. 그래서 “불가하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변해야 산다는 것

"개벽의 운수는 크게 개혁하고 크게 건설하는 것이니"[도전2:58] 개벽의 운세는 크게 개혁하고 크게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하지 않는 자는 개벽의 운세를 받을 수 없고, 대개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대들은 지금 자기 개혁을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가? 날마다 새롭게 깨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고 있는가?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이 지구촌 정보통신 혁명의 대세에 대해 딱 한 마디로 요약돼 있다.

“변하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다!” 고. 그렇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의 주제어이며 이 세대의 화두다, 개벽기의 화두! 얼마나 멋진 말인가. 변하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다. 변하면 살고, 안 변하면 죽는다! 지금 지구촌 문화를 이끄는 지도자든 평범한 사람들이든, 변해야 산다.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각 종교와 예언에서 전한 개벽 현상과 구원 법방

1. 개벽기의 현상과 개벽 후의 지상선경

| | 천지의 변국(개벽기의 현상) | 개벽 후의 지상선경 |
|----------|---|--|
| 불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기 2000년 이후부터 말법시대 • 일월성신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온 대지가 진동한다 • 큰 기근겁, 칠병겁, 도병겁刀兵劫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솔천 천주님(미륵)의 용화세계 (기후가 고르고 수명이 길며 병환이 없어진다) |
| 기독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년 대환란 • 일월성신의 변동 • 백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새 하늘 새 땅 개벽 •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 건설 |
| 도가 道家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지반복天地反覆-천지가 뒤집어진다 • 이성역수移星易宿-별들이 자리를 옮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인합발天人合發 - 신명과 사람이 하나된다. • 만화정기萬化定基 - 평화의 기틀이 정해진다. |
| 동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이제국 괴질 운수, 3년 괴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제님의 5만년 무극대도 |
| 정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축 경사, 윤역 (365날) → 지축 정립, 정역(360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제님의 용화낙원, 유리세계 |

2. 구원의 법방에 대한 동서 예언과 종교의 공통점

| | 나를 죽이는 것 | 하나님 호칭 | 구원의 주재자 (상제님의 대행자) | 나를 살리는 것 | 구원 후의 세계 |
|---------|--|--------------------|-----------------------|----------------------|-------------------------|
| 불교 | • 귀신 | • 미륵불 | • 양커 대왕 | • 삼회설법 | • 용화세계 |
| 기독교 | • 생명책 심판 | • 백보좌 하나님 | • 동방의 흰 옷 입은 무리 | • 하나님의 인印 | • 아버지의 천국 • 새 하늘 새 땅 |
| 동학 | • 3년 괴질 | • 천주(하늘님) • 상제님 | | • 시천주의 길 • 상제님 공경 | • 5만년 무극대도 |
| 정역 | | • 상제님 | | • 상제님 강세 | • 용화세계 |
| 노스트라다무스 | • 공포의 대왕 • 레이포즈 | • 하나님 | • 앙골무아 대왕 • 동양인 | • 그의 장대 | |
| 남사고 | • 소두무족 • 이름없는 하늘의 질병 | • 상제님 • 미륵불 | • 참 성인 | • 해인海印 • 소 울음 소리 | • 불로불사 • 영춘永春 |
| 정감록 | • 소두무족 | | • 미륵불 | • 이재전전利在田田 • 수행 | |
| 설총결 | • 배은망덕 • 자신의 죄 | • 용화세존 | • 1만2천 도인 | • 소 울음 소리 | • 용화낙원 |
| 신교총화 | • 천사만마 • 사도邪道 | • 상제님 | • 대교주 • 1만2천 도인 | • 동방 배달의 신교 • 진리 | • 천하대동 • 낙원세계 |
| 진인도통연계 | | • 증산龜山 | • 1만2천 도인 | • 가을의 열매 진리 | |
| 핵심 정리 | 상제님(= 미륵불 = 천주님 = 아버지 하나님 = 백보좌 하나님 = 하늘님)께서 개벽기에 지상에 인간으로 강세하시고, 상제님의 새 진리에 의해 지구가 지상 선경(용화낙원, 새 하늘 새 땅)이 된다.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야 선경 세상에 들어갈 수 있다. | | | | |

개벽과 구원에 관련된 동서양 2대 철인의 예언

| | 미셀 노스트라다무스 | | 격암 남사고 | |
|---------------------------|--|--|--|---|
| 활동 시기와 지역 | 16세기(1503~1566) 서양의 프랑스 | | 16세기(1509~1571) 동양의 조선 | |
| 예언의 특징과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현상적인 사건에 중점을 두고 단편적, 분석적으로 전한다. • 미래의 신천지에 대한 언급이 적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의 미래에 집중되어 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정체와 원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한다. • 인류의 해원과 진리의 통일 문제를 우주원리에 입각하여 전한다. | |
| 대변국 소식 | 천재지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시간의 큰 이동이 있을 것이다. • 지구를 견고하고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 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 천재지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천재大天災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린다. |
| | 전쟁과 질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 불꽃을 내며 하늘을 달리는 불이 보일 것이다. •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 낯선 병이 널리 퍼져 모든 대지를 멸망시키리라. •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 전쟁과 질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 •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 • 소두무족小頭無足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는 •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
| 구원의 소식 (천상의 절대자 강세 소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변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때의 운은 서신이 맡았으니[此運西之心] • 미륵불이 출세하나 어떤 인간이 깨닫는가! •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 상제上帝님이 후박간에 다 오라네. • 신선의 운에는 백보좌의 신神의 심관이 있도다. | |
| 구원의 법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메닌 산맥을 넘어 골에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울을 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드소 • 소울을 소리를 내는 자가 먼저 살 수 있으리라. • 정신 차려서 해인海印을 알도록 할지라. 무궁한 조화가 한량이 없도다. | |
| 미래 세계의 모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의자에서와 같이 그의 발아래에 모여든다. • 성령은 행복한 혼을 만들리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마다 모두 도를 통하여 배어난 경지에 다다르니, 이 세상은 맑고 투명한 유리세계로 되는구나.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전혀 없고 불로불사의 영춘永春에서 살아가는도다. | |

일본의 도승, 기다노 대승정의 한 소식

일본의 도승, 기다노 대승정의 한 소식



상제님의 공사내용과 연관지어, 후천개벽기에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예언을 하나 소개한다.

1975년 7월 22일 밤 일본 불교계의 도승道僧 기다노北野 대승정이 선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한밤중에 4~5인의 외계인들이 찾아와 기다노 승정을 깨운 후 그에게 인류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다(저자 주: 이 우주인들은 천상계의 신명들이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낙원이요 큰 이상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 성인이 다 같이 그리워하고 선망하며 갈망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한 행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원한 장래에 일대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伸縮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海底였던 곳이 해변 위에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며 있던 곳이 없어지기도 하며 없던 곳이 생겨나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 사항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해 주었다.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앞으로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국가 될 것이고 그 곳에서 성현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해만방을 지배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된다.”

(나운몽, 『동방의 한나라』, 애향숙출판부, 588~591쪽)

가을 대개벽의 전령, 시두 대발



- * 시두손님인데 천자국(天子國)이라야 이 신명이 들어오느니라.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오느니라.
앞으로 시두(時痘)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7:63:7~10)

시두는 추살 기운, 서릿발 기운을 몰고 오는 길 안내자이다. 인류사 최초의 병으로 추정되는 시두 대발은 선천 역사의 끝과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한다. 원시반본 섭리에 따라 앞으로 시두는 본래 천자국이었던 조선에서 대발하게 된다.

- *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病劫)이 돌기 전에 단독(丹毒)과 시두(時痘)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11:264:2~3)

시두는 어떤 병인가?

천연두 특유의 피부발진
(출처: WHO 천연두 인지카드)



힌두교의 시두 여신 시탈라마타

전염병의 제왕, 시두

시두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소화기나 호흡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초급성 전염병이다.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염병으로 추정되며 질병의 역사상 가장 혹독하게 인간을 괴롭혔던 '전염병의 제왕'이다. 인류 역사상 전쟁과 다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5억여 명이 이 질병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두의 치료법

불행히도 시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현재까지 없다. 백신을 통한 예방이 시두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두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치명적이다.

괴질 병겁의 전개 상황

- * 이 뒤에 병겁이 군창(群倉)에서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魚肉之境)이요
광라주(光羅州)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仁川)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이 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처로부터 이레 동안을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끌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7: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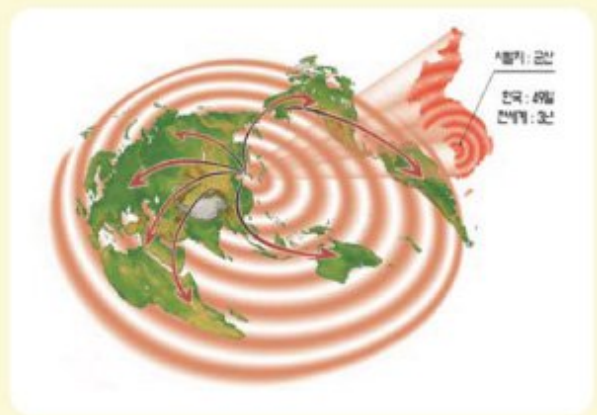
❖ 시두(時痘)의 다양한 이름

두창(痘瘡), 천연두, 마마, 강남서신(江南西神), 두역(痘疫), 두신(痘神), 큰마마, 호구(戶口)마마, 시두손님, 큰손님, 별생(別生)마마, 홍진국대별생(大別生) 등

❖ 미 보건복지국에서 선보인 천연두 백신



2001년 대 아프카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 본토에서 탄저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세계는 생화학무기 테러에 대비하여 소리 없는 천연두 백신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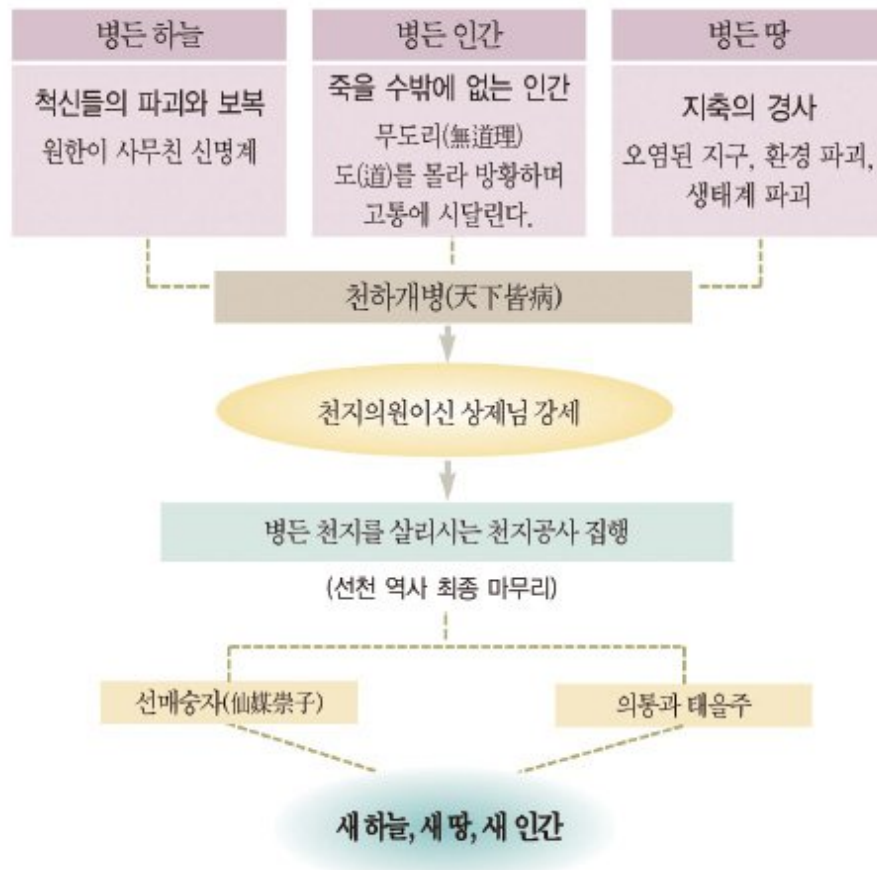


太乙呪

| | |
|---------------------------------|---------------------------------|
| 흠 치 | 흠 치 |
| 태 을 천 | 太 乙 天 |
| 상 원 군 | 上 元 君 |
| 흠 리 치 야 도 래 | 吽 哩 哆 哪 都 來 |
| 흠 리 함 리 사 파 하 | 吽 哩 喊 哩 娑 婆 訶 |

태을주 각 절의 의미

| | |
|----------------|---|
| 吽 哆 | 천지부모(상제님, 태모님) |
| 吽 哆 | 일월부모(상제님의 대행자) |
| 太乙天 上元君 | 도신道神의 뿌리, 우주 도통사의 뿌리 : 할아버지 하나님(오직 선천의 도교만이 이를 인식했다) |
| 吽哩哆哪都來 吽哩喊哩娑婆訶 | 도가에서 비전되어 온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세상의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주문) |



구원관의 비교

| 구분 | 증산도 | 불교 | 기독교 |
|--------|--|--------|--------------|
| 구원의 대상 | -천·지·인 & 신명神明 -삼생三世 인연이 있는 자 / 선령 음덕이 있는 자 / 천하대세를 아는 자 | 人, 육도 | 산 자와 죽은 자 |
| 구원의 목적 | 천·지·인·신 神 성공의 후천 새 질서를 여는 것 ; 천하 통일문명세계의 건설 | 성불 |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
| 구원의 이유 | 천하개병天下皆病, 우주의 열매인 인류의 파멸 | 윤회의 고해 | 선악의 원리, 타락 |
| 구원의 방법 | 의통, 천지개벽 | 참선 | 오직 예수 |
| 구원의 정신 | 정의로움(義) | 자비 | 사랑 |

팔관법 진리 공과 | ③ 구원관 공과정리

구원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우주일년의 변화 섭리에 의하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지금은 대개벽의 변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 가을 대개벽의 원인과 필연성 및 3대 관문(세 가지 개벽 현상)의 핵심을 정리해 보세요.
2. 인류는 우주의 개벽 이치로 발생하는 대재난 현상을 내다보고 기존의 여러 종교나 사상들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원의 법방을 제시하여 왔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가을 추살개벽의 심판은 인류 구원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우주의 이법에 의한 대개벽의 현상과 인간 구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적 연관성을 맺고 있나요?
4. 도전道典에서는 개벽기에 처한 인류를 건져내는 ‘구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5. 도전道典에는 개벽기에 구원을 받을 적격 대상자와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구원의 여부를 좌우하는 생사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6. 가을개벽기의 인간 구원은 유형의 도권道權과 무형의 신권神權으로 성사재인된다고 합니다. 현실적 인간 구원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7. 개벽기 인류 구원의 현실적 성사 주체와 구원의 대세가 어떤 국면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도전道典의

내용들을 설명해 보세요.

8. 가을개벽 3년 대병란은 개벽심판의 최종 도수이며 인류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병란의 원인과 전개 과정 및 구원 집행의 도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9. 대개벽의 재난 현상에 대해 기존의 진리들이 제시하는 구원론과 증산도의 진리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그 관점과 방식에 있어 근원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증산도 구원론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10. 도전道典에서 말하는 개벽기 인류 구원의 진리 정신과 사명,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집행하기 위한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요?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23

팔관법 진리공과일꾼관1

팔관법 진리 공과 | ① 일꾼관 진리맥전하기

팔관법八觀法이란 증산도 진리를 크게 8개 분야로 체계화 시켜 정리한 여덟 개의 범주이며, 공과功課란 진리 학습의 공부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팔관법 진리 공과는 팔관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진리 핵심 주제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공과의 체계는 매월 하나의 관법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진리맥의 구조와 흐름을 기준으로 각 주제별 문제제기와 핵심 확인 과정으로 구성하고, 이어 연관되는 추가 학습 자료나 원전 자료 등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전체적으로 핵심 포인트와 정리 문답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팔관법 공과 구성 및 활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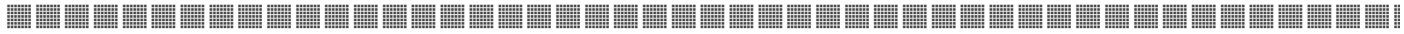
-본 팔관법 공과는 상세한 교리 풀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중심 주제들을 놓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공과① 진리맥전하기〉: 진리맥 전개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각 목차별 ‘주제 생각해 보기’에서는 제시한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답을 적어보거나 함께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봅니다. 하단 부분에는 ‘생각해 볼 핵심 개념’을 다시 압축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주제 확인해 보기’에 도전道典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도전 성구나 주석 등을 직접 찾아보고 중심 개념이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공과② 더 알아보기〉: 좀 더 심화된 공과를 위해 해당 팔관법의 학습자료를 실었습니다. 해당 팔관법과 관련된 도훈 말씀이 정리되어 있고, 진리맥 정리에 필요한 테마별 요약 자료나 원전 자료, 도표, 그림 등을 간략히 게재하였습니다.

-〈진리공과③ 정리하기〉: 진리맥 전하기 학습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맥의 주요 주제와 개념의 결론들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재정리하는 구성 방식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일꾼의 의미와 역할

▶주제 생각해 보기

상제님 진리에 있어 일꾼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인사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도전道典에는 ‘일꾼’ 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보통 ‘천하사 일꾼’ 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의 뜻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일꾼’ 이라는 말은 진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사 일꾼이 가져야 할 기본 품성과 인간상은 어떤 것일까

천하사를 하는 일꾼은 그 의미와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요구되는 기본적인 품성과 인간상이 보통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道典이나 도훈道訓 말씀 속에서 그와 관련된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일꾼들이 집행해야 할 진리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일꾼의 의미와 품성 등이 천하사 실현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일꾼들이 천하사 현장에서 인

사人事로 집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꾼의 진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확인해 보기

상제님 진리신앙에 있어 일꾼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도전道典에 의하면 진리 신앙의 ‘일꾼’이란 천명天命을 받아 천지사업에 종신해 광구천하의 대업을 실현하는 자이고, 상제님 천지대업을 개척하여 후천 선경세계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개벽기에 의통성업을 집행해 생명을 살리는 창생의 생사를 진 사람이며, 능소능대한 능력으로 안될 일은 되게 하고 될 일은 못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천하사의 전문가(Professional)라 할 수 있습니다.

●일꾼의 정의

[도전] ▶8:1:1(천명天命을 받아 천지사업에 종신해 광구천하의 대업을 실현하는 자) ▶8:1:5(천지대업의 개척자요 후천선경의 건설자) ▶8:21, 8:117(창생의 생사를 진 사람) ▶8:99(안 될 일은 되게 하고 될 일을 못되게 하는 자)

천하사 일꾼이 가져야 할 기본 품성과 인간상은 어떤 것일까

-천하사를 하는 일꾼들은 일정한 신앙의 덕목들과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태상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신 바람직한 일꾼상은 창조적·도덕적·외교적·영웅적 인간이며, 인성의 지침으로는 자기개혁自己改革·자기도야自己陶冶·자기성숙自己成熟을 들 수 있습니다.

②또한 종도사님께서 알려주신 일꾼의 기본 품성은 적극성·진실성·치밀함입니다.

③한편 도전道典에서 언급된 일꾼들이 취해야 할 덕성들로는 순종, 의로움, 겸손함, 성웅겸비, 화합, 부지런함, 진실함, 예법과 도리, 적극적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일꾼의 신앙덕목들

[도전] ▶8:106(순종) ▶4:15(의로움) ▶9:3:1~6, 8:63(겸손함) ▶2:58, 4:5:6~7, 8:22, 8:42, 8:62(성웅겸비)
▶8:36, 8:60, 11:102, 11:250(화합) ▶8:27, 11:123, 8:110, 5:434(부지런함) ▶9:4, 4:32(진실함) ▶8:107(예를
아는 일꾼) ▶8:100, 6:9:4(적극적 참여)

그렇다면 일꾼들이 집행해야 할 진리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천지 도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기본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진리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성사재인의 주체- 상제님 천지공사를 구현하는 창업자 · 개척자 · 건설자 측면

②의통성업의 집행- 가을대개벽에서 인류의 귀한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자 측면

●일꾼의 역할①(성사재인)

[도전] ▶4:5:4~5, 8:1:2, 8:1:6(이제는 성사재인의 인존시대) ▶2:22:1~2(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음)
▶8:87(고난을 내려 개척일꾼을 만드는 섭리) ▶8:99(안 될 일을 되게 하라) ▶8:104(뜻을 세우면 평생 일관
해야) ▶8:109:4(사람 발길에 일의 승패가 달려 있다) ▶8:117(살릴 생생자를 쥐고 다니는 너희 일꾼)

●일꾼의 역할②(의통성업)

[도전] ▶7:50:3, 7:51:3, 8:118:3(너희들이 천하창생을 구원한다) ▶8:21:3(천하창생의 생사가 너희들 손에)
▶5:347:17(성인의 직업은 의통) ▶7:32:3, 7:33:5(오직 의통을 알아두라) ▶7:33:7, 10:28:7(너희들에게 의통
을 붙여주리라) ▶5:242:18(만법 중 의통법이 제일) ▶7:31, 6:52, 5:334, 11:126, 6:115:1(육임 의통구호대 조
직공사)



2 일꾼의 도업, ‘천하사’의 기틀

▶주제 생각해 보기

일꾼들의 도업인 ‘천하사’의 성사 기틀은 무엇인가

일꾼들이 상제님 진리 속에서 집행하고 이루어야 하는 구체적 대상이나 업무, 즉 도업道業을 일러 ‘천하
사天下事’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성취해 내야 할 일들을 명확히 파악하려

면 먼저 상제님의 천하사 도수가 어떻게 구성되고 실현되는지를 정해 놓은 천지공사의 기층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道典에 담겨 있는 ‘천하사의 성사 기틀’ 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천하사를 완성하는 인사의 법통맥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가

상제님의 천하사는 결국 사람이 현실 속에서 역사(인사)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므로, 이법理法과 신도神道の 역할 이상으로 인사人事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일꾼이 천하사를 제대로 성취하려면 상제님께서 정하신 인사의 종통맥·법통맥을 올바르게 알고 그에 부합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집행하면 됩니다. 종통관에서 살펴본 바 있는 인사의 법통맥을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업을 매듭짓는 인사지도자에 대한 공사 도수를 알고 있는가

천하사 도업을 매듭짓는 것은 종통의 바른 맥을 따라 정해진 인사 도수를 실행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제님의 인사대행자인 두 분 지도자와 관련된 공사와 도수들을 살펴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천지공사를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인사지도자 관련 공사 도수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제 확인해 보기

일꾼들의 도업인 ‘천하사’ 의 성사 기틀은 무엇인가

-일꾼이 집행하여야 하는 ‘천하사’ 의 공사 기틀을 크게 대별하면, 지리로는 간艮도수의 실현이고, 역사로는 오선위기五仙圍碁도수의 종결과 남조선南朝鮮도수의 실현이고, 인사로는 진주眞主도수의 실현인데, 증산도의 일꾼들은 바로 일월진주日月眞主를 모시고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매듭짓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오직 천지일월 4체의 종통맥 원리에 입각한 ‘일월진주’ 라야만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집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진주의 도맥과 정신을 따르는 일꾼들이야말로 진정한 천지공사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하사의 성사 기틀

[도전] ▶1:5(만물의 끝남과 시작이 동북 간艮방에서) ▶5:415:1~2(오선위기 도수의 종결-상씨름으로 종어간) ▶5:112, 6:83:4, 5:388, 5:306, 5:163, 11:121(남조선배 도수) ▶3:205:1, 5:226:8, 5:257:4, 5:296, 6:74(도운의 진주眞主 도수) ▶8:1:5(천지일월 4체의 도맥과 정신으로 도업을 이루는 일꾼)

천하사를 완성하는 인사의 법통맥을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가

-천하사를 온전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도운의 인사 법통맥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일월 4체의 자연법 원리와 인사의 천명(천륜) 원리로 종통맥을 전수하셨고, 실제 법통맥의 전수 공사는 수부님을 중심으로 한 1번 파종 및 세 살림 도수와 일월용봉의 인사대행자 두 분을 중심으로 한 2·3번 도운 추수 매듭도수로 틀을 정하셨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월간개벽 2014년 7월 통권 212호 <종통관> 공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통맥의 전수 원리

[도전] ▶6:1~2, 4:111:14~15, 11:251(천지일월 4체원리) ▶4:29(천명원리-천륜으로 우주일가)

●종통맥의 전수 공사(도운의 법통맥)

[도전] ▶11:19:10, 6:82:4(종통맥 도수의 선포와 세 살림 도수) ▶6:37, 6:39(진법 맥 수부종통도수) ▶10:27:3(사람 둘 도수) ▶6:8, 11:365:3(용봉도수) ▶6:128:5(종통맥이 사는 맥) ▶11:138(도통전수의 도맥공사)

도업을 매듭짓는 인사지도자에 대한 공사 도수를 알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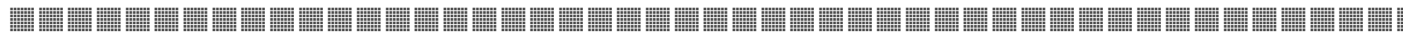
-상제님 천하사 도업의 최종 매듭은 현실 인사를 주관하시는 지도자 두 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분은 상제님의 대행자이자 일꾼들의 큰 스승이며 일월 진주 도수의 주인공입니다. 이법적으로는 도의 본원인 무극 상제님의 천지도업을 태극(水;月)과 황극(火;日)의 본체가 성사재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사지도자 두 분은 수화일체水火一體로 함께 움직이며 조화를 완성해 냅니다(6:9:4, 11:365, 6:8). 이와 관련된 도전道典 속의 인사지도자 공사 도수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화일체 인사지도자 도수

[도전] ▶6:1(도체를 바로잡으심) ▶6:2:7~8(상제님의 대행자·추수자인 대사부) ▶8:1:4(일월의 대사부) ▶5:356(사마소도수) ▶5:7(가구판도수) ▶5:207(문왕의 도수) ▶5:226, 10:145(독조사파방도수) ▶11:215,

6:75, 6:111(숙구지도수) ▶ 5:201, 5:206(천자피금도수) ▶ 5:7(대두목 판몰이 도수) ▶ 6:66:8(천지의 도정 집행 도수) ▶ 4:146(진리의 드러남 도수) ▶ 5:305:10, 5:108:6, 6:7:7(만사 성공의 말馬 공사) ▶ 6:61(일꾼 양육의 대학교 공사) ▶ 5:414(포교오십년공부종필 도수) ▶ 6:125, 2:101(도전간행도수) ▶ 5:121~134(천자부해상도수) ▶ 5:279(사부에 대한 도통맥 전수 의전 예법 공사) ▶ 5:337(육임도꾼 지도자 출세 공사)



3 매듭일꾼들의 사명

▶ 주제 생각해 보기

천하사를 매듭짓는 일꾼의 신앙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일꾼이 천하사의 대의를 올바로 실행하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세와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일꾼의 신앙자세는 무엇일까요?

일꾼신앙의 주요 사명과 수칙은 무엇인가

바른 천하사 신앙인이 되려면 일꾼으로서 실천하고 준수해야 할 사명과 수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꾼들의 진리사명과 신앙수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사 일꾼에 관련된 도전道典의 공사 도수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도전道典에는 천하사 일꾼에 관련된 중요한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천지 도업을 이루기 위해 행하고 갖추어야 할 천지공사의 도수들을 찾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 확인해 보기

천하사를 매듭짓는 일꾼의 신앙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천하사를 매듭짓는 일꾼에게는 기본 품성과 함께 바른 신앙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와 인사 집행의 명에 순종하고, 도전道典과 도훈道訓 말씀을 통해 신앙의 대의를 깨닫고, 교육·예법·수행·포교 등 진리 전수 행동을 실천하는 ‘근본신앙’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법이 강해지면서 사상신앙이 정립되며, 진리의 정법을 자각하고 체험하는 진법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정성(誠)과 공경(敬)과 믿음(信)을 바탕으로 한 일심신앙을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벽 일꾼의 바른 정신과 신앙자세를 주고받는 심법전수가 되어야만 우리의 천하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정신에 따른 세 가지 신앙 유형

[도전] ▶3:313(김형렬의 종통신앙-선불도수) ▶9:10(이도삼의 역사신앙-만물대전록) ▶3:283, 8:91, 3:272:3(김광찬의 개벽신앙-출장입상)

일꾼신앙의 주요 사명과 수칙은 무엇인가

-증산도 천하사 일꾼들은 신앙을 바르게 이끌고 완성해 가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일꾼의 3대 사명’을 늘 되새겨 보고, ‘신도 5대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꾼의 3대 사명은 후천개벽 의통성업 집행·후천선경 건설·생명개벽의 도통실현이고, 신도 5대 수칙은 치성 참석·봉청수 및 태을주수행 생활화·성금 헌성·육임포교 완수·증산도대학교 등 교육 참석입니다.

☞ 신도5대수칙에 대해서는 뒷부분 〈일꾼관 더 알아보기〉 공과 학습 자료를 참고하세요.

천하사 일꾼에 관련된 도전道典의 공사 도수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도전道典에는 일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와 도수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모두 천하사를 집행하고 성사시키기 위해 실천하고 지켜야 할 규범들이며, 때로는 한없이 큰 힘과 격려를 안겨 주는 성구들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심법과 수행 · 포덕 · 조직 · 體體공부와 用用공부 등에 대한 다양한 도수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사 일꾼의 공사 도수

[도전] ▶8:101:1~2(육임포덕도수;의통구호대도수) ▶11:360:4, 11:99:1~2, 11:236:2(천지공사를 매듭짓는 칠성도수) ▶8:118(일만이천도통군자도수) ▶3:6, 7:71, 9:205, 10:12, 10:56, 10:105(선매송자도수→생활개혁10대지침 이행) ▶2:91, 8:52~54, 8:57~58, 8:81~82, 10:62:1~2, 11:277:3~4(일심성경신도수) ▶2:58, 4:5:6~7, 8:22, 8:42, 8:62(성웅일체도수) ▶5:414(참회의 거백옥도수) ▶6:61~62(대학교도수) ▶4:18:3~4, 2:150(관왕문명도수) ▶8:105, 6:105(도장개창도수) ▶6:111(육임군속구지도수) ▶6:110(육임군조직철야수행 새올도수) ▶11:278(용用공부도수) ▶6:83(남조선배도수) ▶5:386(살구나무도수-하느님의 진리군사)



4 일꾼신앙의 열매

▶주제 생각해 보기

일꾼신앙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주어지는가

일꾼이 상제님의 진리 사역을 충실하게 집행하여 도업의 결과를 내면, 천지에 세운 공功에 대한 보은으로 일정한 도과道果가 주어지게 됩니다. 증산도 신앙에 있어서 공덕을 쌓은 일꾼신앙의 열매(보답)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주어지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통道通의 위격과 도격은 어떻게 열리는가

도전道典에는 장차 천하사 도업의 공덕에 따라 일만 이천 명의 도통군자가 나오게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에게 선망의 대상이기도 한 ‘도통道通’은 각기 위격과 도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왜 생기며 그 조화권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건설하는 후천선경은 어떤 세계인가

가을개벽을 극복한 후에 일만 이천 도통군자들이 건설하는 ‘후천선경’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입니다. 후천선경은 어떤 세상인가요?

▶ 주제 확인해 보기

일꾼신앙의 열매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른 일꾼 신앙을 열심히 해서 일정한 공덕을 쌓은 도생에게는 그 열매(道果)로서 품계品階와 보직補職이 수여되고, 도통道通도 받게 됩니다.

-품계는 각기 쌓은 공덕을 평가하여 후천의 도통과 복록의 자리매김을 나타내는 도의 등급(도군자·녹사장·종감·도감·사감 등)이며, 보직은 천하사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 국내외 지구촌에서 일하는 상제님 일꾼들의 봉사(역할) 직급 체계(수호사·포정·포감·육정·팀장 등)를 말합니다. 참 도과道果로 불리는 품계를 수여하는 데에 필요한 공덕功德 평정은 포교, 재정, 근본신앙, 조직봉사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며, 덕점으로 환산하여 승급되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열심으로 일한 일꾼에게는 천지 성령의 열매인 도통道通도 주어집니다. 흔히 도통을 요란하고 신통한 능력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도통의 핵심은 진실과 정의가 무르익은 인격의 성숙에 있으며(:『개벽실제상황』 496쪽),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상제님 신앙인의 실질적인 최후의 구원의 열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전』 6:129:3 측주).

도통道通의 위격과 도격은 어떻게 열리는가

-도통道通은 상제님 도의 조화 세계요 천지 성령의 결실입니다. 때가 되어 도통이 주어질 때 도통을 열어

주는 주체는 대도 인사의 주관자인 대두목이고, 각자의 닻은 바에 따라 위격과 도격이 다른 3등급의 차등 도통을 부여하게 되며, 지구촌을 누비게 될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를 출세시키게 됩니다. 모든 도과道果는 천하사의 공덕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일꾼들이 각기 시시로 닻은 공덕은 하늘이 뺏으려 해도 못 뺏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통을 주는 주체 : 대두목 (3번 추수 대도인사의 지도자)

[도전] ▶6:129, 6:135, 7:81(때가 오면 먼저 대두목 한 사람이 도통을 받은 후 → 대두목이 도통신을 거느리고 각 일꾼들에게 도통을 열어 줌)

●도통을 받는 대상 : 공덕을 닦은 천하사 일꾼

♣도통 부여의 기준들: [도전] ▶7:81(공덕功德의 대소) ▶6:129(닻은 근기根機) ▶6:133(각자의 기국器局)

▶8:24, 9:120(포덕布德 성과) ▶9:14(재덕財德)

●도통의 등급 : 3등급 차등 도통의 부여

[도전] ▶2:141(도통기한의 차등) ▶2:35, 6:134(용사用事의 차등) ▶7:81(치병治病의 차등) ▶8:118(지구촌을 누비는 12,000 도통군자의 출세)

●닻은 공덕의 절대성

[도전] ▶11:198:5(시시로 닻은 공은 하늘이 뺏으려 해도 못 뺏느니라)

일꾼이 건설하는 후천선경은 어떤 세계인가

- ‘후천선경’은 인류가 천지 이법에 의한 ‘대개벽大開闢’을 극복하고 난 후 맞게 되는 조화와 완성의 새로운 문명 세상으로서, 선천의 부조리와 모순들이 바로잡히고 자연自然과 신神과 인간人間이 현실 속에서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조화선경·현실선경(道典 2:17:8 및 축주)입니다.

-천하사 일꾼들은 의통성업을 통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이후에도 새로운 상생의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데 힘을 쏟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천하의 도주국道主國(7:83:8)이 되고 태전太田에 후천선경 건설의 뜻대(5:136:2)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후천의 세상은 ‘영성개벽의 선仙문화(선매송자 도수)를 바탕으로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성숙한 관왕冠旺도수(道典 2:150)를 여는 통일과 안정과 조화의 선仙 문명 세계입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24

팔관법 진리공과일꾼관2

팔관법 진리 공과 | ② 일꾼관 공과 학습 자료

▶종도사님이 일러주신 일꾼관 말씀

일꾼의 가장 중요한 공부는 천지부모의 심법 통하는 것

일꾼들이 팔관법 기본 틀을 통해 상제님의 기초 진리를 공부한다. 상제님의 새 진리 언어, 가을 새 문화의 깨달음의 진귀한 언어들을 공부한다. 그 진리의 바다, 진리의 눈이 천지공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부 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새 진리 세계, 천지부모 하나님이신 상제님 태모님의 심법을 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지일심 공부로서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자아혁신, 자기계발, 자기성숙의 공부다. 상제님 태모님의 마음론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다.

상제님은, “너희들은 매사에 일심을 가져라. 일심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 일심만 가지면 천하를 돌리는데 그 무엇이 필요하냐.” (道典 8:57, 81)고 하셨다.

또 태모님은 “믿는 사람 중에는 타고난 마음 그대로 믿는 원심자(原心者)가 있고, 착한 마음으로 믿는 선심자(善心者), 마음을 굳게 다져 믿는 결심자(決心者)가 있으며, 또 뜨거운 열정으로 믿는 혈심자(血心者)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一心者)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추리고 또 추려 내면 마침내 마음 심(心) 자 하나가 남나니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하느니라.” (道典 11:160:1~5)고 하시며 일꾼들의 마음공부를 강조하셨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성경신

우리는 대우주의 절대자 조화옹 하나님인 통치자 상제님을 모시고 있다. 또 천지의 어머니인 태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그 두 분을 대행하고 있는 진리의 주인, 십오진주(十五眞主) 도수를 받았다. 도수를 받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천명(天命)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가장 보람있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자리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경신(誠敬信)에 있다. 정성의 다른 말이 일심(一心)이고, 일심의 다른 말이 정성 공경 믿음이다.

정성(精誠)은 뭐냐? 끊임없이 참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근본 신앙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경(敬)이라는 건 뭐냐? 공경 경(敬), 이것은 집중하는 것이다. 정신이 깨어있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경(敬)이다.

신(信)이라는 건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도장(道場)과 하나가 되고, 도장 일꾼들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즉 사물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믿음 자리이다.

과감하게 나를 개혁하라

과감하게 나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 11편 205장의 태모님 말씀을 보라.

* 재생신 재생신, 이 몸 사업 재생신. 재생신 재생신이요, 조화 조화 만사지라. 지심대도술(知心大道術)이 니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사람이 될지니라. 천갱생 지갱생은 다 끝났으니 이제는 인갱생(人更生)이 크니라. 단주수명 우주수명(丹朱受命 宇宙壽命). (道典 11:205)

참 기가 막힌 말씀이다. “재생신 재생신 이 몸 사업 재생신 ” 먼저 몸 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다. 인간으로 오신 천지부모를 만나 내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지심대도술” 이라고 하신다. 상제님 도 문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선천은 금수대도술, 곧 금수의 탈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이것이 선천 공자·석가·예수 진리의 특성이면서 한계였다. 공자·석가·예수 진리가 나온 지 몇천 년 됐어도 인간이 금수의 탈도 다 못 벗었잖은가. 그런데 이번에는 지심대도술이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 천지의 마음, 만물의 마음을 환히 다 보고 안다.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될지니라.” 이것이 상제님 태모님이 지향하시는 후천선경의 내면의 목적이기도

하다. 깊은 마음의 문을 열어라. 상제님도 “마음 얇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고 하셨다. 앞 세상은 마음 안 닦은 게 가장 큰 한이라는 말씀이다. 그런 사람은 깊이가 없어서 남에게 폭 잡히기 쉽다. 대화를 해 보면, 축적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몇십 년을 만나도 도대체 폭을 잡을 수 없다.

그 다음 “재생신이요 조화조화 만사지” 다. 지금 이 말씀은, “몸 개혁이 안 되면 우주개혁이 돼도 소용 없다. 내 몸이 개혁되고 내 정신이 개혁됨으로써만,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상제님의 만사지 문명을 열 수 있다.” 는 말씀이다. 상제님 문명의 타이틀이 만사지다. 우리는 많이 알아야 한다. 자꾸 진리 듣고, 우주관 공부하고, 『도전』 읽고, 증산도 진리책, 개혁책, 우주변화 원리책을 읽고 깨져야 한다. 도문에 처음 들어 오면, 『도전』을 철저하게 읽어야 하는데, 우선 진리책을 통해 진리 맥을 잡는 게 좋다.

자기 몸으로 상제님 진리를 느껴서, 마음이 밝아지고 확신이 차올라야 세상을 사는 투철한 목적의식이 딱 박힌다. 그래야 상제님 도에 몸담고 있는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몸 개혁을 근본으로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똑바로 일꾼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려면 『도전』 잘 보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상제님 사업만을 위해 몸바치는 성직자의 길로 가려는 뜻을 품으라. 또 사업이나 가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은 현실생활에 충실하라.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을 다 바쳐 상제님 일을 위해 뒷받침해줘야 증산도가 이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다. 그들도 다 큰 일꾼 노릇 하는 것이다.

몸개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 새벽시간을 활용하라

늦게 자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절반은 실패한 인생이다. 늦게 잠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생활 틀이 다 부서진다. 사물을 바르게 못 보고, 생각을 바르게 못하고, 몸도 항상 나른하다. 그러니 절대로 일이 안 된다. 천리를 어기니까 건강도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는 천지의 맑은 기운을 받아 머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30분 일하는 게 낮에 두 시간 세 시간 하는 일하는 것보다 낫다.

- 규칙적 생활

상제님께서 남조선 도수 공사를 보실 때, 성도들이 다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 죽음의 관문, 역사의 시련을

거쳐서 남조선 배가 후천선경에 상륙하는데, 상제님은 “밥이나 제때 먹어야 하리라.” 하셨다. 그 ‘제때’를 놓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잠자는 것도 제때에 자고, 밥 먹는 것도 제때에 먹어야 한다. ‘몸의 정기를 길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지와 하나가 되느냐? 나 자신의 신앙의 의지와 천지사업 경영 마인드가 어떻게 이 자연과 하나가 되느냐?’ 그걸 이루는 것이 천하사 일꾼으로 성숙하는 관건이다.

– 정기관리를 잘하라

겨울에 활동할 때는 몸을 춥게 하면 안 된다. 양말도 좀 두툼한 걸로 신고, 목도리도 두르고, 장갑도 준비하라. 자신의 몸이 따뜻해야 걸어다니면서도 여유가 생긴다. 절대로 몸을 차게 하면 안 된다.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일체 몸을 해하고 건강에 나쁜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라.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정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라.

– 항상 허리를 반듯이 펴라

도장이나 가정에서, 또 근무하는 사무실의 의자에서 순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허리를 꼳꼳하게 펴고 앉는 습성을 붙여야 된다. 사람의 몸에서 척추는 하늘과 땅을 받치는 기둥과 같다. 허리를 반듯하게 하면 의지의 힘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심지가 강해진단 말이다. 허리를 곧게 펴므로써, 천지의 심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웅지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주문을 읽고 자꾸 깊은 체험을 하면, 자연적으로 허리를 반듯하게 펴게 된다.

– 따뜻한 물로 몸을 씻어라

졸리고 나른할 때는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 대중탕 같은 데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도 좋다. 암만 피곤한 몸도 물속에 5분만 있으면 수생목(水生木)해서 생기가 솟구친다.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물을 좋아한다. 왜? 물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 자체도 사실은 다 물로 구성돼 있지 않은가.

– 산책하며 사색하라

포교활동을 하다가 지치면, 해 떨어질 때쯤 근처 공원이나 가까운 산으로 산책을 가는 것도 좋다. 몇 명이 산책을 할 때는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서로 3미터 내지 5미터 정도 떨어져서 시원한 공기 쏘이면서 입을 짹 다물고 걷는 게 좋다. 태을주 묵송을 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 한 10분 걸어가다가 가볍

게 뛰기도 하고, 벤치에 편하게 앉아서 정신을 풀어도 좋다. 그렇게 한 40~50분 정도 높은 데 낮은 데로 걸어다니면, 다리 힘도 붙고 폐활량이 늘어나면서 모든 묵은 기운이 다 씻겨 나간다.

상제님 추수일꾼은 상제님 도 사업 집안에서만 나온다

상제님 말씀을 보면, 고목에서 움이 돋아 앞으로 일할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곧 추수하는 일꾼, 상제님 일을 대행해서 분신이 되어 매듭을 짓는 이는, 상제님 신앙을 하는 집에서 태어나, 상제님의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길을 걸어간다. 상제님의 추수 일꾼은 반드시 상제님의 도 사업 집안에서만 온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역사를 창입해서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의식을 체험적으로 못 느끼면, 지금 내가 하는 애기 자체가 모두 실감나게 안 느껴진다. 지금 상제님이 여섯 성도 가운데 이치복 성도에게, 내가 이제 일할 사람을 만났다고 하신다. 상제님이 왜 어천하시기 한 5개월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상제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신앙의 도맥 인맥 법맥을 따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상제님 신앙의 분위기에서 커서, 자연스럽게 상제님 일만을 하는 인생 궤도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두목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둥, 갑자기 온다는 둥 그런 자들은 상제님의 역사를 모독하고, 일반 상식적인 인간역사의 개창 과정과 역사의 기강을 송두리채 무너뜨리는 것이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 우리가 쪽 다녀보면 길 닦고 저수지 하나 만들어도 추모비를 다 세우고 그 공력들을 기려주고, 일한 일꾼들을 찬양하는 쇠구도 넣어주고 그러잖는가. 조그마한 한 지역의 도로공사 수로공사를 하는 데도 술한 공력이 필요한데, 인간의 피와 땀을 깃들이지 않고 맺어지는 인간사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허황되게, 어느 날 갑자기 불과 몇 사람이 나타나 하루아침에 뭘 한다는 것인가.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역사의 맥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또한 동시에 종합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면, 결코 그런 샅된 소리를 하거나 상제님 진리를 제멋대로 해석하지 않는다. 도를 전하다 보면, 신앙하는 척하면서 제멋대로 진리를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 머리에 들어있는 상식, 자기 생각, 세속적인 지식으로, 상제님 도수를 잣대질하고 심판하고 자기들 구미에 맞춰 해석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포교가 빠르다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나라는 한 개인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다. 천지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성령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손길로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따 담는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천지 부모님의 진리의 영을 넣어 줘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연다.

그렇지 않으면 포교가 안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포교가 빠르다. 포교가 될 사람을 만난다. 천지 부모님이 ‘저 사람은 내 자손이니까 가서 진리를 전해 줘라’ 하고 성령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포교가 재미있고 아주 적극적이 된다. 포교를 하지 않고는 건디질 못한다. 천지 성령이 내 몸과 마음속에서 사역하기 때문이다. 그 천지 조화성령을 받아 내리는 주문이 바로 태을주다. 그러니 우리 일꾼들은 자나 깨나 염념불망으로 태을주를 읽어야 한다.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을주가 입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라.” (道典 7:74:9)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태을주를 입에 달고 다녀야 한다.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최종결론, 육임완수와 칠성도수

그대들은 앞으로 오는 개혁의 실제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는 관건인 육임조직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유약하고 문제의식 없는, 상제님 진리의 대의에 몽매한 일꾼이 아니라, 상제님 도업을 반드시 인사로 이루고 말겠다 하는 진정한 일꾼이 돼 주기 바란다.

상제님 일은 결국 ‘육임 판짜기’에 달려있다. 판을 잘 짜야 한다. 그러면 육임을 어떻게 짜야 하는가? 본질적으로 왜 우리는 육임을 짜야 하는가?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 육임완수다. 상제님 도를 받아 그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도道を 세상에 환원하는 것, 즉 상제님 태모님과 세계 창생들의 생명을 진리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하여 그들을 후천선경 세계로 인도하고 성숙한 가을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궁극의 인간 구원의 대역사, 그것이 바로 육임 짜기다.

육임六任이란 여섯 육六 자에 맡길 임任 자다. 한 생명을 개혁의 실제 상황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꾼 여섯 명이 있어야 한다. 그게 육임이다. 그리고 그 여섯 사람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 한 사람을 더하면 일곱인데, 상제님께서 이것을 칠성도수에 붙이셨다. 『도전』 11편을 보면, 그 공사의 첫머리에 태모님이 고민환 성도에게 “민환이 나의 대행자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청년 일곱 사람을 불러다 칠성七星 용정用政공사를 보신다. 이 칠성도수가 육임조직 도수다. 육임조직의 주관자를 합해서 칠성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오셔서 천지의 이법으로 죽이는 총체적인 죽음, 그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가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칠성도수요, 상씨름꾼의 대역사다. 바로 이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간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동방의 해 뜨는 곳에서 나오는 인류 구원의 메시아 일꾼이 바로 상두쟁이다.

박공우 성도도 이 상두쟁이란 언어가 이해가 안 돼서 “상두쟁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상제님이 “상두는 복두니 칠성이니라.” 고 하신다. 그런데 복두를 잘 모르니까 ‘상두는 복두니’ 그 말 씀에서 끝내시지 않고 다시 “칠성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우리는 칠성도수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 상두쟁이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 즉 “상두는 복두니 칠성이니라.” 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해야 한다. 그리하여 칠성도수 성령관으로 속 들어가 실제 사람을 많이 살리는 칠성도수 포교를 성사 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화성령을 받은 상씨를 일꾼의 사명이다.

이신사 도표를 보면, 가을의 추살 도수에 의해 병란병란(兵亂病亂)도수가 오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도에서는 칠성도수다. 칠성도수는 천지이법으로 죽는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건져내어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지 조화성령의 조화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인사로는 칠성도수 일꾼들인 의통구호대가 나오는 것이요, 지금의 육임 도꾼, 제세핵랑군이다.

일꾼신앙의 전범典範, 신도5대수칙

첫째, 도장 치성 참석

도장은 상제님과 태모님을 비롯한 천지신명을 모시는 성소이며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의 중심 자리이다. 또한 개벽기에는 의통성업을 집행하는 센터가 된다. 도장 치성에 참석하지 않으면 상제님·태모님과의 영적 만남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인사人事로 집행되는 도정道政 소식을 알지 못하여 결국 상제님 신앙인으로서 생명력이 고갈되고 만다. 치성은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성스러운 법광(기운)을 받아내림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개벽기 천지도업을 준비하는 신앙예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장과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장 치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둘째, 봉청수 및 태을주 수행 생활화

수행은 신앙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다. 오직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만 건실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상제님 도를 체험적으로 깨칠 수 있다. 일꾼이라면 누구나 아침, 저녁으로 청수모시고 기도드리며 태을주 수행과 도공道功을 함으로써 천지 조화성령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내려야 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며 생활이 건강해진다.

셋째, 천록(성금) 헌성

성금 헌성은 신도의 신성한 의무이며 권리이다. 상제님 제단에 성금을 헌성하는 것은 곧 정성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며, 천하사의 군자금과 인류 구원의 포교 재원을 마련하는 뜻깊은 일이다. 도장의 주인인 일꾼은 도장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복록금福祿金을 헌성하고 동시에 세상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명금壽命金을 헌성해야 한다. 성금을 헌성하는 것은 마음을 열어주고 일꾼으로 성숙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다.

넷째, 육임 포교 천명(칠성도수) 완수

상제님의 도道는 개벽할 때 사람 살리는 진리이므로, 천하사를 하는 도생이라면 마땅히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이 최소한 6명을 포교하라고 천명天命을 내리셨다. 육임 포교는 개벽 실제상황에서 사람을 건져낼 때는 칠성도수 의통구호대조직으로 전환된다. 포교에 힘쓰는 만큼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증산도대학교 등 교육 참여

일꾼은 증산도대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에 최대한 참석하여 진리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입체적인 깨달음을 열어야 한다. 철저히 체험하고 많이 아는 만큼 상제님 일을 잘할 수 있다. 틈만 있으면 『도전道典』과 어록, 『환단고기』 등 진리 서적들을 읽어서 진리를 깨치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이 담긴 오디오 자료들과 태상종도사님·종도사님의 도훈 말씀을 수시로 경청하여 그 가르침을 새겨야 한다.

우주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칠성도수

칠성도수

칠성도수七星度數란 가을개벽의 긴박한 상황에서 태을주와 의통으로 인류구원의 성업을 완수하는 육임도꾼을 조직하는 것이다. 육임도꾼은 칠성도수에 따라 한 명의 지도자와 여섯 명의 사역자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된다. 칠성도수를 완수한 일꾼들은 선천인간을 후천가을의 선仙의 조화세계로 인도하게 된다.

우주의 최고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는 원시반본의 가을개벽 정신에 따라 신교의 칠성사상을 ‘칠성도

수' 로써 현실 역사에 부활시키셨다. 칠성도수는 가을개벽의 실제상황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호대 조직의 바탕이다.

이러한 칠성도수 포교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는 우선 네 개의 큰 기둥이 받쳐져야 한다. 그 네 기둥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1. 참회와 기도

참회는 꾸준한 기도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기도는 늘 참회를 근본으로 하는 일꾼신앙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자기 신앙의 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으며, 상제님 천하사에 임하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바로 잡는 노력을 할 수 있다.

2. 진리의식(성구암송)

성구를 철저히 주문 이상으로 제대로 외울 때 진리의식이 터져 나온다. 진리의식!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영적생명의 동력원이다. 진리 말씀은 선천 상극의 묵은 역사를 완전히 문 닫아 버리고 새 우주 역사를 활짝 여는 일꾼들의 창조적인 역량의 출원지다.

3. 천지일심

천지일심 공부가 성숙이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천지일심 공부를 하려면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말씀 성구를 암송하고, 천지와 내가 하나 되는 수행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하늘과 땅, 이 천지부모에 대한 생명의식을 생활 속에서 감성적으로 느끼고 체험적으로 하나 된 일심을 경험할 수 있다.

4. 조화성령

조화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람을 제대로 살려 낼 수 없고 성공하는 포교를 할 수 없다. 꼭 되는 방법 그게 바로 조화성령을 받는 것이다. 상제님의 도수를 받아 하나님의 천명으로 반드시 된다는 강력한 믿음은 바로 조화성령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꾼의 포교철학

항상 심고하고 수도하라

- * 참사람이 어디 있느냐. 참사람을 만나야 하리니 춘하추동 사시절에 일시라도 변치 말고 성경 신 석 자로 닦으면서 진심으로 고대하면 참사람을 만나리라. (11:277:3~4)
- * 너희가 어느 때 어디서든지 내게 지성으로 심고하면 내가 받으리라. (8:38:7)

항상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라

- * 예로부터 생이지지(生而知之)를 말하나 이는 그릇된 말이다. 천지의 조화로도 풍우(風雨)를 지으려면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2:34:1~2)
- * 우리 공부는 용(用)공부니 남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 두라. 마음은 성인의 바탕을 갖고 일은 영웅의 수단을 가지라. 되는 일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 되게 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11:278:1~3)

천하사는 직접 뛰어다녀야 한다

- * 천하사는 글만 가지고 안 되나니 직접 뛰어다녀야 하느니라. (5:434:3)
- * 발을 잘 돌리면 그 날 재수가 있어 좋은 일이 생기고 발을 잘못 돌리면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나니 일의 승패가 발 때는 것에 달려 있느니라. (8:109:3~4)

언제 어디서나 세 번은 권해 보라

- * 가장 큰 공부는 입 공부니라. 세 번은 권하여 보아라. 공은 포덕(布德)보다 더 큰 공이 없느니라. (8:24:2)
- * 선배는 반드시 몸에 지필묵(紙筆墨)을 지녀야 하느니라. (8:24:1~3)

모든 사람이 알기 쉬운 말을 하라

- * 말할 때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문자를 써서 유식함을 자랑하고자 하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서 무엇하리오. 남이 모르는 어려운 문자를 써서 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알기 쉬운 말을 하라. (8:24:4~5)
- * 공부는 입 공부가 가장 크니라. (5:434:5)

태을주로 포교하라

- * 태을주라야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廣濟蒼生) 하느니라. 태을주 공부가 치천하(治天下) 공부니라. (5:360:6~7)
- * 천하생명을 태을주(太乙呪)로 살린다. 태을주로 천명(天命)을 이루느니라. (8:101:6)

성공하는 포교의 도

1 조석 봉청수와 기도, 새벽 수행을 통해 천지 조화성신을 받는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청수를 모시고, 사람을 살리게 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수행을 생활화한다.

2 살릴 생생 자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포교에 대한 열정이 간절해야 한다.

상제님 태모님께서 부여해 주신 천명을 항상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포교 성패의 첫 관문은 나의 간절함과 의지, 열정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도훈 말씀의 핵심 정수를 잘 따담아 적극 활용한다.

도훈 말씀을 받드는 시간은 천지의 정수를 그대로 내려받는 순간이다. 말씀을 따담았느냐, 못 따담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신앙과 포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4 건강관리로 기본 체력을 유지한다.

천지의 일꾼으로서 나의 몸은 상제님 태모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천지의 수족임을 철저히 인식하여 정기精氣를 훼손하는 일을 일체 삼가야 한다. 주기적인 산책과 운동, 등산 등으로 자신의 여건에 맞게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한다.

5 항상 ‘천지일월 부모님과 함께한다’ 는 마음으로 현장 중심 신앙을 한다.

아무리 마음이 가상해도 현장에 나가 포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상제님, 태모님과 함께 포교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에 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한다.

6 배례와 기도로 묵은 기운을 극복하고 대상자를 위해 사무치는 정성을 들인다.

참회 배례와 기도로 묵은 기운을 벗어 던지고, 천지신명들과 대상자의 조상신이 믿고 의지할 정도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

7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로 일심하라.

실패를 이겨 낸 사람만이, 자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포교를 할 수 있다.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과 부딪혀 세상을 배우고 사회를 배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공할 때까지 일심해야 한다.

8 책을 집중해서 보고 핵심을 자신있게 전한다.

내가 독서한 만큼 대상자도 책을 본다는 생각으로 주요 도서의 핵심 내용을 새로운 마음으로 줄치고 접고 메모한다.

9 STB상생방송과 지역세미나 등 각종 진리 문화 수련의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

개인적인 역량으로 포교할 수도 있지만 STB상생방송과 북콘서트, 대천제, 지역세미나 등 다양한 진리 문화의 매체 및 교육의 기회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대상자의 인도 및 수련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10 염념불망 태을주를 읽는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태을주를 읽어야 한다. 계수기를 항상 휴대하고 목표를 세워 읽으면 태을주를 염념불망 읽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병장수를 위한 일꾼의 생활개벽(선매송자도수)

- 1 정기를 확장한다.
- 2 진리의식이 충만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 3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 4 봉사하는 상생의 삶을 산다.
- 5 자기 몸에 부족한 것(운동, 영양분, 기질 등)을
알맞게 보충하여 체질 개선을 한다.
- 6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공기, 물, 음식,
스트레스 등)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조절한다.
- 7 숙면(자연의 잠)을 하고 영혼의 잠인 수행을 생활화, 체질화한다.
- 8 수명을 단축시키는 과욕, 격한 감정,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
공격적인 성격, 조급한 마음 등을 잘 다스려 매사에 과불급(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을 피한다.
- 9 무슨 일이든 마음을 비우고 무심無心の 경계에서 한다.
- 10 심법을 닦는다. 특히 상제님께서 전수하신 중도 심법은 만 번 자빠져도 만 번
일어나는, 일만 만萬 자 가운데 중中 자, 만중萬中 심법이다.



첫 번째의 정기 확장과 마지막의 만중 심법이 안 되면 나머지 여덟 가지가 생활화되어도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없다. 성의식을 혁신하고 정기를 더럽히는 일체의 쓰레기 문화를 멀리하라.

후천선경의 생활문화

‘후천 선경’은 인류가 모든 상극 질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영성과 조화의 상생 질서를 이루며 사는 통일과 결실의 문명 세계이다. 상제님께서 후천선경 세상의 여러 생활 모습들에 대해 일러주셨는데, 마치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도전道典 속의 후천선경 생활문화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한다.

| 후천문명의 지표 | 후천선경의 생활문화(도전 말씀) |
|-----------------------|--|
| ●우주일가의 선경도 술문명 | <p>-후천에는 도술 문명의 대운이 우주 저 끝까지 통합으로써 모든 인류와 전 우주가 한 가족이 되어 결실의 도술문명道術文明을 건설함(5:306:6)</p> <p>-천하의 모든 언어동정을 통일하여 조금도 치우치거나 막힘이 없음(7:4:1)</p> <p>-위세와 무력과 형벌을 쓰지 않고 조화로써 창생을 다스리되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함(7:4:2)</p> <p>-벼슬아치는 직품職品에 따라 화권化權이 열리므로 분의에 넘치는 폐단이 없음(7:4:3)</p> <p>-덕德을 근본으로 삼아서 모든 복록과 영화를 찾게 됨(7:4:6)</p> <p>-가가도장과 인신합덕으로 인인人人이 성신聖神 되는 낙원 세상(7:1:5)</p> |
| ●정교일체의 군사부 君師父문명 | <p>-선천은 성聖과 옹雍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나뉘었지만 후천에는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가 되는 정교일체政敎一體의 문명이 열림(2:27)</p> |
| ●조화로운 생활 환경 | <p>-후천은 기울어졌던 지축이 바로 서기 때문에 사계절이 늘 봄과 같이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유지되며, 극한극서가 없어지고 홍수, 태풍, 가뭄 등 일체의 자연재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됨(7:5:2,6)</p> |
| ●화평和平한 사회상 | <p>-인간 삶의 구조와 환경이 성숙되므로 사람들의 원한冤恨과 상극 및 사나움, 탐심, 음탕함, 노여움, 번뇌 등이 그치고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和氣가 무르녹게 되며, 생활 언행이 도덕에 합치되는 사회가 됨(7:5:1~2)</p> <p>-조화로 다스려 말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며 서로 극하는 이치와 죄악이 없는 세상이 됨(2:19:1~2)</p> |
| ●수명·체형 등 인간생 명의 변화 | <p>-후천에는 세계 창생들이 다시 젊어지고 흰머리가 나지 않으며 허리도 굽지 않게 되는 갱소년更少年 도수가 전개됨(11:298)</p> <p>-인간의 쇠병사장衰病死葬을 물리쳐 불로장생의 장수문명이 열리므로 상등은 1200세, 중등은 900세, 하등이라도 700세를 살게 되어 백 리 안에 할아버지가 셋이면 손자는 하나인 세상이 됨(7:4:4, 11:299)</p> <p>-때가 오면 모두가 환골탈태換骨奪胎 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채玉骨風采가 됨(7:4:5, 7:59:5)</p> <p>-여성의 월경이 없어지게 됨(5:288:6)</p> <p>-앞 못 보는 맹인도 없어지게 됨(5:261:7~8)</p> |
| ●풍족하고 균등한 복 록과 수명 | <p>-빈부의 차별이 철폐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빼단이 칸에 나타남(7:5:3)</p> <p>-창생의 수명도 명부冥府가 아닌 중천신계中天神界에서 책임을 맡아 균일하게 결정하고 복록은 천지에서 평등하고 넉넉하게 정해 후천 오만년 동안 끊이지 않고 배풀게 됨(11:236:3~4, 11:360:6)</p> <p>-공덕에 따라 복록을 받음(7:21)</p> <p>-굶어 죽는 폐단이 없고, 자식 못 두는 자도 없으며, 부자는 각 도에 하나씩 두고 그 나머지는 다 고르게 하여 가난한 자가 없게 되므로 후천 백성이 선천 제왕보다 나은 생활을 하게 됨(7:87)</p> |
| ●시공의 제약 극복 | <p>-운거雲車를 타고 공중을 날아 먼 데와 험한 데를 다니고 땅을 주름잡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경각에 왕래하게 됨(7:5:4)</p> <p>-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게 되고 지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와十方世界의 모든 일에 통달하게 됨(7:5:5)</p> |
| ●신명이 수종드는 인 존문명 | <p>-후천은 언청계용신言聽計用神의 때로서 선천과 달리 신명이 사람을 받들게 되므로, 모든 일은 자유 욕구에 응하여 신명이 수종을 들게 됨(7:5:7~9)</p> <p>-후천은 심통心通 공부를 바탕으로 한 지심대도술知心大道術의 세상이 됨(11:250:8)</p> |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팔관법 진리 공과 | ③ 일꾼관 공과정리

일꾼관 전하기 문답 정리

1. 상제님 천지 도업을 인사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천하사)일꾼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일꾼’이라는 말은 진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2. 도전道典이나 도훈道訓 말씀 중 천하사 일꾼이 가져야 할 기본 덕성과 바람직한 인간상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3. 일꾼의 품성과 자세 못지않게 천하사 현장에서 인사人事로 집행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꾼의 기본적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천지 도업에 종사하는 일꾼들이 집행해야 할 진리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요?
4. 일꾼들이 천하사天下事 도업道業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정해놓으신 도업의 바탕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현되는지를 명백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道典에 담겨 있는 ‘천하사의 기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5. 일꾼은 상제님 도업의 바른 종통맥을 따라 천하사를 성사재인 하는 인사의 사역꾼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의 이치로 정하신 인사의 종통맥(법통맥)을 분명하게 재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천지공사 도운의 인사 종통맥을 이해하고 나면 최종적인 3번 도운의 결실 인사를 매듭짓는 상제님의 대행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꾼들의 큰 스승으로서 천지공사를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인사지도자 관련 공사 도수들을 설명해 보세요.

7. 천하사에 종사하는 사역 일꾼들의 신앙관과 진리의식은 진리 수호와 신앙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천하사의 대의를 올바로 실행하고 매듭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일꾼의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요?

8. 바른 천하사 신앙인이 되려면 일꾼으로서 실천하고 준수해야 할 3대 사명과 5대 수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9. 도전道典에는 천하사 일꾼에 관련된 중요한 성구들이 많습니다. 일꾼들이 천지 도업을 이루기 위해 갖추고 실천해야 할 천지공사의 도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증산도 일꾼이 상제님의 진리 사역을 잘 집행하여 공덕을 쌓으면 그에 대한 보은으로 일정한 도과道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11. 도전道典에는 장차 일만 이천 명의 도통군자가 나오게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도통 조화권은 어떻게 열리는지를 설명해 보고, 각기 위격과 도격이 다르게 도통이 수여되는 이유도 서술해 보세요.

12. 가을개벽을 극복한 후 일꾼들이 건설하는 후천 조화선경은 어떤 세상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간개벽. All rights reserved.

팔관법 진리공과

블로그

상생의 대도 相生之大道

<http://blog.daum.net/chhw9999>

저자

태을핵량군

발행일

2016.11.04 20:13:19

 블로그